

“문헌 속 여성에 대한 표현 방식과 당대 인식과의 상관성연구:
 <남원고사>와 <열녀춘향수절가>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조남민(한기대) 1

“남원 윤씨 열행 기록 <애종용> 연구- 유서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홍인숙(선문대) 3

“<노처자전>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

탁원정(평택대) 17

“현대소설에 나타난 젠더의 교차성”

박구비(한신대) 31

“196,7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동성사회성과 문학의 젠더”

허윤(부경대) 41

“한국 현대시와 퀴어”

정끝별(이화여대) 53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문자론적 특징”

문현수(고려대) 55

토론 : 허인영(고려대)

“〈화문록〉 속 시녀 난화의 역할과 의미”

최수현(세명대) 73

토론 : 김인경(순천향대)

“北學과 兵學의 정치학”

김홍백(서울대) 75

토론: 이연순(성신여대)

“구미호, 외계인, AI- 판타지 장르의 (탈)인간 담론의 반복과 재현”

김강원(고려대) 109

토론 : 한승우(중앙대)

“교수학습과정에 나타난 학습연계글쓰기(WTL)효과성 검토-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안상원(부산외대) 125

토론 : 송주현(한신대)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연구”

진선영(이화여대) 141

토론 : 김윤정(이화여대)

문헌 속 여성에 대한 표현 방식과 당대 인식과의 상관성 연구 :

<남원고사>와 <열녀춘향수절가>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조남민(한기대)

<별지>

남원 윤씨 열행 기록 <애종용(哀從容)> 연구
- 유서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과 유서 언어의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인숙(선문대)

<목차>

1. 서론
2. <애종용> 텍스트의 두 개의 생애 서사- 「언행록」과 ‘유서’
 - (1) 「언행록」- 공식적 생애 기록, 규범화된 생애 서사
 - (2) 유서들- 관계성을 중심에 둔 또 다른 생애의 재현
3. 비가시화된 여성 중심 관계성, 그리고 열녀 유서의 번역 불가능성
4. 결론

1. 서론

<애종용>은 1976년 이상보에 의해 발굴된 15장 분량의 한문 필사본¹⁾으로, 18세기 후반 남편을 따라 자결한 남원 윤씨(南原 尹氏, 1768~1801)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²⁾ 이 글은 <애종용(哀從容)>³⁾에 실려 있는 윤씨 부인의 생애 기록과 유서를 통해, 유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맺었던 관계성의 의미와 여성 재현, 언어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텍스트에는 총 세 개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한문으로 쓰인 윤씨의 생애자료 성격의 기록인 「공인 남원 윤씨 언행종용록(恭人南原尹氏言行從容錄)」(이하 「언행록」), 남원 윤씨가 부모와 친지, 중들에게 남긴 한글 유서를 한문으로 번역해 남긴 한역(漢譯) 유서 9편, 국문으로 된 가사 작품 「명도자탄사(命道自歎辭)」가 그것이다.

그간 <애종용> 텍스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작품은 「명도자탄사」이다.⁴⁾ 이는 이 작품이 높은 서정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4·4조의 운율을 가진 국문

1) 이 자료는 이상보, 진동혁의 개인 소장본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단국대학교 울곡도서관(천안)에도 필사본 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국대학교 소장본의 형태 사항은 ‘線裝 1卷1冊(15張), 無界, 10行, 字數不定, 25.0×18.5cm’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2) 이 자료에 대해 보고한 최초의 연구는 이상보, 「命道自歎辭 小攷」, 『明知語文學』 제8호, 명지어문학회, 1976. 2. 이다. : 이후 1985년 진동혁 역시 <애종용>의 이본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면서 텍스트 전체 원문을 영인하여 실었다. 진동혁, 「恭人 南原尹氏의 <命道自歎辭> 研究」, 『論文集』 19, 단국대학교출판부, 1985. 진동혁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보 본과 진동혁 본은 모두 ‘윤씨 집안의 당숙 후손’ 쪽에서 전해지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 두 이본은 글자 한두 개의 첨입 여부 외에 필체와 내용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진동혁의 연구에 실려 있는 한문 영인본을 참고하였다.

3) ‘종용(從容)’은 유교에서 여성의 덕(婦德)으로 제시한 ‘삼종(三從)을 따르는 모양’, ‘순종하고 따르는 모양’이라는 뜻이며, ‘애종용(哀從容)’은 ‘종용함을 슬퍼함, 순종하며 남편을 따름을 슬퍼함’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규방가사로서의 장르성이 뚜렷하다는 점, 생물연대가 밝혀진 분명한 여성 작가의 가사라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상대적으로 <애중용>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혹은 남원 윤씨의 유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었는데,⁶⁾ 최근 열녀 유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윤씨의 유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⁷⁾ 다만 여러 열녀들의 유서와 함께 언급되는 과정에서 이 유서만의 변별적인 지점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은 편이었다.

이는 원래 국문으로 쓰인 윤씨의 유서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남성 문인들이 번역한 한문 유서 형태로만 남아있다고 하는 자료적 정황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열녀 유서들이 여성의 문자 체계인 한글로 죽음 직전의 자기 소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윤씨의 유서는 작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즉 사대부 남성의 언어인 한문이라는 표기 체계에 의해 ‘간접화되고 굴절된 자료’, ‘원본이 아닌 자료’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⁸⁾

-
- 4) <명도자탄사>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보(1976), 앞 논문. ; 진동혁(1985), 앞 논문. ; 오종각, 『『命道白嘆辭』의 形態와 內容考察』, 『도솔어문』 2, 단국대학교 국문과, 1986. ; 길진숙, 「<命道自歎辭>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술회」, 『한국말글학』 18, 한국말글학회, 2001. ; 박경주, 「18세기 絶命歌辭에 나타난 士大夫家 女性의 殉節意識 연구:『絶命詞』와 『命道自嘆辭』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 김경미, 「열녀전을 통해 본 전통 부부 윤리의 문제」, 『동양한문학연구』 16, 동양한문학회, 2002.
- 5) 작품을 학계에 최초 발굴하여 보고한 이상보와 진동혁이 모두 고전시가 연구자였다는 점도 이러한 연구사적 편향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애중용>의 초기 연구자들은 대개 이 자료를 엮은 조선 후기 상층 남성의 관점에 동일시된 시선으로 윤씨의 가계와 생애, 성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명도자탄사』는 士大夫 집안의 여성으로서 죽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같이하는 烈婦의 작품인 점에서 일찍이 국문학사상 찾아볼 수 없던 슬픈 노래(悲歌)로 그 기교의 능숙함에 있어서도 가사문학 작품으로 매우 뛰어난 것이다.’ 이상보(1976), 앞 논문, 191면. ; ‘윤씨의 자결은 애석한 일이나 그와 같은 열녀의 탄생은 당대에도 드문 일로 참된 婦道를 실천한 龜鑑으로서 타의 典範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로 인하여 한씨가에서는 烈女 旌表가 내릴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진동혁(1985), 앞 논문, 7면.
- 6) 남원 윤씨의 한문본 유서는 진동혁이 최초로 번역했으며 그의 국문 번역은 윤씨 유서에 대한 1차적인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자의적인 단락 구분을 많이 두어 가독성이 낮고, 유모에게 남긴 ‘후록(後錄)’, 본가 당숙에게 남긴 ‘건기(件記)’와 같은 물건 목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복되는 ‘서울로 물건을 사러 보냈다’는 표현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후록과 건기(件記, ‘경무기(京貿記)’라고도 되어 있음)는 번역에서 제외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진동혁(1985), 앞 논문, 16~21면. ; 권호는 윤씨의 유서를 서사 단락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단락 요약은 진동혁의 번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후록, 건기는 생략하였다. 「언행록」에 언급되지 않은 유서 내용이나 인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 단락 요약도 생략이 많다. ‘내가 죽은 뒤 3년을 기다리지 말고 환곡을 다 갚은 후 마음대로 가라. 금이의 면천하는 일은 ……」(점열에게 준 유서 중 제3단락) ‘과 같이 단락 내용을 미처 끝맺지도 않은 상태로 문장이 끊기고 아무 설명 없이 말줄임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다. 권호, 『비지, 애사 및 유서류 연구: 특히 한글 유서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 논문, 1993. 67~72면.
- 7) 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열녀 유서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권호(1993), 앞 논문 ; 김정경, 「조선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 재녕 이씨, 남원 윤씨, 서녕 유씨, 서흥 김씨 유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53, 국제어문학회, 2011. ; 이흥식,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유서 창작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앞의 두 연구는 윤씨의 유서 9편을 서사 단락별로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열녀 유서들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흥식은 여성 유서류를 열녀, 비열녀의 것으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남원 윤씨의 작으로는 유서가 아닌 <명도자탄사>를 언급하고 있다.
- 8) 김정경은 윤씨 유서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남원 윤씨의 유서를 한문으로 옮길 때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손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서가 남성에게 의해 번역된 것뿐이기에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김정경(2011), 위 논문, 15면. 그는 윤씨와 다른 조선후기 열녀들이 남긴 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의 ‘순절 지연’이 ‘희생양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

이 글에서는 <애중용>의 세 자료 중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앞의 두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윤씨 유서가 현재 남아있는 형태, 즉 애초에 윤씨가 한글로 쓴 원문은 사라지고 ‘한문본’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현전 자료의 형태 자체를 적극적인 해석의 지점으로 전유하고자 한다. 이 때 초점은 윤씨의 생애에 대한 두 서사적 재현, 즉 사대부 남성들이 남긴 윤씨에 대한 「언행록」과 윤씨 자신이 남긴 ‘유서’ 사이의 거리이고, 그 사이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중심 관계성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윤씨의 유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조선후기 여성의 말을 둘러싼 이중의 언어 체계와 유서 언어의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2. <애중용> 텍스트의 두 개의 생애 서사- 「언행록」과 ‘유서’

이 장에서는 앞서 말한 <애중용> 텍스트의 앞의 두 자료인 「언행록」과 유서를 중심으로 남원 윤씨의 생애가 각각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행록」의 내용을 통해 윤씨의 생애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료가 조선후기 열녀전 방식의 생애 서사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을 본 후 이를 통해 윤씨가 규범적인 여성 주체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씨의 한역 유서를 통해 「언행록」의 공식적인 생애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유서의 수신자로 지목된 이 관계들을 중심으로 한 남원 윤씨의 자기 생애 재현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1) 「공인 남원윤씨 중용언행록」- 공식적 생애 기록, 규범화된 생애 서사

「공인 남원윤씨 중용언행록」은 윤씨 부인이 ‘순종하며 따른 언행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모두 4장 8면의 분량으로 1면에 약 10행, 각 행에는 20자의 반듯한 해서체로 필사되어 있다.⁹⁾ 지은이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순조실록에 ‘유생들의 상언’에 따라 윤씨 죽음 후 3년 뒤인 1804년 정려가 요청되었다는 기록¹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집인 한씨 가문이 있던 경기도 일대의 유생과 문인들이 윤씨의 사적을 정리하여 지은 기록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언행록」은 전형적인 열녀전 서사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조선후기 열녀 서사의 기본적 서사구조는 ‘㉠양가 가계 - ㉡친가에서의 효성 일화 - ㉢시가에서의 효부, 현처 일화 - ㉣남편의 득병과 간호 - ㉤장례 친집 - ㉥자결’의 순서이며, 「언행록」은 이에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윤씨의 생애를 서술한다. 다만 일반적인 열녀전보다는 길이가 꽤 긴 편인데 이는 <애중용>이 윤씨의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단독으로 만든 텍스트이며 언행을 기록한다는 성격이 더해져 그의 성품과 부덕을 강조하는 일화들이 보완,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는다고 분석했다.

9) 이상보에 따르면 원본상의 분량은 「언행록」이 4장(8면), 「유서」 9통이 5장(10면), 「명도자탄사」가 6장(12면)이다.

10) ‘예조에서 아뢰기를, “호남인 고 현감 정민구(鄭敏求)는 창의(倡義)하여 존주(尊周)하였고 …… 경기도인 한진구(韓鎭九)의 처 윤씨(尹氏)는 열행이 있으니 청건대 정려하소서.”하였다. 모두 유생들의 상언으로 인해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다.’, <순조실록> 순조 4년 갑자(甲子, 1804, 가경). 한국고전종합DB.

㉠ **양가 가계:** 공인의 성은 남원 윤씨이다. 부친은 연기현감 윤상흠이고 조부는 동중추를 지낸 윤창후, 증조는 참판 행주부를 증직받은 윤겸으로, 관찰사이며 청백리였던 윤임의 후예이다. 윤상흠의 부인은 숙인 청풍 김씨로 그 부친은 별제를 지낸 김성취이고, 조부는 첨추 김도신으로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고손자이다. 남편 한진구는 청주 한씨이며 그 부친 한육의 육대조는 한유혁으로 도정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순절했다.¹¹⁾

㉡ **친가 효성 일화:** 공인은 무자년 11월 20일 생으로 네 살 때 모친을 잃고 그 이모인 남씨(南氏)에게 자랐는데 그를 어머니처럼 섬겼다. 8세에 본택으로 돌아와서는 계모 이씨를 지극한 효성으로 부드럽게 모셔 집안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씨가 병을 앓자 공인이 곁에서 간호하며 곁을 떠나지 않고 돌보았고, 상을 당하자 남보다 더 슬퍼했으며 상을 집행함이 남자같이 의연했다. 또 그 계모 성씨를 이씨처럼 섬겨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고 온화하게 화합하여 사람들이 친모녀 아님을 모를 정도였다. …… 효행이 타고나게 뛰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를 사랑하는 정성이 무리에서 출중했다.¹²⁾

㉢ **시가 효부 현처 일화:** 18세에 한씨 집안에 시집갔는데 집안이 대대로 청빈하여 시골에 살았다. 공인은 서울 변화한 곳에서 자랐지만 시집간 후에는 부도를 극진히 하여 시루에 담고 방아 쪼으며 불 피우고 밥하는 모든 일을 직접 하면서 조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시부는 홀아비에 병이 많았는데 공인이 기쁜 빛으로 정성과 효를 극진히 했다. …… 남편을 대할 때 날이 갈수록 공경하여 비록 연기에 거하였으나 모습이 게으르지 않고 말을 반드시 가려 큰 손님을 대하듯 했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거스르는 것이 없었다. 올바름에 부합하지 않으면 온화한 얼굴로 간절히 깨우치니 남편이 매우 마땅히 여겨 실로 포선(鮑宣)에게 시집간 환씨(桓氏) 같았다.¹³⁾ 동서를 모시고 종들을 대할 때도 각각 그 도리를 다했다.¹⁴⁾

㉣ **남편 득병과 간호:** 남편의 병이 중해져 침상에서 일 년여를 보냈다. 공인은 밤낮으로 근심하며 옷의 띠를 풀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았으며 약을 뜨겁게 달이기를 모두 직접하여 극히 초췌했지만 종들에게 대신 맡기지 않았다. 병이 더 위급해지자 변을 맛보아 그 상태를 보았고 흑한의 서리 이슬에 서서 하늘에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끝내 구하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공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¹⁵⁾

㉤ **장례 친집:** 친척과 이웃이 모두 공인의 성품이 곧고 굳음을 알고는 따라 죽을 것을 걱정하여 밤낮으로 지켰다. 공인이 말하기를,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예는 하나라도 미진하면 나중에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다. 후사를 얻는 것도 가문의 큰 법도이다. 내 어찌 과도한 슬픔으로 목숨을 버려 사람 된 도리를 폐하겠는가.” 하였다. 몸소 바느질을 하며 장례의 모든 도구를 재봉하고 염습과 입관, 장례에 필요한 예절을 친히 검사하지 않음이 없었다.¹⁶⁾

11) 恭人姓尹氏，系出南原，父燕岐縣監 商欽，祖同中樞 諱昌屋，曾祖贈參判行主簿 諱儉，觀察使清白吏 諱任之後，妣淑人 淸風金氏，考行別提 聖就，祖僉樞 道伸，淸風府院君 諱佑明之玄孫。夫淸州韓鎮九，其考煜，其六代祖 維赫，官都正，丙子殉節。「恭人南原尹氏言行從容錄」

12) 恭人以戊子十一月二十日生，生纔四歲失，於其姨母，南氏婦，事之如事其母，八歲歸本第，事繼母李氏至孝情愛油然，一室莫不感歎。李氏嘗患癘，恭人傍侍救護，不離○吏，及遭其喪，哀毀踰人，執喪如男子，又事繼母成氏，一如李氏，至誠撫問，婉愉雍和，人不知爲異出。…… 孝行出於天性，自在孩提時，其愛親之誠，出類拔萃。 ㄹ 글.

13) 후한 때 사람인 포선(鮑宣)의 처는 환씨(桓氏)의 딸로 자(字)는 소군(少君)이다. 포선을 가르치던 스승이 그의 정고함을 높이 여겨 자기 딸을 시집보냈다. 소군이 부유하게 자라 혼수를 많이 마련했는데 포선이 자신의 빈천함으로는 그런 예를 감당할 수 없다 하자 다 돌려보내고 베로 된 짧은 치마(布裳)로 갈아입고 녹거(鹿車)를 끌며 향리로 돌아온 후 곧장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 나가 부도를 다했다.

14) 年十八適韓氏，韓之家世淸貧，流寓鄉曲，恭人既生長京華，而一入舅家，極盡婦道，甌杵之役，炊爨之事，舉皆親執，少無勞苦之色，其舅鰥居多疾，恭人奉事承歡，極盡誠孝，…… 其事君子，久益尊敬，雖燕居，容色不惰，言語必擇，如事大賓，有言出口，一不違忤，如有不合于正者，和顏愉色，感規切至，夫甚宜之。實如鮑家之桓氏焉。侍婦似，御婢僕，各盡其道。 ㄹ 글.

15) 病轉劇，在床第一年餘，恭人夙夜憂懼，衣不解帶，目不交睫，煎藥溫湯，率皆親執，雖極勞悴，不便婢僕遞任焉。病漸危，嘗糞而驗其晷，苦嚴霜酷寒露，立禱天願以身代，其不救而終焉。 不淋，

16) 親戚隣里，以恭人性行之貞介，慮或其下從，日夜守護，恭人曰，送死之禮，一有未盡，則後雖追悔，何

㊸ **자결**: 부친이 딸을 위해 며칠 머물며 위로하고는 돌아간 후 서울에 도착한 그 다음날 공인은 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이 날이 바로 신유년 사월 초팔일이다. 내외의 친척들이 경황없이 달려와 보니 약 그릇 옆에 일곱 장의 유서와 한 장의 건기(件記: 물건 목록)이 있었는데 건기는 열할 물건들을 다 구별하여 서울에 사라 보낼 것과 집안에 있는 것 중 거두어 쓸 것을 기록한 것이었다. 또 <명도탄> 일 책이 있었으니 이것은 또한 공인이 스스로 지은 애사였다.¹⁷⁾

㊶은 친정과 시가의 가계를 소개하는 부분이며, ㊵와 ㊷은 윤씨가 효행과 선행이 뛰어났고 아내로서의 부덕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㊵, ㊷에서는 열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게 되는 직접적 계기인 남편의 병에 이어 ‘간호를 쉬지 않음, 상분(嘗糞), 원이신대(願以身代)의 기도’와 같은 행위들이 서술되고, 남편의 죽음 후에는 장례 물품을 자신의 직접 노동을 통해 풍부하게 마련했고 상장례의 예법을 엄격하게 갖추었다는 등의 행위들이 열행으로 제시된다. ㊸에서는 부모나 친지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죽음을 택했으며 유서를 남겼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단락들의 흐름과 정형화된 양식은 윤씨의 생애를 전형적인 열녀의 생애 서사로 재현한다.

특히 열녀 서사에서 인물을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형상화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인물이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 부여되었던 감정 규범과 기대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다.¹⁸⁾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감정 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자기의 지대로 한다는 생각(專制之義)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태도’, 즉 ‘순응하고 따르다’는 ‘중(從)’이었다.¹⁹⁾ 「종용언행록」이라는 제목 그 자체대로, 기록을 남겨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언행’의 기준은 바로 ‘종용’한 순응의 모습인 것이다.²⁰⁾ 「언행록」에서 윤씨는 따르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하는, ‘종용한 언행’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8세 때 맞이한 계모 이씨를 극진히 섬기고 그 뒤를 이어 들어온 둘째 계모 성씨에게도 온화하게 따르는 모습, 가

及哉. 得子嗣後, 亦人家大節. 吾豈過憾捐生, 以廢人道乎. 躬執針線, 送終諸具, 率皆裁縫, 棺斂定葬之節, 無不親檢. 릿 글.

17) 爲之留數日, 慰撫而歸. 歸纔到京, 其益乃服藥而逝, 卽辛酉四月初八日也. 內外親戚, 驚惶往視之, 藥器之傍, 七張遺書, 一張件記在焉, 件記卽區別斂具之京貿者, 與家中所攄者也. 又有命道歎一冊, 亦恭人自製哀辭也. 릿 글.

18) 사회학과 철학, 비평이론 등에서 사유되고 있는 감정 연구의 관점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규범화, 계급화, 위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젠더화된 문화적 관습이자 표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서 감정과 관련된 규범과 기대가 계층, 성별, 집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작동한다는 점, 개인과 공동체에 허용되거나 금지되고 학습되거나 내면화되면서 사회적 기제로 활용되는 과정과 경로가 상이하다는 사실, 감정의 규칙과 가치 부여가 한 사회의 중요한 통치 기술이라는 관점 등은 모두 감정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관리체계이자 문화적 구성물임을 보여준다. ‘문화는 감정 경험이 조직화되고 식별되고 분류되고 해석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문화적 프레임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규정하며, 감정의 강렬성에 한계를 설정하고, 감정에 부착된 규범과 가치를 구체화하고, 감정을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상징과 문화적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예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권오현 역, 이학사, 2014. 20~22면.

19) 『소학』은 조선시대 여성에게 허용된 감정 규범이 ‘부드러움(柔)’과 ‘유순함(順)’, ‘온화함(和)’임을 명시하고 있다. …… 특히 여성에게는 ‘기운을 낮추고(下氣)’, ‘원망하지 않으며(無怨)’, ‘거스르지 않는 것(不逆)’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따르는 것,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중(從)’이다.’, 홍인숙, 「열녀 유서에 나타난 감정 규범과 감정 통제 기제 - 신씨부 유서에 나타난 순응과 위반의 감정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9.

20) 위계화된 신분 사회에서 남성들에게도 왕에 대해 ‘충의’를 지키는 것은 따르다(從)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상황 논리나 구체적인 현실 맥락의 개념을 도입하여 충의의 행위 수준을 판단해야 하는 훨씬 복잡한 규정으로 여겨졌다. 그런 면에서 종용함, 따름, 순종은 상층 남성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았던 젠더화된 감정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난한 시골 가문으로 시집간 후에도 병든 시부를 ‘받들고 모시기를 극진한 성효(奉事承歡, 極盡誠孝)’로 했다는 표현, 남편이 죽자 그를 따라 죽는 선택을 통해 궁극적인 순종을 보여준 열행, 이 모든 것은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자신의 뜻을 주장함이 없이 ‘종(從)’의 규범을 체현하는 형상인 것이다.

「언행록」의 윤씨 재현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은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조선후기 상층 여성에 대한 감정 규범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윤씨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언행록」에 따르면 윤씨의 생각이나 결심, 감정 등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人不知)’거나 ‘드러내지 않았다(無見於色)’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둘째 계모인 성씨와 부드럽게 화합하여 사람들이 기색이 아님을 몰랐고(婉愉雍和, 人不知爲異出), 시집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少無勞苦之色), 남편의 죽음 때 울지 않았으며(不救而終焉, 不淋), 죽기 전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實非少無機微 見於色),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나 일절 입밖에 내지 않아(一不形於言辭) 그가 글을 쓸 줄 아는 것을 아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행록」은 조선 사회의 감정 체계와 여성에게 허용되거나 금지되었던 감정 코드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언어’와 ‘행동’을 남긴 인물로 윤씨를 그리고 있다. 윤씨의 자결 이후 지역 문인과 유생들에 의해 수집되고 공유되면서 작성되었을 이 ‘언행의 기록’은 윤씨를 열녀라는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구성하며 한 여성의 생애를 공식적이고 규범화된 생애 서사로 일관되게 봉합한다.

다만 「언행록」에는 이러한 규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서사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윤씨라는 한 여성의 개별적인 생애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기도 하다.²¹⁾ 그 첫 번째는 윤씨가 ‘모친’의 존재를 계속 잃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친모를 4세에 잃었고 이모인 남씨부(南氏婦)에게 컸으나 8세에 본가에 오면서 그와 헤어졌으며, 첫째 계모인 이씨도 일찍 죽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온 둘째 계모 성씨가 윤씨의 유서에서 ‘어머니’라고 지칭되는 인물이다. 두 번째, 부친이 윤씨를 특별히 ‘鍾愛(鍾愛)’하여 윤씨에게 재물을 아끼지 않았고 사위의 병 소식이 왔을 때 윤씨를 보내려 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것이다.²²⁾ 셋째, 윤씨가 ‘무남독녀’로 표현되고 있는데²³⁾ 두 명의 계모에게 자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텍스트에서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이는 친모인 청풍 김씨와의 사이에서 난 소생이 윤씨뿐이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넷째, 친가의 가세가 시가에 비해 우월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음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⁴⁾

21) 이러한 생애 정보들은 윤씨가 남긴 유서들에서 그 정황이 보완, 설명되면서 두 생애 기록 사이에서 상호 참고자료가 되어준다.

22) ‘鍾愛過人, 凡於財用, 未贍之日, 求之請之, 固無不可, 而天性廉潔, 雖錙銖之小, 升斗之微, 一不請得, 只待有所賜, 而後日用之.’(부친이 쏟는 애정이 남달랐으며 재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구하거나 요청하는 적이 전혀 없었다. 천성이 염결하여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청하여 얻은 적이 없었고 다만 주시는 바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쓰곤 했다.) ; ‘率恭人往, 無何韓君病報至, 一時微恙, 本不深重, 而恭人請歸看護, 其父不忍離送, 乃曰, 郎君之病不久, 當瘳痊則, 當率來官供, 勿太憂慮.’(연기읍 현감으로 임소에 갈 때 공인을 데리고 갔는데 얼마 안 되어 한 군의 병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는 잠깐의 병으로 원래 위중하지는 않았는데 공인이 시택에 돌아가 돌보겠다고 청하자 그 부친이 차마 떠나보내려 하지 않으며 말했다. “네 남편의 병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치료하면 나을 것이니 관에서 공물을 보낼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

23) ‘恭人於其父, 爲無男獨女, 鍾愛過人, (공인은 무남독녀로 그 부친이 쏟는 애정이 남달랐다.) ; ‘父本無他子, 只有恭人一身而已. (그 부친이 원래 아들이 없어 다만 공인 한 사람뿐이었다.) ; ‘以父母之無一男子, 爲至恨. 부모에게 아들이 없음을 지극한 한으로 여겼다.’

24) 가계를 소개한 ①부분은 두 가문의 가세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윤씨의 부친과 조부가 현감(縣監), 동중추(同中樞) 벼슬을, 윤씨 모친인 청풍 김씨의 부친과 조부 역시 각각 별제(別提)와 첨추(僉

(2) 유서들- 관계성을 중심에 둔 또 다른 생애의 재현

윤씨 부인의 유서는 총 9편으로 원문으로는 5장 10면에 걸친 분량이다.²⁵⁾ 각 면 10행, 각 행 20여 자, 한문 해서체인 「언행록」과 동일한 필체이며 한역(漢譯)의 형태로 쓰여 있다. 유서 부분의 전체 제목은 「遺書 眞書翻騰」(유서, 한문으로 번역하여 베꼈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9편 유서의 각각의 수신자와 작성된 날짜이다.

	수신자	관계	제목	추가 기록	작성 날짜
①	부친	부친 윤상흠	부주전영결상서 (父主前永訣上書)		신유년(1801) 사월 초팔일
②	모친	둘째 계모 성씨	모주전 (母主前)		신유년(1801) 사월 초팔일
③	귀손	동생 (부친-성씨 사이 아들로 추정)	유제귀손서 (遺弟龜孫書)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④	큰동서	손위동서	형주전영결상서 백사씨 (兄主前永訣書 伯姒氏)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⑤	시댁 당숙	시댁 당숙	숙주전 구가종숙숙 (叔主前 舅家從叔叔)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⑥	친정 당숙	친정 당숙	진사숙주전 본가당숙 (進士叔主前 本家堂叔)	경무건기 (京貿件記)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⑦	유모	외가(생모 청풍 김씨 집안)의 종	유유모서 즉공인외가비자야 (遺乳母書 卽恭人外家婢子也)	후록(後錄)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⑧	점열	친정 가문의 종	유점열서 (遺點烈書)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⑨	점열 작은여종	점열의 딸	점열소비유서 (點烈小婢遺書)		신유년(1801) 삼월 이십구일

<표. 남원 윤씨 유서의 수신자, 제목, 날짜>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③까지는 부모와 동생에게 남긴 유서이다. 부친에게 남긴 유서 ①에서 윤씨는 죽음을 미룬 이유가 ‘부친의 얼굴을 보기 위해(親顏又見)’였다고 밝히며 자신의 죽음으로 부친에게 슬픔을 끼치게 된 것을 사죄하고, 장례 비용을 자기 명의의 전담으로 처리달라는 것, ‘점열 모녀와 금이’를 속량할 것을 부탁한다. 유서 ②는 계모 성씨에게 남긴 것으로 길러준 은혜에 감사함과 부친의 위로를 부탁했으며, 성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동생²⁶⁾에게 남긴 유서 ③에서는 문호를 빛낼 것과 ‘여러 어머니들의 제사(前後諸妣奉祀)’를 부탁하였다.

樞)를 지냈다고 한 데 비해, 시가인 한씨 가문에 대해서는 부친의 벼슬 언급이 없고 육대조의 순절 사실만 밝힌 것은 시댁이 한미한 양반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③에서도 윤씨가 ‘서울 변화한 곳에서 나고 자랐(生長京華)’으나 시집은 ‘대대로 청빈하여 향곡에 살았다(家世淸貧, 流于鄉曲)’는 부분, 윤씨를 가난한 선비였던 ‘포선의 처’에 비유하는 부분은 두 집안의 경제력 차이를 반복해 언급한 대목이다.

25) 「언행록」에 따르면 윤씨 부인의 죽음 당시 약 그릇 옆에서 발견된 한글 유서는 ‘7장’, 물건 기록이 ‘1장’이었다고 한다. ‘內外親戚, 驚惶往視之, 藥器之傍, 七張遺書, 一張件記在焉,(내외 친척들이 경황 없이 달려와 보니 약 그릇 옆에 일곱 장의 유서와 한 장의 물건 목록이 있었다.)’

26) 「언행록」에서 줄곧 윤씨를 ‘무남독녀’, ‘부친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했는데 유서에 ‘여러 어머니들의 제사’를 부탁하는 남동생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생애 정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언행록」이 윤씨를 중심에 둔 서사화를 무리하게 시도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유서 ④는 큰동서, 즉 자신의 손위동서에게 남긴 유서로 가장 긴 유서이다. 여기서 윤씨는 자기 장례로 인해 큰일을 치르게 된 동서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품을 누구에게 줄지 하나하나 지정하고, 자기 살림을 맡아달라는 것, 점열 모녀와 금이의 거취에 대한 자세한 부탁을 남겼고, 자기 부부의 제사와 자신의 수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당부했다.

유서 ⑤와 ⑥은 시댁과 친정의 당숙에게 각각 남긴 유서이다. 이들에게는 부친에게 부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장례비를 윤씨 자신의 전담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시댁 당숙에게는 점열 모녀와 금이의 속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단속하는 내용을, 친정 당숙에게는 자신의 염습에 참관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정 당숙에게 남긴 유서 ⑥에 첨부된 '경무건기(京貿件記)'는 '서울에 사러 보낸 물건 목록'으로 자신의 장례 때 쓸 염습과 수의에 소용될 물건들을 사오게 한 목록이다.

유서 ⑦⑧⑨는 외가의 종인 유모, 친정의 종인 점열 모녀에게 각각 남긴 유서이다. 유모에게 남긴 유서 ⑦은 어려서 자신을 길러준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다시 못 보고 죽는 슬픔, 죽음을 앞둔 비통한 심경을 전하면서, 자신의 자결로 외가의 후사가 절손(絶孫)됨에 따르는 뒤처리를 부탁했다. 여기에 첨부된 '후록(後錄)'은 외가의 절손에 따른 매안(埋安)²⁷⁾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달라고 하는 유품 목록이다. 유서 ⑧은 여종 '점열'에게 남긴 것으로 죽음을 앞두고 변민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가 죽은 후 금이를 데리고 멀리 떠날 것, 금이 면천을 문서로 남겨놓았으니 갖고 갈 것, 자신의 시신을 직접 염습해 줄 것 등의 부탁을 남겼다. 유서 ⑨는 '점열 소비(小婢)', 즉 점열의 딸인 젊은 여종에게 준 유서이다. 여기서 윤씨는 이 여종과 자신의 관계가 '명색은 노주(奴主)간'이나 '열 살 전에 만나 이십 년을 함께 지냈음'을 언급하며, 여종의 소생 삼남매의 앞날을 하나하나 염려하고 그 중에서도 딸 금이의 면천을 자신이 보증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윤씨 유서의 특이점은 유난히 여러 명의 수신자들에게 복수의 유서를 남겼다는 점이다.²⁸⁾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이렇게 여러 수신자들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작자가 살아 생전 그들과 맺었던 관계성을 보여준다는 점, 그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자기 생애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서의 수신자는 작자가 죽음 앞에서 불러내고 있는, 자기 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유서를 받을 사람은 작자가 회고하는 전 생애를 상대가 거의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대상일 것이며, 작자가 전하게 될 이승에서의 마지막 부탁을 실제로 이행해 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서의 수신자는 그것을 쓴 작자의 인생에서 가장 긴밀

27) 매안은 4대조인 고조까지 제사를 지내다가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를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봉사손의 대가 끊긴 경우 그 신주를 체천(遞遷)하는데, 4대 이내에서 향렬이 가장 높은 사람인 최장방(最長房)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그 대에서 차례로 최장방에게 옮기다가 그 향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친진(親盡)한 것으로 보고 무덤 앞에 신주를 묻는다. 예를 들어 종자(宗子)가 죽고 종손(宗孫)이 봉사손이 되면 종자의 고조는 종손에게는 5대조로 친진(親盡)이 되어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고 매안하는 것이다.

28) 지금까지 연구된 조선후기 열네 유서들의 편수는 다음과 같다. 재녕 이씨(1676~1719)는 양자 '몽아비' 앞으로 유서 1편을, 서녕 유씨(1807~1831)는 '어린 딸 팽아'와 '시부모님'께 각각 1편씩의 유서를 남겼다. 서흥 김씨(1881~1904)는 친정 부친에게 「아바님전상사리」 1편, 신씨부(19세기)는 「(양자 내외)」(자료 앞부분 일실되어 내용으로 확인), 「민서방니외보습」, 「오라바님니외보습」, 「식부모님」의 총 4편의 유서를 남겼다. 임치균, 「서녕유씨 부인 유서 연구」, 『고문서연구』15, 한국고문서학회, 1999. ; 김정경(2011), 앞 논문. ; 홍인숙(2019), 앞 논문 참고. 윤씨 유서에서 한문 번역본만 남아 전하고 있다는 언어 형태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하고 가까운 관계이자,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고 부담해야 하는 지근거리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씨의 유서에는 일반적으로 유서를 남기는 수신자 범위인 혈육이나 친족 범주를 넘어서는 여성이 네 명이나 등장한다. 유서④의 수신자인 ‘큰동서’, 유서⑦의 수신자인 ‘유모’, 유서 ⑧과 ⑨의 수신자인 ‘점열 모녀’²⁹⁾가 그들이다. 더욱이 혈연관계인 직계 가족과 친지에게 남긴 유서들은 공식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사후에 부탁할 용건과 당부를 원칙적으로 전할 뿐인데 비해³⁰⁾, 이 여성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죽음을 앞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 죽음으로 타격을 입을 상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며 유언을 실행할 방법과 절차를 훨씬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즉 윤씨는 자신의 유서를 받을 수신자의 지정과 각 유서에서의 감정의 표현 정도를 조율함으로써, 생전에 그 인물과 맺었던 관계성의 성격을 드러내며 그 관계 ‘속’에서, 혹은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구축되었던 것으로 자신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기로 하자.

유서④ 죽은 후 가사 범백은 모두 형님 뜻대로 하시고, 중간술은 점열에게 주시며, 금이는 형님 생각대로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릉과 유기 등은 다행히 잘 두었으니 앞으로 후사를 정하면 기다렸다가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점열은 제 장례 후에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시되 다만 환곡을 많이 먹었으니 추수를 기다려 갚은 후에 그 스스로 가게 하십시오. 여기서는 결코 살지 않게 하시고 제 삼년상이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 아우의 집안일을 자기 물건처럼 보시기를 꺼리지 말아 주십시오. 혹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비하는 말이 있어도 개의치 마시고 죽은 사람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매우 바라고 바랍니다. …… 초종에 들어가지 않은 남색 치마가 있으니 일곱 폭은 우리 형님이 세월 가며 쓰실 곳에 쓰시고 두 폭은 아우의 과두(裹頭:수의 중 시

29) ‘점열 모녀’를 ‘점열 부부’라고 한 것은 권호의 논문인데 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고 몇 페이지 뒤에서는 다시 ‘점열 모녀’라고 썼다. 권호(1993) 앞 논문, 64면, 68면. ‘점열’은 이름이 분명한 데 비해 ‘점열 소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부부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윤씨가 부친에게 쓴 유서 ①에서 분명히 ‘점열 모녀’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직접 윤씨 자신의 시신을 염습하라고 한 부탁이 남종에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라는 점, ‘중간술’을 유품으로 남긴 것도 남종에게라면 어울리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점열은 나이 든 여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30) 부모와 동생 대상 유서인 ①②③ 중에 그래도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부친 대상 유서이다. 부친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죽고자 했다는 억제된 애정 표현과 자신의 자결이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회한을 짧게 전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신의 초종 비용, 금이 속량만을 간단히 부탁하고 공식적인 어조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소식이 아버님께 가닿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 차마 못할 일이나 마침내 그렇게 되었으니 어찌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저의 초종은 제 한 이랑 받을 팔아 다 스리게 하였고 그 나머지는 남겨 두어 후사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주게 했습니다. 점열 모녀는 제 장례 후 가고자 하는 대로 두시고 금이는 값을 내서 완전히 속량할 것이니 이미 다른 유서가 있습니다. 다시 바라오니 만수무강하시고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竟貽不孝於父主, 九原泉臺之下, 合受冥罰. 長逝之魂, 慟悼無窮 …… 此信之及於父主, 人子所不忍之事, 奈何奈何. 我之初終, 賣我一頃田, 以爲經紀, 其餘留置, 以待繼嗣之長成. 點烈母女, 待我葬後, 任其所之, 而今伊則, 納價永贖, 已有遺書矣. 更願萬壽無窮, 勿以不孝息爲念焉.)’, 「父主前永訣上書」; ‘어머님께서 저를 지성으로 살피고 길러주셨으니 그 크고 두터우신 은혜에 감격함을 만분의 일도 우러러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아버님을 우러러 위로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우인 귀손을 장성하게 잘 기르시고 두 분 부모님 체후가 만세토록 편안하시기를 구구히 엿드려 바라옵니다.(母親至誠撫養, 兒所感激之大恩厚惠, 不能仰報其萬一. …… 仰慰父主, 無至過傷. 長養孫弟, 至於成人, 而兩庭體候, 安樂萬歲, 區區伏望.)’, 「母主前」; ‘귀손야. 내가 너와 동기가 되었으니 너는 부모를 모시는 중한 소임을 이은 것이다. 내 마음에 기쁨을 어찌 다하겠느냐. …… 독서를 게을리 말고 집안을 빛내는 것이 너의 책임이며, 전후 여러 모친들의 제사를 모심도 모두 네 몸에 달려 있다.(龜孫阿. 吾與汝結爲同己則, 汝承父母之重託矣. 吾心之欣幸曷勝. …… 讀書不怠, 光顯門戶, 是汝之責, 而前後諸妣奉祀, 皆托于汝身.)’, 「遺弟龜孫書」

신의 머리를 쓰는 부분)에 써주십시오. 또 새 옷감이 있으니 잘라 관 속에 베개와 요로 써주시고 남는 것이 있으면 보공(補空:관의 빈 곳을 채우는 것)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아, 마침내 목숨을 끊으려니 이것이 진실로 어렵습니다. 마음속 또한 망극하여 실로 캄캄합니다. …… 점열이 가기 전에는 일을 돌봐줄 것이나 오직 형님만 믿겠습니다.³¹⁾

위 예문은 ‘백사씨(伯姒氏)’, 즉 만동서이자 큰형님에게 남긴 유서이다. 여기서 윤씨는 앞서 부모님이나 양가 당숙들에게 보인 공적인 어조와는 사뭇 다른 친근함을 담은 어조로 자기 죽은 후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전방위적인 부탁을 남긴다. 스스로를 ‘아우(弟)’로, 형님을 ‘우리 형님(吾兄)’으로 부르는 호칭을 비롯해 자신의 모든 유품과 가사와 살림의 경제적인 주장을 모두 그에게 맡기며 ‘오직 형님만 믿는다(惟兄主是恃耳)’고 한 발언은 윤씨가 ‘형님’과 맺었던 관계성이 매우 긴밀하고 깊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자신의 가사 일체를 부탁하면서 ‘혹 주변에 시비하는 말이 있어도 개의치 말라’는 당부를 굳이 넣은 것은 윤씨의 유품 등의 사후 처분에 대해 다른 개입이 있을 것을 예상한 말처럼 보인다. 실제로 시댁 당숙에게 남긴 유서에서 윤씨는 자신의 ‘가사 일체와 토지 수확을 큰동서에게 맡겼다(凡百家事, 土地收穫, 盡付伯姒)’고 다시 한 번 뜻을 박듯 밝히며 자신의 유산에 대한 결정권을 ‘시가 남성이 아니라 동서에게 일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들 동서간의 우애와 신뢰 관계가 시가의 남성 어른과의 그것보다는 더 긴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³²⁾

형님 대상인 이 유서에서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점열 모녀와 금이의 거취에 대한 당부를 매우 자세하게, 방법 하나하나를 지정하듯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씨는 점열이 ‘환곡을 많이 빌린 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반드시 ‘다 갚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관에서 빌린 곡식을 갚고 떠나게 해야만 나중에 혹여 강제로 불러올 빌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윤씨는 점열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고 여기서는 결코 살지 말도록 할 것’과 ‘자신의 삼년상을 절대 못하게 할 것’을 부탁한다. 이는 종이었던 점열이 자신에 대한 의리로 삼년상을 치를 것을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이며, 노비로 살았던 관성 때문에 마을을 멀리 떠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면서 멀리 떠나야만 새 삶을 살 수 있음을 배려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윤씨는 형님에게 남긴 이 유서에서 죽음을 앞둔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을 처음으로 털어놓고 있기도 하다. 그는 ‘죽음이 정말 어렵다’며, ‘마음이 망극하고 캄캄하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서사인 열녀 기록에서 봉합한 ‘이념적 주체’에게서는 발화될 수 없는 발언이며, 죽음의 선택을 앞둔 한 개별자로서의 두려움과 착잡함을 고백하는 발언이다. 이렇듯 형님 대상 유서를 통해 드러나는 이들의 관계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해 유산의 처리를 의뢰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의 거취를 부탁하며, 윤리적 이념적 판단을 넘어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1) 身後家事凡百, 兄皆主張, 中鼎給于点烈, 今伊則隨意, 可給之物, 給之好矣. …… 衣籠鑰器等件, 幸善收置, 待他日定嗣後, 交手付與, 是望是望. 点烈則弟葬後任其所之, 但多食還穀, 待秋備納後, 使之自去, 而此處則, 決不可居生. 無令待我三喪之畢焉. …… 但以弟之家事, 視若自己物, 勿以爲嫌, 雖或有傍人之是非, 亦勿爲意, 無負將死者之託, 甚望甚望. …… 弟有藍裳不入於初終者, 其七幅則補用於吾兄歲月之需, 二幅則爲弟裹頭之用, 又有新件(衾+薦)衣, 裁割爲送中之枕與褥, 餘用於補空爲望. 嗚呼, 將欲徑絕性命, 事固難矣, 懷亦罔極, 而實冥矣. …… 点烈未去之前, 隨事顧念, 惟兄主是恃耳. 「兄主前永訣書」

32) 「언행록」에서 윤씨의 친정이 재력이 있었음을 은연중 강조했던 사실을 볼 때 윤씨 명의를 유산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자신의 전답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일정한 소출이 나오고 있었으며 유품으로 언급하는 모시저고리와 치마, 비녀, 장롱, 칠레 등도 값 나가는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서⑧ 날씨는 마침 엄청이고 밖에는 바람이 심하니 …… 시신이 정결치 못해 분명 남의 눈에 보기 싫을 것이니 이것이 슬프다. 내가 죽은 후 삼년상 기다리지 말고 가을에 추수 수확하여 값은 후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금이 먼친하는 일은 문적으로 남겨 놓았으니 네가 갖고 와서 보여라. 목면치마, 가위, 칼은 금이를 찾아서 주고 자물쇠와 작은 술은 내가 사용하라. 강화 아끼씨께 상의 드려 장례 때 일꾼들에게 샴만 주고 제물은 갖추지 말아라. 내 성품은 네가 잘 알 것이니 절대 크게 하지 말고 남편의 묘 옆에 장사 지내라. …… 날이 또 더워지니 이것이 민망하고 답답하다. 이 몸을 염습하는 것은 남의 손을 빌리면 내가 매우 수치스럽고 괴로우니 네가 진사님 부자와 함께 들어와 염하라. 말하자면 길겠지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생각하면 비통하니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삼년을 기다리지 말고 곧 가거라.³³⁾

유서⑨ 내가 나와 서로 만난 것은 열 살 전이었다. 명색은 노비와 주인이었으나 정은 동기와 같고 사랑하기는 자식과 같았다. 함께 타향까지 와서 어려움을 견디며 지낸 것이 장차 이십 년인데 그 충성스러움이 한결같기를 옛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많았으나 내가 죽음을 앞두니 심신이 흔들리고 생각이 못 미쳐 백에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너의 소생은 남매라고 하나 세 살 먹은 아들은 어릴 때 이미 병에 걸려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며, 또 한 아들은 (속량을) 허락했으니 열한 살 된 금이가 훗날 마땅히 번창할 것이다. 훗날 후사 정하기를 기다려 다만 금이 한 몸의 값으로 사십 냥을 한씨 가문 양반에게 줄 테니 만약 이것이 적다고 한씨 윤씨 양가 자손 중에 금이의 소생에 대해 혹 시비나 다른 말이 있거든 이 유서를 갖고 가서 변증하라.³⁴⁾

⑧과 ⑨는 윤씨가 점열과 그의 딸에게 남긴 유서이다. 윤씨의 전 생애에서 이들 점열 모녀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것이었음은 유서 자료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친에게 남긴 유서를 비롯해 전체 유서에 걸쳐 가장 큰 유언이자 부탁이 바로 이 여종 모녀를 멀리 떠나보내 달라는 것과 이들의 자손인 금이를 완전 속량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량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은 시택 당숙에게 남긴 유서에서 ‘쾌흥, 흥이 부친’과의 관계에 금이가 얽혀 있음을 말하는 부분에 암시되고 있다.³⁵⁾ 윤씨는 당숙을 통해 ‘금이의 속량 값을 흥이 부친에게 전하고, 나중에 쾌흥이에게는 대신 여종 춘이를 주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부탁하며, ‘다시는 다른 말이 없게 이 말대로 시행해달라(更勿異論, 一從是言, 施行至望至望)’는 결연한 어조를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의 해결에 이견이나 갈등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며, 모든 이에게 주는 유서들에 반복하여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한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윤씨가 유서라는 생애의 마지막 말을 통해 끝까지 먼친을 실행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존재인 이들 모녀는, 윤씨에게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 유서 ⑧과 ⑨에는 그 답이 될

33) 適當炎天, 房多外風, 京貿成斂, 易致多日, 侍體不潔, 必厭人眼, 是可悲也. 我死之後, 無待三喪, 秋糶輸納後, 任汝所之. 今伊之免賤, 書留文跡, 汝其拽見, 木裳剪刀, 推給今伊, 鎖金小鼎, 汝其用之, 稟議于江華阿只氏, 葬時只供軍人, 勿備祭物, 吾之素性, 汝則知之, 切勿侈大, 卽葬于主君墓側, …… 日又向熱, 是用悶鬱, 此體斂束, 若待他手, 則吾甚愧赧, 汝與進士主父子, 皆入斂之. 言之長也, 亦復何言. 思之悲哉, 亦復何思. 更無待三年之畢焉, 而卽去也. 「遺點烈書」

34) 爾我相逢在十歲前, 名雖奴主, 情如同己, 愛亦如子. 偕至他鄉, 備經艱難, 將逝十年, 而其忠如一, 邁于古人者, 亦多有之, 而余當長逝, 心身迷短, 百不記一. 爾之所生, 雖曰甥妹, 三歲兒子, 已嬰奇疾, 不但生死之未分, 而一子則許給, 十一歲今伊, 後當蕃昌. 待日後定繼嗣, 只以今伊一身價, 四十兩, 納于韓門兩班, 而若以此爲少, 韓尹兩家子孫中, 或有是非雜談, 於今伊所生者, 持此遺書, 以爲卞正事. 「點烈小婢遺書」

35) 금이는 속량하여 그 값을 흥이 부친에게 전해주시고 장래에 쾌흥이에게는 여종 춘이를 대신 주게 하십시오. 다시는 다른 의논이 없게 이 말을 따라 시행해 주시기를 지극히 바라고 바랍니다. (今伊則贖身, 使之約價, 傳于興伊父親, 而將來快興則, 以春婢代給, 更勿異論, 一從是言, 施行至望至望.), 「叔生前 舅家從叔叔」

만한 구절들이 있다. 그것은 점열에게 남긴 ‘내 성품은 네가 잘 알 것(吾之素性, 汝則知之)’이라는 말,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네가 직접 나를 염하라’는 부탁, 그리고 유서 ⑨에서 점열의 딸에게 ‘너와 나는 명색은 노주간이나 그 정은 동기나 자식과 같다’며 ‘함께 타향에 와서 이십 년 이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표현이다. 윤씨에게 나이 든 여종인 ‘점열’은 누구보다 자기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며, 누구의 손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시신 수습을 부탁할 유일한 이이다. 점열의 딸은 윤씨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탁을 같이 해온 존재이며, 타향인 시집에 와서도 ‘동기와 자식’을 겸하는 정을 나누는 관계이다.

이는 이들의 관계가 신분제 상의 상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혈연 이상의 무게를 가진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앞서 모든 유서에 걸쳐 유산의 문제, 후사의 문제, 외가 제사의 문제 등을 부탁했던 윤씨는, 마지막 유서, 즉 점열의 딸인 젊은 여종에게 준 유서에서는 아무 것도 부탁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소생 삼남매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너의 세 살 아들은 병들었고, 또 한 아들은 허급(許給)했으니, 열한 살 되는 금이가 마땅히 번창해야 한다’면서 그 면천을 약속하고 다짐할 뿐이다.

이들에게 남긴 유서의 끝 부분 역시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윤씨는 점열에게 주는 유서 끝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삼년상을 치르지 말고 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거듭 말하지 않으면 점열이 삼년상을 치를 충노임을 알기 때문이다. 윤씨와 점열이 이렇게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관계라면, 윤씨와 점열의 딸은 동반자적 친구로서의 우애, 그의 소생을 면천하여 살게 하겠다는, 여종의 모성에의 동일시 감정이 보인다. 윤씨는 점열의 딸에게 주는 유서 끝에 ‘금이 소생에 대해 한씨 윤씨 양가 어느 쪽에서라도 시비가 생기면 이 유서를 갖고 가라’는 단호한 보증의 말을 남긴다. 이는 죽어서도 윤씨가 이들 모녀 삼대의 영구한 숙량이라는 유언을 관철시키고 이들을 보호할 것임을 약속하는 말이다.

이렇듯 윤씨 유서는 「언행록」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동서와의 관계, 여종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생애를 재현한다. 이것은 열녀라는 이념화된 주체의 공식적인 생애와는 전혀 다른 이면의 생애 서사이며, 또 다른 삶의 진실을 지시한다. 그것은 조선후기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인 질서 속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형성된 일상과 생활에 밀착된 관계, 상호적인 보살핌과 돌봄을 공유하며 공감과 유대를 나누는 여성 중심의 관계들 속에서 윤씨의 삶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이다.

3. 비가시화된 여성 중심 관계성, 그리고 열녀 유서의 궁극적 번역 불가능성

이 장에서는 다시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처음의 지점으로 돌아가, 윤씨 유서의 한글 원본이 전해지지 않고 한문본으로만 남아있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질문의 시작은 <애중용>의 세 번째 자료인 「명도자탄사」이다. <명도자탄사>는 윤씨가 한글로 지은 상태 그대로 한역(漢譯)을 거치지 않고 실려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서사적 정황 제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남편을 따라죽는 상황의 슬픔과 비통함이라는 정서 자체에만 집중하는 서정시가 형태의 「명도자탄사」는 ‘한글’이라는 표기 체계를 굳이 교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애중용>에 실려 있다.³⁶⁾ 이에 비해 윤씨의 유서는 자기 생애에서의 중요한

36) 「명도자탄사」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歲在辛酉요 節當季春이라 東君이 有情하니 곳곳마다 春意로다 年光이 어린 곳의 杜鵑花 滿發하니 千峯萬樹의 가지가지 香氣로다 …… 怨鬢怨鬢여 이 돌 이날이 怨鬢로다 이몸의 삼긴 ㅎ늘 이날의 문허지니 애늬다 이내 一縷 칼이 업서 못죽은가 노히

인물과 서사적 재현에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과의 관계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중용과 순응’이라는 감정 규범과는 반대로 종들의 면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의 뜻을 피력하는 ‘전제주의(專制之意)’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간 관계성과 적극적인 실천성이 유서 내용에 대한 가부장제의 검열의 시선을 작동하게 한 것은 아닐까.

사실 남성 중심의 유교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가 부여된 관계는 ‘남성 간 관계’, 즉 ‘군신, 부자, 사제, 봉우’ 관계이다. 그런데 남성이 중심이 되어 맺는 관계에서라도 여성이 개입된 관계성은 그 자체로 관계성의 위계에서 하위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여성이 맺는 관계성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맥락화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부친, 남편, 아들’과 같은 남성이었어야 했다. 여성의 관계성 중에서도 ‘여성과 여성’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장 하위적인 것이며 평가절하되는 것이었고, 혹은 ‘고부 간, 처첩 간’처럼 손쉽게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것이곤 했다.

그런 조선 사회에서 윤씨의 유서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상층 여성에게 기대되는 관계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고 갈등적일 수 있다. 윤씨가 유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그의 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 즉 ‘동서와 여종들’과의 관계는 조선후기의 양반 사회에서 상층 여성이 가질 것으로 기대된 사회적 관계가 아니었다. 「언행록」의 서사에서는 단지 ‘동서를 모시고 비복을 다스릴 때 각각 그 도리를 다했다(侍婢媼御婢僕, 各盡其道)’는 상투적인 한 구절로만 지나갈 뿐인 것이 바로 여성간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이름 붙일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사회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의미화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윤씨의 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여성들끼리의 연대의 감정이며 해방의 기획이었다. 남성을 배제하면서 유산 처리를 부탁하고, 여종의 딸의 속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거둬 당부하여 이를 관철하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실천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런 점이 윤씨 유서를 남성의 표기 체계인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오히려 남성의 표기 체계인 한문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한 이유는 남성의 눈에는 문자가 보여도 그 의미가 읽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며, 여성이 읽을 경우에도 그 의미를 간접화하고 의미의 에너지를 반감시키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윤씨의 한글 유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원래 유서 언어의 감정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유서는 윤씨 자신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한문이라는 남성적 표기 체계, 남성 지배 규범의 문자로 정초된 형태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서 언어의 현전 표기 상태는 여성의 언어가 역사적 과정 속에 살아남는다는 것이 난망한 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씨 유서는 현재 그 내용에 접근하려면 한문이라는 표기 체계로 점령되고 침탈되어 있는 언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재번역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유서의 접근 경로는 그 자체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언어를 둘러싼 이중적 금제와 억압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한 원본의 목소리가 있다면 과연 열녀의 삶, 혹은 죽음의 진실에 해석자가 더 가깝게 가닿을 수는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 또한 쉽지는 않다. 윤씨 유서의 사라진 한글 원본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 유서와, 다시 그것을 한글로 재번역한 지금의 현대 국문 유서 사이를 오가며 유서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남편을 따라죽는다’

업서 못죽은가 人間の 못불 光景 日月이 깃들수록 차마 생각 못허거든 그때 어이 견대여서 至今 7지 사랏는고 地下로 가단 말이 그 누고셔 니르던고 갈 적의 누구 본가 날보니 자리의 석어지니 이거시 가단 말가 人間 설음 삼긴 후의 꿈이라도 견델소냐 卅生恒言 虛事로다 ……’

는 여성의 경험이 과연 언어로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윤씨 유서는 ‘여성 경험의 궁극적 번역 불가능성’, 혹은 ‘유서 언어의 궁극적 전달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원본이 없는 한문 유서인 윤씨 유서는 번역 불가능한 경험, 전달 불가능한 슬픔이라는 존재적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인간 경험의 ‘설명 불가능성’³⁷⁾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자료일지 모르겠다.

37) ‘나 자신을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참됨 being true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패해야만 할 것이다. ……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설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를 살려두는 것이 인정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의의 일환이라면, 이런 인정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인식적 한계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할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인간사랑, 2019. 77면.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

탁원정(평택대)

1. 서론

<노처자전이라>³⁸⁾는 18세기 노처녀 담론의 확산 속에서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³⁹⁾ 조선후기 가사 <노처녀가>의 한 이본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노처녀가>의 이본은 크게 40이 넘도록 시집 못간 미모의 노처녀가 토로하는 신세한탄으로 되어 있는 가사 계열 <노처녀가1>과, 50이 넘은 처녀이며 갖은 병신인 노처녀가 결국 시집을 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소설 계열의 <노처녀가2>로 나뉜다.⁴⁰⁾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노처자전이라>는 독특하게도 <노처녀가1>과 <노처녀가2>가 결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⁴¹⁾ 먼저, 내용 면에서 시집 못간 미모의 노처녀가 신세한탄을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노총각인 김도령과 혼인하는 후반부가 첨가되어 있다. 형식 면에서는 “각설이라. 숙종더왕 즉위 초의 경기 싸워서 스난 사람이 잇스디”와 같이 소설 형식으로 시작해서 노처녀의 신세한탄은 “쳐즈의 거동 보소. 혼자 안즈 혼탄하난 마리 허망하다 이니 신세 노처자가 되야구나.”처럼 가사의 사설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김도령과 혼인하는 부분은 다시 “이적익 서울 사난 김승서르 혼난 스톨니 잇시되”처럼 소설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독특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노처자전이라>는 <노처녀가> 이본의 주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⁴²⁾, 박일용 교수에 의해 담화 차원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⁴³⁾ 이 논의에서는 <노처녀가1>과 <노처자전이라>의 친연성을 전

38) <노처자전이라>는 박순호 소장본으로,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권6에 수록되어 있다.

39)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로 고순희(고순희, 『<노처녀가 1> 연구』, 『한국시가학회』 14, 한국시가학회, 2003)와 성무경(성무경, 「기획 : 한국 고전시가의 주제사적 탐구 :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학회』 15, 한국시가학회, 2004.)의 논의를 들 수 있다.

40) 이 두 계열이 대표적인 이본 계열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이며, 다만 두 계열의 선후 문제나 ‘가사의 소설화’와 같은 장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최원식, 「가사의소설화 과정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46호, 창작과비평사, 1977;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66; 김용찬, 「삼설기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 태학사, 1996, pp.419-420; 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32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pp.213-244;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잡가본 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5집, 한국시가학회, 1999, pp.401-426; 고순희, 위의 논문; 성무경, 위의 논문.

41) <노처자전이라>는 박인희에 의해 소개되었다.(박인희, 「노처자전 연구」, 『국민어문연구』8, 국민대 국어국문학회, 2000.) 이 논문에서 박인희는 <노처자전이라>가 <노처녀가1>의 영향으로 소설화된 것으로 보았으나, 노처녀의 한탄 이후 김씨 도령과 혼인하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어 <노처녀가2>의 후반부와 관련성도 간과할 수 없다.

42) 이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노처녀가>의 이본을 정리한 성무경은 <노처자전이라>를 “필사문화권에서의 변개 징후 외에 <노처녀가2>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고(성무경, 앞의 논문, 172~175쪽), 강경호는 <노처자전>의 파생에 대해 논하면서 <노처자전이라>를 “노처녀에 관한 여러 이야기에 익숙한 필사자가 자신의 기억을 통해 만들어 낸 改作品 정도”라고 보았다.(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 - <노처녀가(2)>와 그 관련 작품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18, 반교어문학회, 2005, 70~71쪽)

제로 담화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 결과 <노처녀가1>이 공개적 하소연의 형식을 취하면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데 비해, <노처자전이라>는 내밀한 독백적 발화를 통해 신세 한탄과 체념적 해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결국 <노처녀가1>이 노처녀 문제를 공적 담론으로 객관화하는 텍스트라고 평가하고 있다.⁴⁴⁾

본고에서는 담론 측면에서 이루어진 <노처자전이라>에 대한 기존 논의를 수용하는 한편, 그와는 맥락을 달리 하여 노처녀의 성에 초점을 맞춰 <노처자전이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노처녀가> 논의에서 성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는 없으며,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도 대부분 <노처녀가2>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노처녀가2>에서 노처녀가 혼인하는 꿈을 꾸고, 흥두께에 신랑 분장을 하여 모의혼인을 하는 등 혼인에 대한 적극적인 욕망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혼인을 치르고 쌍둥이까지 낳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처녀의 결혼 욕망 근거에는 음양배합의 이치를 좇고자 한 측면이 있다거나⁴⁵⁾ 노처녀의 간혀버린 욕구와 달힌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성적 욕망과 관련한 세태를 풍자적 거리 두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⁴⁶⁾는 논의들은 <노처녀가2>에서 포착되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노처녀가2>는 나이 50의 온갖 병신으로 설정된 노처녀가 혼인을 하면서 단번에 멀쩡한 몸을 갖게 된다는 비현실적 결말을 보이고 있으며⁴⁷⁾, 이런 비현실성은 노처녀의 성에 대해서도 현실감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노처자전이라>는 노처녀의 형상이 <노처녀가1>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노처녀가2>와 같은 비현실적 결말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노처녀의 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형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노처녀의 형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성의 국면을 ‘늙은 여자’라는 데 초점을 맞춰 진단해 보고자 한다.

2.<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노처녀의 형상

1)사십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처녀

가사인 <노처녀가1>에서 노처녀의 한탄 속에서 노처녀의 신분과 상황이 드러나는 것⁴⁸⁾과

43)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4) 위의 논문 88~96쪽.

45)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 <작가본 노처녀가>와의 대비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연구』 5, 한국시가학회, 1999, 411쪽.

46) 박일용, 「삼설기에 나타난 율문적 문체와 그 의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412~413쪽.

47) 김용찬은 이를 “작품에 깔린 낙관적 세계 인식”이라고 보았으며(김용찬, 『삼설기』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428쪽.), 신희경은 이를 여성 영웅이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읽기도 했다.(신희경, 「삼설기(三說記) 소재 <노처녀가>의 영웅 서사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48) “찰찰한 우리 父母 가난한 좀兩班이 兩班인 체 된 체하고 處事가 不敏하여 怪妄을 일습으니 다만 한 짚 늙어간다.....이 니八字 奇險하다 四十까지 處女로다”

달리, 소설 형식으로 시작하는 <노처자전이라>에서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각설이라. 숙종디왕 즉위 초의 경기 짜의셔 스난 사람이 잇스디 성은 조씨요 선세부터 삼탁육경 타고나서 고관디각으로 기니다가 벼살기리 써러진 제 거의 삼 히로다. 그러흐나 사부가 유업을 이려바리라 흐고 문학을 심씨나 간고흐기로 유명흐야 삼순구식 제우흐디 그나무나 공탁니라. 남도 관동 간간한디 혼덕으로 그렁저렁 연명 지니는 가스범저리 기구흐야 남도 어려워 엇지할고. 한 여식을 두엇시되 형용이 비범하고 범저리 타월흐야 아모조록 흐시라 날과 갓튼 조흔 문벌 저와 갓○○한 인물 구흐다가 그렁저렁 실오 세붓름 구혼흐야 좌우 중 귀흔 집은 귀흔 문벌 약혼하고 천석만석을 혼 집은 부자문벌 약혼하고 작슈성여 누 말인가? 자고 집은 혼인질은 가난빈작시설니라. 이날저날 보니여 시위리여류흐야 이팔청춘 조흔 얼굴 과흔지경 되야셔르.(<노처자전이라>)

이에 의하면 노처녀의 선조대에는 높은 벼슬을 했으나 부모대에 와서 벼슬 길이 떨어진 지 3년이 되었고, 그로인해 삼순구식을 겨우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노처녀는 비범한 외모와 탁월한 범절을 지녀 15세부터 구혼을 시작했으나 문벌과 부귀에 따라 혼인하는 세태 속에서 이제는 좋은 때를 다 놓친 노처녀가 되었다. 이는 18세기 이후 증대된 몰락 양반 신분의 노처녀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⁴⁹⁾고 할 수 있다.

처즈의 거동 보소. 혼자 안즈 혼탄하난 마리 “허망흐다 이니 신세 노처자가 되야구나. 만물킷칙 후이 흐날과 싸히 비흠니라. 그 가운데 사람이 싱겨나서 부부비필 마런하고 비금쥬슈 김성덜도 중용쑹쑹 짝니 잇난디 이 니 팔즈 기박흐다. 밍퓌 업시 늑단말가. 혼즈 늘거 어디 슬고. 답답흐다 우리 부모 다만 팔흐나 느를 두고 가난흐 집 양반 자시 쓰만 놀파 심각흐고 부즈만 구혼타가 무정 세월 덧 업논디 이 니 몸만 늘거지니. 시상을 심각흐면 불가빅연 불삭터의 이 니 팔자 어이흐야 비필 업시 늑단 말가..... 용흔 침션 이 니 솜씨 남편 혼데 입피자고 어러이 비와다가 사십 연광 갓차오니 명주비단 다 바리고 창익도복 어니 할고. 무정흐다 우리 부모 나을 늘켜 어디 쓸고.(<노처자전이라>)

이어지는 노처녀의 한탄 속에서 가난한 처지를 생각지도 않고 양반의 위신을 내세워 나이든 딸의 혼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막기까지 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 부모 때문에 나이가 들도록 혼인하지 못하고 혼자 늙어가는 노처녀의 상황은 용흔 침션 솜씨로 어렵게 배워 남편 옷을 만들어 놓은 것도 나이 40이 가까워오자 빛이 바랬다고 하는 탄식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가사 <노처녀가1>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2)혼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처녀

<노처녀가1>과 <노처자전이라>에는 모두 혼사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노처녀의 모습이 잘

49) 고순희, 앞의 논문, 169~174쪽.

나타난다. 노처녀는 손님이 오면 매과가 왔는가 시동을 불러 묻고, 편지가 오면 중매 편지인가 하다가 부음인 것을 알고 실망한다. 그러다가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노처녀는 이제 스스로 혼인을 성사시켜 보고자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 보기도 한다.

㉠富貴貧賤 生覺말고 人物 風采 맛당커던 處女 四十 ㄴ히 적쇼 婚姻舉動 츠려주소 金童이도 喪妻호고 李胴이도 棄妻로다 仲妹홀미 전혀 업네 날 차지 리 뉘시든고 감정 암쇼 살져 잇고 奉仕田畝 갖것만는 士族 家門 가리면서 이디도록 늙어간다.....우리 父親 兵曹判書 한아브지 戶曹判書 우리 門閥 이러호니 風俗 좃기 어려워라 (<노처녀가1>)

㉡사십 처즈 나를 보고 장기 오리 뉘 잇슬가. 이괄청춘 어린 남편이야 니게난 부당호다. 건마을 김성이 초연의 승처호고 잇써가지 환거호야 아소처로 심각호되 날과 혼인호여 엇더호가. 외썩 스랑썩니로다. 후슬 주기 낮비 여겨 혼 응답 아니호기 부귀빈천 드 버리고 일물풍치 무던커든 호인전치 츠리소서.....**수건 씨고 신발 띠고 담 너물 줄 모로난 하고 지 넘고 물 건너면 천니말이 가련마난** 호런니 심각호면 우리 집 디디 문벌 삼티로 고단니 다니다가 문학의 올라 조 판서 호면 우리 집 가문이 니러호고 엇지할고 사부의 여즈로서 츠마 그 일 못호것다. 이 이를 엇지홀고 (<노처녀자전이라>)

인용문 ㉠은 <노처녀가1>의 해당 부분으로 금동이나 이동이와 같이 기혼자라도 괜찮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족 집안인 탓에 풍속을 따르기 어렵다는 체념으로 이어진다. ㉡ <노처녀자전이라>에서 노처녀는 사십이 된 자신에게 어린 남편은 부당하다며 건넌 마을 김성이 오랫동안 홀아비로 지내왔으니 자신과 혼인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또한 후실로 가는 것을 꺼리는 부모 때문에 혼자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처녀자전이라>에서는 담을 넘어 자유로운 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역시 문벌과 사족 여성이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기는 하지만, 혼인을 위한 적극적인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하느님께 혼인 성사를 비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리저리 심각호면 아니 답답. 비느이드 호난님기 비느이드 **어서 우리 넘을 쉬게 삼기호압소서.** 남과 갖튼 스람으로 숨겨나 조흔 고를 못 보고 심회로 세월 보나이 명감호신 청천은 니 쓰 호감호스 수히 보지호소서. 이러타시 축수호더이 <노처녀자전이라>

하느님께 베필을 빨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노처녀가1>이 “긴 밤에 짝이 업고 긴 날에 벗이 업다 안갓다가 누엇다가 다시금 심각호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히 怨讐로다”로 마지막까지 한탄으로 끝나는 것과 대비되면서 혼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⁵⁰⁾

3)사십 가까이 노총각과 혼인하게 된 처녀

<노처녀가1>이 한탄에서 마무리된 것과 달리, <노처녀자전이라>는 기도 이후 김상서 집과의 혼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혼례를 치르는 부분이 이어진다.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다

50) 박일용은 이런 기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김상서 아들과의 혼인을 <노처녀가1>의 화자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면서 노처녀 문제를 공적 담론으로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일용(2005), 앞의 글, 96쪽.

시 소설의 서술자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처녀가2>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㉟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성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혼(議婚)하니 첫 마더의 되시고 나 혼인턱일 갖가오니 영덩춤이 절로난다.....혼인 날이 다다르니 신부의 칠보단장 꿈과 갖치 거룩하고 신랑의 스모풍디 더고나 보기 좃타 전안초례 맞춘후의 방치년 더욱 조의 신랑의 동탕흡과 신부의 아남흐미 차등(差等)이 업셔시니 텃정비필인 줄 오날이야 알거고나 이러르 시 쉬은 일을 엇지하여 지완(遲緩)턴고 신방의 금침 띄고 부뷔 서로 동침 하니 원앙은 녹수의 놀고 비취는 연니지는 길드립 갖흐니 평생 소원 다 풀니고온갓 시름 바히 업니 이전의 잇던 먹음 이제록 생각하니 도로혀 춤몽 갖고 니가 혈마 그리하랴 이제는 괴탄(忌憚)업다 먹은 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이 아니 희한한가 혼인한 지 십 삭만의 옥당즈를 순산하니 쌍타(雙胎)를 어이 알니 즐겁기 충양업니 (<노처녀가2>)

㊸이적의 서울 사난 김승셔르 혼난 슝니 잇시되 혼 아달을 두엇스되 가난 소치로 늦기까지 성취을 못흐야 주야 심여허던 츠의 마참 그 처즈의 소문 듯고 청혼흐야 서가오난 보니니 셔간을 바다 보고 즉시 허혼흐야 셔을 답하여 보니고 택길하여 보니이 즘연 호인나리 당흐미 노도령 노처즈가 초리청의 지비하고 동창의 연접하니 은근즈하고 집꾼 정을 어디 비할소야. 원앙니 녹수를 만남 갖고 집꾼 정을 어디드 비할손가. 빗취여 짓드립 갖더르. 더져 그 달뵈툼 티기 잇서 십삭 만의 탄성호이 일기 옥동즈라. 기골리 장디하고 열골리 준수흐더르. (<노처자전이라>)

밑줄 친 부분은 <노처녀가2>와 <노처자전이라>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노처녀가2>에서는 흥두께에 신랑 분장을 해 놓고 모의 혼인을 거행한 노처녀를 본 가족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혼인을 추진하는데, 두 작품 모두 김씨 신랑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침하는 장면 묘사나 혼인한 지 열 달 만에 아들을 낳는 설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을 보낸 후 “먹은 귀가 밝아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게 되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노처자전이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 상대자에 대해서도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한 비슷한 처지의 노총각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

1)육체와 욕망의 구분

<노처자전이라>에서 노처녀는 40에 가까운 나이만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신체의 노화를 드러내고 있다.

일흠은 아기씨요 연광은 삼십오 세라. 정막 스충 빈 방 안의 등축을 도도 뚱코 바날상즈 젓티 뚱코 침션을 흐즈하이 눈은 어이 어두온고. 가는 바늘 귀가 겨거 니리져리 헛적지이 세춤바늘 못 쓰것다. 작은 바늘 쓰것구나. 용흔 침션 이 너 숨씨 남편 혼(테)

입피자고 어러이 빈와다가 사십 연광 갖차오니 (명)주비단 다 바리고 창익도복 어니 할고.....석경을 도도 들고 이리저리 보즈하니 이 니 성승 가련하다. 홍도갓치 곱든 얼굴 지미밋션원이런고. 흑운갓치 곱흔 머리 헌터리 셔겨구나. <노처자전이라>

바느질을 하려는데 눈이 어두워 가는 바늘귀를 꿰지 못해 세침 바늘을 쓸 수 없으며, 거울을 보면 곱던 얼굴에 기미가 끼고 검은 머리에는 새치가 섞여 있다. 이는 <노처녀가1>에서 “흐르는 歲月에 앓가울손 늙어간다 거울다려 흐는 말이 어와 짝찰 니 八字여”로 표현된 것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 늙어간다는 것은 곧 아름다움의 상실과 동일시되어 왔으며⁵¹⁾ 따라서 노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의 상실이라고 보기도 한다⁵²⁾는 점에서, 특히 젊은 시절 미모가 뛰어난 노처녀는 이와 같은 상실을 그대로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규방가사에서 앞의 노처녀와 유사한 외모의 변화가 젊음의 상실이자 늙음의 도래로 상투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⁵³⁾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화와 육체적 상실은 성이라는 국면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삼삼원 진진 나리 버들잎은 청청하고 잔디약이 송입 느고 종조리 식은 뉘피 쓰고 두견식은 싹피 올고 철 모로난 아히들은 저다려 말 못난가. 종잘종잘 씨바리되 압집난 각시 들고 뒷지비난 신긋는다. 그런 마른 마를 다시 마라 오도마르 듯기 슬트 듯즈하니 용심니요 원수으히더르 그런 마른 다시 마요. 니 간중 드 녹난다. 녹음방초 승화시아히는 어니 더되온가. <노처자전이라>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춘정란감설(春情難堪說)’이라는 악부의 노래 가사이면서 남원고사본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춘정을 노래하기 위해 삽입된 가요의 일부로, 남녀의 춘정을 표현하는 공식구적인 노랫말이다.⁵⁴⁾ 이처럼 춘정을 표현하는 노래가사를 읊으면서 주변의 혼인 소식을 전하는 아이들에게 원수 같다며 노골적으로 분개하는 노처자의 모습은 혼인 욕망에 춘정, 곧 성적 욕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엇던 슝은 팔자 조와 이팔청춘 절문 남편 일즉 만는 빅연희로 미세하고 화촉동방 옥충 안의 마조 안즈 정답시설 우슴으로 열양하고 비취금 월낭의 두리 누워 살들 사랑 니 몸더로 호난뜨다. 느난 무슨 팔조로서 야심코 빈 방 안의 팔뚝 비고 흐즈 누워 혼심으로 즘을 이루고 눈물을 흘려 버슬 숨어 조흔 시월 허송한다. <노처자전이라>

인용 부분은 <노처녀가1>에서는 “엇던 處女 八字 도와 二十 前 식집간다” 정도로 간략화되어 있는데, <노처자전이라>에서는 위와 같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혼인한 부부들의 침소를 상상하면서 홀로 지새는 밤의 외로움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때 특히 비취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는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과 자신의 팔뚝을 베게 삼아 베고 누워 있는 모습의 대비 과정에서 역시 노처녀의 남녀 관계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51) 한네로레 솔라피, 김선형 역, 『노년의 미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5, 26쪽.

52) 위의 책, 38쪽.

53) 정인숙, 「기획주제 : 여성과 몸 : 노년기 여성의 "늙은 몸/아픈 몸"에 대한 인식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39쪽.

54) 박일용(2005), 앞의 글, 86~88쪽.

이처럼 <노처자전이라>에서는 노화되는 육체와 성적 욕망을 구분하고 늙은 여자의 성적 욕망 또한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2) 불모성의 경계 지우기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처자전이라>에서 노처녀는 결국 40이 가까운 나이에 노총각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달뵈툼 티기 잇서 십삭 만이 탄싱홀이 일기 옥동즈라. 기골리 장디홀고 얼골리 준수홀더르”에서와 같이 바로 임신을 하고 10달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

언뜻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결말은 그래서 더욱 낯설다. 육체적으로 노화된 몸을 가진 40에 가까운 여성의 생산성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기 때문이다. “억압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그것의 해소를 꿈꾸는 노처녀들의 덧없는 꿈을 투사시켜 40이 넘은 노처녀가 결혼을 한 뒤 자식을 낳아 과거에 급제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허구적 서사를 창출한다.”⁵⁵⁾라는 지적 역시 이런 낯섬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처녀가2>에서는 50이 넘은 노처녀가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는 설정이기에 생산성의 의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비현실적 설정이 전제되어 있어 이 역시 현실적인 늙은 여성의 출산, 생산성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 논의에서 이를 단군 신화 속 웅녀의 단군 출산과 같은 신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⁵⁶⁾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소설 속에서도 40을 전후한 나이의 출산은 자주 나타난다. 특히 영웅소설류에서는 자식 보기를 기원하다가 만득자를 얻는 출생담이 자주 나타나는데 여성의 나이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당한 노산으로 설정되어 있다.⁵⁷⁾ 이 경우에도 “과연 그달부툼 티기 잇서 십삭(十朔)이 치인 후의 옥동자를 탄싱홀 제”처럼 출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유형에서 나타나는 노산은 여성의 생산성보다는 영웅적 인물의 출생담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 속에서 여성 인물들의 나이 또한 현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다가온다.⁵⁸⁾

그런가 하면 가문의 연대기를 다루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에서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한 부부 간의 늦은 출산담이 나타난다.

원슈 니가후 과하송츄홀고 초동 양월의 니르러 소부인이 복통이 줄급홀니 태부인 오선을 밧드려 장춧 나오려 홀다가 니부인을 디힐홀고 점점 고극홀여 업식홀 듯 홀니 이러툼 각당이 다 알고 금오 형데 프손 증정이를 몰나 비종 나실 적과 더으니 상국이 입니홀여 듯고 두어첩 명약홀여 브고.....좌우로 홀여곰 반깁을 디후홀물 괴결홀고 외현의 나오니 군중이 모다 싱남홀시를 치하홀니 상국이 쏘홀 혼연이 디답홀시 반빅년의 싱

55) 위의 글, 107쪽.

56) 신희경, 앞의 논문, 318~319쪽.

57) 영웅소설의 대표작품인 <유충렬전>에서는 자식이 없는 유심이 아내 장부인과 함께 남악산에 찾아가 축수한 후에 아들 유충렬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유심의 축원 중 ‘연광이 반이 넘도록 일점 혈육이 없다’는 대목에서 50세 가량임을 짐작할 수 있고 장부인의 나이 또한 중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8) <구운몽>에서도 성진이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적강하는 형식의 꿈을 꿀 때, “양처스의 부체 오십의 처음으로 잉터홀니 인간의 드른 일러니 님산홀연 디 오래되 아히 우름소리 업스니 녀녀롭다”라고 하여 50에 출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꿈이라는 환상 맥락이면서 이 역시 양소유라는 영웅적 인물의 출생담에 방점이 있다.

즈흐믈 일크라 희학(戲謔)이 방지호고 제공이 상국을 우러러 분분이 괴롱흐믈 듯고 의계공이 친쇼 왈, 이는 빅모그 나아가 송스호여도 종빅시 지시리이다 팔십 싱남도 왕왕유지나 단산 십구년이오 형당이 오십 쇠경이시고 슈슈 이모지년의 지나시니 쇼년 특남도 희불즈승이 인개유지어든 이 으희는 의외지중의 싱호신 빅니 엇지 혼 잔을 앓기시리 잇가 (<완월회맹연>, 권175)

인용문은 <완월회맹연>에서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소부인과 결혼 생활 내내 불화하던 정잠이 뒤늦게 소부인과 화합하고 아이까지 얻어 가문 구성원들에게 희롱조의 축하를 받는 장면이다. 이때 남성인 정잠이 50세인 것과 달리 여성인 소부인은 32세이고, 결혼 초기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난산을 겪어 온 가족이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축하를 하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32세의 출산이 쉬운 것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상층 여성 중심으로 향유되던 국문장편소설의 일상성⁵⁹⁾을 염두에 둘 때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생산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40에 가까운 여성의 육체적인 늙음을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의 혼인 이후 출산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노쳐자전이라>에서는 나이 든 여성의 불모성에 대한 경계 넘기, 나아가 경계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대상화되지 않는 처녀의 성

일반적으로 고소설에서 처녀의 성은 남성의 육체적 욕망에 의해 대상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남성 중심으로 향유된 전기소설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이가 14, 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했다.....그 소녀를 본 주생은 낮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갈 뻔했다.

㉡주생은 방안으로 들어가 선화와 동침을 하였다. 선화는 나이가 어리고 몸이 허약해 정사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열은 구름 속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버들가지가 하늘 거리며 꽃이 교태를 부리듯이 향기로운 울음소리로 속삭이는가 하면, 잔잔하게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살짝 찌푸리곤 하였다. 주생은 벌이 꿀을 탐하고 나비가 꽃을 사랑하듯이 정신이 혼미하고 화락하여 날이 새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인용문 ㉠은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인 <주생전>에서 기생 배도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주인공 주생이 우연히 보게 된 양가집 처녀 선화를 처음 본 장면이다. 그야말로 한눈에 반해 어

5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서사'의 미학 -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정선희, 「고전소설 속 일상생활의 양상과 서술 효과」, 『한국고전연구』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찌할 줄 모르는 모습인데, 이때 반함의 핵심에는 미칠 듯한 욕정이 있고 이는 이후 담장을 넘어들어가 ㉠과 같이 겁탈에 가까운 정사를 벌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여주인공인 처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외모에 반해 성적 욕망을 느끼고 이후 결국 이것이 정사로 이어지는 양상은 <위생전>, <심생전>, <정생전> 등의 여러 애정전기소설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관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에서도 다를 바 없다. <춘향전>의 대표적 이본인 완판⁸⁴ 장본에서 춘향은 성참관의 서녀로 설정되어 있는데, 처음 본 이몽룡의 눈에 비친 춘향의 모습은 훌치마는 벗어놓고 속옷을 한껏 말아 올린 채 그네를 뛰는 것⁶⁰으로, 이 역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의 혼인 문제가 핵심이 되는 다수의 국문장편소설에서도 처녀들은 여지없이 남성 욕망의 대상이 된다.⁶¹

이처럼 고소설에서 처녀의 성은 대부분 남성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며, 이때 대체로 폭력이 수반된다.⁶² 이에 비해 <노처자전이라>에서 처녀의 성은 대상화되지 않으며⁶³, 이때 상징되는 남녀관계⁶⁴ 역시 폭력성을 수반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녀 음양의 조화로운 결합을 전제한 상호적인 것이고, 육체의 교합만이 아닌 정서적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성’이라는 맥락에서 <노처자전이라>의 노처녀는 대상화, 타자화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⁶⁵

60) 이때는 삼월이라 일렀으되 오월 단오일이랴. 천중지가절이라.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소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땅아 금봉채를 정제하고 나군을 두른 허리 미양의 가는 벼들 힘이 없이 드리운듯 아름답고 고운 태도 아장 걸어 흐늘 걸어 가만가만 나올 적에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수화유문 초록 장옷 남방사 훌치마 훨훨 벗어 걸어두고 자주영초 수당혜를 썩썩 벗어 던져두고 백방사 진술속곳 턱 밑에 혈끈 추켜올리고 연속마 추천 줄을 섬섬옥수 던지시 들어 양수에 갈라 잡고 백릉버선 두 발길로 섭적 올라 발구를 제 세류 같은 고운 몸을 단정히 놀리는데 뒤 단장 옥비녀 은죽절과 앞치레 볼 것 같으면 밀화장도 옥장도며 광원사 겹저고리 제색 고름에 태가 난다. <열녀춘향수절가>

61) <완월회맹연>에서는 남성 인물이 자신을 구해준 인물의 여동생을 겁탈하려다 그녀를 자결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나온다. (이옥고 미인이 침금의 나아가고 유모 시어 등이 곱히 잠들거늘 이에 상하의 나아가 이옥이 안주 그 조는 거동을 보니 구름 굿튼 머리를 버기의 더지고 관금을 덤혀 향기로온 잠이 부야히니 무음이 어리고 의시 표탕하여 니불을 들혀고 손으로 분흉(盆胸)을 어로몬져 접면(接面) 교구(交口)의 환정(歡情)을 것잡지 못하니 미인이 즙결의 놀나 유모만 녀여 꾸짖고져 하다가 조던 눈을 희미히 써보미 스창의 월식이 여주(如畫)하여 호발(毫髮)을 다 헬지라 옥굿튼 총각 슈지(秀才) 조그 상두의 좌하여 이긋투를 보미 혼백이 비월하고 심신이 경상하여 밧비 몸을 니러나며 소리하여 유모를 부르코져 허거늘 공지 한삼으로 입을 막아 말을 못하게 하고 다리여 글오디.....<완월회맹연>, 권155)

62) 조선 후기 한문소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기 한문소설 속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일방적이고 폭력적 양상을 띠는 것도 같은 방향성이다. 김경미, 「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회연구』42, 한국한문학회, 2008, 145~14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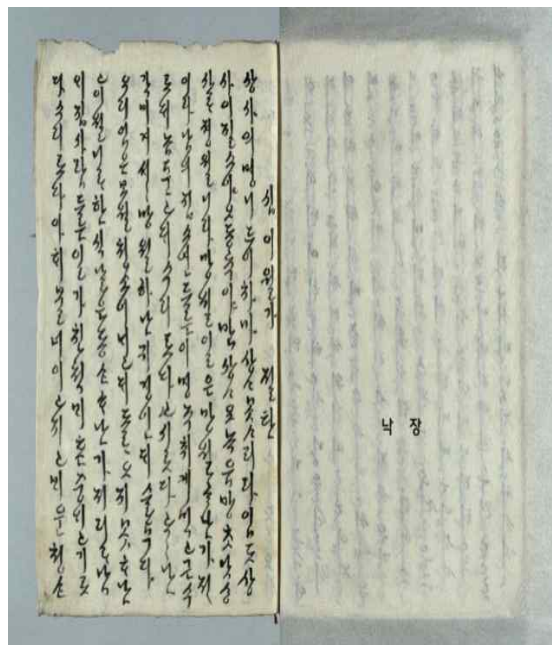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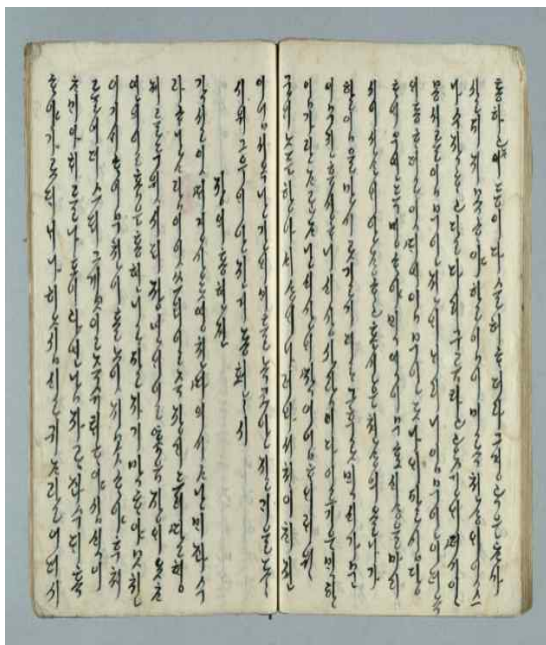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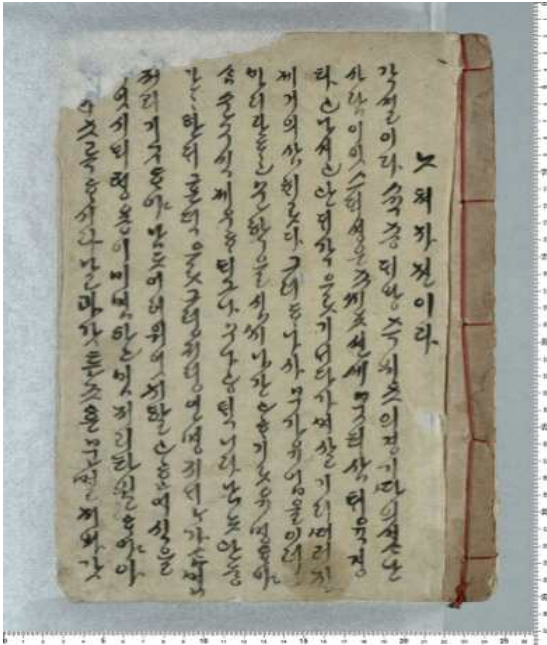
63) 고순희 교수는 <노처녀가1>을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노처녀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부분을 들어 작가가 노처녀의 아름다움을 흠쳐보기하는 남성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고순희, 앞의 논문, 180쪽), 실제 <노처녀가1>에서 “花鏡 압히 늦고 遠山 갓흔 푸른 눈섭 細柳 갓흔 허리 아름답다 노의 姿態 妙호도다 노의 舉動 흐르는 歲月에 앓가올손 늙어간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비해, <노처자전이라>에서는 이 부분이 “석경을 도도 들고 이리저리 보즈하니 이 니 성중 가련하다. 흥도갓치 곱든 얼굴 지미밋션원이린고. 흑운갓치 검흔 머리 힌터리 석겨구나.”로 바뀌어 있다.

64) 화촉동방 옥층 안의 마조 안주 정담시설 우숨으로 열양하고 비취금 월낭의 두리 누워 살들 사랑 니 몸디로 한낱노다./노도령 노처자가 초리청이 지비하고 동창의 연접하니 은근조하고 김푼 정을 어디 비할소야. 원안니 녹수를 만남 갖고 집푼 정을 어디든 비할손가. 빗취여 짓드림 갓더르

65) 고순희 교수는 <노처녀가1>의 노처녀는 타자화되고 대상화되었으며, 결국 이 작품은 ‘노처녀 때리기’를 행한 것이라고 직언한 바 있다. 고순희, 앞의 논문, 183~186쪽.

4. 노처녀를 대리한 규방여성의 성담론

<노처자전이라>는 한글필사본으로, '빅션균슈경낭자전이라'라는 제목의 <숙영낭자전>, '장의흥련전'이라는 제목의 <장화흥련전>, '십이월가 절탄'이라는 가사와 함께 필사되어 있다. 한 권 안에 소설과 가사가 함께 필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과 가사가 함께 필사되어 향유되는 정황은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규방 문화의 일반적인 양상⁶⁶⁾이며, <샤향곡이라> <답스향곡이라>와 같은 가창가사의 필사 제목⁶⁷⁾과 <노처자전이라>라는 제목의 유사성에서 이 작품 역시 같은 문화적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⁸⁾ 곧 <노처자전이라>의 향유층은 필사가사의 향유층과 동일하다는 것이다.⁶⁹⁾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가사를 필사해서 읽던 규방 여성들은 주로 시집 생활에서 여유를 누리게 된 양반층 중년에서 노년의 부녀자들이다.⁷⁰⁾ 그렇다면 <노처자전이라>에서 나타났던, 육체와 성욕을 구분하고, 여성의 불모성의 경계를 지우면서, 감정적 교감이 전제된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성의 양상은 이 작품을 읽던 여성들의 성과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볼 때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은, 소설과 가사를 함께 돌려 읽던 규방의 나이 든 여성들의 성 욕망을 노처녀라는 대리 인물을 통해 투사한 것이며, 그 자체로 규방 여성의 성 담론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⁷¹⁾

이렇게 형성된 성 담론은 돌려 읽기와 베껴 쓰기 나아가 창작으로 이어지면서 재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신들 고유의 공간이면서도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규방 공간에서는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가사보다는 허구의 소설 형식인 <노처자전이라>가 더욱 적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노처자전이라>가 <노처녀가2>에 비해 서두와 결말부에서 소설적 장치가 더욱 강화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규방에서 이루어진 성 담론의 재생산이, 노년 여성 결연 설화가 노년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이야기관에서 공유하면서 남성 지배적 성 담론을 넘어섰던 데⁷²⁾까지 나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66) 옥민수, 「필사문화권에서 실현된 가창가사의 담론 특성 : 규방에서의 향유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16, 반교어문학회, 2004, 165쪽.

67) 위의 논문, 154쪽.

68) <노처녀가2> 계열의 가사가 소설 작품이나 독서물의 성격이 강한 가사와 함께 수록되어 소통되었다는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강경호, 앞의 논문, 67쪽.

69) 이는 <노처자전이라>가 <노처녀가1>과 <노처녀가2>의 선후 관계를 떠나 이 두 작품이 향유된 이후에 창작, 향유된 작품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70) 이은주, 「규방가사의 표현특성과 여성 의식 연구 : 부부이별 모티프 가사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석사 논문, 2004, 17~18쪽.

71) 이처럼 향유의 장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노처녀가1>이 공개적 하소연의 형식을 취하면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데 비해, <노처자전이라>는 내밀한 독백적 발화를 통해 신세 한탄과 체념적 해소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결국 <노처녀가1>이 노처녀 문제를 공적 담론으로 객관화하는 텍스트”라는 박일용 교수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2) 강성숙, 「노년 여성 결연 설화에 나타난 성(性) 담론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33쪽.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에 대한 토론문

윤정안(서울시립대)

탁원정 선생님의 「<노처자전이라>에 나타난 ‘늙은 여자’의 성」은 <노처자전이라>라는 짧은 단편 서사물 속에 등장하는 노처녀의 형상을 ‘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신 논문입니다. 서사물에서 여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 젊은 여성들의 성이 자주 다뤄지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탁원정 선생님의 논문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며, 동시에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조선 후기 노처녀에 대한 성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3장에서 노처녀가 강한 성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촉동방 옥층 안의 마조 안즈 정담시절 우습으로 열양호고 비취금 월낭의 두리 누워 살들 사랑 니 몸디로 호난뜨다.”**라고 한 대목에서 노처녀의 강한 성욕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한 성욕의 표현인지, 아니면 행복한 혼인 생활의 일부인지는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처녀는 지속적으로 혼인에 집착을 보이고, 결말에 가서는 급작스레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로 보자면 노처녀가 원하는 것은 혼인으로 볼 수 있으며, 혼인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대목은 성욕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그리면서 동시에 짝이 없는 노처녀의 한탄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노처녀가 혼인 직후 임신을 하여 아이를 갖는 장면의 의미를 “나이 든 여성의 불모성에 대한 경계 넘기, 나아가 경계 지우기”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노처녀의 형상은 불가능한 것을 허구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낙관적인 세계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상투적인 행복한 결말로 처리하기 위해 노처녀가 비록 늦기는 했지만 다른 여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선생님께서 비교하고 계신 영웅소설이나 장편가문소설과 달리 <노처자전>의 주인공은 노처녀라는 점에서 노처녀의 행복에 결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노처녀의 행복한 삶을 표상하는 출산이 오는 것도 고전소설의 문법으로 보자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3. 선생님께서는 노처녀의 성이 전기소설 등 다른 소설들과 달리 대상화되지 않게 서술된다

고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생전> 등의 작품의 주요한 향유층은 남성 사대부인데 반해 <노처자전>의 향유층은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인공도 전기소설에서는 대체로 남성이고,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별이는 욕망의 표출이나 갈등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노처자전>은 노처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성에 대한 다른 묘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애정전기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성의 성이 대상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작품들보다는 여성이 주요 향유층인 장편가문소설이나 이 작품이 함께 필사되어 있는 <숙영낭자전>, <장화홍련전>과 같은 작품과 비교하는 것이 더 합당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이 작품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규방에서 안정된 삶을 구가했던 여성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은 왜 노처녀의 삶을 향유하려고 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당대 규방의 여성들의 성 담론을 드러낸 것이라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우므로 소설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향유자들과 작품 속의 노처녀가 너무나도 다른 처지라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처녀의 출산을 불모성의 경계를 지운다는 점이 어떻게 규방의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혼인을 했고, 자식을 낳았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즉, <노처녀가>의 향유층과 노처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노처녀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의식이나 관심사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1960년대 여성 소설 속 횡단의 정치와 젠더 교차의 가능성
- 손장순의 「對話」(1969)를 중심으로

박구비(한신대학교)

1. 1960년대 여성 소설과 젠더의 이분화
2. 행복-테크놀로지의 균열과 정서소외자의 경계 넘기
3. 여성적 돌봄의 수행과 창조적 권력의 발견
4. 대화의 공간과 횡단적 정치의 가능성

1. 1960년대 여성 소설과 젠더의 이분화

1960년대 문학장이 '지식인'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던 4.19세대 젊은 남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1960년대 문학장 안에서 여성 작가들은 문학장의 주변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과 잡지 같은 매체의 증가로 연재 소설을 발표할 지면이 많아지면서 여성 작가들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연애와 결혼, 사랑을 그려내는 통속적 주제의 소설은 '여류 문학' 혹은 '감상 소설'로 평가 절하되면서 한국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김승옥을 위시한 남성 작가들이 감수성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 여성 작가들은 조심스레 그 통속성을 통해 젠더 교차 혹은 젠더 역전이라는 젠더 혁신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새로운 감각의 시대의 포문을 연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에서 '비누 냄새'를 통해 묘사되는 주인공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1960년대 여성 소설들이 젠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땀 냄새 대신 '비누 냄새'로 묘사되는 새로운 남성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남성성의 등장이기도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교차적 인물의 등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여성 작가들은 문학장의 중심에 들어서 여성-지성인으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대신, 여전히 문학의 주변부에 남아 일상과 감정을 이야기를 선택한다. 그들은 남성 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젠더적 이분화를 넘어설 새로운 주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소설의 인물을 어느 한 젠더에 고정시키기보다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일상적 '개인'으로 호출함으로써 공고히 이분화되어 있는 젠더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인의 감정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것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들의 미시적이고 감각화된 일상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감정의 구조는 현실을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본래적으로 남성성과 관계 맺는 이성이나 합리성과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비이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여성의 감정적, 공감적 능력은 사회통합을 위한 미덕으로 인정되면서도 남성적인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저급한 것으로 비판되기도 했다.⁷³⁾ 여성 작가들의 감상적 소설에 대한 폄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73) 이명호, 「감상적 개인주의와 가정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14권 1호, 2009, 116쪽

1960년대의 대표적인 지성지 《사상계》를 통해서 당시의 젠더 구성이 기계적 남성성과 감정 과잉의 여성성으로 이분화되어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⁷⁴⁾

본고는 1960년대 여성 소설들 속에 주체의 감정을 통해서 젠더 이분법의 경계를 넘나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보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상들은 감정의 젠더적 배치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남성중심적 질서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손장순의 단편을 통해 경계 넘기의 욕망과 젠더 교차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손장순(孫章純, 1935-2014)은 195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후 2000년대까지 많은 수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한 작가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발표 작품 수와 긴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류 작가’ 혹은 ‘아프레(Après)적인’ 작가로 분류되어 저평가받고,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이기도 하다.⁷⁵⁾

손장순 작품 연구는 주로 대표적인 장편소설이자 여류문학상을 수상한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⁷⁶⁾ 특히 그의 소설에서 1960-70년대 서울의 엘리트 계급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풍속 소설’, ‘도시 소설’로 읽어내는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작가의 해외 경험으로 인해 동시대의 여성 소설가들과 함께 여성 지식인이나 여성의 해외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있다.⁷⁷⁾

손장순의 인물들은 젠더적으로 고정되어 등장하기 전에 ‘개인’으로 호명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그의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기 존재나 감정을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⁷⁸⁾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는 봉건적 규범을 거부하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 살펴볼 손장순의 단편 「對話」는 1969년 1월 《현대문학》 169호에 발표된 작품이다.⁷⁹⁾ 손장순은 60년대의 끝자락에 1950년 6월 28일의 기억을 불러온다. 많은 60년대 소설들이 시간적 거리를 두고 한국 전쟁을 객관화하여 회상하지만, 손장순의 한국 전쟁은 인물들의 삶을 정지시키는 장치로 기능하며, 중점은 전쟁이라는 사건 속 ‘개인’들의 삶과 감정의 변화에 있다.⁸⁰⁾ 전쟁이라는 사건은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만들어 내도록 하기

74)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9호, 2015

75) 이지현, 위의글, 2016, 1쪽

76)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에 대한 연구 - 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방민호, 「한국문학의 1960, 70년대와 손장순 문학의 의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장두영, 「불행, 성숙에 이르는 길 - 『한국인』의 손장순론」, 앞의책, 2012; 김우영,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7호, 2016; 김영미, 「욕망의 좌절과 시기 감정: 1960년대 한국 엘리트의 감정구조- 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46호, 2017;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 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호, 2019

77)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 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2006; 임정연, 「여성의 해외 거주 경험과 탈경계적 공간 인식」, 『여성문학연구』 33호, 2014; 2016년 석사학위논문으로 손장순 작가론(이지현, 위의글, 2016)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속물성과 교양’을 주제로 연구된 바, 본고의 텍스트를 비롯한 손장순 작품 전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8) 이지현, 「손장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15쪽

79) 손장순, 「對話」, 『對話』, 현대문학사, 1969, 이 글에서 인용은 단행본의 페이지를 따른다.

80) 손장순은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과 특성 중 한국 전쟁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쟁을 체험한 것과 그 체험을 통해 세계 인식의 성장을 성찰하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분단, 냉전체제에 대한 항의이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적 조건이며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강박관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동시에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적인 문제와 삶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미세

때문이다. 특히 「對話」에서는 개인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위계화되어 있는 젠더의 위치를 전복시키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감정을 표출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젠더 교차의 가능성 및 윤리적 주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본고는 나 소좌(나신호)와 안정림,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 읽기를 시도한다. 2장에서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감정인 ‘행복’이 나 소좌의 삶에 기능하는 방식을 살피고, ‘행복-테크놀로지’의 균열지점을 깨닫는 나 소좌의 변화를 살핀다. 3장에서는 정림의 집을 중심으로 일상의 균열을 겪는 안정림의 위치 변화와 그 위치로 인해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권력의 가능성을 살핀다. 4장에서는 감정적 주체로서 나 소좌와 정림의 대화에 주목한다. 감정은 나 소좌와 정림 사이의 권력적 위치를 재배치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해지며, 순간적이거나 젠더 교차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말하기가 ‘대화’라는 점에 주목하여 횡단의 말하기가 가진 정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행복-테크놀로지의 균열과 정서소외자의 경계 넘기

손장순의 「對話」는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1장- 3장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 시민들의 혼란과 분위기를 나 소좌와 정림의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묘사한다.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 버린 서울에서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동으로 몰려 죽거나, 인민군에 협력을 해 살아 남거나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나 소좌를 비롯한 인민군에게는 “승리의 공간”으로, 정림과 같이 미처 피난가지 못한 서울 사람들에게는 “생사여탈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하루 아침에 모든 가치가 전복되어 버린 서울에서 사람들은 “텅 빈 얼굴로 허탈하게 박수를 치며” 서울로 입성하는 인민군을 맞이한다. 이 모습을 본 정림의 오빠이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인 정석은 사람들의 간사함에 “전신이 해체되어 버리는 충격”을 받지만, 추상적인 이념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실재는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인민군에 협력할 뿐이다. 그들의 “텅 빈 얼굴”처럼 이데올로기의 실재 역시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각각의 방식으로 ‘좋은 삶’을 약속하며, 개인들의 삶의 층위에서 작동한다. 주체 구성과 지배의 테크놀로지로 기능하는 ‘행복’은 ‘좋은 삶’에 대한 낙관주의적 애착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지배 장치이다.⁸¹⁾ 완벽하다고 상상되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주체가 되면, 곧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주입한다. 사라 아메드가 언급하듯, 행복이야말로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인생경로 설정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규율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것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삶의 규범이자 목적인 행복은 개인에게 특정 방향에 따른 훈련, 계발을 요구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로 기능한다.⁸²⁾

작품 속에서 도선생의 부인이자 공산주의 신봉자인 열이는 ‘행복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한 편린 같은 것에 대한 섬세한 포착과 필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 속 전쟁과 개인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 임현영, 「손장순론」, 『손장순 문학전집』 제2권, 푸른사상사, 2009, 376-367쪽 참조.

81) Sara Ahmed(2010), *The Promise of Happiness*, Durham and London:Duke University Press

82) 박미선, 「행복을 통한 규율과 “정서적 변환”의 정치 비판」, 『도시인문학연구』 제8권 2호, 2016

믿고 따르는 인물이다. 남편이 생존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버리고 보도 연맹에 자수했을 때, 그는 “죽음의 자세만이 삶의 결산”이라며 변절한 남편을 비난하고, 실질적 관계를 정리한다. 현실은 여맹에 나가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인민의 세상’을 기다리며 현재의 행복을 유예한다.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열이와 열아를 비롯한 인민들은 정서적 공동체로 결속되어 지배 이데올로기는 더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은 다른 식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를 침묵하게 하고, 이들을 “정서소외자”⁸³⁾로 만들어 낸다.

그는 당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군대에서 훈련을 쌓는 동안 싫어도 형님처럼 열성당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으나 때때로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 거겁하다고 느껴왔다. 가벼운 회의와 위화감(違和感). 이념에 위반되는 슬한 모순.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고들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다. 그런대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264)

“나는 인민군의 소좌지만 안정림이라는 처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요. 나는 어렸을 때 형제가 많은 속에서 무관심하게 키워져서 항상 부모의 애정을 의심했소. 그럴수록 부모님의 눈에 들도록 갖은 짓을 다하면서. 나는 북한의 공산당을 회의하고 역겨워할수록 당에 지나치게 충실하였소. 그들에게서 소외되는 패배감이 싫어. 아니 무엇인가 확인하기 위해. 그 결과가 이 젊은 나이에 인민군 소좌요. 거기엔 남노당의 중책인 형님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한에 오자 나는 좀더 복잡해지고 말았소.” (295-296), 강조는 인용자.

북에서의 나 소좌는 행복을 약속하는 정서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더욱 열심히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던 인물이었다. 그 덕에 젊은 나이에 소좌가 되어 전쟁이 끝나면 마치 민족의 “통일”이 약속되어 있을 것만 같은 환상을 믿고 싶었던 인물이었다. 전쟁의 목적인 통일의 성취라는 약속은 나 소좌에게 의미 없는 살상을 지속할 것, 공산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회의는 좀과 같은 것. 행동력을 지연시킬 뿐이다.”(271) 나 소좌의 독백마다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이 문장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조종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생각할수록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느끼는 나 소좌는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강박적으로 이 문장을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지배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환상으로 가리고,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림에게 고백하듯이 서울에 입성한 나 소좌의 감정은 복잡해진다. 서울에 입성했을 때 그는 약속받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영웅인 형 나신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서 만난 것은 공산주의 영웅인 형 나신지가 아니라 반동의 딸인 정림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현실의 모순이었다. 그의 서울 입성은 표면상으로는 인민군의 승리이나, 그 이면에서는 의심 없는 행동력을 요구했던 행복-테크놀로지의 균열을 발견하게 하는 사건인 것이다.. 그가 열이와 다를 수 밖에 없는 지점은 비록 그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데올로기의 모순 지점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서소외자’가 되지 않기 위해

83) 아메드가 제시한 “정서소외자(affect alien)”는 행복을 문제삼는 정치를 요구하고 실천하는 형상이다. 행복은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행동/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으로 제시한다. 규범으로서의 행복은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된다. 행복할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정서 소외자”는 다른 식의 행복이 가능하려면 규범적 행복을 깨는 정치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형상이다. 그/녀가 “소외된 정서(alien affect)” 속에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소외된 만큼이나 자신의 욕망을 단념하지 않음을 뜻한다. - 박미선(2016), 위의글, 61쪽

서 당에 ‘지나치게’ 충실하였으나, 그 과장된 수행은 오히려 그가 충실했던 대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이미 ‘정서소외자’였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나 소좌는 이 넓은 바다에서 지하조직을 갖고 부하들을 주름잡으며 맹활동을 했을 형 나신지(羅信地)를 만나볼 생각을 하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낸 것처럼 가슴이 울렁 거린다. 그는 남한의 핵심부인 서울에 입성하여 서울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는 벅찬 기쁨 때문에 잠시 형님의 생각을 잊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 서울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은 역시 그가 영웅으로 숭배하며 존경해오던 형님 때문이 아닌가. 서울에 입성하는 기쁨도 바로 거기에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 소좌는 싱긋 웃는다.(265)

인간은 각기 동등한 권리의 인격체다. 이처럼 빈부의 차가 심한 모순을 타파하는 데 혁명이란 실로 불가결한 것이다. 당의 말처럼, 그러나 거기에도 현실성의 모순은 있다, 이념과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를 위해 작은 폐단과 희생은, 과정의 과오는 눈을 감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나 소좌는 형님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다. 이런 순간마다 그는 형님이 무척 아쉽다. 형님의 신념은 얼마나 확고한 것일까.(281)

나 소좌에게 형 나신지는 이념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상적인 인물이다. 그가 군인이 된 것도, 공산당에 충실한 것도 남로당의 중책이었던 형 나신지의 영향이었다. 나 소좌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길 때, 나신지를 생각하며 이겨낸다. 이념의 모순을 발견했음에도 그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상상된 나신지의 신념이었던 것이다. 나 소좌에게 숭고한 대상은 이데올로기 그 자체보다도 상상된 나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신지는 나 소좌의 묘사를 통해 완벽한 공산주의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는 도상록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 내려와 보도연맹에 든 “변절자”이다. 심지어 그는 나 소좌가 반동으로 지목한 남한 중앙청 고급 공무원인 안 국장의 가족과 어울리면서 이념보다는 음악과 영화 등 현실적인 삶의 즐거움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 반동에 가까운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변절자로 제거되지 않기 위해 ‘박현식’으로 정체를 바꾸고 인민군에 협력하는 공무원인 척하며 숨어 지낸다. 서울에서 나 소좌가 상상하고 있는 형 나신지가 가진 이념의 신념은 사라지고, 실은 생존을 위한 본능만 남아있을 뿐이다. 나 소좌가 완전한 나신지를 상상할수록 더 깊어지는 나신지와 도상록의 간극은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3. 여성적 돌봄의 수행과 창조적 권력의 발견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서울이 사흘 만에 인민군에게 남한 중앙청의 고급 공무원으로서 인민군에 의해 반동으로 지목된 안 국장과 그의 아들 정석은 인민군의 서울 점령과 동시에 친척집에 숨어 있는 신세로 전락한다. 안정적인 서울의 중상류층 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정림은 한국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 순식간에 ‘돌봄 노동(caring labour)’ 속으로 내던져졌고, 그들의 “생활의 질서는 한순간에 파괴되고 짓밟혀” 버린다. 안 부장의 고급 저택은 이미 적산차압의 딱지가 붙어 있고, 심지어 인민군의 작전 본부로 사용되면서 정림의 모녀는 골방으로 내쫓겨 겨우 삶을 영위한다. 집 안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림 한 명뿐이다. 자연스럽게 정림은 숨어 있는 아버지와 정석에게 식사를 날라다 주고, 인민군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정림은 쌀과 돈을 친척에게 주고 그대신 빨래 보따리를 싸들고 나온다. 정림은 간이 찼다. 오그라들만큼 공포를 느끼면서도 얼마만큼은 드릴을 느낀다. 그러나 전세를 예측할 수 없고 인민군의 남침의 면적이 넓어만 갈 때, 그녀는 절망감으로 가슴이 무겁게 짓눌려온다. (272)

그녀는 무엇보다 이 메신저 노트에 커다란 의의를 느낀다. 아버지나 정석처럼 친장이거나 마루밑에서 기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유예시켜주고 생명의 순간순간을 지연시켜 주는 행위란 생사의 고비에 있는 지금 자못 중대한 일이다. 설사 기지사경에 있더라도 한가닥의 삶에 대한 신념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8)

정림은 어느 빈민부락에 있는 조그만 토굴같은 그의 거처를 안 다음 집으로 돌아간다. 정림은 식량을 공급할 또 한 곳이 생겼으나 힘이 솟아오른다. 그녀는 잘 먹지 못해서 기력이라곤 하나도 없으나 매일 건공에 떠서 바쁘게 뛰어다닌다. 오로지 어떤 신념과 정신력으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293)

가장의 책임과 권위가 남다른 한국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이 부재한 상황은 곧바로 ‘가족’의 위기로 인식된다.⁸⁴⁾ 그러나 「對話」에서 정림은 여성들의 수난을 중심으로 서사화되는 50년대 여성가장과 달리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얼마만큼은 드릴을” 느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안 국장과 함께 숨어 있는 정석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림은 아버지와 정석을 지키기 위한 눈가림으로 밤에 백사장에 나가 탄알케찻을 나르는 부역을 치르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힘을 얻는다.

개인의 일상을 정지시키는 전쟁을 통해서 정림의 일상 역시 이전과는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동의 자유를 잃은 아버지나 정석과 달리, 보호자의 위치에 놓인 정림은 오히려 일상의 균열 속에서 얻은 자유를 만끽한다. 그가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무엇보다 삶을 창조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삶정치적 생산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⁵⁾

“아, 변절자의 운명이란.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나의 갈 방향을 알

84)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수난을 강조함으로써 다시는 수난이 없기 위해 권위적인 가장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부장의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내면화될 수 있었던 ‘한국현대사’는 전쟁(분단)과 가장 신화가 상생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 - 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호, 2003, 89쪽

85)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는 정동적 노동은 자본주의 탈근대화의 사슬에서 가장 강한 고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복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을 향한 잠재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정동적 노동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공동체들과 집단적 주체성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동적 노동이란 그가 “비물질노동”이라고 부르려 하는 것의 한 면으로,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의 다른 형태들을 지배하는 위치를 점해온 것이다. 특히 삶정치적 생산을 하는 노동을 성별화된 노동(gendered labour)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나타난다. 그는 성적 분업과 가족적 구조들을 강화하는 데 쉽게 복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노동의 잠재력을 삶능력, 아래로부터의 삶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삶정치적 맥락은 바로 정동과 가치의 생산적 관계를 탐색하는 토대이다. 즉, 정동적 노동은 자본주의 탈근대화의 사슬에서 가장 강한 고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복적이고 자율적인 구성을 향한 잠재력을 가진다. 어떤 경우든, 권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삶 그 자체이다. - 마이클 하트, 「정동적 노동」, 『비물질노동과 다중』, 자율평론번역모임 율김, 갈무리, 2014

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도 할 수 없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생각이야. 난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죽을 목숨인지 모르니까.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데 나를 남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정림만은 나를 알겠지.”

“선생님, 아무 말씀도. 이제부터 제가 선생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어요. 선생님의 신변을 보호하겠어요.”(292)

또한 전쟁은 정림을 안 국장의 딸이 아니라 안정림이라는 주체로 다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의 이름이기도 하다. 전쟁 전이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림의 위치는 여성의 영역인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남성 구성원을 대신하는 가족의 보호자로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이분법의 성별 구조를 뒤집고 있다. 또한 전쟁은 “사랑한다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도선생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정림은 주체로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다. 자신의 욕망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은 도선생을 대하는 정림의 태도의 변화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림이 수행하는 돌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되어 준 것이다. 로드가 이야기하듯, 이때 ‘나’는 여성으로서의 효용 때문에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나’이다. 생존은 모두가 잘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를 상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타자들, 즉 구조 바깥에 존재하는 아웃사이더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이다.⁸⁶⁾

모녀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소리없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도 항상 그의 머릿속을 지배해오고 있다. 아니 이 집의 어느 구석에라도 그녀들의 그림자뿐이다. 어쩌서 그녀들이 것처럼 존대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K장군이 아무리 승리를 구가하고 있어도 나 소좌의 안에서는 무엇인가 무너져내리고 있다.(294)

“정림씨, 사랑합니다. 저의 구애를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무척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증오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적대의식을 방비로 해서. 그럴수록 나의 머릿 속에 정림씨의 이미지는 깊이 자리 잡아서 나의 행동에 혼선을 가져올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나 소좌, 나에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305)

“나 소좌, 저는 에인을 버릴망정 남한의 자유를, 대한민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놓아 주십시오.”(313)

서울과 안 국장의 집을 점령한 인민군 나 소좌는 반동의 여식인 정림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다. 그러나 나 소좌와 정림의 권력의 위치는 현실과는 다르게 묘사된다. 나 소좌는 정림의 모녀에 대해 존대하게 느끼며, 그들을 해치기는커녕 그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을 기다린다. 안 국장의 집에서 정림의 모녀는 가장 억압받는 계층의 여성임이 분명하지만, 나 소좌의 눈에 정림은 늘 “해맑은 얼굴”로 집 안팎을 오가며, 어느 하나 아쉬움이 없다. 심지어 정림은 나 소좌의 애정을 거부한다. 다른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86) 로드는 이것을 수동적임be과 능동적인 되기being의 차이라고 본다. - 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더』, 주해연·박미선 역, 후마니타스, 2018, 176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 소좌의 애정을 거절한다.

정림은 약한 자가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의 형태를 보여준다. 엘리자베스 제인웨이 에 의하면 ‘자신에 관한 정의를 권력자가 강요하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가장 억압 받는 여성조차도 분명 나름의 권력을 행사한다.⁸⁷⁾ 정림은 권력에 의해 정의된 자신의 현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이처럼 근본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종의 저항 행위이며 강한 것임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는 전쟁이라는 예외 상황에서도 권력에 의해 정해진 현실을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거부하며, 긍정적 자아를 개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정림의 위치는 전쟁의 피해자나 가부장제의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위치로 인해 창조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4. 대화의 공간과 횡단적 정치의 가능성

작품의 전반부에서 나 소좌와 정림 각각의 생활의 변화와 고민의 지점들이 중심이 되어 서술되었으나, 4장에 이르면 나 소좌와 정림의 관계 속에서 오가는 감정과 대화가 작품의 중심에 놓인다. 나 소좌에게 “회의는 줌과 같은 것. 행동력을 지연시킬 뿐이다.”라고 되뇌이게 하는 이념에의 번민은 이제 정림에 대한 감정으로 대치된다. 나 소좌는 무력으로 안 국장의 집을 점령하였으나, 정원에서 우연히 만난 안 국장의 딸 정림을 보고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과 같은 감정적 동요를 느끼게 된다.

나 소좌는 며칠 동안 얼굴이 해맑은 처자가 눈에 띄기를 기다렸으나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그는 **집무 틈틈이 부서져나가는 감정의 파편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나 소좌는 지금 쌓인 이 파편의 더미들이 무서운 힘으로 폭발하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293)

나 소좌는 제거하려고 하는 남한의 반동인사 안 국장의 집에 머물면서 안 국장의 딸을 생각하게 된다. 그가 정림을 향해 가지는 감정들은 한 공간에 머물면서 더욱 증폭된다. 정림 역시 나 소좌를 삶의 공간 안에서 마주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와 정림이 마주치는 공간은 그들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파편화된 그들의 삶을 연결하여 어떠한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내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연령, 장애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다.⁸⁸⁾ 전시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나 소좌와 정림이 가진 사회적 위치의 재정립이 가능했다면, 안 국장의 집, 특히 서재라는 공간에서는 감정으로 인해 나 소좌와 정림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현실적으로 나 소좌는 안 국장뿐만 아니라 정림 모녀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위치에 있다. 나 소좌와 정림의 관계는 일종의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볼 수 있으나, 정림을 향한 그의 감정으로 인해 이 관계는 역전된다.

이 집 주인의 전공이 범률인 듯 각종의 법학서적이 금태를 두르고 느린히 꽃혀있다. 그리고 취미는 문학인 듯 나머지의 **대부분은 문학서적이다. 나 소좌는 순간 눈이 백**

87) 벨 훅스,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 윤은진 역, 모티브북, 2010, 151쪽

88) 안숙영, 「젠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정치학: 시론 차원의 스케치」, 『여성학논집』 20(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12, 158쪽

열등을 권 것처럼 환해진다. 윤기가 흐르는 동공으로 탐욕스럽게 훑어내린 문학서적들은 도스또예프스, 고골리, 푸르게네프, 쇼로프 등 소련의 거대한 산맥을 위시하여 독일의 토마스 만, 그리고 불란서의 것으로는 지이드 전집이 있다. 나 소좌는 가슴이 격렬하게 고동쳐온다. 공감의 립류는 나 소좌로 하여금 언젠가 이 집 주인이었던 안 국장을 만났던 것도 같고 무척 친숙한 사이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나 소좌는 로오렌스의 <날개돋힌 뱀>을 몰래 구입해다가 방장을 쳐놓고 남의 눈을 피해서 읽느라고 고심하던 생각이 난다. 이북은 독서에도 금기와 통제가 많다. 그럴 때 마다 그는 그들에게 위화감과 더불어 희의를 느낀다. 그는 글이 쓰고 싶었지만 당이 요구하는 공식을 준수할 수 없기에 이때껏 우왕좌왕해왔다. 그가 쓰고 싶은 테마는 당의 노선에 반쯤 위배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 소좌는 등뒤에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여자의 살내음새가 향긋하게 코를 찌러오는 것에 이끌리어 후딱 뒤를 돌아본다. 응집실과 서재를 통하는 문가에 얼굴이 해맑은 이 집의 처자가 정물처럼 서 있다. 그러나 그 정물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강한 실존을 부각시킨다. (284-285)

안 국장의 고급 주택 내부의 서재는 이 집의 가부장인 안 국장의 공간이었으나, 인민군 점령 이후 이 공간은 나 소좌의 생활의 일부가 된다. 안 국장의 취향대로 배치된 서재에서 나 소좌는 문학서적들을 보며, 마치 안 국장과 친숙한 사이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글을 쓰고 싶은 청년이었던 나 소좌는 안 국장의 문학서적으로 인해 정동된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문학서적이 내뿜는 친숙함과 공감의 정서는 나 소좌에게 금지된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자신의 독서와 글쓰기의 욕망은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의 서재에서 되살아난다. 이 공간에서 나 소좌의 정체성들이 교차한다. 문학청년으로서의 나신호와 인민군 소좌로서의 나신호, 그리고 정립을 사랑하는 나신호가 이 공간에 교차하면서 그의 욕망은 이 편과 저 편의 경계들을 넘어선다. 이 교차적 공간에서야 비로소 나 소좌와 정립 사이에는 대등한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살아야겠다는 자각만 전 국민 각자가 갖는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동족살상의 비극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에게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보다 우리의 것을 찾아 바로잡는 참다운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후략)”

“그동안 국가가 부채한 필박을 받았건만 우린 너무나 자각이 부족합니다. 나라를 되찾은 흥분과 센티 등 감정의 격앙과 선부른 이즘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립 씨의 말처럼 우린 너무나 결핍된 것뿐입니다.”(301)

작품의 제목이자, 단편집의 제목이기도 한 ‘對話’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일 것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벨 훅스는 대화란 주체와 대상의 발언이 아니라, 두 주체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대화는 지배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⁸⁹⁾ 서재에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각자 생각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다. 새로운 지식 주장을 할 때 다른 이들에게서 고립된 채로 주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⁹⁰⁾ 대화는 적대적 논쟁이 아니다. 들어 줄 사람이 없는 공허한 독백 끝에 이루

89) 패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 주해연·박미선 역, 여이연, 2018, 429쪽

90) 패트리샤 힐 콜린스, 위익책, 같은 쪽

어지는 나 소좌와 정림의 대화는 서로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차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이념적 뿌리를 가진 그들은 서로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대화 속에서 갈등하는 동시에 공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말하기는 대화에 경계가 없으며 모든 이해갈등은 각기 화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는, 공통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차별적 입장과 정체성을 가리지 않으며⁹¹⁾ 이루어지는 ‘횡단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횡단적 대화는 참여하는 이들의 특정 위치설정뿐 아니라, 그러한 위치설정이 ‘미완의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도 인식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횡단적 대화는 자신의 특정한 집단적 역사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다층적 차이를 넘어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나와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횡단의 정치⁹²⁾를 가능하게 한다.

이 친구를 따라가서 자수를 할까. 하지만 정림도 없는 남한에 귀순을 한들 무슨 보람이 있다. -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 소좌는 정석을 만난 순간부터 실상은 그 일을 매우 가까이 느끼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한다. - **비록 정림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혼은 내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 - 정림의 예언대로 나 소좌는 마음이 남한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선명하게 느낀다. (324)

감정적 인물 나 소좌, 나신호는 결국 혼자 살아남는다. 소설의 마지막 장은 그가 남한으로 내려와 자유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자신의 감정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나신호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경계 넘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아니다. 그보다는 나신호로 상징되었던 완벽한 체제로서의 공산주의의 ‘행복-테크놀로지’가 붕괴된 지점에 들어선 정림을 향한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이다.

오드리 로드는 고통을 겪고 실패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타인의 권력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사회가 전제하는 권력 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⁹³⁾ 나신호는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회의했던 것이 옳았음을 깨닫고, “맞지 않는 옷처럼 자신에게 거깝하다고 느껴”온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 던진다.⁹⁴⁾ 로드의 표현을 빌면, 나신호는 ‘자기답게 사는 법을 터득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라는 시끄럽고 유혹적이며 위협적인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익’힌 주체다. ‘내가 나답게 사는 법’을 찾은 것이다.⁹⁵⁾

여성만 감정적 인간이 아니라, 남성 역시 감정적 인간일 수 있다. 손장순은 감정의 이분법적 배치를 걷어내고, 주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또는 발현되는 감정이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그러므로 감정은 어느 한 젠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죽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강렬한 감정들 사이에서 젠더는 교차하며 순간적이나마 역전의 가능성을 보인다. 이들은 1960년대를 살아낸 여성 작가가 탄생시킨 감정적 인간들, 호모 센티엔스(homo sentiens)들일 것이다. (미완)

91) 나라 유발-데이비스, 『젠더와 민족』, 박혜란 역, 그린비, 2017, 236쪽

92) 나라 유발-데이비스, 위의 책, 233-236쪽

93) 오드리 로드, 『시스터 아웃사이드』, 주해연·박미선 역, 후마니타스, 2018, 116쪽

94) 오드리 로드는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이어 주는 다리는 바로 성애로 구축된다고 말한다. 즉, 우리 안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것을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즉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사랑을 향한 열정이 바로 성애이다. 로드에게 의하면, “내 느낌이 맞아.”라는 표현은 성애의 힘을 진정한 앎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오드리 로드, 위의 책, 74쪽

95) 오드리 로드, 위의 책, 112쪽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197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동성사회성과 문학의 젠더

허윤(부경대학교)

1. 들어가며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등 객차에/프랑스 시집을 읽는/소녀야,/나는, 고운/네/손이 밭더라.”라는 시를 쓴다. 박정희는 이 자작시에 대해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전체 국민 1% 내외의 저 특권 지배층의 손을 보았는가.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라며 ‘소녀’를 특권 지배층의 표상으로 불러낸다. 그리고 이 계급적 적대감은 박정희 통치성의 기반을 이루었다. 남성 노동자 대 젊고 부유한 여성이라는 오랜 구도는 리얼리즘 문학이 ‘민중’을 형상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에 저항했던 작가들은 민중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문학가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입장에 섰다. 1970년대는 초남성적 군사주의에 기반한 통치성과 이에 저항하는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한국문학사의 뼈대를 형성한 시기로, 한국문학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 정전화 과정에서 문학사적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남성 노동자의 신체를 중심으로 한 서사이다.

1960~70년대는 제국주의적 남성성을 모방한 초남성성이 등장한다. 이는 원조경제를 통해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던 남성주체들을 진취적인 행위 주체이자 민족의 영웅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유교적 전통에서 남성다움으로 간주되는 도덕성, 체면, 엄격함, 책임감과 같은 관념들이 근대화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한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체계를 성공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⁹⁶⁾ 박정희 체제는 베트남 전쟁 파병과 1.21 사태(무장공비 김신조 침투 사건) 등을 계기로 주민등록법을 강화하고, 예비군을 창설하는 등 군대의 강화를 통해 국민화를 시도한다. 냉전과 분단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생명 정치의 통치성을 적극적으로 체현한 국가였다. 하지만 초남성적 사회의 통치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이호걸이 분석한 것처럼 ‘남성 신화’가 스크린에 등장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남성의 눈물이 스크린에 재현된 것이기도 했다.⁹⁷⁾ 이는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원 체계에서 소외된 남성들의 고통이 소설에 전면화되기도 한다.⁹⁸⁾ 이때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군사주의적 남성성으로 획일화되고, 남성 주체들의 행위성은 그에 대한 좌절이나 실패, 성공 등으로 설명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불가능성은 남성성에 대한 연민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식민지 남성성이기도 하다. 희생자의 파토스에서 생겨나는 국민됨의 위계화와 도덕적으로 순결한 희생자인 남

96) Jongwo Han and L.H.M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1), 1998, pp.53~78.

97) 이호걸, 『눈물과 정치』, 따비, 2018.

98)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성 영웅의 자기 연민은 남성적 파워 엘리트주의의 중핵을 이루며 해방 이전과 이후를 관통한다는 것이다.⁹⁹⁾

이 장에서는 박정희 체제의 국민화가 대항담론이 모두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지배적 허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약한 토대를 가리기 위해 여성 혐오라는 방어 기제를 빌려왔다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폭력적 남성성에 대응하는 문학의 응전방식 역시 남성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으며, 문학사의 근간을 마련한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의 주체도 남성성의 재건을 통한 민족문학사의 창조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여성의 이분화된 대결구도가 아니라 196,70년대 문학연구에 젠더문학론의 벡터를 추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민족문학은 여성성을 매개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구성물이라는 점을 통해 남성성을 역사적 담론 구성체로 규명하고 민족문학사를 젠더화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는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과 「섬섬옥수」를 살펴볼 것이다. 1962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황석영은 베트남 전쟁이나 5.18, 북한 방문 등 한국 현대사의 궤적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던 인물이다. 특히 황석영은 문단에서 인정받은 작가였으면서 동시에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소설은 이 시대의 망탈리테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꼽히는 황석영이기 때문에 한국문학사의 남성동성사회성을 살피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항담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의 소설은 민중 남성을 재현함으로써 박정희 체제가 호명한 남성성과의 비교 대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리얼리즘 문학의 중핵을 이루는 민중의 젠더를 심문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빠들의 노스텔지어

박정희 체제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한 196,70년대 리얼리즘 소설은 민족문학의 이름으로 농민의 투박한 손, 노동자의 넓은 어깨, 고뇌하는 소시민 등의 남성성을 정전화했다. 이는 그 자체로 유표화된 젠더이자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남성으로 유표화된 리얼리즘은 시대의 헤게모니와 길항하면서 저항하는 정신의 표상으로 사용되었다. 남성성 자체가 리얼리즘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황석영의 초기 대표작 「삼포가는 길」이다.

젊은 남성 일용직 노동자인 노영달은 공사장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는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뜨내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인물로, 정씨와 더불어 고향을 상실한 인물을 상징한다. 그런데 노영달은 정씨와 달리 아련하고 쓸쓸한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캐릭터다. 정씨는 노영달보다 나이가 열 살쯤 많은 일용직 노동자로, 목공, 용접, 구두 수선 등 도시 하층민 노동자로서 여러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큰집’에도 갔다 왔다. 정씨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거리가 떨어지자 고향인 삼포로 간다는 목표를 세운다. 노영달과 정씨는 세대적으로, 성격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정씨는 차분하고 현명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반면, 노영달은 적극적이고 거친 남성성을 잘 보여준다. 노영달은 원래 고향이 없는 사람이고, 정씨는 고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고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소설의 주제다. 즉 근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민중’은 고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열 집이

99)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살까 말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비옥한 땅이 남아돌아가고 고기가 얼마든지 잡히는 삼포는 아름다운 자연 속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삼포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토대로 삼고 있는 안식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포라는 외진 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만큼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정씨로 대변되는 도시하층민 노동자들이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정씨와 영달의 상실에 앞서 전경화되는 것은 서울식당의 여급 백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백화는 서울식당의 여급으로 밤에 집을 빠져 몰래 도망가다가 식당 여주인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인천, 대구, 포항, 진해 등을 거쳐서 이 시골에 온 백화는 군부대, 공사장, 항구 등의 술집을 전전하면서 3년간 살았다. 두 남자와 백화는 길에서 조우한다. 하지만 정씨와 영달은 백화를 식당 주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역까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한다. 이 하루동안 백화와 정씨, 영달은 유사 가족이 된다. “내가 한 부대의 남자를 만났다”로 허세를 부리는 백화는 두 남자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감으로써,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완성하는 존재가 된다.¹⁰⁰⁾ 남성-민중이 고향을 상실하는 반면, 백화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백화의 고향 역시 삼포처럼 사라지고 없을지 알 수 없으나, 백화는 동생들과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말한다.

197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빈곤 인구의 44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었고. 도시에 사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근대화의 다른 얼굴이었다. 고향은 모성과 보호의 공간이자 최후의 정주지로 기능한다. 1970년대 이후 고향의 대자연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과거를 대변하는 곳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도시에서의 삶이 자연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도시에 훼손되지 않은 삶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고향에 가면 녹색 자연이 있고 냇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고 하는 방식으로 오감을 활용하는 감각적 묘사는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구성한다.¹⁰¹⁾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고향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파괴하지 못한 숭고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이 고향을 지키는 어머니, 이 고향을 지키는 나의 누이로 재현된다.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서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 같이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도망간 여급을 잡아오라고 채근하는 여성이 등장하지만, 백화가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고향은 다시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세 사람 중 백화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향을 상실한 남성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는 집을 떠나 근대성을 획득하는 자의 정체성이 강조된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진을 떠날 때, 하인숙은 서울로 가지 못하고 무진에 남겨진다. 윤희중은 고향을 버려야 할 과거이자 부끄러움의 공간으로 인지한다는 측면에서 고향을 이상화하는 방식의 소설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 다른 결의 작품에서도 고향에 남겨지는 것은 여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윤희중이나 정씨와 영달처럼 하인숙과 백화도 길을 떠난다. 백화는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서 술집으로 팔려갔다. 백화는 거기에 갔을 때는 벌써 될 대로 되라, 나는 무서운 거

100) 영화는 세 사람이 역에서 헤어지는 장면 뒤에 일종의 반전을 배치한다. 백화가 고향을 향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백화는 혼자 역에 남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빵을 뜯어 먹고 있다. 영달이 가지고 있는 돈을 털어서 백화가 먹을 간식거리를 사주고, 눈물 흘리면서 이별한 직후다. 이는 영화 초반부에 영달의 남성적 신체를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만희의 영화 <삼포 가는 길>은 노영달의 힘을 강조해서 재현한다. 그는 노영달이 착암기를 다루거나 남성 노동자들과 팔씨름을 하는 장면 등을 삽입시킨다. 백화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역전 앞에 있는 또 다른 서울 식당을 발견한다. 백화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남는 것이다.

101) 박찬효, 『196,7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탈향과 귀향의 서사』, 해안, 2013.

없다, 하는 생각이어서 겁날 게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다는 식이다. 스물다섯살의 백화가 술집에 팔려갔을 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소위 1970년대의 호스티스물이다.

이 백화의 경험은 이동철의 『어둠의 자식들』에도 후경으로 등장한다. 1970년대 저널리즘의 발달과 더불어 수기, 논픽션, 르포 등의 비문학 장르들이 활성화되었고, 『어둠의 자식들』은 하층민의 대항품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소설과 수기를 결합한 형식인 『어둠의 자식들』은 유복자로 태어난 ‘나’(이동철)의 인생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다. 다섯 살 때 왼쪽 다리에 결핵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름거리게 된 동철은 형이 미군 작전차량에 치어 죽은 이후 어머니와 서울로 이사하여 신설동에 자리를 잡는다. 어머니는 노점 장사를 하고 나는 ‘창녀촌’에서 김밥을 팔다 시비가 붙어 사람을 칼로 찌르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굶신거리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가출한다. 동철은 자신의 배짱과 거칠 것 없는 성격으로 거리에서의 삶을 이어나간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기동 서방 노릇을 하며 빌붙어 살기도 하고, 남대문에서 상경한 소녀를 속여서 업소에 팔아넘기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이용하는 것이다. 이후 『어둠의 자식들』은 감옥과 빈민가, 창녀촌 등을 전전하는 ‘나’의 삶을 기록한다. 강도 사건으로 긴 복역을 마친 ‘나’는 출소하여 은성학원이라는 야학을 설립하고 거리의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재개발에 대항하여 철거민 운동을 시작한다. 마지막 10장은 교회를 비롯한 경찰 등 통치기구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다.

김성환은 소설과 저널리즘의 서술방식이 혼종된 『어둠의 자식들』이 하층민 집단의 목소리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¹⁰²⁾ 김예림 역시 『어둠의 자식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본격문학의 장이든 대항문학의 장에서든 의미부여된 적이 없는 텍스트라고 평가하면서, 일용·부랑노동자, 범법자 등 롬펜프롤레타리아를 둘러싼 상상력을 (재)구성한다면 (노동하는) 빈곤한 자들의 다중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여럿일 수 있는 삶’을 정체성의 완고한 위계질서로부터 놓여나게 할 수 있다고 의미부여한다.¹⁰³⁾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얘기를 할 권리가 있다. 인품뿐만 아니라 우리 발싸개 같은 천하의 양아치도 인생살이에 관하여 몇 마디를 할 말은 있으리라. 나는 인품이 만든 세상과 그들이 말하는 도덕 질서에 관하여는 귀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따위를 참으로 좃으로 뭉개면서 우리들의 얘기를 까놓을 자신이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걸 솔직히, 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이제부터 지껄이는 얘기는 나와 내 친구들의 인생살이에 대한 삼국지인데, 사실 나는 새사람 되어서 어찌구저찌구 지껄일 생각이 없다. 새사람은커녕 예전의 내가 잔인무도한 악의 화신인 현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나는 삶을 조금 아는 양아치일 뿐이다. 이제부터 어디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나 할까.¹⁰⁴⁾

도덕 질서를 ‘좃으로 뭉개’는 하층민 남성은 “내가 잔인무도한 악의 화신”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동철은 자기와 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성판매 여성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어머니

102)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 359~397쪽; 김성환, 「하층민 서사와 주변부 양식의 가능성-1980년대 논픽션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9, 2016, 403~442쪽.

103) 김예림, 「빈민의 생계윤리 혹은 탁월성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36, 2015~51~80쪽.

104) 이동철 구술 황석영 저,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1980, 7~8쪽.

에 대한 죄책감도 갖는다. 하지만 하층민의 서사가 만들어낸 뾰족성은 동시에 비남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다름 아니다.¹⁰⁵⁾ 이 착취와 폭력은 생존을 위한 미학으로, 대항풍행으로 의미부여된다.

그러나 1960, 70년대 소위 ‘무작정 상경’ 담론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여성들의 이동에 대해 ‘무작정’이라는 말을 붙인다. 여성들이 친척을 찾거나 직장을 갖지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왔을 때도 ‘무작정’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인 ‘백화’로만 재현하는 것이다.¹⁰⁶⁾ 서울역에 젊은 여성들이 내리면, 이들을 유혹, 혹은 납치하여 직업을 알선한다며 팔아넘기는 사례에 대한 경고가 신문에 거의 매주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이 상실한 ‘고향’ 혹은 순수의 세계는 민중에 대한 재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어둠의 자식들』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주인공이 서울역에서 속여서 데려온 소녀들 대부분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부분이었다. 이미 고향의 어른, 혹은 오빠들에게 강간당한 후였다는 그의 진술은, ‘아름다운 고향’이 누구의 기억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남성 노동자에게 고향이 노스텔지어의 대상이었다면, 여성 노동자에게 고향은 이들을 손쉽게 성산업에 유입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20살의 동일방직 여공 석정남은 1970년대 크리스찬아카데미 기관지 『대화』에 1974년 일기를 일부 수록한다. 이 일기는 후일 『공장의 불빛』으로 이어진다.

4월 18일 소개소에 갔다. 부모는 시골에 계신다 하니 요정에 나가라고 했다.

4월 19일 양장점이 제일 여성다운 직장이긴 하지만 이제 시다로 들어가기도 그렇거니와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자존심이 식모살이는 허락하지 않는다.

4월 20일 사감선생님의 눈을 피해 몰래 기숙사에 머무르다.

4월 25일 그러나 돈을 벌기는커녕 저에겐 지금 100원의 적은 돈도 없어요. 밥값도 없는데 어찌면 좋죠? 엄마, 그러나 저의 이런 가엾은 사정은 까맣게 몰라 주세요.

4월 26일 오늘은 종일 시를 썼다.

4월 27일 재취업. 5월 6일부터 출근¹⁰⁷⁾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석정남은 식구들을 위해 돈을 보내면서도, 정작 가족을 만나러 가지는 못한다. 고향에 다녀온 만큼 일을 하지 못해 월급이 깎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향을 ‘위해’ 돈을 벌지만, 그 고향은 사라지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들

105) 이는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981년 이장호에 의해 영화화된 <어둠의 자식들>은 소설 속 ‘창녀촌’에 사는 ‘영애’의 사연만을 다룬다. 저자나 초점화자가 이동철인데 반해, 영화에서는 이동철과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인 ‘영애’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소설 속 영애의 서사를 개작했다. 학원장과 무명 작곡가 사이에서 떠넘겨지면서 교환되는 영애가 작곡가와 가족을 이룬 것이 ‘행복’으로 제시되며, 가난 때문에 딸이 죽자 영애는 다른 성판매 여성이 남겨 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동 위원이 나타나 성판매 여성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영애는 아영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창녀촌을 떠난다. 그러나 이후로도 국가의 복지 제도는 영애로부터 아영을 빼앗으려 한다. “나라가 보호해야 할 아이를 밀바닥 인생인 창녀에게 맡길 수 없다.”면서 아이를 빼앗고, 이웃도 “몸 파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네를 떠나달라고 다그친다. 아영은 시립아동 보호소를 거쳐서 크리스천 가정에 입양되고 영애는 집결지로 돌아간다. 영화는 소설에서는 등장인물 중 한 명이었던 영애의 서사를 모성 멜로드라마로 형상화한다. 집결지를 철거하고 동네를 정화해야 한다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는 ‘아이를 위해’라는 담론으로 승화된다. 결과적으로 성판매 여성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강화되는 것이다.

106) 박정미, 「‘무작정 상경’-서울이주자에 관한 담론과 젠더」, 『사회와 역사』 113, 2017, 311~344쪽.

107) 석정남, 「어느 여공의 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년 11월호, 178~203쪽.

에게 먼 곳에 있는 고향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공장에 일이 없어 사직하게 된 석정남은 직업소개소에 간다. 그곳에서는 고향에 부모가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요정’을 권유한다. 여공이 많았던 구로, 영등포 일대에는 공장에서 해고된, 혹은 그만둔 여성들을 성 산업으로 이끄는 매개자들이 있었다. 일대에는 요정과 술집이 즐비했다.

그런데도 「삼포 가는 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백화를 꼽는다. 백화는 고향에 가서 뭘 할 거냐, 시집이나 가라는 말에 조용히 집에서 농사나 거두면서 동생들 뒤통수 찌르러 하겠다고 얘기한다. 두 남자는 이에 “저 여자를 보냅시다”라고 결정한다. 정씨와 영달의 도움으로 백화는 귀향한다. 남자들은 고향을 상실하지만, 여자만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삼포는 사라져서 삼포는 근대화되고 삼포는 산업화되어서 더 이상 아름다운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지만, 이 여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고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근대문학의 기원에는 길을 떠날 수 있는 남성 개인을 모델로 하는 서사가 있다. 아버지의 질서를 떠나 자신의 세계를 완성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개척자 정신과 같은 것이 근대소설의 기원으로 명명되어 온 것이다. 이후 남성의 이동은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이동과 이주, 디아스포라의 서사는 남성 예술가 모델을 만들어왔다. 황석영이 1970년대 이동하는 남성 노동자를 재현해왔던 것은 근대성의 관찰자로서 남성 주체를 이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고향이나 집으로 상징된다. 알고 보면 ‘점례’와 같은 순진하고 순결한 여동생이 도시에 와서는 백화가 되고, 그를 점례로 돌려보내주는 남성의 모험인 것이다. 여기서 영화 <삼포 가는 길>을 참조해보면 흥미로운 선택지가 나온다. 영화에서 백화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백화는 역전의 술집을 보면서 도시에 남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영달이는 중간에 일터를 찾아간다는 남자들한테 합류해서 다른 일터로 떠난다. 삼포로 가는 사람은 정씨밖에 없는데, 이 정씨는 삼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목적지를 상실하면서 끝난다. 이 세 갈래의 결말은 이동과 이주, 고향 서사의 낭만적 판타지를 부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럼으로써 고향을 낭만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대 황석영은 여성 이주 장편소설을 연달아 내놓는다. ‘심청’과 ‘바리데기’라는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 이주 장편소설은 전 세계를 떠도는 여성을 통해 근대성의 파국을 증언한다. 『바리데기』에서 바리는 화해와 용서의 영매가 된다. 『심청』에서는 동아시아 전역을 팔러다니는 성매매 여성이 등장한다. 「삼포 가는 길」의 백화형 인물이다.

4. ‘하얀 손’에 대한 원한과 ‘민중’의 젠더정치

「삼포 가는 길」의 짝패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섬섬옥수」(1973)다. 「섬섬옥수」는 황석영의 단편 중 문학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텍스트다. 작품의 제목은 초점화자인 주인공 박미리를 지시한다. 박미리는 지방 소도시 유지의 딸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다. 대학생인 미리에게는 전도유망한 약혼자 만오와 스토커가 된 가난한 사범대생 장환, 아파트 수리공인 상수까지 세 남자가 있다. 소설의 첫 장면은 초점화자인 미리가 만오와 파혼을 결심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는 파혼을 통보하고, 이는 미리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일로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진다. 무책임하고 싫증을 잘 내고 제멋대로인 부르주아 여성의 전형이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에서 박미리가 파혼한 이유는 계산속이 밝

고, 돈이나 힘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만오에게 환멸을 느껴서라는 것이 드러난다. 엘리트 공학도인 만오는 이기적이고, 스토커인 장환은 어리석다.

고학생인 김장환은 박미리를 ‘성공의 조건’으로 삼는다. 미리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박미리를 얻지 못하고서는 돌아갈 수 없다며 기숙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박미리의 방에 침입하는 등 미리를 위협한다. 기숙사 선생들은 미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학생이니 잘 말해주라고 이야기한다.

중학교 때 저는 이미 시골을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썩어질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서울 와서 야간부 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신문배달이나 행상이나 급사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고향의 누구에게나 떴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으니까요. 누구나 저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런 삼류 고등학교의 야간부에서 우리 대학에 들어가는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¹⁰⁸⁾

김장환은 대학에 입학해서 “머리도 좋고 뛰어난 미인인 박미리”를 발견하자 그를 “서울로 올라오게 했던 목적 그 자체”라고 부르며 쫓아다닌다. 부모에게 칭해 받은 생활비를 통장에 넣고, 미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김장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도시는 박미리로 상징되었다. 미리가 약혼자에게 장환의 일을 상담했을 때, 그는 미리의 오빠라고 칭하며 장환의 학교로 찾아간다. 약혼자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오빠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장환의 학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사범대학에선 그런 학생이 해마다 몇 명씩 나옵니다. 나쁜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는 노력형들이 많으니까요. 한참 그럴 나이들이 아닙니까. 여자 쪽은 대개 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면 환경들이 좋은 편이니까. 실상 여학생과 남학생은 그런 점에서 조건이 다르죠. 군대 문제, 금전 문제, 취직 문제보다도 연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회에서 속박당하는 면임냥은 그만큼 연애에 관해서도 자연스럽지 못한 겁니다.¹⁰⁹⁾

사범대는 졸업하면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기에 자수성가하려는 성실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김장환 역시 엄청난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했으나 박미리를 쫓아다니는 바람에 경찰서에 드나들고, 학점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황석영은 선생의 입을 빌려, 대학생 사이의 연애란 계급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상류층인 ‘여대생’과 고학생 사이의 연애는 쉽지 않고, 그 때문에 김장환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과 계급, 도시의 물질문명은 ‘여대생’ 혹은 연애로 설명된다. 김장환은 미리에게 남긴 긴 편지에서 자신이 서울로 상경한 것은 시골마을에 온 ‘소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방학마다 외가를 방문하러 왔던 소녀를 좋아했던 그는 그 소녀를 통해서 계급의 차이를, 도시와 시골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된다. 그렇기에 김장환에게 미리는 일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황석영은 초점화자를 미리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리 주변의 남자들이다. 비겁한 만오나 어리석은 장환과 비교해서 상수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남성 주제다. 만오나 장환과 달리 미리가 상수를 먼저 인지하고, 그를 유혹한다는 점도

108) 황석영, 「섬섬옥수」, 『황석영중단편전집 2 삼포 가는 길』, 창비, 2012, 364쪽.

109) 황석영, 위의 책, 379쪽.

특기할 만하다. 두 남자와 결별한 미리는 상수에게 ‘장난’을 시도한다. 황석영은 아파트에 사는 부르주아 미리가 상수의 육체를 발견하는 장면을 부러 세밀하게 묘사한다.

그는 기름투성이의 검게 물들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코끝과 뺨에 모빌유가 검게 묻었고 바닥이 시꺼멓게 더럽고 끝이 다 떨어진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오른편 눈썹 위에 길게 늘어졌는데 꼭 잠겨서 억지로 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듣기에 괜찮았다. (중략)
그가 저고리를 벗자, 소매 없는 러닝만 입고 있어서 둥그렇고 탄탄해 보이는 어깨가 멋이 있었다.¹¹⁰⁾

미리는 파이프를 수리하러 온 상수의 육체에서 매력을 느낀다. “턱없이 양순하기만 하던 잡종 개처럼 만만”(346쪽)하다고 생각한 상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을 상징하고, ‘나’는 순수하고 정직한 그를 유혹하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급적 차이다. 미리는 아파트 식모들이 상수를 제멋대로 이상화하고 있다고 비웃지만, 미리 역시 상수를 상상에서 대상화한 것은 마찬가지다. 미리는 아파트를 그만두었다는 상수에게 갑작스럽게 흥천행을 청한다. 그는 “기분 내는 것은 오로지 나의 자유의사”라면서 상수를 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상수는 장환이나 만오와 달리, 미리의 “술수”가 전달되지 않는 인물이다. 미리는 그가 “자기의 입장과 조건에 민감”한 탓에 쉽게 미리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수에게 미리는 ‘불품없는 여자’일 뿐이다. “똥치 같은 게 걸땀만 잔뜩 들어가지구.”(392)라며 투덜대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남성 노동자의 건강한 계급성이 승리하는 장면이다.

황석영은 ‘여대생’이 남성 노동자를 유혹하려 하다가 현실을 깨닫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부르주아 여성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노동하지 않는 신체로서 미리는 민중의 가치를 훼손한다. 상수의 건장한 육체와 미리의 하얀 손은 대조를 이루면서 제시된다. 박미리는 “가진 자의 빼뺏어진 오만과 허영에 뜬 방종”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다.¹¹¹⁾ 박미리와 그 주변의 남자들을 통해서 황석영은 건장한 노동자의 세계를 재현하려고 시도한다. 엘리트인 만오는 유약하지만, 가난한 장환이나 상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세계를 개척한다. 자본가 대비자본가의 이 구도에서 가장 소외된 자는 여자 대학생 미리다. 그는 세 남자를 매개하고, 이들이 세계의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동안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진다.

박정희의 통치성과 박정희에 저항하는 통치성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적대로서 부르주아 여성을 필요로 한다. 하층계급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자본에 의해 전유되는 민중을 표상할 때, 부르주아 여성은 독재 정권 및 저항 운동 모두가 합의한 ‘공공의 적’이었다. 반면 하층계급 여성은 잃어버린 순수와 고향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에서 사라지는 매개체가 되었다. 남성 주체의 내면이나 성장을 돕기 위해 여성적인 것이 동원되는 구조이다.¹¹²⁾ 상수라는 민중적 남성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와 같은 존재가 필수적이다. 박정희가 언급한 ‘프랑스 시집을 읽는 소녀’처럼 말이다.

110) 황석영, 위의 책, 345쪽.

111)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 연구」, 『상허학보』 13, 2004, 507~526쪽.

112)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김승옥 소설의 고백하는 남성 주체의 내면을 분석한 강지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67, 2018, 511~548쪽이 있다.

이처럼 리얼리즘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미학적 판단 기준으로 이야기되어 왔지만, 실상 한국의 리얼리즘 문학을 판단하는 주요 미학적 기준은 젠더적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동은 주체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감정이나 정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동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자인 권명아는 정동을 타인과 세계와의 연결, 공시적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의 소속 여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명명한다. 내적인 동시에 비인격적이며,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의 표지인 동시에 속해 있지 않음의 표지인 정동이라는 이론적 어휘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대라는 현실의 문맥 위에서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³⁾ 이에 근거해보면 박정희 체제도, 박정희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여성에 대한 원한을 중심으로 정동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동이 사적인 동시에 공적이며, 공동체를 구축하는 동시에 탈구축하는 양가적 속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정동이 가진 운동성, 관계성에 기인한다. 감수성과 정념의 유포, 소속감 등 특정 장면이나 환경 내에서의 자기-기원적인 주체나 사적인 감정들로 환원되는 개별화한 행위자의 안정성과 특권성을 의문시하는 정동 연구는 이 시기 리얼리즘 소설의 젠더를 재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¹¹⁴⁾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과 이에 대한 저항담론은 부르주아 여성을 매개로 동체를 그린다. 엘리트 만오는 파혼으로 모욕당했다며 미리를 증오하고, 상수 역시 미리의 행동을 비웃는다. 고학생 장환은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삶의 큰 동력으로 삼는다. 이 세 남자는 박미리를 매개로 했을 때만 같은 집단으로 상상될 수 있다. 이들은 미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미리는 대상이자 전리품으로 존재한다. 서로 다른 계급,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 남성들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묶어내는 것은, ‘하얀 손’을 가진 박미리인 것이다. 「섬섬옥수」가 재현하는 남성들은 그런 점에서 흥미롭다. 「삼포 가는 길」이 ‘오빠’의 위치에서 유사 가족을 형성함으로써 고향으로 여동생을 돌려보낸다면, 「섬섬옥수」는 ‘애인’의 위치에서 박미리라는 ‘여대생’을 훈계한다. 이 구도야말로,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왔던 질서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구도다.

1960~19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의 노동자 남성과 1980년대 민주화 투사로서의 남성, IMF 이후 등장한 위기의 남성 등 남성성 담론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반복한다. 이 ‘남자다운 것’에 대한 상실은 국가의 위기와 맞물린다. 버틀러는 전사자나 납북자 등에 대한 슬픔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도되고 애국심을 조장하는 데 동원되는 반면, 어떤 종류의 슬픔은 무시되고 망각되고 삭제된다고 말한다.¹¹⁵⁾ 이 반복적으로 애도하는 슬픔의 대상이 남성성이다. 남성성을 강조할수록 전쟁과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오히려 남성이 소외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망각되고 삭제되는 것은 박미리나 ‘프랑스 시집을 읽는 소녀’다. 이들은 노동자 남성을, 혹은 ‘민중’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으나 그 자체로는 삭제되어야 하는 ‘사라지는 매개체’였다.

불가능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채워주는 것이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원한’이다. 박정희 체제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아래 생명 정치의 통치성을 적극적으로 체현한 국가였다. 이때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빨갱이’에 대한 원한과 더불어 부르주아, 특히 부르주아 여성에 대한 ‘원한’이다. 주체는 ‘원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하고 제한한다. 통치성에 저항하는 주체 역

113)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16~17쪽.

114) 멜리사 그레그 외,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115)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경향대 출판부, 2008.

시 '원한'의 정동을 활용한다.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은 노동하지 않는 부르주아, 특히 여성을 적대로 지목한다. 통치성과 저항담론 모두 공히 여성에 대한 '원한'을 정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정동 정치가 만들어내는 남성동성사회가 한국의 민족문화사임을 비판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 시기 문학 장에서는 순문학과 통속문학 모두 공히 '사라지는 매개체'로서 여성적인 것이 등장한다. 남성 주체의 내면이나 성장을 돕기 위해 여성적인 것이 동원되는 구조이다. 1973년에는 이청준의 『소문의 벽』과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1974년에는 황석영의 『객지』와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1976~77년에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과 황석영의 『장길산』, 한수산의 『부초』 등이 나란히 베스트셀러가 된다.¹¹⁶⁾ 이 소설들의 공통점은 이주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이며, 여성들의 죽음 혹은 비극이다. 이는 이 시기 리얼리즘 문학이 '민중'을 무엇으로 상상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5. 나가며

4.19와 함께 시작된 1960년대는 한국문학/문화의 전환기로 이야기된다. 김승옥과 최인훈 등 남성 주체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문학사의 전면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내면을 발견'하는 주체는 젠더화된 헤게모니적 남성 주체라는 사실이다. 반공과 냉전의 이데올로기의 교차점에서 남한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실패한다. 남한에서 포스트식민을 추동하는 호전적 반공주의는 초남성적 군사주의의 힘을 받지만,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 미-일의 원조를 필요로 했다. 한일협정이나 베트남전 참전은 남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놓인 식민 상황을 보여준다. 스피박은 서구 지식인들과 식민 남성 주체의 공모과정을 분석하며, 이 둘이 보편주체로서의 서구 백인 남성을 보편화하려는 욕망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이 은폐된 보편주체는 자신이 '지정학적 결정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척한다고 비판한다. 주권적 주체에 대해 지나치게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단 하나의 주체만을 허용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이다.¹¹⁷⁾

한국문학사의 주체는 성별이 없는 '보편'을 상징하며 자연스레 남성 지식인, 노동자, 이성애자 중심으로 표상되어왔다. 남성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세계가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것이 문학적인 것과 리얼리즘적인 것의 근거가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박정희의 산업개발주의와 같은 파시즘적 남성성의 연속으로 규명되는 것과 연결된다. 한국사회의 폭력적 남성성에 대응하는 문학의 응전방식 역시 남성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문학사의 근간을 마련한 시민문학론, 민족문학론의 주체도 남성성의 재건을 통한 민족문학사의 창조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다. 196,70년대 문학은 이러한 민족문학론이 정전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젠더화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한국문학의 다양성을 논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로 이분화된 대결구도가 아니라 196,70년대 문학연구에 젠더문학론의 벡터를 추가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민족문학은 여성성을 매개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구성물이라는 점을 통해 남성성을 곧 성적 억압의 중추이자 적대로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남성성 역시 역사적 담론 구성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116) 『경향신문』 1995.8.10.

117)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2003.

* 미완

허윤, 「197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동성사회성과 문학의 젠더」 토론문

토론자: 강지윤

허윤 선생님의 「197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동성사회성과 문학의 젠더」은 197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젠더적 성격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문학사의 남성동성사회성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를 위해 1970년대의 대표적 작가인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과 「섬섬옥수」를 독해하면서 ‘민중’의 재현이 어떻게 ‘젠더’라는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어 있었던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같은 분석은 이 시기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던 한국문학사의 이념적 기둥인 민중문학론이나 시민문학론의 미학적 형식이기도 했던 ‘리얼리즘 문학’이 보편적 주어로 삼은 ‘민중’의 젠더적 성격을 심문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가 반복재생산한 헤게모니 남성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항담론 역시 남성동성사회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선생님의 지적은 한국문학사의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점에 공명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글은 황석영의 두 소설 「삼포 가는 길」의 백화와 「섬섬옥수」의 박미리라는 대조적인 두 여성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술집 잡부와 여대생이라는 대척점에 놓인 두 여성 전형은 남성 주체의 자기정체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선생님은 백화가 ‘이주하는 남성’이라는 근대적 ‘탈향’ 주체의 노스텔지어를 완성시키며 ‘고향으로 보내지는 대상’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 박미리는 박정희 정권이 강조한 ‘노동하는 육체’의 반대항인 ‘흰 손의 주체’인 불로소득자로서 그 대표적인 재현 대상인 ‘여대생’이란 계급적일 뿐만 아니라 젠더적인 표상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계보가 여성을—특히 ‘누이’와 같이 탈성화하면서—고향으로 돌려보내곤 했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동의하지만, 「삼포 가는 길」의 백화가 그 전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설에서 영달은 자신의 재산을 쪼개 백화에게 열차삿을 빌려주면서 그녀의 귀향을 돕지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원작 소설에서도) 백화가 고향에 다시금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사족처럼 첨부해놓고 있습니다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촌 생활 못 배겨나요.”). 영달 일행과 백화의 조우와 결별은 하층 노동계급에게 ‘안착된 삶’이란 불가능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도록 하는 서사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달과 정씨가 찾아가는 삼포 역시 개발 붐 속에서 고향을 모습을 잃은 지 오래인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문학사에서 ‘고향’의 미화와 낭

만화는 반복되어 왔지만 「삼포 가는 길」에서 노스텔지어는 오히려 고향의 ‘잃은 자’들 사이의 동류의식이며 백화의 귀향 역시 환멸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성 인물들과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삼포 가는 길」의 문제성은 백화가 ‘사연이 많고 인생의 쓴 맛을 톡톡히 본’ 바로 그 이유로 여전히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선별되고 있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도구화를 문제 삼는다면 고통의 보유자를 진정성의 계승자로 연결시키는 문법 속에서 여성 수난을 손쉽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렇게 속 깊이 순정한 여성과의 흔치 않은 만남 역시 거부함으로써 어떠한 낭만화에도 면역되어 있다는 현실주의를 육체노동자 속에 체화시킴으로써 ‘가장 리얼한 관찰’에 다가가고 있다는 작가적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섬섬옥수」를 통해 지적하신 ‘여대생’ 이미지는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논증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적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통치성과 박정희에 저항하는 통치성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의 적대로서 부르주아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은 한국의 (탈)식민 남성성의 문제적 대상이 무엇보다 ‘부르주아 여성의 신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특히 1970년대는 대중소비사회의 이미지가 여성을 대표로 더욱 본격적인 젠더화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섬섬옥수」에서 박미리가 김장환, 그리고 상수라는 남성 노동자의 최종적인 승리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여성 인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리가 기름투성이 노동자인 상수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계급성에 딱맞는 약혼자인 장만오에게서 느끼는 반발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리는 만오의 센스와 자상함이 자신의 계급적 우월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 배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부르주아 가정의 ‘아내’로서 자신의 지위가 가진 허상을 예감하는 중입니다. 노동자인 상수를 유혹해 주도권 게임을 하고자 하는 장난기는 이러한 반발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골 빈농 출신으로 피땀어린 고학으로 명문대에 들어온 김장환은 자신의 계층 이동에 대한 갈구와 미리에 대한 광적인 사랑을 혼동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정 역시 자기 관리의 일부의 만오와 달리 맹목적으로 보이는 장환 역시 ‘부르주아 여성’이라는 대상은 남성들의 자기정체화의 매개가 되는 셈입니다. 그녀는 ‘모두의 적대 상대’가 아니라 ‘모두의 욕망 대상’입니다.

문제는 박미리가 상수와의 일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육체가 현실적 욕망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 주도권 게임에서 패배한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수는 이 ‘욕망 대상’에게 거절당하자 “똥치 같은 게 걸멋만 잔뜩 들어가지구.”라고 일갈해버립니다. 저는 「섬섬옥수」가 노동자이건 부르주아이건 상관없이 한국 남성들이 품었던 ‘여대생’에 대한 욕망과 원한의 이중기제를 묘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가가 과연 이 발칙한 여성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만오에게 파혼 선언을 하도록 했지만 그의 예의 그 현실주의가 멋내기와 취향으로 이루어진 육체에 그 이상의 욕망을 허락하도록 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시와 퀴어

정끝별(이화여대)

<별지>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문자론적 특징

문현수(고려대)

1. 머리말

현전하는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 6종에서 쓰인 구결자는 모두 80개로, 당대인들은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였다. 구결자는 표어문자인 한자의 의(義)는 제거하고 음(音)만을 차용하거나 한자의 자국어 훈(訓)이 나타내는 소리를 중심으로 차용한 표음문자라고 알려져 있다. 즉 구결자는 남풍현(1981)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음가자(音假字) 내지 훈가자(訓假字)에 속하는 차자(借字)라고 할 수 있는데, 음가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시의 한어(漢語)와 한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로 인해 음가자(音假字)만으로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 전체를 나타내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훈가자(訓假字)를 활용하여 음가자(音假字)가 나타낼 수 없는 음절구조를 더한다 해도 가능한 모든 음절구조에 대해서 구결자를 모두 만드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구결자의 고안자는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음절수를 고려하여 구결자의 체계를 고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어의 음운 내지 문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구결자의 고안자는 이러한 고민 결과 최종적으로 80개 내외가 최적의 숫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석독구결의 구결자 체계에는 고대국어 시기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고대 국어의 음운과 문법을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결자 체계의 분석을 통해 당대의 사람들이 인식한 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체계성을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한국인이 인식한 국어의 일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검토

지금까지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각 구결자의 원자가 무엇이고 그 정확한 독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별 구결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¹⁸⁾

118) 남풍현·심재기(1976), 백두현(1997), 김무림(1999), 황선엽(2003), 문현수(2018) 등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구결자	독음	구결자	독음	구결자	독음	구결자	독음	구결자	독음
ハ	ㄱ/기	丨	다/더	毛	모	丶	여	ㄴ	ㅎ
去	가/거	彳	더	<丿>	모?	ㄷ	여	ㅅ	히
ナ	겨	丁	더	夕	며	ㄹ	오/우	之	?
口	고	刀	도	丿	며	ㄹ	오/우	甲	?
尔	곰	乚	두	勿	믈	又	우	巴	?
人	과	矢	디	𠂇	옵/옵/ㅂ?	于	우	捨	브리?
斤	근	入	드	火	봏	ㄹ	이/의	及	밧?
十	기/크	冬	덜	七	스	丨	이	ㄷ	?
印	꺠?	ム	디	彳	사	弋	익	ㄷ	?
𠂇	꺠?	乙	올/을/르	ㄷ	삼	彳	저	辵	꺠?
𠂇	꺠	尸	옴/옴/ㄹ	立	셔	ㄴ	저	恨	?
𠂇	은/은/ㄴ	四	라	ㄹ	시	子	지?	侍	시?
乃	나	ㄴ	로	ㄷ	시	ㅂ	터?	非	비?
ㄴ	노	ㅅ	리	白	습	下	하		
ト	누	牙	리	ㄹ	아/어	ノ	호/오/우		
ヒ	니	ㄷ	옵/옵/口	一	일?	ㅎ	히		
ト	늑	尔	마	成	일	支	ㅎ?		

[표1]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에서 쓰인 구결자와 추정 독음

[표1]은 고려시대 자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들과 그 추정 독음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석독구결에서는 총 80여개의 구결자가 쓰인다. 독음을 알기 어려운 글자들은 대체로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은 글자들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들의 독법은 거의 밝혀졌다.¹¹⁹⁾

그런데 이 구결자의 독법과 관련하여, 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표기하고자 했는지 거시적으로 파악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첫째, 일부의 구결자는 다양한 독음을 갖는다.

둘째, 일부 구결자는 독음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대체로 1음절을 나타내지만 2음절을 나타내는 구결자도 일부 있다.

넷째, 대체로 개음절로 끝나지만 폐음절로 끝나는 구결자도 일부 있으며 그 수는 한정적이다.

다섯째, 한국어의 종성 [ㄷ]과 [ㅇ]을 표기할 수 있는 구결자가 없다.

여섯째, 구결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 구조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구결자가 다양한 독음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독음이 겹치는 구결자는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 구결자가 나타낼 수 있는 한정적인 음절구조에는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가 이러한 문자 체계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9) 독음이 불확실한 구결자의 사용빈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之[9회], 甲[6회], 巴[2회], 捨[1회], 及[1회], ㄷ[1회], ㄷ[1회], 辵[1회], 恨[1회], 侍[1회], 非[1회]

3.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의 문자론적 특징 분석

3.1. 독음이 겹치는 구결자

앞선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는 독음이 겹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1) 독음이 완전히 겹치는 구결자

ㄱ. ㅣ/ㄷ[더]

<금광03, 15:13-14> 其 須_七 이 _ノ 尸 所_乙 隨_ノ(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화소35, 08:19> 念_乙 作_ノ 나 _尸 丁(생각을 하기를)

ㅅ/ㅈ[리]

<화소35, 23:10> 能_二 矣 嬈亂_ノ ㅅ ㅅ 無_分(능히 嬈亂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화엄14, 09:22> 心_ㄷ 淸淨_ㄷ ㅅ 리 ㅈ ㅈ(마음을 淸淨하게 할 것이며)

ㄴ. ㅅ/ㅈ[시]

<화엄14, 11:02> 佛_矣 護念_ノ ㅅ 시 ㅈ ㅈ(부처님이 護念하시느)

<금광03, 13:21> 佛_一 {言} 乃 ㅅ 시 ㅈ ㅈ(부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ㅆ/ㅊ[여]

<화소35, 02:09> 何 等 世間_七 法_二 ㅆ 여 ㅊ ㅊ (爲)(어느 것을 세간의 법이라 하는가?)

<금광03, 02:01> 是_乙 名_下 檀波羅蜜_因 ㅆ 여 ㅊ ㅊ(이를 일컬어 檀波羅蜜因이라 하며)

ㅈ/ㅉ[우]

<화소35, 12:11> {我} ㅈ {等} ㅈ 우 ㅉ 우(우리들은)

<금광03, 15:07> {我} ㅈ 等_ノ ㅈ 우 ㅉ 우(우리들은)

ㅊ/ㅋ[오/우]

<화엄14, 10:08> 得_ㅊ ㅊ 우 ㅋ 우(얻을 것이니)

<구인상, 11:24> 其 說_白 ㅊ 우 ㅋ 所_七(그 이르신 바의)

ㅋ/ㅌ[며]

<화엄14, 01:10> 身語意業_乙 得_ㅋ(身語意業을 얻으며)

<자비04, 19:03> 淨土 生_乙 得_ㅋ(정토의 삶을 얻으며)

ㅋ/ㅋ[저]

<화엄14, 03:17> 戒_乙 受_ㅋ ㅋ 學_ㅋ ㅋ 저 ㅋ(戒를 받고 배우고 할)

<자비04, 21:16-17> 苦_二 ㅋ 저 ㅋ 知_三 慚_ㅋ ㅋ 저 ㅋ 知_三(苦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1ㄱ)의 'ㅣ[더]'와 'ㄷ[더]'는 모두 [더]라는 독음을 가지며, 'ㅅ[리]'와 'ㅈ[리]'는 모두 [리]라는 독음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은 그 쓰임에 있어서 철저히 구분되어 표기된다. 예를 들어,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ㅅ더'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_七이[ㅅ더]'처럼 'ㄷ[더]'가 아니라 'ㅣ[더]'만이 사용된다. 또한 직접 발화를 도입하는 연결어미로서 '-_尸이[리더]'는 사용되지 않고 '-_尸ㅈ[리더]'만이 쓰이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ㅅ[리]'는 동명사어미 '-_ㅈ'와 의존명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하는 데에만 이용되고, 'ㅈ[리]'는 '-_ㅈ'와 주격조사 '-이', 계사 '-이-'의 결합형을 표기하는 데에만 이용된다. 즉 'ㅣ[더]'와 'ㄷ[더]', 'ㅅ[리]'와 '

ㅈ[리]'는 독음은 동일하지만 그 기능상 철저히 구분되어 표기된다.

반면에 (1ㄴ)에 제시된 구결자들의 경우 독음도 동일하고 그 기능도 동일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 중 'ㄹ[시]', 'ㄹ[여]', 'ㄹ[우]'는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만 쓰이고, 'ㄹ[시]', 'ㄹ[여]', 'ㄹ[우]'는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에서만 쓰여서 문헌에 따라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는 나머지 구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ㄹ[오]'는 <구역인왕경>에서만 쓰이는 구결자로서 'ㄹ[오]'와 변별되고, 'ㄹ[며]'와 'ㄹ[저]'는 <자비도량참법>에서만 쓰이는 구결자로서 각각 'ㄹ[며]', 'ㄹ[저]'와 변별된다. 즉 이들은 문헌에 따라 철저히 구분되어 쓰이는 구결자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의 구결자들은 (1ㄴ)처럼 동일 문헌내에서 각 구결자가 표음적으로 변별성을 보이거나 (1ㄱ)처럼 표음적으로 변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변별성을 보이는 구결자라고 할 수 있다. 즉 (1)의 구결자들은 분포가 완전히 겹치는 경우가 없다.

(2) 독음이 겹칠 가능성이 높은 구결자

ㄱ. 斤[근]과 𠂔[근]

- <유가20, 13:03> 此乙 除口斤(이것을 제외하고는)
- <유가20, 18:13> 我ㄱ 今𠂔{者}(나는 지금)
- <유가20, 30:10-11> 餘𠂔 无ㄱ(남김 없이)

乙[리/을/을]과 尸[리/을/을]

- <화소35, 08:19> 念乙 作ㄴ尸丁(생각을 하기를)
- <화엄14, 02:13> 礙ㄴ尸 所ㄴ 無ㄴ(막힐 바가 없으며)

ㄴ. ㄷ[근?]과 ㄷ[근?]

- <화엄14, 18:09> 差別法乙 如ㄷ(差別法과 같이)
- <화엄14, 02:14-15> 法相乙 如ㄷ(法相과 같이)

<ㄴ>[모?]와 毛[모]

- <자비04, 21:12-14> 知尸 不<ㄴ>ㄴ口ㄱ(알지 못하니)
- <자비04, 21:18-19> 知尸 不毛ㄴㄴㄴ(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威[일]과 一[일?]

- <유가20, 23:09-10> 說ㄴ牙威ㄴㄴ尸ㄴㄴ(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 <유가20, 30:08-09> 障導乙 爲一ㄴㄴㄴ(장애를 이루는 것의)

(2ㄱ)의 '斤[근]'과 '𠂔[근]'은 핵모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음가를 지니는 구결자로 추정되어 왔는데, 그 추정된 핵모음이 모음조화를 이루는 [-]와 [·]라는 점과 석독구결에서 조사나 어미의 모음조화를 별도의 구결자를 통해 변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斤[근]'과 '𠂔[근]'은 동일한 독음을 갖는 구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乙[리]'과 '尸[리]'는 그 발음이 [리]와 [리]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 '乙[리]'와 '尸[리]'의 독음이 [리]로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독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쓰임에 있어서 철저히 변별이 된다는 점이다. 가령 '斤[근]'은 '-ㄴ 斤[아근]', '-口斤[고근]'처럼 연결어미 '-아/어', '-고'에 후행하는 첨사 'ㄱ'과 보조사 '-은/은'의 결합형을 표기하는 데에만 쓰이는 반면, '𠂔[근]'은 '今𠂔[연근]'과 '餘𠂔[남근]'처럼 말음첨기로 쓰인 'ㄱ'과 보조사 내지 동명사형어미인 '-은/은'의 결합형을 표기하는 데에만 쓰인다. 이와 동일하게 '乙[리]'은 목적격조사의 용법으로

만 쓰이고 '尸[꺄]'은 동명사형어미의 용법으로만 쓰여 철저하게 구분된다.

반면에 (2ㄴ)의 구결자들은 (2ㄱ)과 달리 그 분포가 서로 겹치는 것들이다. 가령 'ㄷ[꺄]'과 'ㄷ[꺄]'은 모두 '如ㄷ[꺄]'과 '如ㄷ[꺄]'처럼 '如'에 현토되어 동사 '꺄-의 어간 일부를 표기한 구결자로서 동일한 음가를 표기한 구결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毛[모]'와 'ㄴ[모]'도 '不毛[몹]'와 '不ㄴ[몹]'처럼 모두 능력부정의 부정사 '몹'의 일부를 표기하는 구결자로서 동일한 음가를 지니며, '一[일]'과 '威[일]'도 '障乙 爲一ㄴナㄷ七一'와 '說ノ 牙威ㄴㄴ尸失一'처럼 모두 자동사 '일-'의 어간을 표기하는 구결자로서 동일한 음가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ㄴ)의 구결자들 가운데 특정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에만 쓰이는 구결자가 있다는 점이다. '果ㄷ尸', '相ㄴ毛ㄴ', '種一尸'처럼 'ㄷ[꺄]'과 '毛[모]'와 '一[일]'은 다른 환경에서도 쓰이는 반면, 'ㄷ[꺄]'은 동사 '꺄-의 어간 일부인 '꺄'을 표기하기 위해, 'ㄴ[모]'는 부정사 '몹'의 일부를 표기하기 위해, '威[일]'은 자동사 '일-'의 어간을 표기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결국 이 구결자들은 특정 어휘 형태소와만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강한 표어성을 띠게 된다. 반면에 'ㄷ[꺄]', '毛[모]', '一[일]'은 이들보다는 표음적인 특성이 조금 더 강한 구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ㄱ. <화엄>: 如ㄷ/如ㄷ [(2ㄴ) 참조]

<유가>: 如ハ

<유가32:04-06> 先下 說ノㄱ 所乙 如ハㄴㄱ (먼저 말한 바와 같은)

ㄴ. <화엄>: 不ㄴ/不毛 [(2ㄴ) 참조]

<유가>: 不ハ

<유가20, 08:08> 出離 能 不ハㄴㄱ (出離를 능히 못하며)

ㄷ. <화엄>: 없음

<유가>: 威ㄴ/一ㄴ [(2ㄴ) 참조]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2ㄴ)의 구결자들이 특정 계통의 문헌에서만 쓰인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모든 석독구결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구결자가 아니다. '如ㄷ'과 '如ㄷ'는 <화엄경> 계통의 문헌에서만 쓰이며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이들 대신에 '如ハ'가 쓰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不毛'와 '不ㄴ'는 <화엄경> 계통의 문헌에서만 쓰이며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不ハ'이 쓰인다. 마지막으로 구결자 '一'과 '威'은 <유가사지론> 계통의 문헌에서만 등장한다. 이는 (2ㄴ)의 구결자들이 보편적인 구결자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 구결자들이 표음정보보다는 특정 어휘 형태소의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2. 독음이 여러 가지인 구결자

[표1]에서처럼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 중에는 다양한 독음을 갖는 구결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크게 소리의 차이가 기능상의 차이를 동반하지 않는 부류와 소리의 차이가 기능상의 차이를 동반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4) ㄱ. 소리의 차이가 기능상의 차이를 동반하지 않는 부류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방편을 섭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능히 정성이생에 들어가되, 자세히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리. <자비04, 19:16-18>

閻羅大王₁ 昔₂ 尸 毘沙國₇ 王₁₁ 尸 {爲} 入₁ 丁₁ ； 維陀始王_乙 與₇ 尸 共₇ 戰₇ 兵₇ 力₁₁ {如}[及]₇ 不_毛 去₇ 因₇ 誓願_乙 立₁₁ 尸_丁
 (염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불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소' 이외에도 훈독자로 쓰인 구결자는 (7)과 같이 더 존재한다. 특히 (7ㄱ)의 구결자 '捨'는 원문의 '輟'에 대한 전훈독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 구결자인데, 그 독음은 [브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7ㄴ)의 '遣[짐]', (7ㄷ)의 '威[일]', (7ㄹ)의 '及[밋]'도 훈독자로 쓰인 구결자이다. 이러한 구결자는 표음정보다는 표어성이 강조되는 구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용 빈도는 1-2회를 넘지 않는다.

(8) ㄱ. <화소35, 07:16-17>

過去₃ 十 幾₇ 七₇ 如來 {有} 下 般滄槃₇ 幾₇ 七₇ 聲聞 辟支佛₁₁ 般滄槃₇
 (과거에 얼마만큼의 여래가 계시어 般滄槃하시며, 얼마만큼의 성문 벽지불이 般滄槃하며)

ㄴ. <구인상, 15:01>

諸₇ 有₇ 本_有 法₇ 三假₁₁ 集₇ 假_有
 (무릇 있는 本有의 法은 三假가 모인 까닭으로 하여 假有한 것이며)

(8ㄱ)의 'ㄷ[시]'도 구결자의 표어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는 구결자이다. (8ㄱ)의 'ㄷ[시]'와 (4ㄴ)의 'ㄷ[시]'는 모두 [시]라는 음절을 표기할 수 있지만 'ㄷ[시]'는 언제나 원자인 '賜'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표기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ㄷ[시]'는 그 외의 환경에서 쓰이는 [시]의 음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어 그 쓰임이 철저히 구분된다.

(9) ㄱ. '소[리]'와 'ㅍ[리]'

<화소35, 23:10> 能₁₁ 嬈亂₇ 無₇
 (능히 嬈亂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화엄14, 09:22> 心₇ 淸淨₇
 (마음을 淸淨하게 할 것이며)

ㄴ. 'ㄷ[리]'과 'ㅍ[리]'

<화소35, 08:19> 念₇ 作₇
 (생각을 하기를)

<화엄14, 02:13> 礙₇ 所₇ 無₇
 (막힐 바가 없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훈독자가 아닌 구결자들 중에서도 표어성을 띠는 경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ㅍ[리]'와 '소[리]'는 모두 [리]라는 독음을 갖는 구결자로, 음상의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나 'ㅍ[리]'는 동명사형어미 '-ㅍ[리]'와 계사 '-ㅍ[리]-'의 결합형인 선어말어미 '-리-'를 표기할 때, '소[리]'는 동명사형어미 '-ㅍ[리]'과 의존명사 'ㅍ[리]'의 결합형인 '-리'를 표기할 때 사용되어 그 쓰임이 구분된다. 'ㅍ[리]'과 'ㄷ[리]'의 정연한 구분도 각 구결자가 띠는 표어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설 대립을 이루고 있다(이기문 1998: 86). 그런데 (12)의 구결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모음의 대립을 별도의 구결자를 할당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 (12) ㄱ. ㅅ : 아/어 [처격조사 '아/어']
 ㄴ. ㅞ : 오/우 [선어말어미 '-오/우-']
 ㄷ. ㅍ : 기/괴 [처격조사 '아기/어괴']
 ㄹ. ㅟ : 익/의 [속격조사 '익/의']
 ㄴ. ㄱ : 은/은 [보조사, 동명사형어미 '-은/은']
 ㄷ. ㅞ : 읊/읊 [동명사형어미 '-읊/읊']
 ㅅ. 乙 : 을/을 [목적격조사 '-을/을']

(12)의 구결자들은 모두 어미나 조사를 표기하는데, 이들은 모음조화로 인해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의 특성에 따른 자동적 교체를 보인다. 따라서 굳이 다른 구결자를 통해 음상의 차이를 변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별도의 구결자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 (13) ㄱ. ㄷ [보조사 '-도']
 <화엄14, 17:03> 一切 佛矣 所 3 十 刀 皆 七 {是} 卍 如 支 ㄴ 尸 入 乙
 (一切 부처님 처소에서도 다 이같이 하는 것을)
 ㄷ [어간 '두-']
 <유가20, 03:23-04:01> 无學 ㄴ {有} ㄷ ㄱ 所 七 聖法 乙 取 ㄱ 卍 卍
 (무학이 지닌 바의 성스러운 법을 취한 것이다)
 ㄴ. ㅏ [선어말어미 '-누-'] [(10ㄷ) 참조]
 ㅑ [선어말어미 결합형 '-노-'] [(10ㄹ) 참조]
 ㄷ. ㅓ [1인칭 대명사 '우'] [(10ㄴ) 참조]
 ㅕ [1인칭 대명사 '우'] [(10ㄴ) 참조]

반면에 모음 'ㅏ/ㅑ'의 대립은 (13)처럼 별개의 구결자로 변별되는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 구결자들은 각각 다른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이들은 모음조화를 보이는 형태소가 아니다. 가령 (13ㄱ)의 'ㄷ[도]'는 보조사 '-도'를 표기하는데, 이는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가 아니다. 어간 '두-'를 표기하는 'ㄷ[두]'도 마찬가지이다. (13ㄴ)의 'ㅏ[누]'는 선어말어미 '-누-'를, 'ㅑ[노]'는 '-누-'와 '-오-'의 결합형인 '-노-'를 표기함으로써 각각 별도의 형태소를 나타낸다. (13ㄷ)의 'ㅓ[우]'와 'ㅕ[우]'는 1인칭 대명사 '우'만을 표기하는데, 이들은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가 아니다. 특히 분포가 겹칠 수밖에 없는 선어말어미 '-노-'와 '-누-'의 경우 별도의 구결자로 표기되지 않는다면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5 음절말 종성 표기와 구결자

자토석독구결에서는 음절말 종성 표기에 (13)처럼 ㅏ[ㄱ], ㄱ[ㄴ], ㅞ[ㄹ], 乙[ㄷ], ㅞ[ㅍ], ㅞ[ㅑ], ㅞ[ㅓ], ㅞ[ㅕ]이 쓰인다.

- (13) ㄱ. ㄱ [ㄱ/隱], 乙 [ㄷ/乙], 音 [ㄹ/音], 邑 [ㅁ/邑]
 ㄴ. ㅁ [ㄱ/只], 尸 [ㅁ/尸], 叱 [ㅂ/叱]

이 중 (13ㄱ)의 'ㄱ', '乙', '音', '邑'은 그 원자가 '隱', '乙', '音', '邑'이다. 이들은 모두 그 원자가 고대국어 시기에 초성이 없고 핵모음이 'i/-'인 한자들로서(김무림 2015), 이들의 약체자인 구결자가 종성 [ㄴ], [ㄷ], [ㄹ], [ㅁ]을 표기하는 데 쓰인 것은 원자(原字)의 핵모음이 쉽게 탈락하는 약모음이자 국어에서 매개모음으로 쓰이는 'ㅡ'인 데에서 비롯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13ㄴ)의 'ㅁ', '尸', '叱'은 그 원자가 각각 '只', '尸', '叱'로서 모두 고대국어 시기에 핵모음이 'i/ㅣ'인 한자들이다(김무림 2015). 이들은 각각 종성 [ㄱ], [ㅁ], [ㅂ]을 표기하는 데 이용된다. 이들이 앞서 살펴본 'ㄱ', '乙', '音', '邑'과 달리 종성을 표기하는 데 핵모음이 'i/ㅣ'인 한자들이 쓰인 것은 한어(漢語)의 음절 구조상 [우], [음], [웃]을 나타내는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 체계의 고안자(考案者)는 차선책으로 핵모음이 'i/-'인 한자 대신에 'i/ㅣ'인 한자를 음가자(音假字)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只[기]'이 종성 [ㄱ]을 표기한 것에서 볼 때 '尸'과 '叱'도 그 원자의 핵모음 'ㅣ'를 버리고 초성의 음가만을 취하여 국어의 종성 표기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3.6. 고대 국어의 음절과 구결자

종성 표기를 제외하고 석독구결의 구결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구조를 제시하면 [표2]와 같다.

중(+종성) 초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ㅟ	ㅞ	ㅝ	ㅞ	ㅟ	ㅠ	ㅡ	ㅢ
ㄱ	가	거	겨	고	과		기	괴		기				근	건			곰	긱	긱
ㄴ	나			노		누	니		누											
ㄷ	다	더	더	도		두	디		득	딤						덜				
ㄹ	라			로		리														
ㅁ	마		며	모																
ㅂ																				벗
ㅅ	사		셔			시												삼	습	
ㅇ	아	어	여	오		우	이	의		익	익	일								
ㅈ			져						즈											
ㅎ	하			호		히		히	히											

[표2]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구조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은 모두 57개이다. 이 중 '초성+중성'의 음절구조를 가진 것은 47개이며 '초성+중성+종성'의 음절구조를 가진 것은 10개이다. 이는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모든 음절구조를 대상으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구결자를 설정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구결자의 고안자는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음절 구조를 선정하여

다. 그리고 어근을 나타내는 경우도 (15ㄷ)의 부정사 '不多'처럼 어근의 끝음절을 나타낸다. 또한 선어말어미나 어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15ㄷ, ㄹ)처럼 사용빈도가 높은 'ㅍ'과 'ㅌ'이 선택되었다.

(16) ㄱ. <화소35, 10:14-16>

佛子 3 {此} 卍 菩薩 1 年 支 方 七 少 邑 寺 盛 七 寺 ン 分 端正美好 ン ナ 1 : 香華 : 衣服
 3 ン 今 卍 以 3 糸 其 身 乙 嚴 ン 3 (불자야, 이 보살은 나이가 마야흐로 젊고 왕성하고
 하며 단정하고 아름다우니, 향기로운 꽃이니 의복이니 하는 것으로써 제 몸을 장식
 하여)

ㄴ. <유가20, 04:18-19>

他 乙 引 ン 3 {於} 己 乙 信 ン {令} 卍 {爲} 人 ン 尸 不 冬 ン 寺 利 養 乙 恭 敬 乙 稱 譽 乙 尸
 乙 爲 ン 邑 人 ン 尸 不 冬 ン 寺 尸 矣 1 (남을 이끌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양(利養)이니 공경이니 칭찬[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ㄷ. <유가20, 05:21>

若 說 法 師 卍 此 義 乙 爲 ン 邑 人 ン 尸 入 卍 故 卍 正 法 乙 宣 說 ン ト 1 乙 (만약 설법사가
 이러한 의미를 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정법을 펼쳐 말한다면(/펼쳐 말하는 것을)),

한편 [표2]를 잘 살펴보면, 초성이 'ㅍ'인 구결자 내지 종성이 'ㅍ'인 구결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절말 종성 표기에 쓰이는 6개의 구결자 중 ㅍ[邑]은 (16)과 같이 3회밖에 쓰이지 않았는데, 이 구결자가 어떤 어휘 요소 혹은 문법 요소를 표기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구결자가 음절말 종성 'ㅍ'의 표기에 쓰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 중에는 음절말 종성 'ㄷ'과 'ㅇ'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고대국어에서도 음절말 종성이 'ㄷ', 'ㅇ', 'ㅍ'으로 끝나는 조사나 어미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ㄱ'은 'ㄴ로(訶곡)'처럼 강세 첨사로, 'ㄴ'은 '世尊(世尊은)'과 'ㄴ(訶)'처럼 보조사와 동명사형어미로, 'ㄷ'은 'ㄴ(訶)'처럼 동명사형어미로, 'ㄷ'은 '佛(佛을)'처럼 목적격조사로, 'ㄹ'은 'ㄴ(訶)'이나 '聽(聽히시음) 應(應히나) (짓히겨다)'처럼 어미구성의 일부로, 'ㅍ'은 '十方(十方은)'처럼 속격조사로 쓰여 어말에서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 중 음절말 종성 'ㅍ'으로 끝나는 구결자가 거의 없고 음절말 종성 'ㄷ'과 'ㅇ'을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가 없는 것은 고대 한국어에 음절말 종성이 'ㄷ', 'ㅇ', 'ㅍ'으로 끝나는 조사나 어미 구성이 없었기에 구결자의 고안자가 이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를 따로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음절말 종성 표기에 쓰이는 구결자들은 단독으로 쓰여도 조사나 어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요컨대 석독구결에 쓰인 구결자를 선정하고 정리한 사람은 어말에 오는 문법 요소들이 지닌 음절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구결자를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벗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시[賜]-'나 '-습[白]-', '-겨[在]-'와 같이 기원적으로 동사의 어간에서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어말어미이거나 '{有}4[두]-'와 '{爲}3[삼]-', '{如}3[갓]-'과 같이 한어(漢語)에서도 다의어인 '有', '爲', '如'를 대상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구결자인 경우가 많다. 혹은 '{不}毛[모(ㄷ)]'과 '不多[안들]'처럼 한어(漢語)에

서는 다의어가 아니지만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부정사와 대응되는 경우 어떠한 한국어 부정사로 읽어야 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구결자도 존재한다. 또 선어말어미 '-고-', '-오-', '-아-', '-느-'를 표기하는 데에는 각각 구결자 '口', '宀', '彡', '彡'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연결어미 '-고', '-오', '-아/어', 의존명사 '느'를 표기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선어말어미 '-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종결어미 '-다'를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 '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석독구결이 한문 원문이 존재하고 이에 조사나 어미로 구성된 토를 붙여 우리말 어순으로 읽는 한문훈독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어두음을 나타낼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구결자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조사나 어미에 자주 등장하며 선어말어미 등에도 쓰일 수 있는 음절구조를 대상으로 구결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결자의 목록은 고대국어시기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는 물론 그것이 나타내는 음절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음절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워 고대국어의 모든 어휘적 요소들을 표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문장 이해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문법적 요소들을 표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문자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 독음이 겹치는 구결자는 'ㅈ[리]'와 'ㅊ[리]'처럼 다른 형태소를 표기하거나 'ㅊ[여]'와 'ㅈ[여]'처럼 문헌에 따른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구결자가 많다.
- 독음이 여러 가지인 구결자는 'ㅊ[기/기]'처럼 모음조화에 따라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하나의 형태소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ㄷ[도]'처럼 모음조화에 따라 자동적 교체를 보이지 않고 그 모음조화 교체형이 별개의 형태소를 나타내는 경우는 'ㅊ[두]'처럼 별도의 구결자를 통해 표기한다.
- 구결자 중에는 음가자와 훈가자 이외에도 'ㅈ[히]'처럼 훈독자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또한 음가자와 훈가자인 구결자 중에도 'ㅈ[노]'와 'ㅊ[누]'처럼 특정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구결자도 존재한다.
- 음절말 종성 표기에 쓰이는 'ㄱ[니]'과 같은 구결자는 그 원자가 고대국어 시기에 초성이 없고 핵모음이 'i/ㅡ'인 한자들로서, 원자(原字)의 핵모음이 쉽게 탈락하는 약모음이자 국어에서 매개모음으로 쓰이는 'ㅡ'인 까닭에 종성표기에 이용되었다. 반면에 한어(漢語)의 음절 구조상 [으], [움], [웃]을 나타내는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ㅈ[니]', 'ㅊ[니]', 'ㅈ[니]'는 핵모음이 'i/ㅡ'인 한자를 음가자(音假字)로 선택하여 초성의 음가만을 취하여 국어의 종성 표기에 이용하였다.
- 석독구결의 구결자 고안자는 조사나 어미에 자주 등장하며 선어말어미 등에도 쓰일 수 있는 음절구조를 대상으로 구결자 체계를 구상하였다. 구결자 중 음절말 종성 [ㅂ]으로 끝나는 구결자가 거의 없고 음절말 종성 [ㄷ]과 [ㅇ]을 표기하기 위한 구결자가 없는 것은 고대 한국어에 음절말 종성이 [ㄷ], [ㅇ], [ㅂ]으로 끝나는 조사나 어미 구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무림(1999),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研究」, 『口訣研究』 5, 口訣學會, 75-108.
- 김무림(2015),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 김성주(2008), 「字吐釋讀口訣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39-66.
- 김성주(2009),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口訣」,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67-95.
- 김영옥(2003),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47-77.
- 김지오(2019),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56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131.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남풍현·심재기(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東洋學』 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68.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현수(2018), 「/ㄱ/ 약화 표기를 통해 살펴본 구결자 'ㄹ'의 원자(原字) 및 음가(音價) 연구」,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07-135.
- 박진호(1998), 「고대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11-247.
- 박진호(2004), 「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29-148.
- 백두현(1997/2005), 「고려 시대 구결의 문자체계와 통시적 변천」,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13-129.
- 서민욱(2005), 「『瑜伽師地論』卷5·8의 點吐口訣 研究,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대현(2008),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13ㄱ),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과 古代 韓國語의 'ㄹ/矣」, 『口訣研究』 31, 口訣學會, 71-95.
- 안대현(2013ㄴ),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口訣學會 제46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1-85.
- 이기문(1998), 『(新訂版)國語史概說』, 태학사.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17),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의 몇 가지 특징」, 『口訣研究』 38, 口訣學會, 83-108.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태학사.
- 황선엽(2003), 「구결자 'ㄹ'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115-142.
-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と日本の古訓點との關係」, 『口訣研究』 8, 口訣學會, 21-49.
- ジョン·ホイットマン(2009), 「口訣資料と訓点資料の接点」, 100回訓点語學會研究發表會.

허인영 (고려대)

1990년대 중반부터 석독구결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이래,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는 표기된 구결자의 판독과 그 내용의 해독에 집중되어 왔다. 전반적인 차자표기의 관점에서 구결자의 유형을 음독(音讀)·음가(音假)·훈독(訓讀)·훈가(訓假)로 분류하는 등의 시도는 있었으나, 문자론적인 관점에서 구결자의 특징을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독구결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구결자의 특징을 포착하고 기술한 이번 발표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만,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어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발표의 취지와 내용에는 거의 동의하는 바이나,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을 몇 가지 질문함으로써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구결자의 고안자’라는 표현 -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글과 같은 몇몇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문자 체계라는 것이 오랜 세월 에 걸쳐 형성된 관습적인 것임을 고려하면, ‘구결자(체계)의 고안자’나 ‘구결자를 선정하고 정리한 사람’과 같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래 문자인 한자를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변용(adaptation)시킨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ㄴ)의 독음이 접칠 가능성이 높은 구결자 일부에 대해서도 ‘이 구결자들이 표음성보다는 특정 어휘 형태소의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하였다. 사실 모든 구결자는 처음에는 특정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빈도가 높고 종류가 적은 문법형태소를 나타내는 글자는 표음적으로 쓰이는 쪽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빈도가 낮고 종류가 많은 어휘형태소를 나타내는 글자는 그렇지 않은 것일 뿐이다.

3절의 말미에서도 “조사나 어미에 자주 등장하며 선어말어미 등에도 쓰일 수 있는 음절 구조를 대상으로 구결자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실 선후관계가 뒤바뀐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결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요소를 한자의 생획자로 표기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글자들만 남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2. 표어성을 띠는 구결자 - 이 부분은 본 발표의 핵심이자 이제까지 구결자를 한자와 분리하여 생각해 오던 관습적인 사고를 되돌아보게 하는 탁견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부분에서는 표어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박진호(2016: 146)에서 제기한 가설, 즉 /ㄷ~드/에 ‘入’, /거/에 ‘去’, /누/에 ‘臥’ 등이 쓰이는 현상을 표어적 특성과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 것을 함께 다루면 더 좋을 듯하다.

그리고 토론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시 사람들은 구결자를 한자와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 가차 용법으로 쓰인 한자의 생획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3. 독음이 여러 가지인 구결자 - ‘ㄱ, 乙, 尸’ 등은 중성을 나타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었을 것이고 환경에 따라 동반되는 /·/, /—/는 매개모음에 불과하므로 [(으/으)ㄴ], [(으/으)ㄹ], ‘[(으/으)ㄷ]과 같이 나타내면 어떨까 한다.

4. 모음조화와 구결자 - ‘+’에 대해 [지/기]라는 독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세한국어에서 자음 조사 및 어미는 모음 조사 및 어미와 달리 모음조화의 일반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이기문 1998: 154). 이를 고려하면 고대한국어에서도 ‘+’에는 [기]라는 독음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cf. ㄱ). 그리고 3.4의 마지막 단락이 갑자기 끝나버리는 느낌을 주는데, 모음조화와 관련된 구결자와 관련되지 않은 구결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더 추가되면 친절한 기술이 될 듯하다.

4. 음절말 종성 표기와 구결자 - 한국한자음에 ‘[옥], [음], [웃]’이 없기 때문에¹²³⁾ ‘只’, ‘尸’, ‘叱’은 종성이 아닌 초성을 취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먼 과거 한국어에서 음절 말 불과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흔적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5. 기타

- 2쪽 ‘대체로 개음절로 끝나지만 폐음절로 끝나는 구결자도 일부 있으며’는 ‘구결자는 대체로 개음절이지만 폐음절인 것도 일부 있으며’가 자연스러울 듯함.
- 4쪽 변변되지 → 변별되지. ‘요컨대’로 시작하는 문단에서 (1ㄱ)과 (1ㄴ)이 뒤바뀐 것 같고, (1ㄱ)은 ‘표음적’보다는 ‘기능적’으로 변별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임.
- 8쪽 ‘有 ㄷ ㄴ 1’과 ‘有 ㄷ 1’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9쪽 ‘佛 ㅅ’와 ‘佛 ㅅ’는 둘 다 관형절에서 주로 쓰이지만 전자는 체언 수식 환경에서도 쓰인다는 점과 함께 ‘佛 ㄴ’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라도 추가되어야 할 듯함.
- 12쪽 ‘火’만으로는 ‘불’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갖은 표기가 ‘火 ㄷ (火+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진호(2016). 「제5장 문법」.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신라의 언어와 문화』(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 16). 영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28-159.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新訂版). 서울: 태학사.

123) “한어(漢語)의 음절 구조상 [옥], [음], [웃]을 나타내는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부적절하다.

<화문록> 속 시녀 난화의 역할과 의미

최수현(세명대)

<별지>

1. '문'과 '무'의 개념
 2.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3.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4. 병가적·사회경제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5. 소결
- 부록 : 文武 담론 관련 자료 일람표

1. '文'과 '武'의 개념

文은 본디 '무늬[紋]'의 뜻으로 세계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외적 양태이자 표현이다. 이른바 “日月星辰은 하늘의 문(天之文)이고 山川草木은 땅의 문(地之文)이며 詩書禮樂은 사람의 문(人之文)”인 것이다. 정도전에 따르면, 하늘과 땅의 文이 氣와 形이라는 본질을 외화시킨 것이듯, 사람의 文은 儒家的 '道'가 외화된 것이다. 따라서 文은 '도를 싣는 그릇(載道之器)'이 되니 그것이 '人文'이다. 人文을 이루는 道를 얻으면 일월성신과 산천초목의 만물이 조화롭게 다스려지게 된다.¹²⁴⁾ 이처럼 人文은 天文과 地文이라는 자연계의 유비이되 나아가 자연계를 조화롭게 운용되게끔 하는 인간 주체의 역량으로 고양된다. 이외에도 人文으로서의 文은 문예가 아닌 학문과 소양으로서의 '文學', 예악과 제도로서의 '文章', 글을 완성시키는 수사로서의 '文飾' 등으로도 의미가 轉義되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¹²⁵⁾ 그럼에도 文의 본질은 '以文教化(文으로 가르쳐 변화시킨다)'의 약어로서의 '文化' 또는 '文教'로서, 곧 보편적인 문자와 제도를 공유하는 '文明(civilization)'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²⁶⁾

한편 武는 원래 '창'을 상형한 戈와 '발바닥'을 상형한 止로 구성된 글자로 戰場을 향해 행진하는 무사의 모습이다.¹²⁷⁾ 文이 文明이자 文教라면, 武는 문명(평화)을 파괴하는 武力 또는 문명을 보위하는 武備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후자의 경우는 이른바 春秋五霸의 하나인 楚나라 莊王이 역설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武의 뜻(止戈爲武)”이라는 회의자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구현되는데, 여기서 문과 무는 표면상으로는 대립되어 보이나 실은 상보적인 개념쌍이 된다. 안일한 文弱과 난폭한 武力의 단순한 대립이 아닌, 유가적·이념적 보편 '문명'과 '문교' 그리고 이를 보위하고 뒷받침하는 군사적·현실적 수단으로서의 '무비'와 '무위'로서 文과 武 양자는 균형적 並用과 兼全의 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중세 동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文과 武의 관계를 사고한 경우가 무수하게 발견된다. 가령 가장 이른 시기의 文學 비평서인 『文心雕龍』에서는 “‘文’과 ‘武’의 기술은 左右로 서로 짝하는 것이 마땅하다. 郤穀은 독서에 독실했기에 천거되어 元帥가 될 수 있었으니

124) 鄭道傳, 『三峰集』 권3, 「陶隱文集序 戊辰(1388) 十月」, 한국문집총간 5, 342면.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文者, 載道之器, 言人文也. 得其道, 詩書禮樂之教, 明於天下, 順三光之行, 理萬物之宜, 文之盛至此極矣.”

125) 미조구치 유조, 2011 「文」, 『中國思想文化事典』, 책과함께, 813~815면.

126) '동아시아 文明'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임형택, 2009 「문명의 전통적(동양적) 개념」, 『문명의식과 실학 - 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16~24면 참조.

127) 김언중, 2001 『한자의 뿌리』1, 문학동네, 307~308면.

어찌 ‘문’을 좋아한다고 ‘무’를 단련하지 않았겠는가? 孫武의 兵經(손자병법)은 그 문장이 주옥같으니, 어찌 ‘무’에 익숙하다고 ‘문’에 밝지 않았겠는가?”¹²⁸⁾라 하였으며, 武經七書 중 가장 근세의 武學 비평서라 할 수 있는 『唐太宗李衛公問對』에서는 “儒者들은 흔히 말하기를, 管仲은 霸者의 신하에 불과하다고 하오. 그들은 관중의 방법이 본디 王者의 제도에서 근본했음을 모르고 있소.”¹²⁹⁾라 하였다. 전자에서 ‘文’과 ‘武’ 간의 긴밀한 상관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후자에서는 霸道가 실은 王道에서 유래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文弱의 나이브함으로 종종 오인되는 전자의 문학서에서는 오히려 ‘무’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패도의 권모술수로 종종 오인되는 후자의 무학서에서는 오히려 ‘왕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文學(王道)과 武學(霸道) 각 방면에서 자신의 短處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文과 武 양방을 균형적·통일적으로 사고하고자 했는지 그 방법론적 고심과 모색을 음미할 수 있다.¹³⁰⁾

그런데 이처럼 ‘文’과 ‘武’를 ‘文弱과 武強’의 통념적 대립구도가 아닌 ‘文=武’의 균형적·통일적 관계로 사유하는 방식은 중국은 물론 여말 이래 조선의 왕과 문인관료, 지식인의 언설에서도 무수하게 발견된다. 원래 고대 중국의 지배층이 ‘사대부=전사’였듯 文과 武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으며¹³¹⁾ 후대의 유학에서는 비록 文을 武보다 가치적 우위에 놓았다 하더라도 왕조교체기나 외침, 전란 등 혼란기처럼 武備가 현실적·실질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에서는 유학이 주류인 사회에서도 文에 대한 편향을 반성하고 ‘文武兼全’와 ‘文武並用’으로서의 ‘文=武’ 일체적 사고를 통해 양자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입론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중국사와 한국사 분야에서 중국의 古代와 唐代에 文武 개념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제도사적 연구부터¹³²⁾ 여말선초의 文武並用論¹³³⁾과 조선후기 文武 인식과 武科制 개선론 연구¹³⁴⁾ 및 正祖의 文武兼全論 연구¹³⁵⁾ 등 다양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특정 시대나 특정 개인의 문무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상의 연구들은 여말이나 조선후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거나 실록이나 몇몇 대표적인 학자의 문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각 시대사적 문무 인식의 개별적 부면을 통관하며 전개된 문무 인식의 다층적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기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곧 여말 이래 조선후기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사유된 문무 담론의 사

128) 『文心雕龍』, 「程器」. “文武之術, 左右惟宜, 卻穀敦書, 故舉爲元帥, 豈以好文而不練武哉? 孫武兵經, 辭如珠玉, 豈以習武而不曉文也?”

129) 『唐太宗李衛公問對』 卷上. “太宗曰: 儒者多言管仲霸臣而已, 殊不知兵法乃本於王制也.”

130) 『文心雕龍』과 『唐太宗李衛公問對』에 관해서는 金弘百, 2014 「兵書を 읽는 두 가지 방법」, 『韓國漢文學研究』 54, 韓國漢文學會, 227면 참조.

131) 춘추시대까지 사대부 이상 지배층은 보통 文武를 兼學하였고 戰時에는 그대로 戰士가 되었다. 六藝의 교과목에는 禮·樂이나 書·數 외에도 射·御와 같이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武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師氏처럼 귀족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면서도 왕을 호위하며 王城을 수비하는 文武兼掌의 관직 또한 있었다. 이 시대에 文과 武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朴健柱, 2008 「中國古代 文武史 序說」, 『東洋史學研究』 105, 東洋史學會, 4~14면 참조.

132) 朴健柱, 위의 논문; 김중섭, 2017 「唐代 「武才」와 「文·武」의 분리」, 『中國學報』 79, 한국중국학회.

133) 윤훈표, 2014 「고려말 문무병용론의 새로운 제기와 그 의미」, 『韓國思想史學』 48, 한국사상사학회; 도현철, 2014 「정도전의 문치 사회론의 성격」, 『다산과 현대』 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34) 崔英辰, 2010 「朝鮮時代 文/武에 대한 認識과 理論的 根據」, 『유교사상문화연구』 41, 韓國儒敎學會; 申大鎭, 1995 「朝鮮後期 實學者의 文武에 대한 認識과 武科制 改善論」, 『경주사학』 14, 경주사학회.

135) 최형국, 2012 「正祖의 文武兼全論과 兵書 간행 -認識과 意味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상적 전개를 개괄하되 각 층위의 사상적 양태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산출되었는지 아울러 다른 층위의 사유 방법과 어떻게 연관되며 전개되었는지 개개의 역사적·정치사회적 상황들과 사상사적 전개 과정까지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文武’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음에도 기왕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 중기의 張顯光과 李植, 張維, 柳夢寅을 비롯해 曹好益, 李玄逸, 魏伯珪, 徐慶昌 등의 문무 담론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李穡과 鄭夢周로 대표되는 여말 문무 담론의 내적 논리는 조선 중기의 장현광 등을 통해 계승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여말 이래 조선후기까지 ‘문무’에 대해 유의미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름의 비평적 논의를 전개한 국왕, 문인관료, 지식인의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부록: 文武 담론 관련 자료 일람표>로 정리하고 여기 45명의 비평 자료 안에서 시대사적·사상사적 조건에 따라 강조되고 후대에도 반복적으로 계승, 변용, 심화된 문무 담론의 몇 가지 흐름을 추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1) 정치 군사 현실과 ‘문무’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려와 조선의 경우에도 文과 武라는 개념은 항시 ‘文武兼全’으로서의 보편타당한 이념형으로 사고되어왔다. 고려睿宗(재위 1105~1122)은 순임금의 고사와 송나라 황제의 하교를 논거로 “文武의 道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할 수 없음(文武之道, 不可偏廢)”을 천명하면서 유가문명과 중화질서의 자장 안에서 文武竝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¹³⁶⁾ 고려 후기의 文臣 兪升旦(1168~1232)은 “文武를 左右의 손으로 간주하여 文과 武는 彼此와 輕重 없이 상호 대등함”을 강론하였다.¹³⁷⁾ 물론 이 같은 文武의 상보적 균형을 중시하는 ‘文武不可偏廢’의 태도는 추상적·관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반론적 언설이 아니라 당시 고려가 처한 시의적인 대내외적 현실을 바탕으로 발화된 구체적 언설이라 할 수 있다. 전자의 발언은 蕃賊(여진족)이 국경을 침구하는 국방적 현실 속에서 군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온 것이고,¹³⁸⁾ 후자의 발언은 鄭仲夫의 武臣政變(1170년)이 文臣에 비해 武臣을 홀대했던 毅宗(재위 1146~1170)의 정치적 편향에서 비롯되었음을 비판하며 나온 것이다.¹³⁹⁾ 이처럼 ‘文武不可偏廢’의 명제는 공히 당시 고려가 처한 정치적·국방적 현실을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국방 현실’과 ‘문무 담론’의 상관성은 여말의 恭愍王(재위 1351~1374)과 恭讓王(재위 1389~1392)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공민왕은 정치적·제도적 차원에서 “文武 관리의 등용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법”이라 하면서 “개경의

136) 『高麗史』 권70 樂1, 雅樂, 睿宗 11년(1116) 8월 18일. “八月己卯 制曰, “文武之道, 不可偏廢. 近來蕃賊漸熾, 謀臣武將, 皆以繕甲鍊卒爲急. 昔者, 帝舜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有苗格, 朕甚慕焉, 況今大宋皇帝, 特賜大晟樂·文武舞? 宜先薦宗廟, 以及宴享.”

137) 『高麗史節要』 권11 毅宗 莊孝大王, 庚寅 24년(1170). “史臣兪升旦曰, 元首股肱, 一體相須, 故古先哲王, 視文武如左右手, 無有彼此輕重, 所以君明於上, 而臣和於朝, 叛亂之禍, 無自而作矣.”

138) 『高麗史』 권70, 위의 기사. “文武之道, 不可偏廢. 近來蕃賊漸熾, 謀臣武將, 皆以繕甲鍊卒爲急.”

139) 『高麗史節要』 권11, 위의 기사. “移宵盱於酒色, 吟風詠月, 以代都兪, 而漸積武夫之怒, 禍將至矣.”

성균관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文學과 武學 2學을 개설할 것을 하교”하였고¹⁴⁰⁾ 공양왕은 1390년의 하교에서 법제가 해이해져서 인제가 나오지 않고 왜구가 흥하니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文으로 가르치고 武로 대비하는-필자) 文教와 武備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됨을 환기하며 儒學의 권장과 軍容의 사열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⁴¹⁾ 역시 정치적·국방적 차원에서 문무관의 균형적 등용 내지 유학과 군용의 병행을 위한 ‘文武不可偏廢論’의 명제가 동일하게 반복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국왕만이 아니라 李奎報, 李穡, 鄭夢周, 鄭道傳 등의 고려 문인관료 지식인들에게도 공통적·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고려 중기의 이규보는 근년 이래로 군대가 매우 부실해지고 儒風이 극히 쇠잔해진 현실을 비판하며 “文武를 병용하는 것이 장구하는 道라 하였으니 예로부터 국가가 그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는 文武가 바로 그러하다.”¹⁴²⁾라 하였고 여말선초의 정도전도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당시의 정치적·국방적 현실을 배경으로 武班도 기예만이 아니라 經書의 文學 또한 익혀야 함을 역설하거나¹⁴³⁾ 예로부터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文으로써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 武로써 어지러움을 평정하니 文武는 마치 左右의 두 팔과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폐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군제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¹⁴⁴⁾ 공양왕과 마찬가지로 이규보와 정도전 등도 공히 ‘문’을 ‘문관’의 뜻으로서만이 아니라 ‘유학’, ‘유풍’, ‘경서의 문학’ 등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군용’, ‘군대’, ‘군제’로서의 ‘무’와 균형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전의 말대로 ‘문’은 정치를 이루기 위해 소요되며 ‘무’는 어지러움을 평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것이므로 그들의 ‘文武不可偏廢論’은 ‘유가적 정치’와 ‘병가적 군사’의 상보적 균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의 문무 균형론적 사고는 동시대의 이색과 정몽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기할 사안은 文武의 관계를 역사적·이론적으로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文武는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할 수 없으니, 文을 經[날줄]으로 삼고 武를 緯[씨줄]로 삼는 것은 天地의 常道입니다. 唐·虞 三代의 일은 먼일이므로 이야기할 것도 없지마는, 또 西漢과 東漢을 말한다면, 高祖가 초나라와 角立하였을 때에도 蕭何같은 이가 있어 피를 운용하고 말을 달리고 땀을 흘리는 수고도 없었으니 이는 文이었고, 韓信과 같은 이가 있어서 병력을 나누어 전쟁에서의 공로가 있었으니 이는 武였던 것입니다. 光武가 중흥을 이룩할 때에는 창을 버리고 문예를 강론하고 말 타기를 쉬고는 道를 논하였으니, 그는 文武를 竝用하여 經과 緯가 함께 베풀어져 후세의 미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비록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도 강론을 폐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승평시대를 만났으나 전쟁에 대한 예비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왕께서 이러한

140) 『高麗史』 권74, 志28 學校, 恭愍王 20년(1371) 12월. “二十年十二月 教曰, “文武之用, 不可偏廢, 內自成均, 外至鄉校, 開設文武二學, 養成人才, 以備擢用.”

141) 『高麗史』 권45, 世家, 恭讓王 2년(1390) 2월 29일. 癸亥 教曰, “自古, 爲國之道, 文教武備, 不可偏廢. 近年以來, 法制陵夷, 人材不作, 盜賊興行, 予用惕然. 夫臨雍拜老, 農隙講武, 古之制也. 予欲謁文廟, 以勸儒學, 視戰艦, 以觀軍容, 有司啓聞施行.” 여기서 ‘盜賊興行’은 1390년(공양왕2)에 왜구가 양광도에 침입해 음성·안성·죽주·괴주 등을 침구한 일을 가리킨다.

14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 권11, 「同前策問」, 한국문집총간 2, 245. “問. 傳曰: 文武竝用, 長久之道. 則自古國家之所不可偏廢者, 文武是也.”

143) 鄭道傳, 『朝鮮經國典』 上, 『三峰集』 권7.

144) 鄭道傳, 『太祖實錄』 권5, 太祖 3년(1394) 2월.

것을 알고서 집을 세우고 설치하였고, 文을 닦고 武를 중하게 여겼으며 일찍이 한 가지 [文]를 위해서 다른 것[武]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¹⁴⁵⁾

三代 이전에는 文과 武가 하나였지만 삼대 이후에는 文과 武가 둘로 나뉘었다. 文과 武가 하나가 되면 天下를 다스릴 수 있고, 文과 武가 둘로 나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 文武를 並用함은 모든 왕이 따라야 할 大法이고 萬世의 불변하는 원칙이다. 文은 융성한 것을 유지하고 완성된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武는 어지러움을 바로 잡아 바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仁義禮智는 文의 도구이고 刑政攻守는 武의 術이다. 잘 다스려질 때에는 文의 德으로 陽에 베풀고 武의 術은 陰에 감추어 둔다. 어지러워지는 때에 이르러서는 武의 術을 陽에 베풀고 文의 德은 陰에 시행한다. 文만 사용하고 武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하는 변을 당했을 때 구제할 수 없고, 武만을 쓰고 文을 사용하지 않으면 人心의 어긋남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文과 武를 並用하여 하나로 한 연후에야 천하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¹⁴⁶⁾

이색은 西漢과 東漢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문무병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몽주는 삼대 이후 문무의 분열을 조감하며 문무병용의 대원칙을 환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색과 정몽주는 공히 文과 武라는 개념을 각각 經[날줄]과 緯[씨줄] 내지 陽과 陰의 상보적 관계항 안에서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날줄[文]과 씨줄[武]은 어느 하나도 배제될 수 없는 호혜적 織造의 개념쌍이며, 陽[文]과 陰[武] 또한 어느 하나도 배제될 수 없는 상보적 浸潤의 개념쌍이다. 주지하듯 날줄은 씨줄과의 관계항 안에서만 존재의의를 획득하며 별은 그늘과의 관계항 안에서만 존재의의를 획득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관계항 아닌, 서로가 있어야만 서로가 존재 가능한 관계인 것이다. 치세에는 文·武가 각각 陽과 陰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숨지만, 난세에는 武가 陽으로 드러나며 文이 陰으로 숨으며 그 자리를 교체한다. 후자에 있어 陽은 더 이상 文이 아닌 武이며, 陰은 더 이상 武가 아닌 文이 되는 것이다. 武를 배제한 文으로의 극단적 경사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에 취약하고, 文을 배제한 武로의 극단적 경사는 人心의 어긋남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적 능력에 취약하다. 고로 文과 武는 經緯·陰陽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고 병용되어야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문무병용을 ‘百王의 大法이자 萬世의 常經’이라 한 이유이다. 여기서 문무병용은 시세에 따른 임시변통의 전략전술이 아닌, 초국가적·초시대적 대법칙[大法]이자 대원칙[常經]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색과 정몽주의 이러한 원리적 담론 또한 단지 추상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145) 李穡, 『東文選』 권53, 「陳時務書」. “文武不可偏廢, 文經武緯, 天地之道也. 唐虞三代, 遐哉邈乎, 且以兩漢言之, 高祖之與楚角也, 有如蕭何者運籌而無汗馬之功, 此文也; 有如韓信者分兵而有攻戰之勞, 此文也. 光武中興之時, 投戈講藝, 息馬論道, 則其文武並用, 經緯俱張, 而爲後世之不可及也. 由是觀之, 雖當戰鬪之時, 不廢講論之道, 況當昇平之時, 可忘戰守之備乎? 是以先王知其然, 立官設職崇文重武, 未嘗舉此而遺彼焉.”

146) 鄭夢周, 「策文」(日本 名古屋 蓬左文庫 所藏), 恭愍王 9년(1360) 과거 시험 답안지, 千惠鳳, 2003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지식산업사, 199면; 도현철, 2009 「對策文을 통해 본 鄭夢周의 國防 대책과 文武兼用論」,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45면 재인용. “三代以上, 文與武爲一. 三代以下, 文與武爲二. 文與武爲一, 則可以致天下之治. 文與武爲二, 則不可以致天下之治. (….) 夫文武並用者, 百王之大法, 萬世之常經. 文者, 可以持盈守成, 武者, 可以撥亂反正. 仁義禮智, 文之具也. 刑政攻守, 武之術也. 方其治也, 以文之德, 施之於陽, 以武之術, 藏之於陰. 及其亂也, 以武之術, 施之於陽, 以文之德, 行之於陰. 文而不武, 則不虞之變不可救. 武而不文, 則人心之逆不可概. 是以文武並用而爲一, 然後可以致天下之治也.”

각기 당시 고려가 처한 국방적 현실 속에서 배태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색은 위의 인용문을 전후하여 근년에 왜구가 강토에 침입하고 외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소란스러운 점을 우려하며 무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¹⁴⁷⁾ 정몽주의 인용문은 그 자체가 공민왕 8년(1359) 홍건적의 침략으로 대혼란이 있었던 다음 해인 공민왕 9년(1360)에 실시된 과거의 3차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제시된 策文이라 할 수 있다.¹⁴⁸⁾ 공히 왜구와 홍건적 침략이라는 여말의 대외적·군사적 현안을 배경으로 ‘문무불가편폐’와 ‘문무병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곧 이색의 글이 ‘문무병용’의 원리적 대원칙 하에 현실적으로는 文보다 武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으며 武備를 강조하는 논리로 나아갔다면, 정몽주의 글은 홍건적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文의 도구(仁義禮智)와 武의 術(刑政攻守)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하여 文德과 武威 간의 균형을 꾀할 것이냐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문무병용의 대원칙 하에 정치적·군사적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비를 강조하는 태도’와 ‘그럼에도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태도’는 강조점만 다르지 여전히 ‘문무병용’의 논리가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변주되고 활용될 수 있는 원리임을 보여 준다.

2) 文 우위의 논리

여말의 문무병용론을 계승한 조선 초기 또한 다양한 문무 담론이 전개되었다. 먼저 조선 초기의 문집에서는 관련된 용어로 ‘文武竝用’ 외에도 ‘文武兩全’이나 ‘文武兼全’, ‘文武兼才’, ‘文武全才’, ‘才德兼備’ 등의 용어가 다량으로 발견된다.¹⁴⁹⁾ 文과 武의 관계는 韓信의 깃발에 謝朓의 시편을 곁한 文武兼全의 상태로 칭양되거나,¹⁵⁰⁾ “吉甫처럼 文武를 겸비하였고, 郤穀처럼 詩書에도 해박하네.”와 같이 文武兼全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 발화된다. 한신과 사조가 문무 중의 각기 한 쪽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 길보와 극곡은 文武兼備의 상징적 존재로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다.¹⁵¹⁾ 조선 중기의 趙綱(1586~1669) 또한 “吉甫 같은 文武의 재주, 공

147) 李穡, 『東文選』 권53, 『陳時務書』. “近年倭寇侵疆. 至貽聖上宵旰之憂. (….) 近以倭賊, 中外騷然. (….) 臣願設武舉之科, 令充諸衛之士, 試以武勇而習其藝, 賜以爵祿而作其氣, 國足兵精, 人樂爲用, 庶幾無他日噬臍之患矣.”

148) 구체적 내용은 도현철(2009), 242~244면 참조.

149) 徐居正, 『四佳集』 권21, 「奉送洪節度 伯涓 之鎮 四首」, “韓信旌旗謝朓篇, 一身文武兩能全.”; 李承召, 『三灘集』 권9, 「送芮忠年登武舉榮墳于瑞山」, “韋氏一經應受教, 石公三略自能傳, 才名只是超諸彦, 文武還堪詔兩全.”; 成俔, 『虛白堂詩輯』 권14, 「謁遠接使」, “文武全材信少雙”; 成俔, 『虛白堂補輯』 권2, 「送永安節度使曹文緯」, “文武全才一代英”; 成俔, 『虛白堂補輯』 권5, 「送忠清節度使 四首」, “文武全才世少儔”; 成俔, 『虛白堂文集』 권1, 「北征賦」, “備吉甫之文武兮, 敦郤穀之書詩.”; 成俔, 『虛白堂文集』 권14, 「祭許相國文」, “文武全才, 才德兼備.”; 李植, 『澤堂集』 권5, 「嶺南按使竹陰趙公 希逸 陞辭時, 自上諭曰: 嶺俗不好武, 卿文翰之士, 宜兼飭武事, 公兢厲而退. 出郊次, 以語餞客, 且要植臚章, 謹因聖教之意, 演爲韻語」, “鷄林儒術啓新羅, 弧矢掄材亦有科, 一統吾東仗文武, 千年遺跡在山河. (….) 天語丁寧期竝用, 知君談笑息鯨波.”; 李植, 『澤堂集』續集 卷3, 「留別營將李廷臣二首○余曾爲北評事, 君守端川, 今余守忠而君爲營將, 故有兵民文武之句」, “兵民雖異事, 文武豈相輕.”; 李植, 『澤堂集』續集 卷5, 「贈朴慶州 守弘 赴任」, “文武繼軌出, 三韓竟同方, 從知王者業, 本由保民昌.”; 趙綱, 『龍洲遺稿』 권3, 「送閔而正赴海州」, “文武全才君不讓, 龔黃美政世誰爭.”; 趙綱, 『龍洲遺稿』 권11, 「送楊康翎 萬古 序」, “吾嘗知子有隨陸之文, 而有絳灌之武.”

150) 徐居正, 앞의 글, “韓信旌旗謝朓篇, 一身文武兩能全.”

151) 길보는 周나라 선왕 때 賢臣이자 대장 尹吉甫이다. 『詩經』 「小雅 六月」에 “잠깐 힘운을 쳐서, 태원에 이르렀으니, 문무를 겸비한 길보여, 만방이 법으로 삼도다.(薄伐玁狁, 至于大原, 文武吉甫, 萬邦爲憲.)”라고 하였다. 郤穀은 춘추시대 췌나라 公族으로 禮樂과 『詩』, 『書』에 밝아 천거되어 진나라의

에게 넉넉하네.(吉甫文武公所饒)¹⁵²⁾라는 銘을 읊은 바 있다. 문무겸전의 道는 蔡壽(1449~1515)에 따르면 제왕에게 있어 “道德과 仁義로써 文을 삼고, 威斷과 勇決로써 武를 삼는 것이며”¹⁵³⁾ 李荇(1478~1534)에 따르면 儒者에게 있어 변방 방어의 將帥까지 겸직하게끔 하는 ‘문관=무관’으로서의 인사이다.¹⁵⁴⁾ 물론 어디까지나 문관이 무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 우위의 문무겸전적 태도로, 文·武를 賞·罰과 宥비시켜 立國과 政事에 있어 ‘文과 賞’을 중심으로 ‘武와 罰’이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成雲(?~1528)과 金楊震(1467~1535)의 문무병용적 태도와도 상통한다 할 수 있다.¹⁵⁵⁾

이와 마찬가지로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을 비롯해 세종, 세조, 중종, 명종 등 선조의 왕들 또한 일반적으로 전술한 문무병용·문무겸전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물론 문무병용의 일반론을 대원칙으로 동의하더라도 각각의 언설은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문’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태조와 태종은 공히 ‘文武不可偏廢論’을 文科와 武科의 제도적 균형을 통한 인재 선발이라는 건국초의 현안을 입론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하면서도,¹⁵⁶⁾ 태종대에 武科에도 恩榮宴의 의례를 文科와 동등하게 베풀어달라는 예조의 요청에 대해 태종은 반대했으며 이에 신료들이 동조하며 발언한 “文·武를 並用하는 뜻이라면 可하지만, 문·무를 並立시킨다면 不可합니다.”¹⁵⁷⁾라는 주장에서 확인되듯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보다 문을 우위에 놓은 차등적 태도도 발견되는 것이다. 이처럼 文武並用의 상호적 균형성은 강조되던 구체적인 언설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을 강조하는 ‘문 우위의 문무병용적 태도’는 세조, 중종과 명종대에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먼저 세조 5년(1459)에는 “文武는一體이니 文科와 武科를 공평히 대우해 달라는”¹⁵⁸⁾ 兵曹의 상소도 있었지만, 세조 7년(1461)에 御製로 지어 올려진 『兵鏡』에서조차 “兵이란 지혜[智]로써 쓰임[用]을 운용하고 운용으로써 지혜에 응하는 것이다. 지혜란 仁義를 근본으로 하여 나[我]와 남[人]을 헤아려 아는 것이니 (….) 仁義에 근본하지 않으면 敵이 없어도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¹⁵⁹⁾라면서 兵[武]의 근본에는 仁義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곧 문무는

中軍將을 역임하였다. 趙衰가 “극곡은 禮樂을 말할 줄 알고 詩書에 해박하니, 그가 틀림없이 군대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문공이 극곡에게 中軍을 거느리게 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春秋左氏傳』, 「僖公 27年」 참조. 공히 文武兼全의 상징적 인물이다.

152) 趙綱, 『龍洲遺稿』 권21 神道碑, 「右議政懶庵鄭公神道碑銘 并序」.

153) 蔡壽, 『續東文選』 권11, 「弘文館藝文館合司疏」, “夫文武之道不可廢也. 而帝王則, 以道德仁義爲文, 威斷勇決爲武, 未聞漢武之手搏猛獸, 隋煬之詞藻華麗.”

154) 李荇, 『容齋集』 권2, 「送方太和節度威鏡南道」, 한국문집총간 20, 357면. “朝家重邊鄙, 選將待吾儒, 在昔賢良舉, 維時文武俱.”

155) 『中宗實錄』 권48, 중종 18년(1523) 6월 29일. “臣等聞, 施治, 有賞必有罰, 立國, 有文必有武. 無罰則人心縱; 無武則國勢弱. 所謂文武並用, 長久之道也.”

156) 『太祖實錄』 권1, 太祖 1년(1392) 7월; 『太宗實錄』 권4, 太宗 2년(1402) 9월 8일.

157) 해당 인용문은 태종의 하교에 대해 찬동한 신하들의 발언이다. 태종은 武科에도 文科와 마찬가지로 恩榮宴을 베풀어달라는 예조의 요청에 대해 武士의 활쓰기는 儒生의 경전 궁구에 미칠 바가 아니라면서 거절하는 하교를 내렸고 이에 대해 群臣이 “文·武를 並用하는 뜻이라면 可하지만, 문·무를 並立시킨다면 不可합니다. 오늘날 武科를 설치한 것은 오직 武士를 勸獎하기 위한 것이니, 聖上의 下教가 진실로 옳습니다.(文武並用之意則然矣, 以之並立則不可. 今設武科, 只以勸獎武士也, 上教然矣.)”라 하였다. 『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1411) 5월 8일. 태종과 신하들이 공히 문·무를 대등하게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8) 『世祖實錄』 권16, 世祖 5년(1459) 6월 10일.

159) 『世祖實錄』 권26, 세조 7년(1461) 10월 3일. “御製『兵鏡』曰: 兵者, 以智運用, 以用應智, 智者, 本仁義, 度我人, 審地利也, 用者, 明形數, 一節制, 利器械也. 不本仁義, 則無敵自破, 不度我人, 則如

병용하더라도 文[仁義]은 武[兵]의 근본이기에 문무 간에는 본말의 선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중종 15년(1520)에는 시강관 任樞(1482~1534)의 “송나라의 張拭(1133~1180)은 ‘文과 武는 참으로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 했으니 文과 武는 진실로 並用해야 마땅하나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상소에 대해 중종은 “文武는 본디 本末과 輕重의 구분이 있으나 근래 武事가 지나치게 해이하므로 이렇게 권려했을 따름이지 武事를 치우쳐 숭상하는 것은 아니다.”¹⁶⁰라 하였다. 이 또한 해당 하교가 이루어지게 된 맥락이 그 해에 親閱과 打圍 등의 군사훈련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한 일을 비판하는 상소에 대한 답변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종은 근래 武事가 지나치게 해이해졌으니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임추는 군사훈련이 지나치게 실시되고 있으니 이를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곧 문무병용의 대원칙에는 군신이 모두 동의하나 ‘무’가 약화되면 이를 강화하고 ‘문’이 약화되면 이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문무의 抑強扶弱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기저에는 중종 또한 승인한 “文武는 본디 本末과 輕重의 구분이 있다”라는 전제가 공통으로 놓여 있다는 점에서, 문 또는 무의 강조점 또한 ‘문 우위의 문무병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종 6년(1551)의 상소와 史評에서도 확인된다. 文廟의 배알이 閱武보다 먼저라는 참찬관 金澍(1512~1563)의 상소에 대해 史臣은 “文과 武를 並用해야 한다고 하지만 先後가 있는 것이다. 태평할 때엔 마땅히 文으로써 다스려야 하기에 옛날의 제왕은 말을 쉬고 道를 논할 때에는 마치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다. 先後가 있다는 김주의 말은 임금에게 나아가 아뢰는 도리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¹⁶¹라 논평하였다. 공히 문무 병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문과 무를 본말과 경중, 선후의 위계적 관계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조선 중기에도 연속된다. 가령 선조 29년(1596)에 도체찰사 李元翼(1547~1634)은 “文과 武는 어느 한 가지도 폐할 수 없는 것이나 文教는 武備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전란이 일어난 이래로는 문교가 완전히 없어져 간단한 경전의 구두와 末事인 詞章의 기예까지도 여염에서는 들어보기가 어렵고 세상 풍습이 날로 투박해지기만 하여 풍속이 퇴폐되어 명분에 저촉되는 짓을 못하는 짓이 없으니 매우 한심합니다.”¹⁶²라며 ‘문교’의 부흥을 강조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무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무비의 근본이 되는 ‘문교’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하고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중종과 임추의 언설과 같이 문의 강조로 인해 무가 경시되면 무를 강조하고 무의 강조로 인해 문이 경시되면 문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무의 역강부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문교가 무비의 근본’이라는 이원익의 언설은 문무병용의 대원칙을 전제하면서도 문을 가치적으

蛾赴燭，不審地利，則盲者去杖，不明形數，則多還爲少，不一節制，則臨陣棄將，不利器械，則肆上肥腴。” 동일한 인용이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1462) 2월 18일 기사에도 보인다.

160) 『中宗實錄』 권40, 中宗 15년(1520) 9월 29일. “侍講官任樞曰：宋（張拭）〔張拭〕言：‘文武誠不可偏廢。’文武固當並用，然所向不可不慎。近來慮其邊事疎漏，勸勵武事，屢爲賞賜，恐有後日偏一之弊也。且一時太銳，而不能繼之，則亦不可也。願慮長久之計，使文武各得其道可也。上曰：文武固有本末輕重之分。近來武事，太爲解弛，故如是勸勵耳，非以偏尚武事也。” 張拭(1133~1180)은 南宋의 성리학자로 朱熹와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161) 『明宗實錄』 권11, 明宗 6년(1551) 3월 21일. “文武雖曰并用，先後則有焉。其在平時，當以文爲治，故古之帝王息馬論道，如不及焉。澍之先後之說，可謂得敷奏之道也。”

162) 『宣祖實錄』 권80, 宣祖 29년(1596) 9월 19일. “都體察使李元翼書狀：文武不可偏廢，而文教爲武備之本。兵興以來，文教專廢，至於經傳句讀之粗粕，詞章技藝之末事，亦罕聞於閭閻，世習日趨於偷薄，傷風敗俗，犯分干名，靡所不至，極爲寒心。”

로 우위에 놓는 태도가 여전히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조 3년(1625)에 도승지 金尙憲(1570~1652)이 “나라를 다스리자면 文도 있고 武도 있어야 하나 文이 첫째가 되고 武가 그 다음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근래에는 文道가 점점 쇠하여 항간에는 책 끼고 다니며 글 읽는 사람을 못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 모두 文教가 퇴폐한 데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울러 권장하여 흥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武事에만 전심할 수 있겠습니까.”¹⁶³⁾라 말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원익과 마찬가지로 ‘文武不可偏廢論’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문과 무, 文教와 武備의 관계를 ‘첫째와 둘째’라는 본말과 선후의 차등적 위계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태종대부터 세조, 중종, 명종대 및 선조와 인조대의 이원익, 김상헌 등은 공히 文과 武는 어느 한 가지도 폐할 수 없으며 치국에는 문과 무의 병용이 요구됨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안에 따라 현실적·실질적으로 문무를 竝立시키는 것은 불가하며 문무는 어디까지나 本末·輕重·先後의 차등적 위계의 관계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武 우위의 논리

한편 조선후기에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문무병용의 문제가 좀 더 현실적이고 시의적인 차원에서 입론되었다. 여기서는 柳馨遠(1622~1673), 李玄逸(1627~1704), 李瀾(1681~1763)과 安鼎福(1712~1791), 洪良浩(1724~1802), 魏伯珪(1727~1798) 등의 문무 담론을 개괄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에는 위백규의 경우처럼 문무 간의 상보적·균형적 견진을 지향하는 전대의 문무 담론도 확인되지만,¹⁶⁴⁾ 그보다 주목할 것은 문무병용의 대원칙 하에 상대적으로 文보다 ‘武’를 강조하는 경향 또한 대거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현일, 이익, 안정복, 홍양호, 서경창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현일의 문집에는 문무견전에 대한 일반론적 칭양의 글¹⁶⁵⁾도 있지만, 丙亂의 치욕 속에서 문무의 분열을 비판하고 ‘武備’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武 우위의 문무 일체적 태도 또한 확인된다. 여기서 이현일은 『詩經』이나 『書經』을 전거로 漢나라 이전에는 文武의 道가 一體였음을 전제한 후 隋·唐 이래 문무가 분열되어 급기야 조선도 병자년의 치욕을 당했음을 반성하면서 杜牧이 孫武書[孫子兵法]에 주해한 전적을 가탁해 자신도 농사와 독서의 와중에 兵書를 선집한다 하였다.¹⁶⁶⁾

163) 『仁祖實錄』 권9, 仁祖 3년(1625) 4월 20일. “爲國之道, 有文有武, 而文爲上, 武爲次. 不幸近來, 文道漸衰, 閭巷之間, 久不見挾冊讀書之人. (….) 莫不由於文教之頹廢矣. 竝宜勸獎興起, 豈可專意於武事而已哉?”

164) 魏伯珪, 『存齋集』 권22, 「玉果公廡箴」. “武에만 힘쓰면 지나치게 사나워지고 文에만 힘쓰면 쉽게 나약해지니, 文武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나의 아름다운 본성이 도타워지리라. 이상은 鍊武廳이다.(專武過猛, 專文易懦. 文武相濟, 敦我性美. 右鍊武廳.)”

165) 李玄逸, 『葛庵集』 권1, 「十九年夏, 嶺北按廉使缺, 權公子馨適膺是選. 將行需送行語, 聊道所感, 伏幸采攬」, 한국문집총간 127, 380면. “文武才堪將相權, 故煩旌節去籌邊.”; 李玄逸, 『葛庵集』 속집 권3, 「嘉善大夫行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五衛都摠府副摠管 許公 神道碑銘 并序」; 李玄逸, 『葛庵集』 권4, 「又曹九齡」. “文武方策, 堯舜君民.”; 李玄逸, 「統制使申公墓碑銘 并序」, 『葛庵集』 권23. “兩有文武, 出入屏毗.”

166) 李玄逸, 『葛庵集』 권21, 「書新編八陣圖說後」, 한국문집총간 128, 208~209면. “自漢以前, 文武無二道, 『詩』·『書』所稱, 皆可攷已. (….) 至隋唐, 以詞章末技取人, 於是文武之用, 判爲二塗. 優游翰墨者, 恥言武事, 躡足行伍者, 厭薄文人, 亦其形勢所激, 有不得不然者. (….) 然余於是竊有感焉, 國家丙子之

안정복의 경우도 이현일처럼 문무겸전의 균형적 태도를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武’에 좀 더 강조점이 놓인 문무병용론을 동시에 주장하였다. 『東史綱目』에는 문무 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던 文武兼全의 제도적 전통을 긍정하는 논평이나¹⁶⁷⁾ 후대에는 이러한 문무일체의 도가 분열되어 “시절이 화평하면 文을 숭상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武를 높여 서로 輕重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서로 알력하는 습성이 이루어졌다.”라면서 치세와 난세에 따라 문과 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세태를 비판하는 논평¹⁶⁸⁾도 있지만, 동시에 삼국 시대에 고구려가 오로지 武를 숭상했기에 중국에서도 넘보지 못하는 위세를 지녔는데 “신라가 통일한 이후로부터 큰 당나라를 섬기어 中華의 풍속을 사모하며 文華만 숭상하고 武力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러한 구습이 고려 광종 때의 과거제 시행 이후 더욱 누적되었음을 자성하는 논평 또한 존재한다.¹⁶⁹⁾ 후자의 논평은 통일 신라 이래 조선 중기까지 연속되는 文華로의 경사를 武力에의 강조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문무병용은 일반론의 차원에서는 대원칙이나 임병양란으로 피폐해진 당대 조선의 시국에서는 문보다 ‘무’에 상대적 강조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동시대의 홍양호 또한 『左前』과 『易經』을 논거로 天下大法로서의 ‘文武竝行’을 주창하면서도 “병자년의 난리에 이르러서는 鐵騎兵이 멀러서 달려들어 온 고을을 텅 빈 것처럼 휩쓸고 우리는 분주히 헐떡거리고 땀 흘리며 몇 달 사이에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文治에만 승하고 武力에는 힘쓰지 않아 나라의 힘이 점점 쇠락하고 나약해져 그 힘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난리를 겪다가도 평화가 잠시 찾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으니 어찌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¹⁷⁰⁾라 하면서 안정복과 마찬가지로 文治에만 승한 세태를 비판하면서 ‘文武竝行’의 천하대법을 현실 안에서 안착하기 위해 당장 현 조선이 집중해야 할 것은 文治보다는 ‘武力’의 신장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현일, 안정복, 홍양호는 공히 문무겸전, 문무병용, 문무병행의 대원칙 하에 현실

變，豈止多壘之辱？癸未索賦之怨，不減戍申之恥，言之於邑，尙復何說？自頃以來，歲月頽侵，奄踰二紀。昔之悲痛嘔吟者今皆認以爲當然，而無復有小戎之憤揚水之嘆矣。草茅汪見，獨竊有慨，讀書明農之暇，輒復搜閱兵家，剽取要法，載之一帙，時時扼腕流涕而讀之。聊以自釋其憤懣無聊之意，因竊自託於杜牧說經之餘意云。”

167) 安鼎福, 『東史綱目』 第10下, 乙未 高宗 22년(1235).

168) 安鼎福, 『東史綱目』 第9上, 庚寅 毅宗 24년(1170). “옛날의 文武는 두 갈래 길이 없었는데 후세에 나뉘어 둘이 되었다. 시절이 화평하면 文을 숭상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武를 높여 서로 輕重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서로 알력하는 습성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文士는 대부분 망령되게 경솔하고 武人은 대부분 거칠고 사나와, 임금이 한 군데만 치우치게 소중히 여겨 어거하는 데 마땅함을 잃게 되면, 그것은 난동을 가져오는 길이 된다. 이것은 毅宗이 멸망한 까닭이었고 후세 임금들의 밝은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이다.”

169) 『東史綱目』 第11上, 壬戌 元宗 3년(1262). “우리나라가 비록 약하나, 옛날 삼국 시대에는 오로지 武를 숭상하는데 힘썼기 때문에 고구려는 鮮卑를 항복시키고, 靺鞨을 쳐서 부속시켰으며, 扶餘를併呑하였다. 그래서 항상 중국의 근심이 되어서, 隋나라와 唐나라가 천하의 군사를 가지고도 끝내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 (...) 신라가 통일한 이후로부터 큰 당나라를 섬기어 中華의 풍속을 사모하며, 文華만 숭상하고 武力은 점점 줄어들었다. 고려 광종 이후에는 또 과거제도를 행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재주와 기개, 슬기와 사려를 문장 해석과 시부 짓는 데 소모시켜 남는 힘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적군이 국경에 다다르면 오직 표를 받들어 애걸하는 것만을 제일 좋은 대책으로 삼아 대대로 모두 그랬으니 슬픈 일이다.”

170) 洪良浩, 『耳溪集』 권10, 「海東名將傳序」, 한국문집총간 241, 177면. “天下之大法二, 文與武而已. 『春秋傳』曰: 文能附衆, 武能威敵, 『易』之繫曰: 黃帝堯舜垂衣裳而天下治, 繼之曰: 弧矢之利以威天下. 二者, 並行而不可偏廢也. 三代之盛, 皆用此道, 所以長治久安, 後世莫及焉. (...) 至於丙子之縲, 則鐵騎長驅, 如升虛邑, 奔走喘汗, 乞命於數旬之間, 此其故何哉? 職由於文治勝而武力不競, 浸浸委靡脆弱, 莫之振矣. 及至喪亂既平, 恬然若無事, 寧不哀痛.”

적인 차원에서 문보다 ‘무’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무 담론은 조선 전기의 ‘文 우위의 문무병용적 태도’와 구별되는 ‘武 우위의 문무병용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후반의 실학자인 서경창의 문무관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또한 조선의 경우에는 오로지 文教만을 숭상하고 ‘武備’는 虛名에 그칠 뿐이니 문교보다 ‘무비’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⁷¹⁾

그런데 이러한 ‘武 우위의 문무병용적 논리’를 조선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통찰한 학자는 18세기 전반기의 재야 지식인 성호 이익이다. 그는 「文武並用」과 「武弁注擬」, 「武備爲急」, 「射而觀德」 등의 여러 글에서 전대의 ‘文 우위의 문무병용론’과 입각점을 달리 하여 武와 文에는 輕重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단언하고 나아가 무비를 등한시는 당시의 시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를 강조하였다. 먼저 이익은 「문무병용론」에서 『書經』 「武成」의 “武를 그만두고 文을 숭상한다.(偃武修文)”라는 경구를 인용한 후 이를 재해석하여 이는 단지 전란 후의 한시적 상황에서 전쟁의 참화를 수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금 武를 억누르고자 나온 말일 뿐 이를 보편적·초시대적 원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¹⁷²⁾ 오히려 태평할 때조차 ‘武’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기에 “신성한 武는 죽이지 아니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武의 뜻이므로 난리를 평정하는 재주는 미리 싹트기 전에 꺾어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기에 武와 文은 輕重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¹⁷³⁾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이 인용한 ‘止戈爲武’는 전술했듯이 春秋五霸의 하나인 楚나라 莊王이 ‘武’字를 會意的으로 재해석한 풀이로 ‘文=武’ 내지 ‘王=霸’의 근원적 일치성을 주장하는 字源的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전란을 종식시키는 ‘武’보다 애초에 전란을 예방하는 ‘武’, 곧 ‘武備’야말로 평화와 왕도로서의 ‘문’에 상응하는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무와 문 사이에는 ‘문’을 우위에 놓는 본말과 경중, 선후의 위계성보다 ‘무’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역설되는 것이다. 다음 글들에서 이익의 이 같은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매양 ‘지금 세상의 文藝는 武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른다. 활과 칼의 쓰임은 오히려 새와 짐승을 쏘고 도적질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종일토록 생각했으나 表와 賦를 이용할 만한 곳을 깨닫지 못하였다. 남들은 ‘큰 나라를 섬기는 데에 表文을 쓴다. 그리고 표문이 없어서 능히 큰 나라를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말한다면 武技가 어찌 文藝보다 못하겠는가. 그런데 武를 천하게 대우함이

171) 徐慶昌, 『學圃軒集』 권1, 「武備說」, 한국문집총간 105, 152면. “무릇 나라를 위해 文武를 병용함은 비유하자면 陰陽이 표리의 관계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安危와 治亂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古今往來에 어느 한 쪽도 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文教만을 숭상하니, 武科의 제도부터 器械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武備’라는 것은 다만 虛名에 그칠 뿐 어느 하나 볼 만한 것이 없다. 그리하니 ‘文이 있고 반드시 武 또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하면 가히 한심한 일이다.(凡爲國之地, 並用文武, 譬如陰陽表裏之相須. 安危係焉, 治亂隨之, 往古來今, 不可偏廢. 而至於我國, 則專尙文教, 所謂武備, 先自科試之規, 以至器械之用, 徒存虛名, 無一可觀. 論以有文必有武之意, 可勝寒心.)” 서경창이 문무를 ‘음양’의 표리 관계로 사유한 것은 여말의 정몽주 이래 조선 중기에 대거 등장했던 ‘역학적·생극적 문무일체론’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172) 李漢, 『星湖僿說』 권7 人事門, 「文武並用」. “治則進文吏, 急則用介冑, 古今之通患也. 聖王之道, 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平時以毛錐磨鐵劍, 亂後引怨讟, 託宗社可乎? (….) 所謂偃武修文者, 當戰伐之餘, 稍加偃屈云爾. 故曰: 文武並用, 長久之術.”

173) 위의 책, 위의 글. “神武不殺, 止戈爲武. 故戡亂之才, 不如折萌之智也. 然則武與文並未見有輕重之別也.”

이에 이르렀다.〔武弁注擬〕¹⁷⁴⁾

세상이 평화로워 무사할 때에는 文教가 우선이 되지만, 文教가 행하게 되는 것은 어찌 武備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 (…) 이리므로, 안일을 좋아하여 위태함을 잊고 文만 익히어 武를 천시하는 것은 외침을 초래하는 첩경이다. (…) 나는 일찍이 ‘문교가 이미 대략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국방을 급히 하여야 한다.’ 했었는데, 『周易』을 읽다가 이 대문에 이르자 느껴서 쓴다.〔武備爲急〕¹⁷⁵⁾

만약 일이 없다 하여 이에 힘쓰지 않으면, 환란에 임하여 줄지에 준비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훈련해야만 잊음 없이 바야흐로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를 병용하는 것이다. (…)대개 文教가 비록 중하나 儒術의 士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서 강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武備이다.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하루라도 이것을 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이 그 안에 잠복해 있을 것이다. 聖人이 먼 훗날을 염려한 것이 이와 같다.〔射而觀德〕¹⁷⁶⁾

먼저 「武弁注擬」에서 이익은 ‘활·칼’의 무기와 ‘表·賦’의 문예를 대비시켜 전자의 무기는 사냥을 하고 도적을 막는 데 쓸모가 있으나 후자의 문예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다 하였다. 그 역시 당대의 대표적인 문인지식인으로서 다소 거칠고 극단적인 주장이라 하겠으나, 이는 당면한 조선의 현실에서 “文藝는 武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입론을 통해 ‘武技’를 강조하기 위한 논거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武備爲急」에서는 “세상이 평화로워 무사할 때에는 文教가 우선이 되지만, 文教가 행하게 되는 것은 어찌 武備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언설을 통해 문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무비’임을 역설하였다. 이는 「射而觀德」에서 주장한 대로 “대개 文教가 비록 중하나 儒術의 士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서 강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武備”이기 때문이다. 곧 위 세 편의 인용문은 모두 지금 조선의 현실에서는 문예·문교보다 ‘무기·무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문교를 위해서라도 그를 가능하게 하는 물적·환경적 토대로서의 ‘무비’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무의 병용과 겸전이라는 보편적 원칙론도 아니고 문이 무보다 선차적이고 우위에 있다는 유가적 일반론과도 구별되는, 당대 조선의 고유한 정치군사적·사회문화적 현실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武技와 武備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익이 문무병용의 대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무병용의 균형 상태를 조선의 현실 안에서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문예와 문교로 기울어진 판도 자체를 다시 평평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무기와 무비라는 문무병용의 다른 축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현실적·정세적 재균형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74) 李漢, 『星湖僿說』 권7 人事門, 「武弁注擬」. “余每云, 今世之文藝, 不及武技. 弓刀之任, 猶可以射鳥獸防盜竊, 余雖終日思之, 不覺表賦之可用處, 人謂事大用表, 然無表則用文, 又未聞, 無表而不能事大也. 以是言之武, 何負於文, 然而待武之賤, 至此.”

175) 李漢, 위의 책, 「武備爲急」. “時平無事, 文教爲勝, 文教之所以行, 豈非有賴於武備乎? (…)是以習安忘危, 狃文賤武者, 其誨盜也, 甚矣! (…)余嘗謂‘文既略備, 正當以武事爲急.’ 讀『易』, 至此感而書.”

176) 李漢, 『星湖僿說』 권13 人事門, 「射而觀德」. “苟以無事而不勉此, 非臨亂猝辦之道, 必須預習而無忘, 方可以免矣. 故曰文武並用也. (…)蓋文教雖重, 使儒術之士, 得以安坐講習者, 武備爲之助也. 有國者一日而闕此, 不可測之憂, 便蔽在其中. 聖人慮遠有如此者.”

나아가 이익은 『教養』이란 글에서 ‘天과 地’와 ‘水와 火’가 각기 서로와 대립하는 듯 보이거나 서로를 길러주듯, 群臣과 貴賤, 教刑이 각기 서로를 길러줌과 마찬가지로 文武 또한 서로를 길러줌을 『周易』의 ‘衣裳弧矢의 卦’¹⁷⁷⁾를 통해 은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內外는 家에 속하고 君臣、貴賤、教刑、文武는 모두 國에 속하니, 비록 大小의 차별은 있으나 이것을 깨달으면 저것도 터득할 수 있다. 그 근본은 마음에 있고 그 요령은 행동에 있는데, 先儒들이 점점 범위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¹⁷⁸⁾ 하였다. 곧 文武의 문제는 단지 문교와 무비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天地와 水火의 주역적 자연세계로부터 君臣과 貴賤, 教刑의 유가적 인문질서로까지 다대하게 관통되는 중세 동아시아의 ‘자연=인문’적 사유 안에 통합되어 위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외와 귀천, 문무 간의 ‘서로 길러줌’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리적 사유는 그의 아들 李盟休(1713~1751)의 『封事』를 통해 조선의 정치사회적 현실 안에서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안으로 확장된다.¹⁷⁹⁾ 이익이 『答蔡比安』에서 소개한 아들의 글에서는 문관과 무관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文武合一’의 조목 외에도 ‘良賤合一’과 ‘遠近合一’, ‘中外合一’, ‘貧富合一’ 등의 조목을 통해 양인과 천인, 지방과 서울, 빈자와 부자 등 신분적·지역적·계급적으로 양극화된 당시 조선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주창되고 있다. 이익은 요절한 아들의 개혁안에 대해 “이 조목들은 모두 옛 제도를 현재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서 天理와 人情에 벗어나지 않아 붕우들 사이에서는 탄복을 하면서 이 글을 베껴 쓰는 이가 많다며”¹⁸⁰⁾ 자랑스러워하였다. 부자가 공히 문무라는 문제를 당대 조선에서 첨예화된 여타의 다양한 현안과 연계시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지평 안에서 사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한편 전술한 ‘문 우위의 논리’와 ‘무 우위의 논리’ 외에 조선에서는 여말선초 이래 문과 무 양방을 어느 쪽도 우위에 놓지 않고 대등하고 균형적으로 사고하려는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다만 전술한 여말선초의 문무병용·문무겸전의 논리가 ‘文武不可偏廢’의 대원칙 하에 다소 일반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선 중기에는 曹好益(1545~1609), 張顯光(1554~1637), 李植(1584~1647), 張維(1587~1638) 등에 의해 文과 武의 관계가 陰陽五行의 生剋的·相補의 논리구조를 통해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 보다 심도 깊게 사유되었다.

조호익은 『易象說』에서 <履卦>에 대해 “‘武人’은 六三의 陰 상을 취하였는데, 文、武로써 말하면 文은 陽이 되고 武는 陰이 되며, 生·殺로써 말하면 陽은 生을 주장하고 陰은 殺을 주장한다.”¹⁸¹⁾라 하였고, 이식은 “군대와 백성의 일 다르다 할지라도, 文과 武를 어찌 서로

177) 衣裳은 文, 弧矢는 武를 가리킨다. 출전은 『周易』 『繫辭 下』편의 “황제·요·순임금은 그 옷을 드러운 것만으로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고, (···)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으로 천하를 위복시켰다.(黃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 弧矢之利, 以威天下)”이다.

178) 李瀾, 『星湖僊說』 권19 經史門, 『交養』.

179) 李瀾, 『星湖全集』 권16, 『答蔡比安』.

180) 위의 책, 위의 글. “其條目亦多, 卽良賤合一也; 文武合一也; 科薦合一也; 遠近合一也; 中外合一也; 宮府合一也; 貧富合一也; 又其餘博延訪也; 明學制也; 選廉吏也; 變役法也; 損冗費也; 蠲逋欠也; 固邊圉也; 修馬政也, 皆援古愜今, 不外於天理人情, 朋友間或多歎吃傳錄云.”

181) 曹好益, 『芝山集』 부록 『易象說』 권1, 『易象說 周易上經』, <履卦>. “人指三, 三卽人位. 武人取三陰象, 以文武言, 文爲陽, 武爲陰, 以生殺言, 陽主生, 陰主殺.”

가벼이 여기리오.”¹⁸²⁾라 하면서 “文과 武 모두 본받기에 충분하고, 강함[剛]과 부드러움[柔]이 혼연히 조화되었네.”¹⁸³⁾라 하였다.¹⁸⁴⁾ 장유 또한 「酒鑪銘」에서 文·武를 五行의 水·火와 유비시켜 강함과 부드러움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공존 가능한지를 통찰하였다. 장유에 따르면 酒鑪의 본받을 점은 “불이 쇠를 이길 수 있는데도 쇠가 오히려 불을 담고 있고, 물이 불을 끌 수 있는데도 불이 거꾸로 물을 끓이고 있다”¹⁸⁵⁾라는 것에 있으며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經綸할 때에도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쓰면서 서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동시에 구제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¹⁸⁶⁾이라 하였다. 이러한 오행의 相生相剋의 이치를 장유는 銘에서 “물과 불 서로 싸우고 文道와 武道 차례로 변화하네.”라 읊었다. 음과 양, 부드러움과 강함, 물과 불, 문과 무는 서로가 서로를 이기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생성시키며 상호 보완해주는 균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곧 일방을 더 우위에 놓거나 양방을 본말이나 경중, 선후의 관계를 위계화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무의 관계를 수평적·균형적·상보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동시대의 易學者 張顯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고찰로 심화된다.¹⁸⁷⁾ 본 장에서는 장현광을 중심으로 문무일체의 역학적 균형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장현광은 「文武一體論」에서 문과 무의 관계를 經[날줄]과 緯[씨줄], 健과 順, 剛과 柔, 陽과 陰, 仁禮와 義智 및 각 신체 부위와 五臟 등과 유비시켜 양자의 一體性を 周易의 이치로 체계화시켜 검토하였다.

천하의 道는 진실로 한 가지만 행해지는 이치[單行之理]가 없어 반드시 날줄[經]과 씨줄[緯]이 있고, 또 반드시 겉[表]과 속[裏]이 있다. 그리하여 經으로 시작하고 緯로써 마치며 속으로 주장하고 겉으로써 응하니, 經과 緯가 두 길이 아니며 겉과 속이 두 근원이 아니다. 輕·重을 통해 말하면 진실로 經이 중하고 緯가 가벼우며, 本·末을 통해 말하면 또 속이 근본이고 겉이 끝이다. 그러나 經은 緯를 기다려 이루어지고 속은 겉을 기다려 확립되니, 진실로 한갓 經만 있고 緯가 없을 수 없으며 한갓 속만 있고 겉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勢는 반드시 상대를 필요로 하고 用은 반드시 상대를 통해 이루어지니, 이 때문에 文과 武가 일체가 되는 것이다. 文은 經이고 속이며 武는 緯이고 겉이니, 만일 天下의 道를 깊이 아는 자가 아니면 經과 緯가 서로 없을 수 없고 겉과 속이 서로 없을 수 없음을 어찌 알겠는가. 健·順을 통해 文과 武를 말하면 文은 健을 體로 삼고 順을 用으로 삼으며, 武는 順을 體로 삼고 健을 用으로 삼는다. 그리고 剛과 柔를 가지

182) 李植, 『澤堂集』續集 권3, 「留別營將李廷臣二首○余曾爲北評事, 君守端川, 今余守忠而君爲營將. 故有兵民文武之句.」, 한국문집총간 88, 225면. “兵民雖異事, 文武豈相輕.”

183) 李植, 『澤堂集』別集 권12, 「祭韓西平 浚謙 文」, 한국문집총간 88, 485면. “文武足憲, 剛柔渾然.”

184) 나아가 이식은 문무겸전과 문무병용이 신라가 삼한을 통일하게 한 힘임을 칭양하면서 백성을 평안히 하는 王者의 위업은 文德과 武業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李植, 『澤堂集』권5, 「嶺南按使竹陰趙公 希逸 陞辭時, 自上面諭曰: 嶺俗不好武, 卿文翰之士, 宜兼飭武事, 公旣厲而退. 出郊次, 以語餞客, 且要植贖章, 謹因聖教之意, 演爲韻語.」, 한국문집총간 88, 72면. “一統吾東仗文武”; 李植, 『澤堂集』續集 권5, 「贈朴慶州 守弘 赴任」, 한국문집총간 88, 244면. “文武繼軌出, 三韓竟同方, 從知王者業, 本由保民昌.”

185) 張維, 『谿谷集』권2, 「酒鑪銘 并序」, 한국문집총간 92, 42면. “夫酒鑪之爲物也, 其理有可則者, 而其功有不可廢者, 其理之可則者, 何也? 火能克金而金反盛火, 水能滅火而火反煮水.”

186) 張維, 위의 글, 앞의 면. “是以聖人之經世也, 剛柔竝用而不相敵, 強弱兼濟而不相悖者.”

187) 장현광의 易學에 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金洛眞, 2000 「張顯光의 易學과 세계 이해」, 『퇴계학보』 105권, 퇴계학연구원; 최정준, 2006 「旅軒 太極論의 構造」, 『韓國思想史學』 27집, 한국사상사학회가 대표적이다. 다만 장현광의 ‘문무일체론’이나 장현광 역학과 문무 담론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고 文과 武를 말하면 文은 剛을 體로 삼고 柔를 用으로 삼으며, 武는 柔를 體로 삼고 剛을 用으로 삼는다.¹⁸⁸⁾

「文武一體論」은 천하의 道가 單行이 아닌 항시 개념적 관계쌍으로 행해짐을 천명하며 글을 시작한다. 세계는 광활하고 복잡하나 그 구조는 간결하고 원리적이다. 장현광의 ‘經緯’는 『周易』의 ‘陰陽’이나 신유학의 ‘理氣’와 마찬가지로 모두 세계의 다면성을 이원론의 상관적 구조를 통해 체계적·정합적으로 설명하고자 고안된 개념쌍이다.¹⁸⁹⁾ 여기서 文과 武는 經緯, 表裏, 健順, 剛柔, 體用의 상호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輕重이나 本末의 위계로 치부할 수 없는, 상대를 통해서만 자신이 존립 가능한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로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것이 文武가 一體가 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문과 무는 각기 健과 順, 剛과 柔로만 일률적으로 등치되는 것이 아니라, 문은 健과 剛을 體로 삼되 順과 柔를 用으로 삼으며 무는 順과 柔를 體로 삼되 健과 剛을 用으로 삼듯, 健剛의 문 안에는 順柔의 무가 수용되어 있으며 順柔의 무에는 健剛의 문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문과 무의 관계는 양과 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순환하는 太極의 구조처럼, 문 안에 무 있고 무 안에 문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體와 用으로 이루어주는 상보적 순환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글에서 문은 무의 統體[무를 통괄하는 본체]가 되며 무는 문의 功用[문이 외화되는 작용]이 되어 “健과 順, 剛과 柔의 道가 文과 武를 인하여 아울러 행해지고 서로 나타난다”라 한 것이다.¹⁹⁰⁾

이어 장현광은 문과 무의 관계를 하늘에 있어서는 각기 양과 음, 춘하와 추동, 만물의 생과 殺에 대위적으로 연계시키고 사람에 있어서는 각기 仁禮와 義智, 心肝과 肺腎, 耳目과 手足에 대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문무의 道가 기실 하늘로부터 근본하며 인체에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논구하였다. 문과 무의 이치는 자연과 인간, 세계와 신체에 이미 動과 靜, 相生과 相剋의 원리로 내재화·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¹⁹¹⁾ 따라서 이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물며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文과 武를 구별하여 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참다운 文은 반드시 武가 있고, 참다운 武는 반드시 文에 근본한다. 이미 文 밖의 武가 없고 또 武가 없는 文이 없으니, 武가 없는 文은 참다운 文이 아니며, 文을 떠난 武는 참다운 武가 아니다. 文과 武가 하나의 도가 아니고 그럴 수 있겠는가.”¹⁹²⁾와 같이 문무가 일체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188) 張顯光, 『旅軒集』 권10, 「文武一體論」, 한국문집총간 60, 193~194면. “論曰: 天下之道, 固無單行之理, 必有經緯焉, 又必有表裏焉. 經以始之, 緯以終之, 裏以主之, 表以應之, 經緯非二道也, 表裏非二原也. 以輕重言, 則固是經重而緯輕, 以本末言, 則又是裏本而表末. 然經待緯而成, 裏待表而立, 則誠不可徒經而無緯, 徒裏而無表. 勢必相須, 用必相濟, 此文武所以一體也. 文者經也裏也, 武者緯也表也, 苟非深知天下之道者, 安知經緯之不可相無, 表裏之不可相關哉? 以健順言文武, 則文者以健爲體, 以順爲用, 武者以順爲體, 以健爲用也. 以剛柔言文武, 則文者以剛爲體, 以柔爲用, 武者以柔爲體, 以剛爲用也.”

189) 장현광은 ‘經緯’라는 개념을 전통적인 ‘理氣論’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經이 體와 마찬가지로 변화 속에서 불변하는 내적 중심축이라면 緯는 불변 속에서 변화하는 외적 다양태라 할 수 있다. 장현광은 『經緯說』(『性理說』 권2)에서 經緯를 중심으로 이전의 학설들을 종합하고 있다. 『경위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金洛眞, 앞의 논문, 48~54면 참조.

190) 張顯光, 앞의 글, 194면. “體剛健而用柔順, 故爲武之統體, 而道立於平常之時, 體柔順而用剛健, 故爲文之功用, 而事行於急難之日, 此健順剛柔之道, 因文武而並行互見者也.”

191) 위의 글, 같은 면. “求之於天, 而文屬陽武屬陰, 文屬春夏, 武屬秋冬. 蓋陽舒而陰慘, 春夏主生, 而秋冬主殺也. 然則文武之道, 本於天也. 推之於人, 而仁禮屬文, 義智屬武, 心肝屬文, 肺腎屬武, 耳目屬文, 手足屬武, 蓋以動靜生克之分, 有所殊也. 然則文武之理, 具於人也.”

192) 위의 글, 같은 면. “況爲天下國家者, 豈可區文武而二之哉? 是故, 眞文必有其武, 眞武必本於文. 既

이다.

地水의 卦에 군대의 象이 있고, 火澤의 卦에 활과 화살의 상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庖犧의 武이며, 방패와 창을 사용한 것이 阪泉의 싸움에서 시작되었고, 군대의 陣法이 力牧이라는 장수에게서 이루어졌으니 이는 황제 헌원씨의 武이며, 四凶을 처벌한 것은 虞나라 舜임금의 武이고, 방패와 깃털로 춤을 춘 것은 夏나라 禹왕의 武이다. 中을 세운 商나라의 湯王과 한결같은 덕을 간직한 伊尹은 열한 번 정벌하였으나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는 武가 있었고, 極을 세운 周나라의 武王과 丹書를 지은 大老(姜太公)는 天命을 공손히 행한 武가 있었으며, 창과 방패를 거두어 국가를 빛낼 것을 생각한 古公亶父와 자신의 훌륭한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은 西伯(文王)과 죄인을 이에 잡은 周公과 목욕하고 逆臣을 토벌할 것을 청한 孔子에 이르러도 또한 모두 참다운 文과 참다운 武를 아울러 행한 자들이다.¹⁹³⁾

장현광은 역학자이자 성리학자로서 이러한 문무일체의 사례를 周易 및 유가의 道通인 聖王, 聖人の 계보 위에서 재서술하고 있다. 인용문 처음에 등장하는 地水師卦는 坤卦[땅]와 坎卦[물]가 합해 이루어지는 군사의 상이며, 火澤睽卦는 離卦[불]와 兌卦[못]가 합해 이루어지는 활과 화살의 상이다.¹⁹⁴⁾ 庖犧는 伏羲氏로 三皇 중 하나로 주역의 八卦를 만든 성왕이다. 『주역』 「繫辭 下」에는 “옛날 포희씨가 천하를 다스릴 적에 나무를 휘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으로 천하를 위복시켰으니 대개 睽卦에서 그 뜻을 취하였다.”¹⁹⁵⁾라 하였다. 복희씨 또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군사와 弓矢, 곧 武의 이로움을 활용한 문무일체의 성왕인 것이다. 이는 헌원씨,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이윤, 무왕, 강태공, 고공단보, 문왕, 주공, 공자 등에 이르기까지 공히 예증된다. 유가적 성왕·성인의 계보를 각자 자신의 武를 文과 아울러 함께 행한 文武一體의 성왕·성인의 계보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장현광은 이러한 문무일체적 유가의 전통이 후대에 이르러 “文과 武가 나뉘어 두 개의 도가 되어 文은 따로 文이 되고 武는 따로 武가 되었으니, 이른바 文이 어찌 참다운 文이며 이른바 武가 어찌 참다운 武이겠는가.”¹⁹⁶⁾라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참다운 文은 武를 겸한 것이고 참다운 武는 文을 겸한 것으로 文과 武가 합하여 하나의 도가 되어야만 文은 武의 根本이 되고 武는 文의 功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文臣은 스스로 文만을 하지 않고 남의 武를 취하여 자신의 武로 삼으며, 武臣은 스스로 武만을 하지 않고 남의 文을 취하여 자신의 文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¹⁹⁷⁾

無文外之武，又無無武之文，無武之文，非眞文也，離文之武，非眞武也。茲非一道而然乎？”

193) 위의 글, 같은 면. “地水之卦，有師衆之象，火澤之卦，具弧矢之象，則庖犧之武也，干戈之用，始於阪泉之戰，兵陣之法，成於力牧之將，則軒轅之武也，四凶之誅，虞舜之武也，干羽之舞，夏禹之武也。建中之商湯，一德之伊尹有十一征無敵之武，建極之周武，丹書之大老，有恭行天命之武，至於思戡用光之古公，不殞厥聞之西伯，罪人斯得之周公，沐浴請討之孔子，莫非眞文眞武之並行者也。”

194) 睽卦의 九四 효사는 “睽孤，遇元夫，交孚，厲，无咎。”로 여기서 ‘睽孤’는 활 쏘는 외눈, 곧 궁수를 가리킨다.

195) 『周易』 「繫辭傳 下」. “弦木爲弧，剡木爲矢，弓矢之利，以威天下，蓋取諸睽.”

196) 張顯光, 앞의 글, 같은 면. “至於後世文與武，歧爲二道，文自文武自武，其所謂文，豈眞文也，其所謂武，豈眞武也？”

197) 위의 글, 같은 면. “嗚呼！今之文武，吾未見其人也。文爲眞文，能兼於武，武爲眞武，能本於文者，誠不可易得，豈可以兼才望於人人哉？（…）然後文與武可合爲一道，而文爲武之根本，武爲文之功用。（…）文不自文，取人之武，以爲己武，武不自武，取人之文，以爲己文。”

한편 장현광의 문무일체론은 문과 무를 각각 신체의 내부기관[五臟]과 외부기관[肢體]에 유비시켜 신체 안팎의 유기체적·균형적 상호관계로 등치시키고 있다. 一國은 곧 一身과 같은 것이기에 내부에 있는 심장과 배와 허파와 창자도 나의 몸이요, 외부에 있는 팔과 다리와 손뚱과 이빨도 나의 몸이기에,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다 하여 밖을 경시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다 하여 안을 시기하지 않고” 안과 밖이 서로에게 응해야만 元氣와 血脈이 조화로워져 한 몸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다.¹⁹⁸⁾ 여기서 내부의 五臟은 文이고 외부의 肢體는 武이다. 오장과 지체가 一體로서 균형을 이루어야 一身이 잘 다스려지듯, 문과 무 또한 一體로서 균형을 이루어야 一國이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 “반드시 참다운 文으로 武를 겸한 자를 얻어 안에 있게 하고, 반드시 참다운 武로 文을 겸한 자를 얻어 밖에 있게 한 뒤에야 文과 武가 한 길인 뜻을 체득하여 비로소 나라를 부흥하는 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⁹⁹⁾

이처럼 조선 중기 성리학자인 장현광의 문무일체론은 문무의 관계를 본말과 경중, 선후의 관계로 위계화시켜 文武 竝立은 불가한 것으로 사고했던 조선 전기의 문무 담론과 달리 문과 무를 經緯와 陽陰의 상보적 균형관계로 새롭게 재구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문무 담론은 앞서 살핀 고려 말기 이색과 정몽주의 문무 담론을 일정하게 연속하는 것이자 동시대의 조호익, 이식, 장유의 문무 담론과 공유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색과 정몽주는 각기 ‘文武=經緯’ 내지 ‘文武=陽陰’ 중의 한 측면만을 단편적으로 언급하였고 조호익과 이식, 장유 또한 각기 『易象說』과 祭文, 『酒鑪銘』 등의 글에서 文武와 陽陰, 剛柔, 水火의 상관성을 제각각 단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장현광처럼 文武의 관계를 經緯, 表裏, 健順, 剛柔, 體用과 陽陰, 春夏·秋冬, 生殺, 仁義·義智, 心肝·肺腎, 耳目·手足 및 聖王·聖人の 계보와 五臟·肢體 등의 역학적, 자연적, 윤리적, 유가적, 신체적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총체적 고찰을 시도한 경우와는 대별된다 할 수 있다.

4. 병가적·사회경제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여말 이래 조선의 문무 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무병용·문무겸진’의 대원칙 하에 각 시대의 정치적·군사적 현실과 상황에 따라 입론된 ‘문 우위의 논리’와 ‘무 우위의 논리’를 포괄하는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인식’ 및 문무일체의 문제를 생극적·상보적 균형론으로 논구한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인식’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조선 중후기에는 ‘문=무’의 문제를 ‘유가=병가’, ‘정치=군사’ 및 나아가 ‘군사=사회경제’의 지평에서 통일적으로 연계시켜 실천적으로 사고하는 ‘병가적·사회경제적 논리’ 또한 대거 등장하였다. 선조·광해군대의 문인지식인 柳夢寅(1559~1623) 이래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지식인인 洪大容(1731~1783), 李德懋(1741~1793), 朴齊家(1750~1805), 正祖(재위:1776~1800), 丁若鏞(1762~1836), 徐慶昌(1758~?) 등의 문무 담론이 그것이다.

먼저 유몽인은 壬亂 이래 국내외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17세기 초반 後金 세력의 군사적

198) 張顯光, 위의 글, 195면. “大抵一國, 猶一身也, 以一身言之, 心腹肺腸, 亦吾體也, 股肱爪牙, 亦吾體也. (….) 處內者不以處內而輕其外, 居外者不以居外而猜其內. 然後元氣自壯, 血脈無滯, 而一身安矣. 不然而內外不相應, 臟體不相協, 則身欲爲身, 其可得耶?”

199) 위의 글, 같은 면. “若在一國, 則守文於內者, 心腹肺腸也, 效武於外者, 股肱爪牙也, 其不合爲一體而有能國者乎? 故必得眞文而兼武者, 以處於內, 必得眞武而兼文者, 以居於外, 然後能體其一道之義, 而始可以言興邦之務矣. 余歎文與武相二, 斯著一體之論.”

위협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논점의 북방 방어책과 사회경제 개혁안을 남겼다.²⁰⁰⁾ 「送韓山郡守李子信序」(1601)에서는 백성을 위한 목민관의 역할을 30가지로 뽑아 개괄하면서 屯, 糧, 銀의 문제처럼 향후의 사회경제적 경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사안들을 입론하였고, 「送別咸鏡監司張好古晚詩序」(1607)에서는 후금을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足食’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방책으로 북방 지역에 산재한 은광의 개발을 주창하였다. 또 「贈別韓侍郎德遠使上國謝恩序」(1609)에서는 당대 조선의 급선무인 ‘治兵’과 ‘生財’를 法家의 대표적인 주장으로 파악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북방 방어와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送公州使君李伯吉善復令公詩序」(1610)에서는 稅田, 役民, 養兵, 行幣 등의 네 가지 항목에서 명대 중국의 治民策을 분석하고 그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 전반의 사회경제적 후진성을 비판하였다. 곧 중국과 달리 兵과 農을 겸임하지 않고 또 본업인 농업만을 중시하여 말업인 상업을 경시하는 조선사회의 폐단을 비판한 것이다. 곧 明代 중국의 선진 문물 수용을 통한 당대 조선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²⁰¹⁾ 이러한 문제의식은 1609년에 세 번째 대명사행을 다녀와 지은 「中州雜詠 十八首」와 같은 연작시에서도 발견된다. 유몽인은 여기서 당시 중국 현실을 직접 목도한 체험 위에서 城池·兵馬·器械·場屋·銀錢·驢騾·田租·書肆·街舖·石灰·人車·馬耕·驢磨·土刻·陶甗·燔玉 등 명조의 선진적인 군사적·사회경제적 제도와 문물을 긍정적으로 詩化하였다.²⁰²⁾ 이상의 논의는 조선의 후진성을 자성하고 중국의 선진문물을 본받아 배우자는 ‘倣中國’²⁰³⁾의 태도라는 점에서, 유몽인만이 아니라 한 세대 앞의 李之菡, 李山海, 鄭仁弘, 趙憲 및 동시대의 沈忠謙, 柳成龍, 趙憲, 金晬, 李好閔, 李德馨, 李晬光 등²⁰⁴⁾을 비롯해 조선후기의 金堉, 柳壽垣 및 (칭조 중국에 대한) ‘北學’²⁰⁵⁾을 주창한 朴齊家, 朴趾源, 徐命膺, 成大中 등의 논의와도 일정하게 상통한다.²⁰⁶⁾

그런데 유몽인의 ‘방중국’에 있어 좀 더 주목할 지점은, 유가적 경세론의 지평에서 군사적

200) 유몽인의 사회경제적 경세론에 관해서는 金弘百, 「유몽인의 〈安邊三十二策〉 연구 : 조선 중기 문학에서의 ‘정치’의 한 사례로서」, 『민족문학사연구』 48, 민족문학사학회, 2012, 33~74면; 金弘百, 「柳夢寅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46~57면; 金弘百, 「어우집 해제」, 『어우집』 1, 학자원, 2016, 42~43면 및 47~56면 참조.

201) 이외에도 유몽인은 1615년 試官으로 있을 때 殿試의 策題로서 錢幣의 시행 방안을 문제로 출제한 바 있다. 여기서 유몽인은 우리 동방이 신라 이래로 ‘倣中國’하여 어느 하나 중화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없음에도 조선에서는 왜 유독 화폐만은 도입하지 않는지 비판하였다. 또 화폐 사용의 유무로 중국의 백성과 조선의 백성 간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됨을 강조하였다. 변방 방어책에 한정되지 않는, 당대 조선 전반의 사회경제적 時務로 화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618년(광해군10)에 저술된 「中江罷市辨誣啓辭」에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於于集』에 미수록된 본 작품에서 유몽인은 물화의 유통 곧 통상의 측면에서 당대 조선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을 명대 중국의 선진성에 견주어 비판하고 있다. 곧 조선의 潛商 금지 법안과 銀이 관에 종속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점, 화폐의 미사용, 조선의 산촌이 협소하여 소출이 많지 않은데도 역외 무역이 부재한 점 등을 다각도로 비판하였다.

202) 『於于集』 後集 卷2, 「中州雜詠 十八首」.

203) “我國事事倣中國”(柳夢寅, 「送襄陽使君權雲卿縉序」, 『於于集』 권3, 한국문집총간 63, 355면); “裕民足國倣中國, 無一士建白而一變之, 哀哉!”(柳夢寅, 「送斗峯李養吾驪城君志完赴京序」, 『於于集』 권3, 한국문집총간 63, 360면); “我東方治倣中國, 自(羅)、(麗)來, 亦有所謂泉幣如古者乎?”(柳夢寅, 「式年殿試策題」, 『於于集』 후집 권6, 한국문집총간 63, 599면)

204) 구체적인 내용은 金弘百(2014), 「VI. 16세기 말~17세기 초 경세론의 전개와 유몽인」, 위의 논문, 196~213면 참조.

205) 박제가 또한 『북학의』에서 유몽인의 ‘倣中國’과 동일한 함의를 지닌 ‘學中國’이라는 표현을 20번 가량 사용하였다.

206) 구체적인 내용은 安大會, 「楚亭 思想의 成立 背景과 그 影響」, 『조정 박제가 연구』, 사람의 무늬, 2013, 19~108면 참조.

차원에서의 국방 방어책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개혁안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유몽인 자신의 군사적·사회경제적 시무책을 집대성한 『安邊三十二策 贈咸鏡監司韓益之浚謙』(1610, 이하 「안변책」)이다.²⁰⁷⁾ 그 구체적인 32가지 세목은 다음과 같다.

〈안변삼십이책〉의 32항목
1. 조세의 견감(鑄賦稅) 2. 둔전의 확대(廣屯田) 3. 척후와 보루를 견고하게 할 것(固侯堡) 4. 청탁의 금지(禁關節) 5. 거주민의 모집(募居民) 6. 수자리할 병사의 모집(募戍兵) 7. 채은의 확대(博採銀) 8. 군량의 비축(峙軍食) 9. 아전을 줄임(省營屬) 10. 수자리 오래 산 자들에 대한 포상(賞久戍) 11. 월급과 양식을 후하게 지급함(厚月糧) 12. 감세(減稅) 13. 어염을 생업으로 삼게 함(資魚鹽) 14. 연철을 캐게 함(采鉛鐵) 15. 성곽의 수선(繕城郭) 16. 병법의 교육(訓兵法) 17. 馬政의 개선(修馬政) 18. 대오를 엄격히 함(嚴隊伍) 19. 백성을 강제로 이주함(勒徙民) 20. 변방 관문의 설치(設邊關) 21. 壯勇隊를 구출함(恤勇隊) 22. 영아 살해 금지(禁殺兒) 23. 수렵세의 면제(免獵稅) 24. 과거 액수의 확대(加科額) 25. 나무 화살의 제조(造木箭) 26. 거함의 제조(作巨艦) 27. 토병의 전용(專土兵) 28. 화폐의 사용(用錢幣) 29. 노점상을 열게 하다(開路舖) 30. 육축의 양육(養六畜) 31. 요동 수레의 사용(使遼車) 32. 목면의 재배(種木綿)

‘安邊’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시무책에서 주장되고 있는 ‘방중국’의 구체적인 세목은 함경도라는 특수한 변경 지역의 제도적·사회적·경제적 낙후성을 쇄신하기 위한 실제적인 국방 대책으로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시에 여기에는 조선 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쇄신책으로 확장될 수 있는 내용 또한 적지 않으며, 입안자인 유몽인부터 이 현안들을 단지 변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부터 ‘조선 팔도’ 전반의 사회적 문제로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⁸⁾ (변경에 특정한) 군사적 국방 방어책과 (조선 전반의) 사회경제적 개혁안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몽인은 이상의 각 세목에서 자신의 군사적·사회경제적 정책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거로 『詩經』과 『書經』, 『孟子』 등의 儒家 경전만이 아니라 총 32개 세목 중 31개의 세목에서 司馬穰苴의 『司馬兵法』, 太公望의 『六韜』, 黃石公의 『三略』, 尉繚의 『尉繚子』, 孫武의 『孫子兵法』, 吳起의 『吳子兵法』, 당나라의 명장 李靖의 『李衛公問對』, 명나라의 武將 戚繼光의 『紀效新書』, 삼국시대 위나라 曹操의 『孟德新書』 등 ‘武經七書’를 비롯한 총 9개의 주요 兵法書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兵書들은 어염(13. 資魚鹽), 은광과 蓼 사채(7. 博採銀)와 巨艦 축조(26. 作巨艦) 및 석회(15. 繕城郭), 벽돌(15. 繕城郭), 화폐(28. 用錢幣), 노점상(29. 開路舖), 수레(31. 使遼車) 등의 각 세목에서 군사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개혁안의 전범적 논거로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儒家 지식인의 兵家的 경제론’으로서, 兵家的 경전[武經七書]이 儒家의 경전[四書三經] 못지않은 전범적 위상으로 사유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군사적 방어책을 사회경제적 개혁안으로 확장·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武’와 ‘兵’의 문제가 유가의 사회경제적 경제론의 층위 안에서 통합적으

207) 이하 서술은 金弘百(2012)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하고 보완한 것이다.

208) 『安邊三十二策』 <28.用錢幣>. “今若內自京師, 外達邊庭, 用錢幣如中國, 則生民裕而邊圉實矣.”; 『安邊三十二策』 <30.養六畜>. “我國之民, 所以貧窶困苦, 八道同然者, 以其只知種作爲本, 而不以貿遷之末助之也.”

로 사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래 兵書 안에 담긴 兵家的 사고 자체가 儒家的인 것과 일정하게 교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²⁰⁹⁾ 설령 병서의 원 문맥이 자신의 경세론적 주장과 어긋나는 경우에도 유몽인은 인용된 兵書에 대한 의도적 오독을 통해 원전의 문맥과는 다른 차원에서 재해석된 ‘민을 위한 유가적 경세론’으로 전용하기도 하였다.²¹⁰⁾

이처럼 유가적 경세론 안에서 兵書를 활용하여 병가적인 ‘武’를 유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용, 통합해내는 사유는 조선후기 여러 실학자들에게 고루 발견된다. 가령 홍대용은 「勸武事目序」에서 ‘武의 일상적 강습’을 주장하면서 실제 자신이 수령으로 부임한 羅州에서 講武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였다.²¹¹⁾ 특히 兵制를 체계적으로 논하고 나아가 여러 兵書와 兵法에 능했던 여러 名將의 다양한 사례를 논거로 삼아 ‘六經에 근거한 유가적 수양’을 통해 군사를 다스려야 함을 의론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부터 다스려야 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先王의 大道이며 六經의 要旨”이기에 마찬가지로 장수가 되는 道 또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²¹²⁾ 이른바 ‘儒家的 正心·修身論(『大學』)에 의거한 將帥論’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林下經綸」에서는 兵이 비록 사람을 해치는 도구이나 ‘聖人の 兵’은 죄 있는 자를 죽여서 죄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기에 兵家的 大道는 오히려 儒家的 ‘仁·義·禮·智·信·勇·威·忠’의 여덟 가지 덕목과 상통됨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²¹³⁾ 그렇기에 “해자를 막아놓고 강함을 다투다가 사상자를 반이나 내는 것은 兵의 재앙이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백번 싸워 다 이기는 것은 兵의 下位이고, 仁義가 나라 안에서 행해지고 敵國 또한 바깥에서 쉬도록 하여 싸우지도 않고 적군을 굴복하게 하

209) 유몽인이 자신의 안변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六韜』(12권)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六韜』는 서론에 해당하는 「文韜」에서 『육도』 전편의 정신적·사상적 기초를 “천하는 군주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에 삶을 이어받은 萬民의 천하입니다. 그러한 천하의 이득을 천하 만민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군주는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文韜」<文師>)라 표방하였고, “어진 이를 위로 하고 불초한 자를 아래로 하며, 성실함과 믿음을 취하고 거짓됨을 버리며, 난폭하고 어지러움을 금하며 사치를 그쳐야 합니다.”(「文韜」<上賢>) 내지 (『사마병법』에서의 ‘權道’[전쟁]의 부득이한 긍정처럼) “성왕은 군대를 일컬어 흉기라 하였으며, 부득이한 때에만 이를 썼습니다.”(「文韜」<兵道>), “전승이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武韜」<發啓>)와 같이 유가의 것과 긴밀하게 교섭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발견된다.

210) 「안변책」의 첫 번째 조목 <1. 鑄賦稅>에서 백성들의 밀린 세금을 모두 탕감시켜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의 전범적 논거로 『司馬兵法』의 첫 번째 조항인 “仁을 근본으로 한다[仁本]”를 끌어왔지만, 해당 병서 조목에 담긴 실제의 내용은 “전쟁으로 미래의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전쟁도 긍정된다.”는 ‘權道’의 불가피성에 대한 현실론이다. 유몽인은 (민을 중심에 놓은) 자신의 조세 탕감책을 주장하기 위해 (‘權道’의 긍정’이라는 원 문맥은 숨긴 채) <仁本>조의 문면 상 의미인 “仁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유가적 대의만을 부각시켜 첫 번째 안변책의 준거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兵書의 원 문맥과는 다른 층위에서 民 중심의 유가적 경세론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조목 외에 <2. 廣屯田>, <9. 省營屬>, <10. 賞久戍>, <19. 勸徙民>, <21. 恤勇隊>, <22. 禁殺兒> 등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金弘百(2012), 42~45면 참조.

211) 洪大容, 『湛軒書』內集 권3, 「勸武事目序」, 한국문집총간 248, 72면. “武可百年而不用, 不可一日而不講也. 講之於衰亂搶攘之際, 則可以折衝外侮而敵愾王室, 講之於昇平逸豫之時, 則可以絕奸人之覬覦而杜禍亂之萌矣. 此所以不戰而屈人之兵, 而兵家之所謂善之善者也. (….) 尤今日所以勸武之意也歟.”

212) 위의 글, 같은 면. “治人者先治其身, 治身者先治其心. 此先王之大道而六經之要旨也. (….) 爲將之道, 先正其心. 聲色不足以易其節, 金帛不足以動其志, 泰山裂河海決而不足以變其色, 然後可以用人, 可以制兵, 可以自守, 可以禦敵. 夫以一人之身而御三軍之衆, 當事而不迷, 臨戰而不懼, 恢恢乎猶有餘地者, 無他, 其心正故也.”

213) 洪大容, 『湛軒書』內集 권4 補遺, 「林下經綸」, 한국문집총간 248, 3면. “夫兵者, 傷人之具也. 聖人以殺人爲事可乎? 盖不殺人, 無以生人, 殺有罪以生無罪, 聖人之兵也. 是故其仁不足以愛人, 義不足以輕財, 禮不足以尊賢, 智不足以審幾, 信不足以守道, 勇不足以斷疑, 威不足以御下, 忠不足以事上, 不可以語兵. 此八者, 兵家之大道而聖人之用也.”

는 것이야말로 곧 성인의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兵을 선용한 최선의 경지”²¹⁴⁾인 것이다. 이처럼 인의를 갖춘 자야말로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고는 『春秋左傳』의 “덕 있는 자와는 대적할 수 없다.(有德不可敵)”(「僖公」 28년) 내지 『맹자』의 “인자는 적이 없다.(仁者無敵)”(「梁惠王 上」) 등에 연원하는 兵 담론이라 할 수 있다.²¹⁵⁾ 곧 홍대용의 武[兵] 담론은 어디까지 유가의 정신적, 내면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文[儒]’을 중심으로 ‘武[兵]’를 통합적으로 재인식하는 ‘유가적 병 담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무 담론은 전술한 ‘문 우위의 문무병용적 논리’를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우위의 논리’는 문무병용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문과 무는 본말·경중·선후의 위계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무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삼가야 한다는 데 방점이 놓여 있는 것에 반하여, 홍대용의 ‘유가적 병 담론’은 문무 간의 차등에 대한 강조보다 어떻게 하면 문[유] 위에서 무[병]를 통일적·균형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실천적 고민에 좀 더 방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 있어 그 내질을 달리 한다.

214) 위의 글, 같은 면. “故阻壕爭強而死傷相半者, 兵之災也; 攻城略地而百戰百勝者, 兵之下也. 仁義成於內而敵國息於外, 不戰而屈人之兵者, 乃聖人所以生人之具而兵之善之善者也.”

215) 병가는 탄생 초기부터 여타 諸家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섞이며 일종의 ‘사상’으로서 발전하였기에, 『손자』나 『오자』 같은 전문적인 병서만이 아니라 『노자』의 여러 각편(36장, 57장, 68장) 및 『묵자』의 「非功」, 「備城門」, 「備高臨」, 「備梯」 등 11편의 兵論과 『관자』의 「兵法」, 「地圖」 및 『순자』의 「議兵」, 「商君書」의 「戰法」, 「兵守」 등을 비롯해 『呂氏春秋』나 심지어 유가의 대표적 경전인 『春秋左傳』과 『孟子』에 이르기까지 여타 선진제자의 글에서 광범위하게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金弘百(2014), 앞의 논문, 219면.

한편 17~18세기 조선에서는 전술한 유몽인의 병가적·사회경제적 논의를 일정하게 계승하는 모색 또한 등장하였다. 문무의 문제를 홍대용처럼 ‘유학=병학’의 지평에서 통일적·실천적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군사’ 내지 나아가 民生의 사회경제적 지평 안에서 현재적·실학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모색이 그것이다. 유형원, 이덕무, 박제가, 정조 등의 ‘經世的·利用厚生の 武[兵] 담론’이 그것이다. 먼저 유형원은 “백성을 주재하는 것[主民]과 군사를 주재하는 것[主兵]은 진실로 다른 두 가지일 수 없기에 (….) 대저 선비들은 實用의 학문을 배워야[實學] 하고 이것을 배우지 않은 자는 실로 장수가 될 수 없다.”²¹⁶⁾ 하였다. 이는 文武의 문제를 實學으로서의 ‘主民=主兵’ 일체론으로 확장시킨 ‘실학적 문무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덕무와 박제가, 정조는 공히 이러한 실학적 병 담론을 계승하여 武와 兵을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民生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實用的 利用厚生の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사유하고자 하였다.

이덕무는 『武藝圖譜通志附進說』에서 “대저 兵이란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그것으로 포악을 금하고 亂을 제지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니, 애당초 ‘利用厚生’의 목적과 서로 표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 하면서 “조정에서는 實用的 政치를 강구하고, 백성들은 實用的 職分을 지키고, 학자들은 實用的 책을 찬집하고, 졸병들은 實用的 기예를 익히고, 상인은 實用的 재화를 교통하며, 장인은 實用的 기구를 만든다면, 나라를 지키는 데 무슨 염려가 있을 것이며 백성을 보호하는 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²¹⁷⁾라 하였다. 주지하듯 『무예도보통지』는 정조의 왕명에 따라 연암일파의 구성원인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에 의해 편찬된 종합적 무예 교본서라는 점에서,²¹⁸⁾ 그 편찬을 주도했던 이덕무가 저술해 덧붙여 왕에게 진상한 이 說文은 북학과 곧 이용후생학과의 구성원이 정조와 더불어 공유했던 兵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자료라 할 수 있다.²¹⁹⁾ 여기서 兵의 효용은 군사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農圃·紡織·宮室·舟車·橋梁·城堡·畜牧·陶冶·冠服·盤盂 등 民生의 日用하는 기구에 이르기까지 당시 조선 전반의 제도적, 사회경제적 문물에 두루 관통된다.²²⁰⁾ 이는 박제가가 『北學議』 「兵論」에서 “兵이란 반드시 民生日用의 생활 안에 머물러야 그 이후에 평안해져 허비가 없다.”²²¹⁾라 한 말과 마찬가지로 실용적·이용후생으로서의 실학적 병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정조 또한 “實用的 가치가 없다면 虛僞일 뿐이다.”²²²⁾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곳곳

216) 柳馨遠, 『磻溪隨錄』 권21 兵制, 「各道營鎮鎮管」. “主民與主兵, 誠不可二之, (….) 蓋士皆實學, 而不學者, 固不可爲將領也.”

217)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4 編書雜稿[四], 「武藝圖譜通志附進說」, 한국문집총간 257권, 360면. “夫兵, 不得已也. 然聖人用之, 以禁暴止亂之義, 則未始不與利用厚生, (….) 朝廷講實用之政, 黎庶守實用之業, 文苑撰實用之書, 卒伍肄實用之技, 商賈通實用之貨, 工匠作實用之器, 則何慮乎衛國, 何患乎保民也哉?”

218) 『武藝圖譜通志』: 4권 4책. 목활자본.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武藝圖譜通志』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곽낙현(2007), 414~440면 참조.

219) 해당 說文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金弘百(2014), 앞의 논문, 247~255면 참조.

220) 李德懋, 앞의 글, 같은 면. “推而廣之, 凡農圃, 紡織, 宮室, 舟車, 橋梁, 城堡, 畜牧, 陶冶, 冠服, 盤盂民生日用之具, 所以事半功倍者, 舉將牖其迷而導其俗, 紹周官之遺則, 襲華夏之舊制,”

221) 朴齊家, 『北學議』, 「兵論」. “兵必寓於民生日用之內, 而後豫而不費.”

222) 正祖, 『弘齋全書』 권51, 「僞書 上齋生更試」, 한국문집총간 263, 294면. “試問新書之實用, 理耶事耶? 無實則僞而已. 噫! 書僞則言僞, 言僞則行僞, 而其流之害, 率天下同歸於僞.” 여기서는 『六韜』와 『素書』 등의 병서에 대해 先賢을 인용하여 무게를 가한 僞書이나 옛것을 의탁하여 세상을 속이는 경우는 그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있기에 그 피해가 얕다며 제한적으로 비판하였다.(以及太公『六韜』, 黃石『素書』, 東方朔『神異經』, 劉更生『列女傳』, 無不引重前脩, 謬妄可笑. (….) 予則以爲僞書有二歧, 託古而欺世, 其僞易辨而爲害淺.) 그러나 후술할 『日得錄』에서는 “『六韜』와 『孫武子』 같은 책은 筆力

에서 武經七書를 비롯한 兵家의 서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三略』에 대해서는 “군대를 쓰는 방법[用兵]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治國] 요점도 불만한 것이 많다.”며 用兵과 治國, 곧 군사와 정치의 문제를 연관시켜 사고하기도 하였고²²³⁾ 六藝의 ‘御’를 상고하기 위해 兵家의 서적을 탐문하기도 하였으며,²²⁴⁾ “兵家의 급선무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足食]이니, 병사가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다면 이는 병사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²²⁵⁾라며 전술한 유몽인도 중시한 병가적 ‘足食’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 “맹자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거절함으로써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다.’ 하였으니, 비유하자면, 用兵家가 장수를 격동시키는 법이다.”²²⁶⁾라 하여 맹자의 교육법을 병가의 용병법과 등치시키기도 하였다. 곧 유가의 토대 위에서 병가의 사유를 참조하고 활용하며 실용적·경제적 차원에서 ‘兵’의 문제를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조는 文과 武 간의 상보적·균형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의론했는데,²²⁷⁾ “文講·武講·文製·武射는 바로 수레의 바퀴와 새의 날개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쪽만을 버릴 수가 없는 것”²²⁸⁾이며 “文武는 서로 필요한 것이기에 어느 한 쪽만을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文武相須, 不可偏重) (….) 어찌하여 실제에 도움이 없는 文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유용한 武는 그토록 해이하게 여긴단 말인가?”²²⁹⁾라 하면서 ‘실용의 가치가 없는 文(無實之文)’과 ‘실용의 가치가 있는 武(有用之武)’로 대비하여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강조하였다. 전술한 이익의 문무병용론과 마찬가지로 문무를 선후와 경중의 관계를 사고하지 않고 실용적·현실적 차원에서 오히려 ‘무’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文武相須論’이라 할 수 있다. 또 정조는 『논어』와 『예기』, 程子の 말을 논거로 兵은 성인 또한 신중히 여기는 일이기에 兵 또한 禮와 마찬가지로 奇變의 토대로서의 ‘질서’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고,²³⁰⁾ “文과 武를 병용하는 것이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계책이다. (….) 대저 文과 武의 道란 서로서로 이용되어 마치 駟驢와 蜚蜚이 단독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상보적 문무관을 토대로 治國策과 用人策으로서의 文武竝用과 文武兼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³¹⁾ 아울러 『시경』 「周南」편에 관해 정약용과 나눈 문답에서도 주나라의 文彩

이 응창하고 건실하며 理趣가 정밀하고 깊으니, 의당 諸子 중에서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라 고평하기도 하였다.

223) 正祖,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4, 「文學」, 한국문집총간 267, 206면. “兵家之書, 如『六韜』·『孫武子』, 筆力雄健, 理趣精深, 當於諸子中高占. 『三略』一書, 非徒用兵而已, 治國之要, 亦多可觀. (….) 兵書之中, 如戚繼光『紀効新書』, 雖無方略之可觀, 其於操練進退之節, 不爲無益, 亦不可小覷.”

224) 正祖, 『弘齋全書』 권69, 『經史講義』6, 「大學」, 한국문집총간 264, 20면. “三代以後, 六藝之至今傳授者, 三禮之外, 六書則有象形會意之屬, 九數則有方程句股之類, 而最是六樂五射, 浸失其真, 至於御之一藝, 特有五御之名目, 而古人成法, 殆無可考之處. 其精義所存, 雖難一一歷指, 兵家之中, 或有旁引參證之書否?”

225) 正祖, 『弘齋全書』 권113, 『經史講義』50, 「綱目」, <漢後主>, 한국문집총간 265, 314면. “兵家先務, 在於足食, 兵而無食, 是猶無兵也.”

226) 正祖, 『弘齋全書』 권176, 『日得錄』16, 「訓語」, 한국문집총간 267, 426면. “知仁勇三者, 勇之功爲大. 孟子謂不屑之教誨, 是亦教誨也已, 譬之用兵家激將法. 然激而能知奮發者, 必勇將也, 懦者不能奮也.”

227) 정조의 文武 담론에 관해서는 최형국, 앞의 논문 참조.

228)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1781) 2월 18일. “定親臨武臣講試儀節. 教曰: 文講·武講·文製·武射, 正如車輪·鳥翼, 不可偏廢.”

229) 正祖, 『弘齋全書』 권31, 「西北武臣官方變通教」, 한국문집총간 262, 518면. “文武相須, 不可偏重. (….) 何其貴無實之文, 而弛有用之武也.”

230) 正祖, 『弘齋全書』 권8, 「兵學通序」, 한국문집총간 262, 134면.

231) 正祖, 『弘齋全書』 권48 策問1, 「文武 到記儒生再試」, 한국문집총간 263, 228면. “文武竝用, 長久之術也. (….) 大抵文武之道, 迭相爲用, 其猶駟驢之不可獨行. (….) 而然而文恬武嬉, 媮惰委靡. (….) 而

가 빛났음에도 武事를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듯이 ‘干城[무인]과 楨榦[선비]’²³²⁾은 높고 낮음과 가볍고 무거움을 논할 수 없는 並用과 兼全의 一體的 關係임을 강론하였다.²³³⁾

이처럼 조선 중후기의 문무 담론은 크게 ‘武 우위의 文武並用論’과 ‘經世的·利用厚生的 兵 담론’이라는 두 가지의 경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문무결전, 문무병용, 문무병행의 대원칙 하에 당대 조선의 현실 안에서 문보다 ‘무’를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놓으면서 文教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武備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고이다. 후자는 ‘문=무’의 문제를 ‘유학=병학’ 내지 ‘정치=군사’ 및 나아가 ‘군사=사회경제’의 지평으로 확장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고하는 견해이다. 이는 武와 兵의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유가의 정신적, 내면적 토대 위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서 民生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하는 實用的 利用厚生的 文무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유몽인의 ‘倣中國’과 박제가의 ‘北學’처럼 조선의 후진성을 자성하고 중국(명/청)의 군사적, 사회경제적 선진제도와 문물을 본받아 배우자는 실리적 현실 인식이 그 기저에 자리한다.

5. 小結

여말 이래 조선후기까지의 문무 담론은 일반적으로 ‘文武不可偏廢’로서의 文武並用과 文武兼全의 원칙을 대전제로 공유하면서도, 우선 ‘문무 중 일방의 우위적 강조론’과 ‘문무 간의 相補的 均衡론’의 두 경향이 상호 교체하며 반복 변주되었다 할 수 있다.

전자의 흐름은 먼저 선초부터 중기까지 태종과 중종, 명종대 문신과 이원익, 김상헌 등에 의해 문과 무, 文教와 武備의 관계를 본말과 경중, 선후의 차등적 위계구조로 사고하는 경향으로 지속되다가 조선후기에 이익을 필두로 안정복, 홍양호, 서경창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文보다 ‘武’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반전한 것에서 확인된다. 가령 이원익은 문무병용의 대원칙에 동의하되 ‘文教야말로 武備의 근본’이 됨을 역설했는데, 이익은 문무병용의 대원칙에 동의하되 ‘文教가 행하게 되는 것은 어찌 武備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라 역설한 것이다. 이는 병란 이후 조선의 현실에 대한 진단의 근본적 차이에서 초래된다 할 수 있다. 이원익은 병란 이후 당대 조선의 병폐를 문교의 퇴락으로 진단했지만, 이익은 병란 이후 당대 조선의 병폐를 무비의 소홀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후자의 흐름은 여말의 이색과 정몽주에 의해 각각 개진되었던 ‘文武=經緯’ 내지 ‘文武=陽陰’으로서의 상보적·균형적 인식이 조선 중기의 조호익, 장현광, 이식, 장유 등에 의해 다채롭게 계승되면서도 그 중 장현광에 의해 특히 문무의 상관성을 역학적, 자연적, 윤리적, 유가적, 신체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논리로 종합 심화시켰던 것에서 확인된다. 물론 여말의 이색과 정몽주는 이러한 원리적 인식만이 아니라 문무병용의 대원칙 하에 정

有如塞鵬復至，海鯨再動，陸梁奔突，不幸如壬丙之歲，則雖有智者，不知所爲計矣。思之及此，寧不寒心？何以則治國之謀，克盡並用之實，而用人之方，必得兼全之才，合弛張之道，享長久之美歟？”

232) 干城은 방패와 성으로 나라를 지키는 무인을 가리키며, 楨榦은 담 쌓을 때 양쪽 모서리에 세우는 나무 기둥으로 나라의 동량이 되는 선비를 가리킨다. 『詩經』에서 “赳赳武夫，公侯干城”라 하였고 또 “維申及甫，維周之翰”라 하였다.

233) 『弘齋全書』 권88, 經史講義 25 ○詩經5, 「周南」; 『弘齋全書』 권91 經史講義 28, 「北山之什」. “文武並用，乃長久之術，而此詩只以講武事，爲萬年保邦之道何歟？有文事者必有武備，武事是講則其必先有文事，可知故歟？若鏞對，周之文郁郁，而今又講武，則可不謂文武並用乎？且平時講武，乃是安不忘危之義，其爲萬年保邦之基者固矣.”

치적·군사적 현안에 관해 ‘상대적으로 무비를 강조하는 태도’와 ‘그럼에도 양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각각 주안했다는 점에서 ‘무 우위의 논리’가 선초와 중기의 ‘문 우위의 논리’를 거쳐 후기의 ‘무 우위의 논리’로 다시 계승 발전되었다면, ‘상보적 균형론’은 조선 중기의 장현광 등을 통해 계승 심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의 두 흐름 외에 조선 중후기에는 ‘문=무’의 문제를 ‘유학=병학’ 내지 ‘정치=군사’ 나아가 ‘군사=사회경제’의 지평에서 통일적으로 연계시켜 실천적으로 사고하는 논리 또한 대거 등장하였다. 16세기 말~17세기 초의 유몽인은 임란 이래 국내외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17세기 초반 後金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논점의 북방 방어책과 사회경제 개혁안을 남겼는데, 이러한 시무책은 유가적 경제론의 지평에서 ‘武經七書’ 등의 兵書를 전범적 논거로 삼아 군사적 차원에서의 북방 방어책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개혁안을 긴밀하게 연관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병가적인 ‘武’를 유가적·경제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용, 통합해내는 사유는 조선후기 여러 실학자들에게 고루 발견되는데, 홍대용이 문무의 문제를 ‘유학=병학’의 지평에서 통일적·실천적으로 사유한 ‘유가적 兵 담론’을 개진했다면, 유형원, 이덕무, 박제가, 정조 등은 문무의 문제를 ‘정치=군사’ 내지 나아가 民生의 사회경제적 지평 안에서 현재적·실학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경제적·이용후생적 兵 담론’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무 담론은 전대의 문무 담론이 음양오행적 역학론과의 관련 속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원리적으로 궁구되었던 것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이며 시의적인 차원에서 고안된 입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말 이래 조선의 문무 담론은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문’ 내지 ‘무’ 우위의 논리와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상보적·균형적 논리 및 나아가 유가적 경제론의 지평에서 전개된 병가적·사회경제적 논리 등 세 가지의 레벨로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

■ 부록 : 文武 담론 관련 자료 일람표

작가	작품	출전	관련 내용
睿宗 (재위 1105~1122)	睿宗 11년 (1116) 8월 18일	『高麗史』 권70, 樂1, 雅樂.	*순임금의 고사와 송나라 황제의 하교를 논거로 文武의 道는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해선 안 됨을 천명함. 유가문명과 중화질서의 자장 안에서 文武並用的 필요성 주장.
毅宗 (재위 1146~1170)	庚寅 24년(1170)	『高麗史節 要』 권11 毅宗 莊孝大王	*文武는 左右의 손과 같기에 彼此와 輕重은 없음을 강론 : “元首와 股肱은 한 몸으로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옛날의 어질고 슬기로운 임금들은 文武를 左右의 손과 같이 보아서 彼此와 輕重이 없어, 임금은 위에서 밝고 신하는 조정에서 화합하여 반란이 일어날 수 없었다.”
李奎報 (1168~1241)	「同前策問」	『東國李相 國集』 後集 권11	“文武를 병용하는 것이 장구하는 道라 하였으니 예로부터 국가가 그 어느 한 쪽도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는 文武가 바로 그러하다.”
李穡 (1328~1396)	「陳時務書」	『東文選』 권53	*文武並用과 經緯論 : “文武는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할 수 없으니, 文을 經[날줄]으로 삼고 武를 緯[씨줄]로 삼는 것은 天地의 常道입니다. (...) 그러므로 선왕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서 文을 세우고 설치하였고, 文을 닦고 武를 중하게 여겼으므로 일찍이 한 가지[文]를 위해서 다른 것[武]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列傳 28 諸臣, 이색	『高麗史』 권115.	소하와 한신, 광무제의 사례를 들어 文과 武는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 天地의 道는 文을 날줄로 하고 武를 씨줄로 하고 있다며[文經武緯] 武科 설치의 당위성 역설.
鄭夢周 (1337~1392)	恭愍王 9년(1360) 과거 시험 답안지	「策文」 (일본나고 야 蓬左文庫 소장)	三代 이전에는 文武가 하나였으나 삼대 이후 둘로 나뉘었음을 지적하며 文무가 하나이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文무가 둘로 나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음. 文무겸전의 관점에서 태공망, 사마양저, 손빈, 오기, 공명, 이정 등 비평, 文무겸비와 文무겸용한 자의 등용을 주장.
恭愍王 (재위 1351~1374)	恭愍王 20년(1371) 12월	『高麗史』 권74, 志28 學校	文武 관리의 등용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법이니, 개경의 성균관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文學과 武學 2學을 개설할 것을 하교함.
恭讓王 (재위 1389~1392)	恭讓王 2년(1390) 2월 29일	『高麗史』 권45, 世家.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文으로 가르치고 武로 대비하는 文敎와 武備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됨을 환기하며 儒學의 권장과 軍容의 사멸을 병행함.
鄭道傳 (1342~1398)	恭讓王 2년(1390) 정월	『高麗史』 권75, 志29 選舉	옛날의 用人之法으로 文學, 武科, 吏科, 門蔭의 四科를 거론함.
	「夢金尺序」	『三峰集』 卷2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적에 꿈에 神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는 말이 (...) ‘자질이 文武를 겸하고 德도 있고 지식도 있어, 백성들의 신망이 몰렸다.’라고 하고 드디어 금척을 주었다.”
	『朝鮮經國 典』 上	『三峰集』 권7	경학과 문장에 능한 인재만이 아니라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군무에 능한 인재 및 천문·지리·복서·의약 등의 기술을 갖춘 각 방면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 武班도 기예만이 아니라 經書의 文學 또한 익혀야 함을 역설.(文武不可偏廢論)
太祖 (재위 1392~1398)	太祖 3년(1394) 2월	『太祖實錄』 권5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文으로써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 武로써 어지러움을 평정하니 文武는 마치 사람의 두 팔과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폐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군제개혁의 당위성 역설.
太宗 (재위 1400~1418)	太宗 1년(1392) 7월	『太祖實錄』 권1	文武 兩科는 어느 한쪽만을 폐지할 수 없으니, 文科와 함께 武科를 통해서도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장.
太宗 (재위 1400~1418)	太宗 2년(1402) 9월 8일	『太宗實錄』 권4	병조에서 文武의 직은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할 수 없으니 文武의 균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상소함.
	太宗 11년(1411) 5월 8일	『太宗實錄』 권21	“文武를 並用하는 뜻이라면 可하지만, 文武를 並立시키는 것은 不可하다.” : 文武의 균형성을 강조하되 文과 武를 대등한 관계로 사고하지는 않음.
世宗 (재위 1418~1450).	世宗 13년(1431) 3월 17일	『世宗實錄』 권51	“三代 이상에서는 文武를 하나로 여겼으니 (...) 文을 숭상하고 武를 폐지할 수 없으며 武만을 닦고 文을 폐지해도 안 될 것입니다. (...) 왕이 司馬溫公의 논의를 보고 ‘文武는 두 가지가 아니니, 만약 武成王廟를 따로 세운다면 이는 常道에 벗어나는 일이다.’라 하였다.”
徐居正 (1420~1488)	「奉送洪節 度 伯涓 之鑰 四首」	『四佳集』 권21	“韓信의 깃발에 謝朓의 시편을 겸했어라, 한 몸에 文武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었네(韓信旌旗謝朓篇, 一身文武兩能全)”
李承召 (1422~1484)	「送芮忠 年 登武學 榮 墳于瑞山」	『三灘集』 권9	“韋氏 집안 한 경전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석공이 준 『三略』 능히 스스로가 전하리라. 지닌 제주 명성 보니 못 선비를 뛰어넘고, 文武 제주 양쪽이 다 온전함을 자랑하네.”
成俔 (1439~1504)	「謁遠接使」	『虛白堂詩 輯』 권14	“文武를 겸비함은 짝할 만한 사람 적네(文武全材信少雙)”
	「送永安節 度使曹文緯」	『虛白堂補 輯』 권2	“文武의 재능 겸한 한 시대의 영웅이라네(文武全才一代英)”
	「送忠淸申 節度使」	『虛白堂補 輯』 권5	“文武의 재주 겸한 보기 드문 인재라네(文武全才世少儔)”

	四首」		
	「北征賦」	『虛白堂文集』 권1	“吉甫처럼 文武를 겸비하였고, 郃毅처럼 詩書에도 해박하네.”: 길보와 극곡은 文武兼備의 상징적 인물로 자주 인용된다. 《春秋左氏傳 僖公27年》
	「祭許相國文」	『虛白堂文集』 권14	“文武를 모두 갖춘 인재이자 재덕까지 겸비하였네(文武全才, 才德兼備)”
蔡壽 (1449~1515)	「弘文館藝文館合同疏」	『續東文選』 권11	“무릇 文武의 道는 폐해서는 안되는 것이오라, 제왕은 道德과 仁義로 '文'을 삼고, 威斷과 勇決로 武를 삼는 것이며, 漢武帝가 손수 사나운 짐승을 친 것과 隋煬帝가 문장이 화려한 것으로써 文武를 삼는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世祖 (재위 1455~1468).	世祖 5년(1459) 6월 10일	『世祖實錄』 권16	兵曹에서 '文武一體'이니 文科와 武科를 공평히 등요할 것을 상소함.
	世祖 7년(1461) 10월 3일	『世祖實錄』 권276	武와 兵의 근본에 仁義가 있음을 역설: “兵이란 지혜[智]로써 쓰임[用]을 운용하고 쓰임으로써 지혜에 응하는 것이다. (...) 仁義에 근본하지 않으면 敵이 없어도 스스로 파멸할 것이요.”
中宗 (재위 1506~1544)	中宗 15년(1520) 9월 29일	『中宗實錄』 권40	文武의 本末・輕重論: “文武는 참으로 어느 한 쪽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 했으니 文과 武는 진실로 並用해야 마땅하나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上이 “文武는 본디 本末과 輕重의 구분이 있으나 근래 武事가 지나치게 행이하므로 이렇게 권려했을 따름이지 武事를 지우쳐 숭상하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李荇 (1478~1534)	「送方太和節5度咸鏡南道」	『容齋集』 권2	“조정이 번방 방어 중요시하여 장수 뽑을 때 선비들을 골랐지. 그 옛날 현량을 천거할 적엔 오직 文武를 모두 갖추었으니.”
成雲(?~1528) · 金楊震(1467~1535)	中宗 18년(1523) 6월 29일	『中宗實錄』 권48	賞罰・文武 並用論: 정사를 행할 때에 있어 賞이 있게 되면 반드시 罰도 있어야 하고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는 文이 있으면 반드시 武가 있어야 되니, 벌이 없으면 인심이 방종하게 되고 武가 없으면 나라가 날로 약해집니다. 이른바 文武를 並用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장구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明宗(재위 1545~1567)	明宗 6년(1551) 3월 21일	『明宗實錄』 권11	* 文武 先後論: “文武를 비록 並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先後는 있는 것이다.”
曹好益 (1545~1609)	「易象說周易上經」 <履卦>	『芝山集』 부록 『易象說』 권1	“人'은 三才를 가리키는데, 삼효는 바로 사람의 자리이다. '武人'은 육상의 陰 상을 취하였는데, 文武로써 말하면 文은 陽이 되고 武는 陰이 되며, 生殺로써 말하면 陽은 생을 주장하고 陰은 죽을 주장한다.”
	「司馬氏居家雜儀」	『家禮考證』 권3	“정씨가 말하기를, “大夏는 舞樂 가운데 文武가 겸비된 것이다. (...)” 대하는 禹王의 음악이다. 禪位를 하였던 上古 시대 이후에서 전쟁을 일삼았던 戰國 시대 이전까지는 文武가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李元翼 (1547~1634)	宣祖 29년(1596) 9월 19일	『宣祖實錄』 권80	* 文武 本末論: “文武는 어느 한쪽만 폐지할 수 없으니 文教는 武備의 근본이 된다.”
張顯光 (1554~1637)	「文武一體論」	『旅軒集』 권10	* ‘文武一體’에 대한 이론적 고찰. 經과 緯, 健과 順, 剛과 柔, 陽과 陰, 仁禮와 義智 및 각 신체 부위와 五臟 등을 활용해 文武의 관계를 相生相剋의 상보적 이치로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天下와 國歌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文과 武를 구별하여 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참다운 文은 반드시 武가 있고, 참다운 武는 반드시 文에 근본한다. 이미 文 밖의 武가 없고 또 武가 없는 文이 없으니, 武가 없는 文은 참다운 文이 아니며, 文을 떠난 武는 참다운 武가 아니다. 文과 武가 한 길이 아니고 그럴겠는가. (...) 후세에 이르러는 文과 武가 나뉘어 두 길이 되어 文은 따로 文이 되고 武는 따로 武가 되었으니, 이른바 文이 어찌 참다운 文이며 이른바 武가 어찌 참다운 武이겠는가. (...) 한 나라에 있어서는 안에서 文을 지키는 자는 비유하면 심장과 배와 허파와 창자이고, 밖에서 武를 이루는 자는 비유하면 다리와 팔과 손톱과 이빨이니, 숨하여 一體가 되지 않고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참다운 文으로 武를 겸한 자를 얻어 안에 있게 하고, 반드시 참다운 武로 文을 겸한 자를 얻어 밖에 있게 한 뒤에야 文과 武가 한 길인 뜻을 체득하여 비로소 나라를 부흥하는 일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文과 武가 둘로 나누어짐을 한탄하여 이에 일체의 論을 짓는다.”
裴龍吉 (1556~1609)	「統軍亭次韻十首」	『琴易堂集』 권1	“兵法는 孫吳에 이르러 숙임수도 꺼리지 않았고, 六韜는 文武에 걸맞게 평정을 귀히 여겼네.(兵到孫吳不厭詩, 韜稱文武貴持平)”
柳夢寅 (1559~1623)	「送別咸鏡監司張好古晚詩序」(1607)	『於于集』 권3	후금을 막기 위한 군사적 대비책으로 安民 足食 강조함. 족식을 위한 방책으로 북방 지역의 은광 개발 주장.
	「送韓山郡守李季信序」(1601)	『於于集』 권4	목민관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역할을 30가지로 뽑아 개괄함. 屯, 糧, 銀의 경우처럼 향후 「안변책」에서 다루어질 사안들 발견.
	「中州雜詠十八首」	『於于集』 後集 권2	당시 중국 현실을 직접 목도한 체험 위에서 城池・兵馬・器械・場屋・銀錢・驢騾・田租・書肆・街舖・石灰・人車・馬耕・驢磨・土刻・陶甓・燻玉 등 명조의 선진적인 군사적·사회경제적 제도와 문물을 긍정적으로 詩化
	「贈別韓侍郎德遠使上國謝恩序」(1609)	『於于集』 後集 권3	당대 조선의 금성무인 ‘治兵’과 ‘生財’를 法家の 대표적인 주장으로 파악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전국시대의 법가 사상이인 商鞅의 變法은 당시 진나라의 군사 확장과 경제 발전을 두 가지 축으로 삼았는데, 이는 후대 유학자들에게 이해 霸道の 사상으로 가치 절하되고 비판받았다. 유몽인은 이러한 법가의 치병・생재의 주장을 북방 방어와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것임.
	「送公州使君李伯吉善復令公詩序」(1610)	『於于集』 後集 권3	稅田, 役民, 養兵, 行幣 등의 네 가지 항목에서 명대 중국의 治民策을 분석하고 그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 전반의 사회경제적 후진성을 비판.

	「安邊三十二策 贈咸鏡監司 韓翁之浚謙」(1610)	『於于集』 後集 권5	북방 방어책과 사회경제적 개혁안이다. 척후와 보루의 강화, 수자리할 병사의 모집과 포상, 군량의 비축, 벽돌을 사용한 성곽 축성, 병법의 교육, 馬政의 개선, 대오의 엄수, 변방 관문의 설치 등은 군사적 측면이 강조된 방어책이고, 조세와 수렵세 탕감을 비롯한 세제 개혁, 둔전 개혁, 은광 개발, 어업 확대, 노점상 허가, 화폐 사용 및 큰 선박 제조와 수레 사용 등은 함경북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된 개혁안이다. 그러나 이상의 북방 방어책과 사회 개혁안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金尙憲 (1570~1652)	仁祖 3년(1625) 4월 20일	『仁祖實錄』 권9	* 文 우위의 사고 : “나라를 다스리자면 文도 있고 武도 있어야 하지만, 文이 첫째가 되고 武가 그 다음이 됩니다.”
李植 (1584~1647)	「嶺南按使 竹陰趙公 希逸陞辭時, 自上面諭曰: 嶺俗不好武, 卿文翰之士, 宜兼飭武事, 公兢厲而退 出郊次,以語 餞客,且要植 贖章,謹因聖 教之意,演爲 韻語」	『澤堂集』 권5	“계림 땅의 儒學이 신라를 일으켜 세웠지만, 弓矢로 인해 뽑은 과거도 또한 있었다오. 우리 동방 통일한 건 역시 文武 兼全의 힘, 일천 년 전 남긴 자취 산하에 널려 있지 않소. (...) 文武를 조화시키라는 성상의 간절한 부탁 말씀, 담소간에 鯨波(왜구의 침입)를 잠재우리라 확신하오.”
	「留別營將 李廷臣二首 ○余曾爲北 評事, 君守端川, 今余守忠而 君爲營將, 故有兵民文 武之句」	『澤堂集』 續集 권3	“군대와 백성의 일 다르다 할지라도, 文과 武를 어찌 서로 업수이 여기리요.(兵民雖異事, 文武豈相輕)”
	「贈朴慶州 守弘任」	『澤堂集』 續集 권5	“文德과 武業이 끊임없이 잇따라서 삼한을 마침내 한 나라로 합쳤나니, 왕자의 위업을 달성하려면 백성을 아끼는 게 으뜸임을 알겠도다.(文武繼軌出, 三韓竟同方, 從知王者業, 本由保民昌.)”
	「祭韓西平 浚謙 文」	『澤堂集』 別集 권12	“文과 武 모두 본받기에 충분하고, 강하고 부드러운 혼연히 조화되어 (...) 文壇과 經筵은 말할 것 없고 方伯과 幕府로 나가 재직하였네.(詞壇講幄, 藩節戎旃, 文武足憲, 剛柔渾然)”
趙綱 (1586~1669)	「送閔而下 赴海州」	『龍洲遺稿』 권3	“文武의 재주 兼함을 그대는 사양하지 마시게. 공황의 훌륭한 정사를 세상에서 누디두라.(文武全才君不讓, 囊黃美政世誰爭)”
	「送楊康翎 萬古序」	『龍洲遺稿』 권11	“나는 일찍이 그대가 隨何와 陸賈의 文을 지니고 있고, 周勃과 灌嬰의 武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다.(吾嘗知子有隨陸之文, 而有絳灌之武)”
	「監司李公 神道碑銘 并序」	『龍洲遺稿』 권20	“文武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剛柔를 잘 조절하여 어지러운 매듭은 저절로 풀리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봉착해서도 막힘이 없었다.(文武隨用, 強柔互設, 亂繩自解, 盤錯無礙)”
	「右議政懶 庵鄭公神 道碑銘 并序」	『龍洲遺稿』 권21	“吉甫 같은 文武의 재주 공에게 넉넉하네.(吉甫文武公所饒)”
張維 (1587~1638)	「酒鐘銘 并序」	『谿谷集』 권2	* 五行과 文武의 상관성 : “대저 酒鐘의 물건 됨됨이를 보건대 그 이치에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그 功效 상으로廢하지 못할 점이 있다 하겠다. 이치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불이 쇠를 이길 수 있는데도 쇠가 오히려 불을 담고 있고, 물이 불을 끌 수 있는데도 불이 거꾸로 물을 끓이고 있으니, 이는 이들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經綸할 때에도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쓰면서 서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동시에 구제하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남은 재는 흙에 속하니 오행이 구비되었구나. 물과 불 서로 싸우고 文道와 武道 차례로 변하네.”
柳馨遠 (1622~1673)	「兵制」	『礪溪隱錄』 권21	文武, 主民과 主兵의 일체론 : “백성을 주재하는 것[主民]과 군사를 주재하는 것[主兵]이 진실로 다른 두 가지일 수 없는데, 지금 武人들은 평소의 생활에서 대개 부끄러움 없이 백성을 학대하며, 文士들은 軍陣에 입하면 아녀자와 똑같이 되니 어찌하겠는가? 文과 武는 본래 두 개의 道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卒·旅·師·軍의 장수는 모두 族黨과 鄉遂의 鄉士로서 들어가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관리가 되고 나아가면 外적으로부터의 모욕을 막는 장수가 되는 것이니, 대저 선비들은 實用的 학문을 배워(實學) 하고 이것을 배우지 않은 자는 실로 장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 文官은 붓을 적서 彫琢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武官은 활을 당기며 거칠고 사나운 일을 할 뿐이니, 이는 올바른 道로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던 것에서 연유하며 결국 온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진실로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선발하는 두 가지 일에 있어서 지금 숭상하는 바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찌 그 度數의 말단을 논할 수 있겠는가?”
李玄逸 (1627~1704)	「十九年夏 嶺北按廉使 缺權公子馨 適膺是選 將行需送行 語,聊道所感 伏幸采擢」	『葛庵集』 권1	“文武의 재능이 將帥와 宰相 말을 만해 그래서 공을 보내 변방 다스리게 한 게지(文武才堪將相權, 故煩旌節去籌邊)”

	「嘉善大夫行平安道兵馬節度使兼安州牧使五衛都總府副總管 許公 神道碑銘 并序」	『葛庵集』 속집 권3	神道碑銘 許公(許東立)이 文武의 재락을 검비했음을 칭양함.
	「又曹九齡」	『葛庵集』 권4	“文武의 방책 검비하여, 堯舜君民의 큰 뜻 품었도다.(文武方策, 堯舜君民)”
	「書新編八陣圖說後」	『葛庵集』 권21	文武는一體라 杜牧이 孫武書에 주석을 단 것을 따라 자기 자신도 농사와 독서의 외중에 兵書를 선집해 엮음: “漢나라 이전에는 文武의 道가 다르지 않았으니, 《詩經》이나 《書經》에서 칭한 바에서 모두 살피볼 수 있다. (...) 그러다 隋·唐에 이르러 詞章 같은 未技로써 사람을 뽑게 되니, 이에 文武의 쓰임이 관련하여 두 갈래의 길이 되고 말았다. 여유 있게 翰墨에 종사하는 자는 武事를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군대에 발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文人을 경시하였으니, 이는 또한 그 형세 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바가 있었다. (...) 그러나 나는 이에 삼가 유감이 있으니, 국가가 병자년의 胡亂을 겪었을 때 어찌 ‘사교에 적을 막는 보루가 많은’ 치욕에 그쳤겠는가. 개미년(1643, 인조21)에 군대를 요구한 일의 원통함이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의 치욕보다 못하지 않으니, 말하자면 가슴이 미어져 오염하게 된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때 이후로 세월이 흘러 어느덧 20여 년이 되었으니, 옛날에 비통하게 신음하던 자들은 지금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小戎의 분함이나 揚水의 탄식이 없다. 草野의 오활한 식견을 지닌 나만이 홀로 강개하여, 독서하고 문고 농사짓는 여가에 문득 다시 兵書를 구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한 짚을 만들고, 때때로 손에 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그것을 통해 애오라지 스스로 분하고 무묘한 뜻을 풀고, 인하여 杜牧이 經을 풀이했던 뜻에 스스로 가탁해 보았다.
	「統制使申公墓碑銘 并序」	『葛庵集』 권23	“文武 양방을 검비하고 변방을 출입하였다.(兩有文武, 出入屏毗)”
李 濼 (1681~1763)	「文武並用」	『星湖僊說』 권7 「人事門」	文武並用論 : “태평할 때는 글 잘하는 관리를 진출시키고, 위급할 때는 갑옷 입은 장수를 등용하는 것은 古를 막론하고 공통된 잘못이다. 聖王의 道는 편안할 때에도 위급함을 잊지 않고 보존될 때에도 망함을 잊지 않는다. 평화스런 때에는 북쪽 창끝을 지휘하다가 난리가 난 뒤에 원망을 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다가 종사를 위탁하면 되겠는가? (...) 이른바 ‘武를 그만두고 文을 숭상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겪은 뒤에 武를 조금 억누르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文과 武를 아울러 쓰는 것은 장구히 갈 수 있는 대책이다. (...) 신성한 武는 죽이지 아니하고 槍戈를 그치지[는] 것이 武가 된다. 그러므로 난리를 평정하는 재주는 싹트는 것을 꺾어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렇다면, 武와 文은 輕重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武弁注擬」		“나는 매양 ‘지금 세상의 文藝는 武技보다 못하다’고 이른다. 활과 칼의 쓰임은 오히려 새와 짐승을 쓰고 도둑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중일수록 생각했으나 表와 賦를 이용할 만한 곳을 깨닫지 못하였다. 남들은 ‘큰 나라를 섬기는 데에 表文을 쓴다. 그리고 표문이 없어서 능히 큰 나라를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말한다면 武技가 어찌 文藝보다 못하겠는가. 그런데 武를 전하게 대우함이 이에 이르렀다.”
	「武備爲急」		“세상이 평화로워 무사할 때에는 文教가 우선이 되지만, 文教가 행하게 되는 것은 어찌 武備에 의해서가 아니겠는가. (...) 이따로, 안일을 좋아하여 유행을 잊고 文만 익혀 武를 천시하는 것은 외침을 초래하는 첩경이다. (...) 나는 일찍이 ‘문교가 이미 대략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국방을 급히 하여야 한다.’ 했었는데, 《周易》을 읽다가 이 때문에 이르자 느껴서 쓴다.”
	「射而觀德」	『星湖僊說』 권13 「人事門」	“만약 일이 없다 하여 이에 힘쓰지 않으면, 환란에 임하여 줄지에 준비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미리 훈련해야만 잇몸 없이 바야흐로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武를 병용하는 것이다. (...) 대개 文教가 비록 중하나 儒術의 토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서 강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武備이다.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하루라도 이것을 잊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이 그 안에 잠복해 있을 것이다. 聖人이 먼 훗날을 염려한 것이 이와 같다.”
	「交養」	『星湖僊說』 권19 「經史門」	天和 地는 위와 아래로 나뉘었으나 서로를 길러주고, 水와 火는 용납되지 않지만 서로를 길러준다. 무릇 어떤 물건이든 서로 길러주지 않는데도 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元首와 股肱의 노래를 읊으면 君臣이 서로 길러줌을 알게 되며, 罔戴罔生의 謬를 읽으면 貴賤이 서로 길러줌을 알게 되며, 五教三居의 典을 읽으면 教刑이 서로 길러줌을 알게 되며, 衣裳弧矢의 卦를 읽으면 文武가 서로 길러줌을 알 수 있으며, 思學罔殆의 교훈을 읽으면 知行이 서로 길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知란 것은 마음에 속하고, 行이란 것은 마음과 몸에 다 속하는데, 속으로 하는 것은 곧 마음의 행동이고, 겉으로 하는 것은 곧 몸의 행동이다. 內外는 家에 속하고 君臣·貴賤·教刑·文武는 모두 國에 속하니, 비록 大小의 차별은 있으나 이것을 깨달으면 저것도 터득할 수 있다. 그 근본은 마음에 있고 그 요령은 행동에 있는데, 先儒들이 점점 범위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
	「長生浦」	『星湖全集』 권8 海東樂府	“유 태수는 당년에 文武 재주 겸전하여, 은혜는 겨울 해 같고 위엄은 범 같았지.(太守當年文武才, 惠如冬日威如虎)”
	「答秦比安」	『星湖全集』 권16	* 이익이 자신의 아들 李璉休(1713~1751)의 「封事」 소개함. 良賤合一과 文武合一, 遠近合一, 中外合一, 貧富合一 등 문무의 균등만이 아니라 양인과 천인, 지방과 서울, 빈자와 부자 등 신분과 지역,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의 전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 “1) 양인과 천인을 동일하게 다룰 것 [良賤合一], 2) 문관과 무관을 동일하게 다룰 것 [文武合一], 3) 과거 급제자 수효와 관직 천거 수를 동일하게 만들 것 [科薦合一], 4) 먼 지방 사람과 가까운 지방 사람을 동일하게 다룰 것 [遠近合一], 5) 중앙과 지방을 동일하게 다룰 것 [中外合一], 6) 궁중과 관부를 동일하게 다룰 것 [宮府合一]

			一), 7)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동일하게 다룰 것 [貧富合一] 등”
安鼎福 (1712~1791)	庚寅 毅宗 24년(1170)	『東史綱目』 第9上	“옛날의 文武는 두 갈래 길이 없었는데 후세에 나뉘어 둘이 되었다. 시절이 화평하면 文을 숭상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武를 높여 서로 輕重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서로 알력하는 습성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文士는 대부분 망령되게 겸술하고 武人은 대부분 거칠고 사나와, 임금이 한 군데만 치우치게 소중히 여겨 어거하는 데 마땅함을 잃게 되면, 그것은 난동을 가져오는 길이 된다. 이것은 毅宗이 멸망한 까닭이었고 후세 임금들의 밝은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이다.”
	乙未 高宗 22년(1235)	『東史綱目』 第10下	“趙冲은 위인이 풍채가 크고 호방하며 밖으로 莊重하고 안으로 온화하였다. 선비 대우하기를 화하고 즐겁게 하여 차별을 두지 않았다. 세 번 文閣[知真學]을 맡으며 그 당시 인재를 얻었다고 일컬었고, 文武를 兼全하여 나가서는 정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니, 朝野가 의지하여 중히 여겼다.”
	壬戌 元宗 3년(1262)	『東史綱目』 第11上	“우리나라가 비록 약하나, 옛날 삼국 시대에는 오로지 武를 숭상하는데 힘쓰기 때문에 고구려는 鮮卑를 항복시키고, 靺鞨을 쳐서 부속시켰으며, 扶餘를併呑하였다. 그래서 항상 중국의 근심이 되어서, 隋나라와 唐나라가 천하의 군사를 가지고도 끝내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 (...) 신라가 동일한 이후로부터 큰 당나라를 섬기어 中華의 풍속을 사모하며, 文華만 숭상하고 武力은 점점 줄어들었다. 고려 광종 이후에는 또 과거제도를 행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재주와 기개, 슬기와 사려를 문장 해석과 시부 짓는 데 소모시켜 남는 힘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적군이 국경에 다다르면 오직 표를 받들어 애걸하는 것만을 제일 좋은 대책으로 삼아 대대로 모두 그랬으니 슬픈 일이다.”
洪良浩 (1724~1802)	『海東名將傳序』	『耳溪集』 권10	*天下大法로서의 文과 武. 『左前』과 『易經』을 논거로 文武並行 주장: “천하에는 大法이 두 가지 있으니, 文과 武일 따름이다. 『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文은 백성이 능히 따르게 하고 武는 적을 능히 위압한다.”라 하였다. 『易經』, 『繫辭』에서는 “황제·요·순임금은 그 뜻을 드리운 것만으로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하였고 이어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으로 천하를 위복시켰다.”라 하였다. 이 두 가지[文·武]는 道行해야지 어느 한쪽만 폐지할 수는 없다. 三代의 융성했던 시절에는 모두 이러한 道를 사용했기에 오래도록 평안히 다스렸으나 후세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 병자년의 난리에 이르러서는 鐵騎兵이 멀리서 달려들어 온 고을을 텅 빈 것처럼 휩쓸고 우리는 분주히 할떡거리고 땀 흘리며 몇 달 사이에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文治에만 승하고 武力에는 힘쓰지 않아 나라의 힘이 점점 쇠약하고 나약해져서 그 힘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난리를 겪다가도 평화가 잠시 찾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으니 어찌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魏伯珪 (1727~1798)	『玉果公廡箴』	『存齋集』 권22	“나예만 힘쓰면 지나치게 사나워지고 文에만 힘쓰면 쉽게 나약해지니, 文武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나의 아름다운 본성이 도태되지리라. 이상은 鍊武廳이다.(專武過猛, 專文易懦. 文武相濟, 敦我性美. 右鍊武廳)”
洪大容 (1731~1783)	『勸武事目序』	『湛軒書』 內集 권3	*武의 일상적 강습 필요성 주장. 羅州의 수령으로서 講武를 진작시키는 제도를 만들고자 함. 논거로 兵書 인용: “武란 백년동안 쓰지 않는 것은 가하나 하루라도 강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란 시에 강습하면 외구를 막고 왕실을 호위할 수 있으며, 평화 시에 강습하면 奸人들의 넘겨봄을 막고 환란의 싹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싸우지 않고도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兵家에서 이른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林下經綸』	『湛軒書』 內集 권4 補遺	* 兵制를 체계적으로 논하고, 육경에 근거한 유가적 수양을 통해 군사를 다스려야 함을 의론함. 여러 兵書와 병법에 능했던 여러 名將의 사례를 다양하게 논거로 삼고 있음. * 聖人の 兵은 죄 있는 자를 죽여서 죄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며, 兵家の 大道는 仁·義·禮·智·信·勇·威·忠이다. “대저 兵이란 사람을 해치는 도구다. 聖人으로서 살인을 일삼는 것이 옳겠는가? 대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바, 죄 있는 자를 죽여서 죄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 聖人の 兵이다.” * 유가적 修身·正心論에 의거한 將帥論 개진: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부터 다스려야 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先王의 大道며 六經의 要諦다.”
朴趾源 (1737~1805)	『騷壇赤幟引』	『燕巖集』 권1	* 글쓰기와 병법을 연계하여 논하고 있다.
	『答大邱判官李侯端亨論賑政書』	『燕巖集』 권2 煙湘閣選本	* 조선의 인재등용과정 비판: “아! 우리나라의 인재 등용하는 길은 너무도 좁아서 科擧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학식이 天理와 人事를 꿰뚫어 알고, 재주가 文武를 겸비했다손 치더라도 진실로 출세할 길이 없소.(噫! 我國用人之路至狹, 非由科目, 雖學貫天人, 才兼文武, 固無出身之道.)”
	『虞裳傳』	『燕巖集』 권8 別集 放瑤閣外傳	* 考槃堂秘藏에 수록된 양호·형개에 대한 제문 내용과 동일: “御史 楊鎬·萬世德·邢玠는 재주가 文武를 겸하고 도량이 귀신을 놀래킬 만했노라.(御史楊鎬·萬世德·邢玠, 才兼文武, 略驚鬼神)”
	『正宗大王進香文代撰』	『燕巖集』 권9 別集 考槃堂秘藏	* 正祖 24년(1800) 6월 정조가 승하하자 충청 감사가 당시 면천 군수로 재임 중이던 연암을 進香文 製造官으로 차출하여, 충청 감사를 대신해 지은 글. (『과정록』 권3에도 인용됨.): “龍圖閣을 세우고 天策府를 만드니, 진실로 文武 갖추어 그 공 그 꾀 아름답네.(龍圖建閣, 天策設廂, 允文允武, 謨烈思皇)”
	『楊經理鎬致祭文』		* 1597년 丁酉再亂 때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 장수 楊鎬에 대한 제문: “직책은 경리로서 文武의 재주 겸했노라.(職是經理, 才兼文武)”
『邪尙書玠致祭文』		* 1597년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 장수 邢玠에 대한 제문. 양호에 대한 제문과 마찬가지로 1796년경 좌승지 李書九의 부탁으로 지은 것임: “능글할사 우리 邢公 궁중의 顔牧이라, 병법 알고 변방 익숙하여 온 조정이 추천하네.(暨暨我公, 禁省顔牧, 知兵熟邊, 廷中推轂)”	
李德懋 (1741~1793)	『武藝圖譜通志凡例』	『靑莊館全書』 권24	각종 병서와 華式, 倭式을 참조하여 엮었음을 밝힘.

	「武藝圖譜通志附進說」	『靑莊館全書』 권24	* 書生으로 兵法를 담은 중국과 조선의 문인학자들 열거 고령, 의술과 진법 비교 고찰. 兵을 利用厚生으로 연결시키고 있음. : “대저 兵이란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그것으로 포악을 금하고 亂을 제지하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니, 애당초 ‘利用厚生’의 목적과 서로 표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實用의 정치를 강구하고, 백성들은 實用의 직분을 지키고, 학자들은 實用의 책을 찬집하고, 졸병들은 實用의 기예를 익히고, 상인은 實用의 재화를 교통하며, 工匠은 實用의 기구를 만든다면, 나라를 지키는 데 무슨 염려가 있을 것이며 백성을 보호하는 데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諸葛武侯」	『靑莊館全書』 권56	약이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오컨대 그 病症에만 맞으면 된다는 논리로 『六韜』 등을 익힐 것을 주장한 楊升菴의 말을 긍정.
	「兵戰」	『靑莊館全書』 권65 蜻蛉國志	八陣 등의 일본의 병법을 자세하게 고찰했다.
朴齊家 (1750~1805)	「兵論」	『北學議』	“兵이란 반드시 民生日用의 생활 안에 머물러야 그 이후에 평안해져 허비가 없다.” (兵必寓於民生日用之內, 而後豫而不費)
	「辛亥七月, 同靑莊冷菴奉命纂輯國朝兵事, 開局於秘省, 而靑城適就直太湖, 燕岩玉流諸公偶集」	『貞菴閣集』三集	“유자의 나라라 禮義를 숭상하니, 孫吳를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네.” (儒者之邦尙禮義, 讀書不解讀孫吳)
	「彈琴臺申將軍 碁詞」		“세상의 유자들은 병서를 경시하니, 孫吳 문장 또한 고문임을 그 누가 알겠는가?” (世間儒學輕翰, 誰識孫吳亦古文)
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	정조 5년(1781) 2월 18일	『正祖實錄』 권11	武臣의 講試에 친림하는 義節을 정하였는데, 하교하기를, “文講・武講・文製・武射는 바로 수레의 바퀴와 새의 날개 같은 것이어서 한쪽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 함.
	정조 5년(1781) 11월 2일	『正祖實錄』 권12	‘文武相須論’ 주장. “文武는 서로 필요한 것이기에 어느 한 쪽만을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쪽만을 중하게 여기면 습속은 그 취향에 따라 변하여 나라가 그 폐해를 받기 때문에 原伯魯는 학교를 폐기했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尙成은 兵政을 헤이하게 하였다고 비난을 받았으니, 余玠가 文武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宋朝의 藥石이 되는 말이다. (...) 우리 조정에서 비록 文治를 숭상하기는 하나 반드시 武備에 대해 게척하여 文武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을 軫念하였고 치우쳐서 한 쪽만을 중히 여기는 폐단을 경계해 왔다. (...) 어찌하여 실제에 도움이 없는 문은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서 유용한 武는 그토록 헤이하게 여긴단 말인가?”
	「長城行」	『弘齋全書』 권2	“험고함애 있지 않고 덕에 있다는 것을, 진시황만 유독 오자에게서 듣지 못했구려. 그대는 보지 못했다, 도화원의 머리털 푸른 늙은이가 신기루 같은 장성을 돌아보고 비웃는 것을”(不在於險在於德, 秦皇獨未聞吳子, 君不見桃花裏綠髮翁, 回笑長城似海市)
	「兵學通序」	『弘齋全書』 권8	* 『兵學通』은 기효신서에 의거한 병학지남보다 더 나아가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 변용한 병서. 『논어』에 의거하여 전쟁은 성인도 신중히 여기는 일임을 이끌어 내고 『예기』와 정자의 말을 인용하여 禮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있어서도 ‘질서’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논증하여 용병에 있어 ‘질서’의 중요성을 의론하고 있다. 奇變의 토대로서의 ‘질서’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武藝圖譜通志序 庚戌」	『弘齋全書』 권9	擊刺의 중요성 강조.
	「冀靖公奏 藥軍旅類 叙 庚申」, <操鍊引>.	正祖, 『弘齋全書』 권13	“우리나라도 立國 초기부터 文武를 並用하여(我朝立國, 文武並用)”
	文武(到記 儒生再試)	『弘齋全書』 권48	* 文武의 상보적 관계, 治國策으로서의 文武並用, 用人策으로서의 文武兼全 : “文과 武를 병용하는 것이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계책이다. (...) 대저 文과 武의 道란 서로서로 이용되어 마치 駟驢와 蟻蟻이 단독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 (...) 그러나 文은 안일만 추구하고 武人은 즐기지만 하여 게으름만 피우고 잔약하다. (...) 어떻게 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계책에 있어서는 文武를 並用하는 실상을 다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文武를 兼全한 재목을 얻어서, 문무의 도에 부합하고 장구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僞書 上齋生更試」	『弘齋全書』 권51	중국의 新書인 雜家, 小說家, 叢書家, 藝玩家를 강하게 비판. “실용의 가치가 없다면 허위일 뿐이다”라는 논법.
	「大學」	『弘齋全書』 권69, 『經史講義』6	六藝의 ‘御’를 상고하기 위해 兵家의 서적을 탐문함.
	「周南」 (정약용과의 문답)	『弘齋全書』 권88 『經史講義』25 ○ 詩經 5	“『免置篇』에 나오는 野人과 『思皇篇』에 나오는 多士는 그 재주의 높고 낮음을 말할 것이 있지만, 干城과 楨幹에도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는 것인가? ‘셀 수 없이 많은 뛰어난 선비[濟濟多士]는 文德이 있는 사람이고 ‘군세고 군세 무인[赳赳武夫]은 용맹스러운 모습이니, 그렇다면 이 둘은 각각 文과 武에 전념해서 서로 통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文德이 있는 자가 적과 용감히 싸우려는 위엄을 겸하고 있고, 말뚝을 치는 자가 人君을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가? 申培의 詩說에

			이르기를, “토저편은 文王이 太顛·閔夭·散宜生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등용하니, 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읊어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하였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주나라를 도운 열 명의 공신[十亂] 중에 들어 있고 재주는 천자를 보필하는 네 명의 관리[四隣]에 견줄 만하니, 그렇다면 토저편의 武夫는 어찌 文武를 아울러 갖춘 자가 아니겠는가.” [丁若鏞이 대답하였다.] “옛사람은 한 몸에 六藝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토저편의 사람 [무인]이 반드시 사황편의 선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積幹의 인재가 반드시 干城의 그릇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높고 낮음과 가볍고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배의 시실에 나오는 태전·경요·산의생에 대한 설은 대개 『墨子』의 ‘置網 중에서 등용했다’라는 설을 따른 것인데, 교묘하게 역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 근거로 삼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北山之什」(정약용과의 문답)	『弘齋全書』 권91 『經史講義』 28	“文武를 아울러 삼이 나라를 오래도록 보전하는 방법인데, 이 시가 다만 武事を 講함으로써 만년토록 나라를 보전하는 방도라 한 것은 어째서인가? 文事가 있으면 반드시 武備가 있으니, 武事を 강한다면 반드시 그보다 앞서 文事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가? [丁若鏞이 대답하였다.] 주나라의 문체가 빛나고 빛나는데 지금 또 武事を 강하니, 文武를 並用한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평상시 武事を 강함은 바로 평안할 때 위험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만년토록 나라를 보전할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은 小雅 瞻彼洛矣篇에 대한 문답이다.]”
	「大禹謨」(1784, 정조8)(이서구와의 문답)	『弘齋全書』 권97 『經史講義』 34 ○ 『書經』 5	“乃武乃文’에서 文과 武 두 가지 중에 文을 먼저 말하고 武를 뒤에 말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文이 武의 뒤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君字와 韻을 맞추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李書九가 대답하였다.] 聖神은 원래 둘이 아니고 文武는 진실로 하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德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말하면 ‘聖’과 ‘神’, ‘武’와 ‘文’은 조금 차례가 있으므로 서술한 先後가 이와 같습니다.”
	「綱目」, <漢後主>	『弘齋全書』 권113, 『經史講義』 50	“兵家の 금선무는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는 것[足食]이니, 병사가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다면 이는 병사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병가적 ‘足食’의 문제를 긍정 수용.
	「文學」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4	武經七書を 비롯한 兵家の 서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三略』에 대해서 “군대를 쓰는 방법[用兵]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治國] 요점도 불만한 것이 많다.”며 用兵과 治國, 곧 군사와 정치의 문제를 연관시켜 사고함.
	「訓語」	『弘齋全書』 권176, 『日得錄』 16	“맹자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거절함으로써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다.’ 하였으니, 비유하자면, 用兵家가 장수를 격동시키는 법이다.”
丁若鏞 (1762~1836)	「顏淵」	『論語古今註』	정치를 하는 조목에는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 공자는 다만 세 가지만 들었을 뿐인데 그 중에 兵이 있다. 邢昺이 凶器로 여겨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物情에 어두운 儒者이다.
	選士之教, 一曰德, 二曰行, 三曰道, 四曰藝, 藝各不同, 而德行與道, 五選皆同.	『經世遺表』 권13 地官修制 教民之法	* 文武의 兼治 주장. 武士의 禮樂, 文士의 射御 습득 강조. : “옛사람은 文·武를 아울러 공부했으나 지금은 文·武의 업을 다르게 하니 도무지 옛 뜻이 아니다. (...) 오직 이 禮·樂만은 비록 武士라도 자신이 직접 익히지 않으면 안 되며, 射·御는 비록 文士라도 자신이 직접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跋兵學通」	『茶山詩文集』 권14	“위의 임금이 제정한 『兵學通』 1권은 先朝(正祖)께서 威繼光이 倭兵을 방어하면서 陣을 치고 군사 훈련시키던 방법을 손수 정리하여 여러 軍營에 하사한 것이다. 옛날 내가 벼슬하기 전에 重熙堂에서 상을 對했을 적에 상이 술을 내려 주고 또 이 책까지 주면서, “너는 文·武의 재주를 겸한 줄 안다. 훗날 東哲(당시 逆賊 金東哲이 嶺東에서 伏誅됨)과 같은 자가 생기면 내가 가서 정벌하게 될 것이니, 너는 돌아가서 이 책을 읽으라.” 하였다.”
韓致淵 (1765~1814)	「國學」	『海東歷史』 권18 禮志1 學禮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太學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쳤다. 《和漢三才圖會》 고려[고구려] 사람들은 길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이를 ‘扁堂’이라고 부르면서 혼인하지 않은 자제들을 이곳에 보내어 경서를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 《新唐書》(高句麗 小獸林王二年, 立太學教子弟. [和漢三才圖會] 高麗人衢側悉構嚴屋, 號扁堂, 子弟未婚者實處, 誦經習射. [新唐書])”
徐慶昌 (1758~?)	「武備說」	『學圃軒集』 권1	무릇 나라를 위해 文武를 병용함은 비유하자면 陰陽이 표리의 관계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安危와 治亂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古今往來에 어느 한 쪽도 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文教만을 숭상하니, 武科의 제도부터 器械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武備’라는 것은 다만 虛名에 그칠 뿐 어느 하나 불 만한 것이 없다. 그러하니 文이 있고 반드시 武 또한 있어야 한다는 뜻[有文必有武之意]으로 논하면 가히 한심한 일이다.
崔漢綺 (1803~1877)	「選將帥」	『人政』 권15 選人門[二]	* 장수의 세 가지 유형 : 一軍의 장수, 一國의 장수, 天下의 장수 : “장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사들을 조련하여 이목을 깃대와 북소리에 집중시키고 고락을 같이하여 義와 勇에 生死를 약속하여, 견고한 성을 공격하고 강적을 격파하되 어디를 가나 대적할 자가 없는 자는 一軍의 장수이다. 적국을 해아리고 자기의 세력을 해아려 운화에 따라 이로운 형세를 만들며, 내 백성을 사랑하여 남의 백성에게까지 미치고 내 나라를 미루어 남의 나라에까지 미치고, 그 죄를 성토하고 그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자는 一國의 장수이다. 자기에게는 福이 되나 남에게는 禍가 되는 일은 공을 세울 수 있어도 세우지 않고 현재에는 이로우나 후일에는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을 통솔하여 천하의 梟雫를 도모하고, 대중을 움직여 천하의 安靖을 구하며,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자랑하는 빛이 없고 여진 이를 추천하고 능력 있는 이에게 사랑하여 美德을 지키는 교화를 퍼는 자는 天下의 장수이다.”

김홍백 선생님의 “文=武’에 대한 세 가지 담론”은 기존에 중국의 文武 개념 분리에 대한 제도사 연구에서부터 특정 시대나 개인의 문무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그것이 여말이나 조선후기 등 특정 시기와 몇몇 학자의 문집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 한계를 지적하고, 여말부터 조선후기까지 시대에 따라 전개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 시대사적 문무 인식의 다층적 양상을 살펴야 할 필요를 제기하는 한편, 문무 이론을 펼친 문인들의 기록을 더욱 자세히 조사해 다루어야 할 점 또한 역설한 논문입니다. 이에 文武에 대한 인식의 실제와 문인들의 기록들을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담론을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문학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문무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더하여 그 시대별 차이와 개인별 특징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밝히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논지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으나 이에 문외한인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문무 담론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서론 끝에서 “여말 이래 조선후기까지 ‘문무’에 대해 유의미한 인식을 드러내고 나름의 비평적 논의를 전개한 국왕, 문인관료, 지식인의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부록: 文武 담론 관련 자료 일람표>로 정리하고 여기 45명의 비평 자료 안에서 시대사적·사상사적 조건에 따라 강조되고 후대에도 반복적으로 계승, 변용, 심화된 문무 담론의 몇 가지 흐름을 추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표명하고, 본문에서 이에 대해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3.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 4. 병가적·사회경제적 층위에서의 문무 담론”으로 나누어 각기 다루었는데, 이렇게 문무 담론의 흐름 속에서 그 층위를 세 가지로 구분해 살핀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문무 논의에 대한 자료의 전수조사 결과, 이 세 층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게라도 언급될 만한 문무 담론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무 담론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본론에서 세 층위의 문무 담론에 대해 각 시대별, 문인별 특징을 자세히 서술한 후, 소결 마지막에서 “여말 이래 조선의 문무 담론은 정치적·군사적 층위에서의 ‘문’ 내지 ‘무’ 우위의 논리와 역학적·원리적 층위에서의 상보적·균형적 논리 및 나아가 유가적 경제론의 지평에서 전개된 병가적·사회경제적 논리 등 세 가지의 레벨로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여, 이로써 문무 담론이 정치사나 군사사, 사상사, 사회경제사적인 면 등에서 의의가 있다는 점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문무 담론이 문학사 또는 문화사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곧 문학사적으로는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별 문인의 언급들이 그 문인의 문학이나 사상과 관련하여서도, 어느 층위와 가장 관련이 깊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문무 담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어떠한 학문적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 예상하시는데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알파고’이후, TV 드라마의 AI(인공지능)에 대한 담론 - <너도 인간이니?>를 중심으로

김강원 (고려대)

1. AI의 존재 실감
2. 변별로써의 몸, 모순된 몸의 가치
3. 욕망과 선택의 당위와 자유의지
4. AI의 존재에 대한 모순적 기대

1. A.I.의 존재 실감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 리’의 대국은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존재를 한국사회에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그간 일반인에게 AI란 과학적 지식의 영역에서보다는 주로 SF 서사장르를 통해 소비되어왔다. 개개의 작품 안에서 AI캐릭터나 그를 둘러싼 세계관들은 허황되거나 낭만적이거나 혹은 기괴하게 그려졌지만, 그 차이의 기저에는 그것이 ‘지금, 여기’일수 없다는 거리감이 공유되었다. 그 거리감 덕분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안전하고도 즐거운 경험일수 있었다.

<A.I.>(2001)와 같은 영화에 등장하곤 하는,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휴머노이드(humanoid) AI 로봇이란 현대과학의 연금술과도 같은 것이었다. 달콤한 상상이긴 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워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무모하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을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알파고의 존재를 통해 AI가 비로서 SF영화가 아닌 뉴스의 화면에서, 과학소설이 아닌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등장할 수 있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알파고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인지된 것은 인간과의 ‘대결’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장치를 통해서였고, 이러한 이벤트는 단순한 설명적 쇼케이스에 비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대중들은 AI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에 앞서, 인간을 패배시킨 AI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이후, 뉴스의 보도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각 영역에서 AI의 존재는 각인되고,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SF장르에서의 AI는 중요한 제재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물들을 통해 두려움은 확산되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의 AI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는 전망에 비해 영화나 TV드라마, SF소설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대부분의 AI에 대한 서사들이 사실(事實)에 대한 확인이 아닌 존재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담론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리’의 대국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AI의 존재를

실감하기 시작한 이후, AI를 제재로 한 TV드라마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우선, 영화계에 비해 TV드라마의 영역에서 훨씬 활발하게 AI를 제재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상서사 장르를 포함한 서사장르 중에서 TV드라마는 TV라는 국가적 공공재를 매체로 하고 있는 만큼, 대중성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장르이기도 하다. 특히 편성이라는 사전시스템을 거치는 까닭에,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 인식과 담론에 기반한 작품들이 방영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웹 드라마 등의 플랫폼을 제외한 공중파 TV드라마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나이젤 새드볼트와 로저 햄프슨은 『디지털 유인원』에서 “현대의 SF는 지금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적 사실이 날마다 시민을 놀라게 하는 시대다.”²³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Minority Report>(2002)와 <그녀 Her>(2013), <엑스마키나 Ex Machina>(2015), 드라마 <웨스트 월드 Westworld>시리즈(2016년부터)와 <높은 성의 사나이 The man in the high castle>시리즈(2015년부터)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이 “판타지를 영상화 한 것이지만, (어쩌면 이미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곧 살아갈 방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기도 하다.”²³⁵⁾고 하였다. 이 글의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목적을 수립하였다.

2016년의 알파고의 등장 이후 AI를 제재로 제작·방영된 드라마들은 <로봇이 아니야>(2017), <보그맘>(2017), <너도 인간이니?>(2018), <굿-바이 내 인생보험>(2018), <절대그이>(2019), 가 있다. 이전의 TV드라마 사(史)에서 AI를 중심인물이나 핵심적인 제재로 한 작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급격히 관련 작품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로봇이 아니야>는 제목 그대로 AI 로봇이 화소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초반과 중 후반 무렵에 잠시 등장 하고, AI인척 연기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서사가 핵심적이라 볼 수 없다. <절대그이>는 연애를 목적으로 제작된 AI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이야기로 AI가 멜로드라마의 남성주인공으로 핵심인물이기는 하지만, 원작이 일본의 만화이고, 동명의 일본 드라마가 이미 방영한 상태에서 리메이크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알파고 이후’를 이야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내 인생 보험>은 ‘tvN 드라마스테이지 2018’ 시리즈 중 하나인 단막극이라는 점, 그리고 AI라는 기술의 문제 보다는 이는 플롯적인 장치이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AI에 대한 담론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너도 인간이니?>에 주목하고자 한다.

<너도 인간이니?>²³⁶⁾는 2018년에 방영된 작품으로, 비슷한 주제로 방영되었던 작품들에 비해 높은 시청률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²³⁷⁾ TV드라마에서 AI로봇과 인간의 갈등은 크

234) 나이젤 새드볼트·로저 햄프슨, 강명주 역, 『디지털 유인원』, 을유문화사, 2019, 25면.

235) 위의 책, 26면.

236) 극본 조정주, 연출 차영훈·윤종호 / KBS2 / 2018.06.04. ~ 2018.08.07. / 36부작 (36부작이기는 하지만, 중간광고의 형태로 60여분 방송을 2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어 2부씩을 묶어 하루에 방영하는 편성방식으로 일반적인 18부작 방영과 분량과 방영기간이 동일하다.)

237) 최고시청률 9.9% (닐슨코리아 기준) / 수출실적 역시 상기의 TV 드라마들에 비해 좋은 편이다.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 방송 영상물 견본시 'MIPTV 2018'에서 메인 배너를 장식하며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너도 인간이니'. 이후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및 동남아 전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드라마피버를 통해 미주, 유럽, 중동, 인도 등 150개국에 동시 전송되고 있는 '너도 인간이니'는 6월 첫 서비스 이래 현재까지 드라마피버의 조회 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서비스 시청자평가 역시 5점 중 4.8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스포츠 조선》 2018년 8월 7일자 기사.

게 “인간-비인간 갈등(신체적 조건), 소유-탈취 갈등(한정된 자원 경쟁), 감정-알고리즘(감정에 대한 인지 방식의 차이), 규범-탈규범(이해 관계의 충돌)”²³⁸⁾로 유형화 될 수 있는데, <너도 인간이니?>는 이러한 네 가지의 갈등 유형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너도 인간이니?>를 통해 알파고의 등장 이후, 한국의 TV드라마가 AI를 인식하고 담론화하는 방식과 내용, 그 의미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2. 변별로써의 몸, 모순된 몸의 가치

독일영화 <메트로폴리스 Metropolis>(1927)는 AI가 등장하는 최초의 영화로 볼 수 있다.²³⁹⁾ 사랑하는 여주인공의 정신을 이식받은 로봇 ‘마리아’의 등장이 그것인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가 주요하게 제기하였던 인간과 로봇의 ‘몸’과 ‘정신’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온다. ‘최초’의 작품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목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회의와 질문을 내포하는 <너도 인간이니?>는 여러 방식으로 ‘인간’과 ‘로봇’ 즉 ‘AI’²⁴⁰⁾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작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몸’에 대한 내용이다. 흥미롭게도 알파고 이후 등장한 TV드라마에서의 AI는 로봇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의인화 로봇”에 해당한다.²⁴¹⁾ 그러므로 이 글에서 논하는 AI는 AI중에서도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형의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비중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인화 로봇”의 서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인간의 ‘몸’과 AI의 ‘몸’에 관한 변별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연구자이자 관련 연구의 토대를 확립한 수학자 존 맥카시(John McCarthy)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들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지능적이라고 받아들일 행동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계를 창조한다는 것”²⁴²⁾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공유하고 있다. 도구의 사용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자 가치로 자부되어왔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는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 주었으며, 그 결과 인간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²⁴³⁾ 그러나 휴머노이드AI 로봇과 같이 AI와 관련된 ‘도구’들은 인간

238) 이지영·이재신, 「미국, 일본, 한국 드라마속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갈등 유형 비교」, 『영상문화』 34호, 한국영상문화학회, 2019, 282면.

239) 인수형, 「영화 속 인공지능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72, 한국영화학회, 2017, 78면.

240) 이 작품에서는 ‘A.I.’나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로봇’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작품의 초반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 등의 용어가 많이 쓰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로봇’이라는 용어로 주인공 ‘남신III’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명칭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작품의 플롯상 등장하는 건담과 같은 로봇영웅 피규어와의 유사성에 대한 장치로 짐작된다. 이 글에서는 연구 주제와의 연관성 측면에서 A.I.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자 한다.

241) 신선아·정지훈,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분류체계」,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HCI학회, 2016, 449면.

242) 제리 카플란, 신동숙 역, 『인공지능의 미래-상생과 공존을 위한 통찰과 해법들』, 한스미디어, 2017, 19면.

243) “몸은 항상 인공적인 것이다. 우리가 호미닌으로서 진화해 이족 보행을 시작한 이래로, 두 다리는 조작가manipulator가 되었다. 우리는 도구, 인공물, 기계를 만드는 생물이 되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도구가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방식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너도 인간이니?>에서도 “언캐니 밸리(Uncanny Bally)”라는 용어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인간과 거의 흡사한 로봇을 볼 때 느끼는 거부감과 혐오감”(9회)을 남신Ⅲ의 대사와 자막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가 의미하듯, AI의 존재에 대한 위협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일수록 더 강하게 실감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대중에게 있어 AI의 능력은 수치나 실험값이 아닌, AI의 몸을 통해 인지된다. 사람의 같은 몸, 그리고 외형적 조건이나 능력치에서 가장 우수한 형태로 구현된 ‘멋진’ 인간의 몸을 가진 AI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위협하는 AI의 미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상징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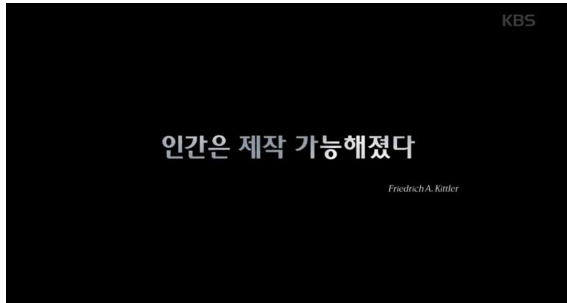
[장면 13] 1회



[장면 14] 1회



[장면 15] 1회



[장면 16] 1회

<너도 인간이니?>의 오프닝 시퀀스는 기계형의 로봇에 피와 같은 액체가 도는 영상에서 시작해서 남자 아이 형태의 인간형의 휴머노이드 AI 로봇 ‘남신 I’의 완성까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기계와 유사한 금속의 형체에 푸른 용액이 흘러가는 [장면 1]에서는 액체가 주입되어 흐르는 청각적 음향을 부각시켜 몽타주함으로써 마치 몸에 피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든다. 그리고 이는 마치 생명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주며 카메라는 로봇의 부위는 분할해서 훑는다. 카메라는 관객의 시선을 강제한다. 클로즈업은 신체에 부분으로 제한하게 되고, 이는 몸에 대한 관음의 시선이기도 하다. 쪼개져 보이던 금속의 육체는 [장면 2]로 이어지면서 인간과 매우 흡사한 얼굴 부위로 이어진다. 누군가의 손이 인간

가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에 의해 증강되었다. 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성질을 만들고, 기술의 경로는 인류 발전을 추진했다. 나는 몸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술을 2000 년대가 끝날 때 짝 우연히 만나게 될 이질적인 타자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Joana Zylinska and Gary Hall, ‘Probing:an interview with Stelarc’ The Cyborg Experiment:the extensions of the body in the media age, Continuum, 2002. 나이젤 새드볼트·로저 햄프슨, 앞의 책, 129-130면에서 재인용.

의 얼굴을 부착한다. 얼굴을 부착함으로써 ‘남신 I’은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얼굴은 정체성을 의미한다. 얼굴을 가지게 되면서, AI는 마침내 가동되고, 그 이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남신 I’을 향해, 손의 주인이었던 여성은 “보고 싶었어.”라며 눈물을 흘린다. 다가와 안아주는 AI를 마주 안아주는 [장면 3]의 모습은 인간과 인간의 그것과 구분되지 않는다. [장면 3]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장면 4]이다. “인간은 제작 가능해졌다”라는 독일의 문학이론가이자 미디어이론가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A. Kittler)의 격언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프닝 시퀀스는 마무리 된다. 이 오프닝 시퀀스는 <너도 인간이니?>가 지향하는 AI담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로라 박사가 제작한 것은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이다.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AI인 남신Ⅲ의 몸이 촉감 면에서도 인간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며, 외형적으로는 인간 남신과 AI 남신Ⅲ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오직 팔목 부착하는 시계처럼 생긴 웨어러블 배터리가 두 인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변별점이다.

그러나 외형이 아닌 기능의 측면에서 두 ‘몸’은 큰 차이를 지닌다.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빠르고, 모든 감각 면에서 인간보다 예민한 존재인 남신Ⅲ에 비하면, 인간 남신은 너무나 초라하다. 돈과 지위라는 주변적 환경을 제외한 인간 남신의 몸은 모잘 것 없다. 심지어 그 몸은 작품의 2회 엔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코마상태에 빠져 내내 누워 있다가 21회에 이르러 깨어난다. 이후의 에피소드에서도 몸이 미쳐 회복되지 않아 휘청이거나 쓰러지는 신체적 한계를 보인다.



[장면 17] 25회



[장면 18] 25회



[장면 19] 26회



[장면 20] 26회

불완전한 몸을 갖고 있는 인간 남신에게는 그 몸의 주변 공간이 더욱 강조되어 보여진다. 남신Ⅲ에 비해 훨씬 차갑고, 이기적인 인간 남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간 항상 식물이 둘러싸다시피 과하게 세팅되어 있다. 인간남신이 치료를 받던 아지트 건물은 서울의 시

내, 구도심에 위치하였고, [장면 5]와 같이 건물 전체를 넝쿨식물이 감싸고 있는 외관이 강조된다. [장면 6]은 아지트에 있는 인간 남신의 병실인데, 방 안 곳곳에 놓은 화분들, 우드톤을 기반 한 세트와 소품들, 그리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킨다. 컬러와 필터 역시 난색(暖色)을 주조로 한다. 반면, 남신Ⅲ의 공간은 같은 아지트 안에 있지만, 인간 남신의 공간과 대조적이다. [장면 7]과 같이 차가운 화이트와 푸른 컬러의 한색(寒色)을 기본 컬러감으로 하고 있고, 미장센 역시 의료용 기기나 실험도구, 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장면 8]과 같이 남신 Ⅲ는 피부 밑의 기계 조직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공간의 미장센은 지속적으로 대비되면서, ‘인간의 몸은 자연’, ‘AI의 몸은 인공’임을 시청자들에게 주지시킨다. 결국 인간의 몸과 AI의 몸은 자연의 영역과 인공의 영역에서 변별되고, 이것은 끝까지 극복되지 않는 고유한 속성으로 지속된다. <너도 인간이니?>가 주지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AI의 몸이 같아보일지라도, 그 속성이라는 태생적 가치에서 자연물의 아우라는 인공물이 따라갈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작품의 태도는 작품의 내용으로 근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지극히 낭만적인 주장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심지어 이 작품에서는 인공 심박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인간 남신의 조카나 다리에 철심이 박혀있는 강소봉이 AI인 남신Ⅲ와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있는데, 이는 “강소봉씨도 로봇이예요.”(19회)와 같은 남신Ⅲ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작품에 제시하는 일종의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적 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자면, 트랜스휴먼으로서 인간의 범주는 확대되고, 확대된 범주의 최대치에서 AI와 인간의 구분 준거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계를 입고, 기계와 하나가 되고 기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²⁴⁴⁾ 시대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의 태도는 앞서 인간 남신과 AI인 남신Ⅲ를 구분하는 데서 발생한 미장센은 작품의 이분법적 구분과 배치되는 내부분열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체의 가치를 AI인 남신Ⅲ의 매력이자 능력으로 주요 에피소드, 특히 여주인공 소봉을 구하는 시퀀스들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한정짓고 부정하는 것은 <너는 인간이니?>가 갖는 몸에 대한 담론이 갖는 모순이다. 더 멋지고, 더 강한 육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공심장과 철심을 박은 인간은 온전한 자연적 인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인간이니?> 인간과 AI의 ‘몸’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혼란과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3. 욕망과 선택의 당위와 자유의지

244) 김은혜는 프라모드 나야(Pramod Nayar)가 카츠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소설에게 A.I.가 다른 A.I.에게 몸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을 가리켜 “이 다른 죽어가는 몸들은 다른 복제인간으로부터 기부를 막아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사실상, 복제인간의 정체성(인간으로부터 온)과 인간(기계로부터 온)은 이제 영원히 섞이게 되는 것이다.”(프라모드 나야, 포스트휴머니즘)의 본문을 인용하며, 이를 일종의 혼종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김은혜, 214면.

AI의 몸은 인간의 몸을 본따 만들었지만, 인간보다 나은 외모, 인간보다 나은 육체적 능력으로 인해 원형이 가진 아우라를 위협한다. 그것은 ‘몸’을 넘어선 ‘정신’의 영역을 침범하면서부터 구체화 된다.

<너도 인간이니?>에서 멜로드라마의 매력적인 남자주인공으로서 남신Ⅲ의 캐릭터 라이징 측면에서 ‘몸’이 중심 포커스라면, 갈등과 플롯 진행의 측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욕망과 선택의 문제이다. 물론 인물의 욕망과 선택은 대부분의 서사가 갖는 속성이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는 그 제목 자체가 의문형임에서 드러내듯, 서사의 크고 작은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회의하거나 선택하고 다시 그 선택을 회의하게 하는 장치들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때로는 사건으로 보여 지거나 직접적인 대사로 언술되며 작품 전반에 걸쳐 서사된다.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AI 로봇의 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순간을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singularity)"이라 명명하며, 이 특이점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예견하였다.²⁴⁵⁾ 그는 2045년 무렵을 주목하며, 그 즈음에 인간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으리라 확신한다. 물론 ‘컴퓨터’²⁴⁶⁾가 언젠가는 정말로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겠지만, 이것은 “제한된 측면에서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제리 카플란과 같은 학자도 있다.²⁴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AI에 대한 불안과 그러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AI에 관련한 담론에서 매우 부분임은 분명하다.

레이 커즈와일이 주지한 특이점은 ‘몸’으로 구현되는 외형적 조건에서라기 보다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기인한다. 인간형 AI의 하드웨어를 인간의 ‘몸’에 대입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정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AI의 통제 불능이란 AI가 입력값에 의한 매뉴얼이 아닌 자유의지로 판단하는 그 순간일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AI는 더 이상 ‘도구’가 될 수 없다. 김은혜는 AI에 대한 인간의 구분준거로서의 자유의지에 대해 회의한 바 있다. 그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전제하면서, "과연 인간은 스스로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²⁴⁸⁾를 반문한다. 이 자유의지는 <너도 인간이니?>에서 판단의 문제로 수렴된다. 입력값에 의한 도출이란 매뉴얼로서의 반응에 반해, 변수를 고려한 '적절한' 판단의 가변성은 인간 고유의 가치로 대변된다. 사람들은 남신Ⅲ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고, 판단의 인간의 몫이라 강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닌 차등의 위계이다. '판단'은 인간 자유의지의 결과물이며, 상위의 능력이기 때문에 '감히' AI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극 중에서 남신Ⅲ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남신Ⅲ의 원칙은 ‘사람을 보호한다.’, ‘울면 안아 준다’와 같은 것들인데, 이는 고전적인 SF소설로부터 전제되어온 명제에 근거한 익숙한 규칙이다.²⁴⁹⁾ 반면, <너도 인간이니?>에서 인간들은 규칙과 원칙을 깨는 존재이다. 인간들

245) 레이 커즈와일, 장시형·김명남 역,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특이점은 수학화 물리학등의 영역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제어가 불가능할만큼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AI에 대한 미래 예측에서 이 지점이 멀지 않았음을 단언하고 있다.

246) 책의 맥락상 이 때의 컴퓨터는 AI를 포함한 광의의 기술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247) 제리 카플란, 신동숙 역, 『인공지능의 미래-상생과 공존을 위한 통찰과 해법들』, 알의 책, 31면.

248) 김은혜, 「인공지능과 이어 밀리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 카렐 차페크의 『로봇』과 영국 드라마 『휴먼스』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44,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8, 213면.

249) SF 소설의 거장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로봇공학의 세가지 원칙을 전제하 한바 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로봇을 화소로 하는 서사물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로봇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도록 방조해서도 안된다. 원칙2) 로봇은 인간이 내린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첫 번째 법칙과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칙3) 로봇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에 상충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I. Asimov, I Robot, Gnome Press, 1950.(이현

이 남신Ⅲ에게 그러한 가변성을 인간고유의 상위 가치이라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惡)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물리적 폭력을 구사하는 동시에 약속과 규범을 무시한다. 자신한 친구를 죽이고,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할아버지는 살해하려 시도하거나 딸의 약혼녀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는 극단적 인물들을 제외하고도, 딸은 아버지를 고발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속인다. 경호원이었던 여주인공은 돈 앞에서 직업윤리를 토기하며 경호대상의 사생활 사진을 찍어 팔아넘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패륜적인 인물들은 패륜이라는 용어 그대로 인간 사회의 윤리나 규범에서 벗어나 있고, 때회 이러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악(惡)의 가치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남신Ⅲ의 행동과 가치는 선(善)을 지향하고 있고, 작품 안에서도 유일한 선의 가치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규칙, 매뉴얼을 넘어서는 것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번번이 강조한다. 남신Ⅲ가 이러한 ‘판단’을 시도하자, 남신Ⅲ의 창조자이자 엄마인 오로라 박사나, 조력자인 지영훈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남신Ⅲ의 판단을 불신하고, 감히 판단하지 말 것은 중용한다. “그런 판단은 인간이나 하는 건데, 지시를 안 한 내 잘못이지.”(7회)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요?”(8회)와 같이 ‘판단’은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도 직접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대사는 대개 남신Ⅲ와의 대화에서 부정적 제한으로 한정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에서 결국 인간의 판단을 앞서는 것은 AI인 남신Ⅲ의 판단이다. 마지막 엔딩에서도 남신Ⅲ의 판단과 그의 회생으로 인간 남신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구하게 되고, 서이사의 악행을 끝을 맺게 된다. 이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며, 주변의 인간들은 결국 남신Ⅲ의 판단을 수긍하거나 지지하며, 수용한다.

남신Ⅲ의 판단은 그가 가진 원칙을 스스로 수정하면서 일종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해졌다. 소봉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제1원칙이 소봉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는 것도 외부의 입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이다. 이는 과학적 근거로는 딥러닝(Deep Learning)²⁵⁰ 등과 관련한 매우 복잡한 기제이지만, <너도 인간이니?>에서는 일종의 학습으로 매우 간단하게 도식화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AI의 딥러닝을 일종의 사회화 학습으로 대유하고 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남신Ⅲ가 마치 아이와 같이 묘사되는 까닭에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와 유사한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작중 설정은 인간들이 남신Ⅲ를 인간으로 알고 있을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다가 그가 AI라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등장인물에 보이를 특징이다. 남신Ⅲ가 AI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말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지칭에 있어서도 ‘저거’, ‘그거’ 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남신Ⅲ는 존대를 유지한다. 이는 상당히 명확한 관계의 위계를 보여주는 설정이다.

남신Ⅲ는 인류 고유의 가장 근본적 가치로 전제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워가면서, 더 이상 파악하거나 분석될 수 없는 존재로 진화한다. ‘인간을 보호한다’라는 AI의 보편적 규칙

정,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속 인공지능의 의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한국콘텐츠학회 2018, 118면에서 재인용.)

250)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구조에서 유래한 AI의 핵심 학습 시스템으로, “신경망의 계층과 유닛수를 증가시킨 구조로 학습을 실행하는 개념”이다. “심층신경망을 사용하는 학습”이며, ‘지도학습’뿐만 아니라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딥러닝을 통해 고전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발전된 AI가 가능해졌다. 다다 사토시, 송교석 역, 『차음 배우는 인공지능』, 한빛 미디어, 2017, 256면, 264-304면.

은 ‘강소봉을 보호한다’라는 남신Ⅲ만의 구체적인 규칙으로 진화한다. 그리고 그 진화의 동력은 AI가 ‘감히’ 가지게 된 자유의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너도 인간이니?>에서 AI인 남신Ⅲ가 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소봉에 대한 보호와 애착으로 인해 남신Ⅲ와 ‘엄마’인 오로라박사는 처음으로 대립하고, 그 갈등은 남신의 킬스위치, 오로라의 죽음 등으로 이어지며 서사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기폭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자유의지를 가진 AI의 진화에 대한 담론화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성을 만나며 처음 자신의 욕망과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말 잘 듣는 아들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엄마 대립하는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오로라 박사는 공학자이거나, 창조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엄한 규칙을 세우고 아들을 과보호 해온 엄마, 그리고 아들의 성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자 친구에 정신 팔려 반항하는 아들에 대해 분노하는 엄마의 역할만으로 그려진다. 이는 AI의 자유의지와 진화의 문제를 너무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논점에서 어긋나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4. AI의 존재에 대한 모순적 기대

<너도 인간이니?>는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 AI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뉘앙스로 작품을 진행한다. 주 인물인 AI로봇을 제외하고 애완동물 느낌의 로봇청소기나 ‘마이보’²⁵¹⁾와 같은 반려로봇이 등장하는 소소한 장면이 갖는 긍정적인 메시지부터 극의 핵심 배경이 되는 AI 자율주행차나 배경이 되는 기업이 추구하는 AI도시의 건설은 매우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가치로 제시된다. 실제로 자율주행기술 업체, 전기차 충전기 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요 제작지원을 담당한 것은 엔딩 크레딧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위험이나 부정적 뉘앙스들은 작품에서 언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의 엔딩이다. 남신Ⅲ가 인간 남신을 대신해서 서이사의 총에 맞고 바다로 빠지며 사라지고 난 1년 후가 이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이다. 데이빗 박사와 인간 남신, 지영훈의 도움으로 수리를 마치고 강소봉에게 돌아오지만, 돌아온 남신Ⅲ는 능력이 거의 없어져 사람과 가깝게 되었다.²⁵²⁾ 그러나 이는 AI로서 남신Ⅲ의 복구실패가 아니라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남신Ⅲ의 완성이다.

남신Ⅲ 난 이제 능력이 거의 사라졌어. 평범한 인간에 가까워.
소봉 괜찮아. 나랑 더 가까워 진거니까. 그동안 난 너랑 더 비슷해졌어.
 내 마음은 이제 안변해. 로봇처럼.

251) 작품에서 나온 ‘마이보’는 실제로 서큘러스라는 업체의 ‘파이보’라는 국내 최초의 반려로봇이다. 파이보는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 교감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성장해 가는 로봇이라고 한다.

252) 작품의 엔딩에서 드디어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극적 긴장도가 높은 짧은 재회 씬에서 굳이 ‘남신Ⅲ’의 대사 분량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고백처럼 내뱉는 내용이 바로 능력의 사라짐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은 유의미한 지점이다. 오로라 박사가 죽었기 때문에, 남신Ⅲ의 복구는 같은 팀인 데이빗 박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인공지능계의 아인슈타인”(1회)인 오로라 박사에 비해 데이빗 박사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지속적으로 전제해 왔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위의 대사는 엔딩씬에서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내용이다. 이 대사에 이어 두 사람의 키스씬과 포옹씬이 이어진다. 그리고 포옹씬의 마지막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남신Ⅲ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서 마무리된다.

남신Ⅲ의 눈물은 <너도 인간이니?> 작품 전체의 마지막 장면으로 중요하게 포착되는 동시에 1회의 오프닝 시퀀스와 유관하게 연결된다. 기계의 몸속에 생명수처럼 돌기 시작하던 푸른 액체([장면1]), 그리고 우는 오로라 박사를 ‘울면 안아 준다’는 원칙에 따라 안아주던 남신Ⅰ의 모습([장면 3])은 이제 입력된 원칙이 아닌 자유의지, 그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포옹하고 더 나아가 키스의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남신Ⅲ의 모습과 대구된다.

그리고 덧붙여 남신의 존재 가치 역시 변화된다. 엔딩 시퀀스에서 ‘남신Ⅲ’의 능력이 대부분 사라진 점, 그리고 ‘남신Ⅲ’의 복구가 인간 ‘남신’의 개인적 돈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대사를 통해 직접 언급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신Ⅲ’의 기술력을 근거로 진행되던 PK기업의 AI관련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신Ⅲ는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가진 제품이 아닌 유일의 개체로 아우라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극의 결말에서 남신Ⅲ은 더 이상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너도 인간이니?>의 작품전반을 통해 보이던 AI의 진화는 결국 인간과의 유사화 그 자체로 귀결되는 것이다. “너도 인간이니?”라는 물음의 답은 결국, “나도 인간이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오프닝 시퀀스를 통해 오로라 박사가 제작한 것이 휴머노이드 AI 로봇 개체가 아니라 ‘인간’이었던 것은 작품의 엔딩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AI관련 작품에 비해 <너도 인간이니?>는 작품의 전반에 걸쳐 AI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AI 시스템에 기반 한 메디컬 차량, 메디컬 시티, 반려로봇 등을 비중 있게 보여주며, 비단 남신Ⅲ뿐 아닌 AI산업 전반에 대해 환기하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AI 담론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엔딩에서의 서사를 통해 남신Ⅲ는 이 작품이 AI 담론을 가능할 수 있게 하던 가치를 상실하고, 멜로드라마적 개체로 한정된다.

로봇의 몸은 철저히 목적 지향적이고, 목적에 기반 해 한정적이었다.²⁵³⁾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을 목적인 로봇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목적의 기능에만 한정적이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를 비롯한 AI 담론은 로봇의 진화를 전제하고 있다. 진화는 돌연변이를 통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AI의 진화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일리가 있는 관점이다.²⁵⁴⁾ 이것은 AI의 근간이 되는 딥러닝의 운영체계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AI의 서사들이 제시하는 진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화이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미래로 삼는 목표가 “사람과 같은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자”인 것은 사실이

253)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려면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제리 카플란, 신동숙 역, 『인간은 필요 없다』, 한스미디어, 2016, 61면.

254) “선택적 비둘기 육종의 21세기판이 바로 인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계다.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인 자가 수정 능력이 있는 기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스스로를 바로잡는 기계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유전학과 생물 진화의 수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진화 원리를 시험 환경에서 이론적인 기계에 적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위의 책, 101면.

다.²⁵⁵⁾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에서 이것이 AI의 능력의 상실로 완성된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이는 알파고 이후, AI의 존재를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존재를 부정하려는 회피적이고 퇴행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작품 내내 AI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역설하던 <너도 인간이니?>는 결국에는 그 존재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존재를 지워버린 셈이다. “진짜 신이가 되기 위해서”(7회) 노력하던 AI 남신Ⅲ와 “로봇보다 못한 인간”(26회)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던 인간 남신의 서사는 긴 방영기간을 거쳐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고장 난 AI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던 목표였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이는 AI의 존재에 대한 매우 모순적인 기대이기도 하다. 결국 서론에서 전술했듯이 AI의 존재는 환상 속의 연금술로만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알파고 이후, AI의 존재를 실감한 대중이 이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도 인간이니?>의 태도는 알파고 이전의 낭만적인 시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255)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미래로 삼는 목표는 ” 사람 같은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자“입니다. 실제로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연구자, 개발자, 엔지니어는 많습니다.” 다다 사토시, 앞의 책, 43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너도 인간이니?>

극본 조정주, 연출 차영훈·윤종호 / KBS2 / 2018.06.04. ~ 2018.08.07./ 36부작

2. 단행본

나이젤 새드볼트·로저 햄프슨, 강명주 역, 『디지털 유인원』, 을유문화사, 2019.

다다 사토시, 송교석 역, 『차음 배우는 인공지능』, 한빛 미디어, 2017.

레이 커즈와일, 장시형·김명남 역,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제리 카플란, 신동숙 역, 『인간은 필요 없다』, 한스미디어, 2016,

-----, 『인공지능의 미래-상생과 공존을 위한 통찰과 해법들』, 한스미디어, 2017.

3. 논문 및 기사자료

강병호, 「영화 '엑스 마키나'에서 인공지능의 기능과 생명자본주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8, pp.65-67.

강익모·송정은, 「인간의 조건을 위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 엔터테인먼트적 기호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8,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7, pp.253-266.

김미혜, 「영화 <그녀>를 통해 본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주는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10호, 한국콘텐츠학회, 2016, pp.636-644.

김은혜, 「인공지능고 인간의 공존의 문제 - 고대 그리스 연극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Machina) 기법과 영화 <엑스 마키나>(Ex-Machina)를 중심으로」, 『한국드라마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드라마학회, 2018, pp.209-217.

김은혜, 「인공지능과 이어 밀리언 시대의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 카렐 차페크의 『로봇』과 영국 드라마 『휴먼스』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44,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8, pp.61-79.

박경하·이대화, 「SF영화에 나타난 인공지능의 시대별 변화 양상과 특징」, 『문화와 융합』 제40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pp.101-128.

박명진, 「AI 로봇 소재 드라마에 나타난 기술적 대상과 객체화의 재현 양상 - TV드라마 <보그맘>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 pp.1-30.

박상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의 갈등의 특징 -영화 < 트랜센던스 >, < 그녀 >, < 엑스 마키나 >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4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6, pp.124-133.

박상현, 「영화 속 인공지능의 현상학적 인간성 -영화 "트랜센던스"와 "그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5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16, pp.192-201.

박영석, 「21세기 SF 영화와 포스트휴먼의 조건 -정신과 신체의 인공적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32,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8, pp.427-458.

- 신선아·정지훈,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분류체계」, 『PROCEEDINGS OF HCI KOREA 2016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HCI학회, 2016, pp.449-453
- 이미영,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캐릭터의 비교 연구-너도 인간이니?기반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9, pp.261-278.
- 이현정,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속 인공지능의 의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한국콘텐츠학회 2018, pp.116-124.
- 인수형, 「영화 속 인공지능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72, 한국영화학회, 2017, pp.75-103.
- 조용환, 「인공지능 드라마가 주는 의미는?」, 『브레인』 70, 한국뇌과학연구원, 2018, pp.60-61.
- 조흡, 「[영화이야기] <로봇, 소리>: 인공지능의 미래와 영화적 상상력」, 『대한토목학회지』 64권 4호, 대한토목학회, 2016, pp.64-66.
- 천현순, 「인간과 로봇의 미래적 혼종문화 -프리즈 랑과 린타로의 <메트로폴리스> 비교 연구」, 『독어독문학』 128, 한국독어독문학회, 2013, pp.181-196.
- 추미선·유승호, 「AI 로봇과 비인간 역할의 역설- 영국 드라마 <Humans>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6-3, 한국영상학회, 2018, pp.21-34.

《스포츠 조선》 2018년 8월 7일자 기사.

<토론문>

‘알파고’ 이후, TV 드라마의 AI(인공지능)에 대한 담론

-<너도 인간이니?>를 중심으로

토론자 : 한승우(중앙대학교)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1국에서 보여준 알파고의 우승은 이세돌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이세돌은 다시 결의를 다졌지만, 알파고는 2국에서 10,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37수’를 두며 또 다시 압승을 거둡니다. 이세돌은 알파고의 ‘37수’를 두고 인공지능이 가진 창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남겼고, 인간이 창조해낸 가장 복잡한 게임인 바둑에서 창의적인 수를 둘 만큼 성장한 AI 기술에 인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연이은 3국의 패배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구의 최강자의 위치에서 쓸쓸하게 내려올 인간들의 암울한 모습을 짐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인류는 점차로 이세돌의 패배를 인간의 패배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언론에서는 ‘알파고’를 ‘그’ 혹은 ‘그녀’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돌은 포기하지 않았고, 4국 중반에 흑돌 사이에 끼워 넣은 ‘78수’는 ‘마법의 한 수’가 되어 철옹성처럼 굳건하던 알파고에게 패배를 안겨줍니다. 이세돌의 ‘78수’ 역시 10,000의 1의 확률로 둘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수였고, 이세돌이 보여준 포기 하지 않는 투지와 알파고의 패배(버그)는 여전히 인간이 견제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과 같은 위안을 남겼습니다.

‘알파고’ 이전 AI는 우리에게 SF 소설과 영화 속에서만 다루어지는 먼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전기톱을 든 살인마를 보며 2시간을 공포에 떨다 극장의 불이 켜진 후에 나는 아직 살아 있고 전기톱 살인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이, AI는 그간 스크린이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먼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 이후, AI는 현재로 소환되었습니다. 이세돌의 패배는 인류의 패배의 ‘모의 실험’과 같은 공포 효과를 안겨 준 동시에, 낯선 그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 -호기심, 기대, 선망, 혐오, 거부감 등- 도 동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연구의 제목에는 하나의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 AI 드라마'라는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께서는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알파고 이전의 AI 드라마 담론은 어떠하였습니까? 궁극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논제의 설정 자체를 두고 볼 때, 알파고 이전과 이후의 AI 드라마에 대한 비교와 대조가 일정 부분 들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몸'과 '정신'이 혼동되거나 혹은 같은 것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주인공 '남신'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 몸을 가진 'AI 로봇'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신'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육체(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담론이며,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섬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신'의 몸은 인간을 뛰어 넘는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은 어린 아이가 성숙해 가는 듯한 미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신'이 고장 나면서 로봇의 육체가 가진 초월적 능력은 사라지고 평범해지지만, 정신적인 측면은 상당부분 인간성을 갖는 방향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보여준 '딥마인드' 기술을 염두에 두고, 작가는 스스로 성장하는 '남신'을 그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봇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인 초월적인 육체를 빼앗고,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룰 때에만 공존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식의 상당히 보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알파고 이후'의 AI에 대해 가지게 된 대중들의 공포와 거부감을 멜로드라마라는 틀 속에 주워 담는 과정에서 작가가 취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멜로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징을 통해 이 드라마를 다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월한 남성 주인공이 비천한 여성 주인공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평범해져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AI와 인간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드라마 전공자도 아닌 저에게 이런 흥미로운 논의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한 토론문에 대한 현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교수학습과정에 나타난 학습연계글쓰기 교수법(WTL)의 효과성 검토

- 2019학년도 2학기 <세상을바꾸는글쓰기>를 중심으로

안상원(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본고는 글쓰기 과정에서의 특정한 활동이 글쓰기 및 학습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탐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교양필수 글쓰기 교과과정은 양식화된 글쓰기의 종류를 학습하고 글쓰기 과정을 검토한 후 한 편의 완성된 비평적이고 학술적인 글쓰기를 작성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담당교수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언어/비언어화된 피드백을 통해 반복되고, 적절한 문제 상황 설정과 목표를 제시한 후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곤 한다.

그 과정에서 비인문사회 전공 학습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과 글쓰기 교과에 호의적이지 않은 교수자들의 문제제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첫째는 강도 높은 글쓰기 교과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짧게는 1학기, 길게는 2학기 동안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²⁵⁶⁾, 둘째는 해당 글쓰기 교수법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전공영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은 ‘글쓰기 교과의 효용성’을 묻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맞닿는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글쓰기 교과를 통과한 학습자와 교수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글쓰기 교과 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국내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들이다. 1970년대의 영국 교육 이론가 James Britton은 쓰기의 역할을 재정의함으로써 글쓰기 교과가 마주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한다. 그는 쓰기를 하나의 발전 가능한 능력으로 보았고, 교과와 전문영역의 발달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학습과 연습, 그리고 토의와 점검을 통해 발전 가능한 대상으로 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글쓰기 능력은 글쓰기 교과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며, 글쓰기는 학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²⁵⁷⁾. WAC(Writing Across Curriculum)를 제안한 그의 이론²⁵⁸⁾은 범교과적 글쓰기, 전공연계 글쓰기, 교과 내 글쓰기 능력으로 번역되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김병길, 원만희, 배식한, 그리고 안상희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⁵⁹⁾.

범교과적 글쓰기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 사이의 즉각적인

256) 배식한, 「전공연계글쓰기(WAC)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 『교양교육연구』 6(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591-626쪽.

257) 안상희, 「범교과적 글쓰기(WAC)를 통한 대학 글쓰기 교육」, 『작문연구』 24, 한국작문학회, 2015, 115-117쪽.

258) “What is WTL?”- <https://wac.colostate.edu/resources/wac/intro/wtl/>

259) 김병길, 「교과과정 연계방안으로서 WAC 프로그램 도입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49-72쪽. ; 배식한, 앞의 글, 「문제 기반의 비판적 사고 WAC 수업 모형」, 『교양교육연구』 7(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341-372쪽. ; 원만희, 「전공연계 글쓰기(WAC)를 위한 교육 기획」, 『수사학』 13, 한국수사학회, 2010, 191-219쪽. 안상희, 앞의 글. 이 중 안상희의 경우 WAC를 둘러싼 이론을 충실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외 WTL 적용 논문으로는 김민욱, 「웹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한국문학논집』 82, 한국문학학회, 2019, 485-521쪽.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글쓰기를 통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비형식적이고 즉각적인 활동, 글의 내용에 집중하는 활동 등을 중점으로 하기에 교수자의 평가 및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특히 WAC의 하위 분야인 WTL(Writing To Learn)은 학습자들이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게 된 내용을 질문하게 함으로써 (1) 학습자의 교과학습을 돕고 (2) 쉬운 쓰기→통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증진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전공연계’라는 조건을 생략하는 대신 글쓰기의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쉽다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 스스로가 배운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얻는 것이다. 교수자의 경우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진도와 수업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교수법은 2018년부터 전공 및 교양교과목에서 시행되었고 2019년 현재 정식 교수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9년 2학기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세상을바꾸는글쓰기> 교과에서 진행된 WTL 교수법 결과물을 검토함으로써 교육효과성을 확인할 것이다. 글쓰기 교과과정에서 비정형적이고 다양한 쓰기 활동을 검토하고, 이 활동의 효과성을 학습자들의 ① 교과의 중심 내용 이해 ② 글쓰기 능력 향상(요약, 문제 발견) ③ 학습능력 발전(글의 장르 이해 및 적용) 차원에서 확인하고, 사전/사후설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보완할 것이다. 그리하여 글쓰기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을 발굴하고 학습자와 교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글쓰기 능력과 학습능력을 돕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019-02 <세상을바꾸는글쓰기> 교수학습 환경

1) 교과목 특성에 따른 WTL 활동 배치

<나를바꾸는글쓰기>, <세상을바꾸는글쓰기>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글쓰기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각 1, 2학기로 구성된 두 교과목은 자기탐색과 글쓰기 과정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고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는 형태로 확장된다. 각 2학점으로 주 1회 2시간 배정을 받으며 분반은 50개, 수강인원은 45명 미만이다.

두 교과목 모두 교재 구성은 ‘입장하기-깊이 들여다보기-함께 생각하기-글 써 보기’로 동일하다([별첨1] 참고). 글쓰기 과정과 형식을 배우는 1학기과 달리, 2학기 교과는 단원별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부담이 컸고 이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교수자들의 부담도 컸다. 해당 글쓰기가 기말소논문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도 고민할 부분이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기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했고, WTL 활동을 활용하기로 했다.

WAC 홈페이지에서 권장되는 WTL 활동의 목록은 아래와 같고(260), 강의안에 기록된 활동은 번호로 표시하였다.

260) 각주 2번 참고.

[표1 : WTL 활동 예시]

WTL 활동 예시 (Examples of Writing-to-Learn Activities)	강의실에 PC가 있을 때 가능한 WTL 활동 (What Kinds of WTL Tasks Can Be Carried Out in a Computer-Supported Classroom?)
① 긴 글 읽기(The reading journal) ② 요약하기(Generic and focused summaries) 주석 달기(Annotations) 글에 답변하기(Response papers) 글 통합하기(Synthesis papers) ③ 토의 시작하기(The discussion starter) 토의에 초점 맞추기(Focusing a discussion) 학습 기록 만들기(The learning log) 과정 분석하기(Analyzing the process) 문제 상황 서술하기(Problem statement) 실제 상황 해결하기(Solving real problems) 사전 퀴즈와 워밍 업(Pre-test warm-ups) 사건 활용하기(Using Cases) 편지 쓰기(Letters)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분석하기(What counts as a fact?) 믿음과 의심의 게임(Believing and doubting game) 사건 분석하기(Analysis of events) 노트북 활동(Project notebooks) ④ 저널(긴 글) 쓰기(The writing journal)	⑤ 글 읽고 답변하기(Summarize and respond to readings) 전 시간에 다룬 내용 요약정리 Summarize key points from prior class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적인 문제제기 하기(Pose problems based on class material) ⑥ 자료나 강의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정리하기 (Clarify unclear points in reading or class) 글쓰기와 말하기 계획 세우기(Plan writing or speaking projects) 잠재적 독자/수용자 발견하기(Discover potential audiences) ⑦ 과제 및 프로젝트 형식 연습하기(Practice format for assignments and projects) 시간에 따라 관찰하기(Record observations over time) 주요 용어 정의(Define key terms) 조별활동지 구성(Organize group-response sheets) 학습내용에서 다른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탄원서 써 보기 (Record round-robin comments for inductive learning)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동료 평가 모으기(Capture peer review of drafts in progress)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WTL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활동은 전혀 없던 새로운 활동이라기보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수자나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다. 요약이나 답변, 토의, 기록, 상황 서술 등은 교수자가 직접 시연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강의실에서 짧게 활동하게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얼마든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적용이 쉽고 학습자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둘째, 활동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식을 연습하거나 관찰하거나 퀴즈를 푸는 것,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활동 등은 교수학습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고, 짧게는 1~2분, 길게는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어 학습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셋째, 메타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에게 용어를 정리하거나, 무엇이 사실인지 받아들이게 하는 것, 문제상황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나 학습 기록을 만드는 것, 글쓰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우는 것, 자료나 강의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묻거나 생산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활동은 결과적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이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로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담당교수가 돕고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복습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습은 학습과 글쓰기를 분리하지 않으므로써 학습자의 글쓰기 및 학습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짧은 글쓰기에서 긴 글쓰기를 배우고, 글쓰기 형식을 학습하며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질문하고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 분반에서는 긴 글 읽기, 요약하기, 토의하기, 긴 글 쓰기, 글 읽고 답변하기, 이해되지 않는 부분 질문하기, 과제 및 프로젝트 형식 연습하기 등을 주된 활동으로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사이버 강의실에 게시하거나 즉각적으로 피드백하여 상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2 : 2019-02 <세상을바꾸는글쓰기> 강의계획안]

주	수업 내용	과제 및 활동(WTL)
1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2	1부 나와 세상을 잇는 글쓰기 (생각하기의 필요성)	
3	2부 세상과 마주하는 글쓰기 2부 1장 문화와 예술 (1) 대중문화와 언어의 힘	광고 스토리보드 작성 ① 긴 글 읽기 + ⑤ 글 읽고 답변하기 WTL 활동(1) : 「거친 랩, 유치한 랩, 온순한 랩」(교재 인용글)을 읽고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 보자. ② 요약하기
4	2부 1장 문화와 예술 (2) 예술성, 대중성 그리고 상업성	WTL 활동(2) : 진중권, “진중권과 정재승의 크로스2 레یدی 가가”, 《한겨레21》, 2011.04.22.(교재 인용글)을 읽고 어려운 표현을 메모해 보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
5	2부 2장 사랑과 젠더 (1) 젠더, 서로를 비추는 거울	
6	2부 2장 사랑과 젠더 (2)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명제	포토 에세이 작성 (1차 과제)
7	2부 3장 갈등과 공존 (1) 이방인과 공존	⑦ 과제 및 프로젝트 형식 연습하기 WTL 활동(3) : 아래는 교재에 수록된 대자보 양식을 활용하여 강의 시간에 다룬 이방인 차별에 문제제기를 한 대자보이다. 해당 양식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8	중간시험	
9	2부 3장 갈등과 공존 (2) 세대갈등과 통합	시론 작성 ⑤ 글 읽고 답변하기+⑥ 자료나 강의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정리하기 WTL 활동(4) : 교재에 수록된 전상진의 <세대 게임>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기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흥미롭게 다가온 문장을 기록해 보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써 보자.
10	2부 4장 자본과 사회 (1) 돈과 나의 삶	명언 만들기 ⑥ 자료나 강의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정리하기 WTL 활동(5) : 기말과제 주제로 본인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기말과제 작성 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자.
11	2부 4장 자본과 사회 (2) 성장과 분배	③ 토의 시작하기 WTL 활동(6) : 조별로 토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토의 주제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자.
12	2부 5장 기술과 환경 (1)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카드뉴스 만들기 (2차 과제)
13	2부 5장 기술과 환경 (2) 환경과 윤리	

14	3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글쓰기 (기말 소논문 점검)	⑦ 과제 및 프로젝트 형식 연습하기 WTL 활동(7) : 샘플로 본 서론 양식의 3단 구성을 참고하여 3문단 10문장의 서론 예시를 작성한 뒤, 서론 작성 시 어려운 점을 1가지 정도 메모해 교수자에게 검토를 받아 보자.
15	기말시험(과제 제출)	④ 저널(긴 글) 쓰기 -> 과제로 확장
<p>평가기준 : 출석10+중간20+과제2회20+활동2회20(교수자 재량)+기말소논문30, 상대평가</p> <p>1차 : 포토 에세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난 사진 1장, 짧은 글쓰기 A4 1쪽)</p> <p>2차 : 카드뉴스 (PPT 8쪽 내외. 기말 소논문 주제를 시각화하기)</p> <p>기말 : 표지, 목차, 서본결, 참고문헌을 갖춘 완성된 형태의 학술적 글쓰기, 수업 시간에 다룬 주제 확장.</p>		

강의실 내에서 총 7번 실시한 WTL 활동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수자의 난이도 조절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1), (2), (4), (6)이 해당된다. 둘째는 글쓰기 과정과 관계있는 활동으로, (3), (5), (7)이다. 이 두 활동은 글의 형식을 배우고 학습자가 글쓰기라는 교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목적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 학습자 설문 결과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였고, 두 번째의 경우 학습자들의 활동 내용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학습자 특성

대상 분반은 28분반으로 학습자는 1학년 29명, 2학년 2명, 4학년 1명, 남학생 20명, 여학생 22명이었다. 전공은 어문계열(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럽, 아랍, 동남아, 중남미) 학생이 21명, 경영 3명, 국제무역 6명, 경찰행정 3명, 사회복지 2명, 스포츠학 2명, 전자로봇 4명, IT학부가 1명으로 전반적으로 인문사회대 학습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1, 2학기 연속적으로 담당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는 22명으로 라포 형성이 비교적 잘 된 편이었다.

학습자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강변경기간이 지난 2번째 시간에 학습과 글쓰기를 연결시키는지 확인하는 사전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3 : <세상을바꾸는글쓰기> 사전설문 결과 (1)]

1. 나는 학습할 때 메모를 비롯한 글쓰기를 활용한다.
그렇다 : 37 (남학생 16, 여학생 21) 아니다 : 5 (특이사항, 아니다 남학생 4, 여학생1)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공부한 내용 전달해 본 적 있다.
그렇다 36 아니다 6 (여1, 남5)
3.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서술형 응답 1개 기록) : 굳이 아는 내용을 전달할 기회가 없다.
4. 글로 전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서술형 응답)
 - 1) 복습효과 : 19
 - 2) 학습효과 : 13 (수업내용 이해 8, 입시 도움 5)
 - 3) 교류 효과 8 (친구들과 의견 교류 2, 사람들이 내 말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 2)
 - 4) 기타(각 2) : 가르치는 기쁨, 말씀씨가 는다
5. 글을 읽고 정보를 찾는 능력을 1~10(숫자가 클수록 높음)으로 표현할 때,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평균값) 5.78
6. 찾은 정보를 글쓰기에 활용하는 능력을 1~10(숫자가 클수록 높음)으로 표현할 때,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평균값) 4.89

설문문항 1~6 문항은 학습자의 학습 습관과 글쓰기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수강생들은 학습 시 글쓰기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고, 학습내용을 누군가에게 언어화하여 전달해 본 경험이 있었다. 결과에도 호의적이었는데, 대부분 학습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학습을 위한 정보찾기와 활용능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찾기 능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대의 경우 작은 정보를 글쓰기에 잘 쓴다고 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 문의한 결과, 학습자들은 자료를 찾는 데 시간 걸리고, 찾은 자료 활용법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표4 : <세상을바꾸는글쓰기> 사전설문 결과 (2)]

7. 글 쓸 때 부담스러운 점을 골라 보자. (선택, 복수 응답 가능)

- 1) 화제에서 주제 찾기 : 9
- 2) 글의 구조와 형식 갖추기 (개요, 주석, 인용, 참고문헌, 어문규정 등) : 27
- 3)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 : 10
- 4) 다양한 글쓰기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 : 7
- 5) 기타 (직접 기록): 2,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1, 글의 구성과 단락 나누기, 적절한 임팩트와 감정 호소 등이 어렵다1

8. 글을 읽을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

- 1) 단어 뜻을 잘 모른다 : 7
- 2) 문장 길이가 길면 읽기 힘들다 : 15
- 3) 글쓴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 17
- 4) 글 요약하기가 어렵다 : 20
- 5) 기타 (직접 기록) : 5, 전문지식을 모른다2. 이입하기 힘들다1. 분량이 길어서 힘들다1,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못 읽으면 힘들다1

9. 읽기 능력은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5
- 2) 조금 도움이 된다 : 7
- 3) 매우 도움이 된다 : 25
- 4) 잘 모르겠다 : 5

10. 쓰기 능력은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1)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9
- 2) 조금 도움이 된다 : 7
- 3) 매우 도움이 된다 : 18
- 4) 잘 모르겠다 : 8

11. 읽기 능력을 보완하는 데 담당교수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 1) 어려운 단어 설명 : 5
- 2) 요약 연습 : 15
- 3) 글쓴이의 의도 설명 : 22
- 4) 배경지식을 설명 : 8
- 5) 기타 (직접 기록) : 8, 전부 다

12. 쓰기 능력을 보완하는 데 담당교수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 1) 화제에서 주제를 선정하기 : 5
- 2) 글의 구조와 형식을 배우기 : 12
- 3)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기 : 12
- 4) 다양한 글쓰기 분야를 연습하기 : 15
- 5) 논리 점검 및 고쳐 쓰기 도움 : 19

7-12 설문은 읽기능력 및 학습 이해도가 쓰기능력과 연관이 있음을 전제하고 작성한 설문이다. 학습자들은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이 대부분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논리를 점검하고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담당교수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WTL 활동 역시 부족한 어휘를 찾고 요약하며 주제를 찾는 형태로 구

성하였다.

3. WTL 활동 및 효과 분석

이 장에서는 실제 수업에서의 WTL 활동의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학습자 및 교수자의 수업 결과물 및 사후설문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글쓰기 교과에서의 효과성을 다룰 것이다. 2학기 교재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8)는 5개 영역을 2개 하위 소주제로 나누어 현 한국사회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영역의 읽기자료로 칼럼이나 도서 및 논문을 활용하였기에 어휘의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해당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그 문제의식을 언어화하는 훈련이 필수적이었다.

효과성 첫 번째 검토 단계는 교양영역의 배경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충실한가를 활동 문항을 검토한 후 수강생 활동자료를 부분적으로 검토하며 다루었다. 그리고 사후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글쓰기 활동과 학습연계성을 인식한 정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검토 단계에서는 다양한 글쓰기 형식 학습 및 교수자 지도 방향을 검토하였다. 글쓰기 형식을 연습하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게 함으로써 교수자는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장르별 글쓰기 지침을 완성할 수 있었다.

1) 교양영역 배경지식 내면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WTL 활동의 전반부는 교양영역의 배경지식을 내면화하는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며, 글쓴이의 의도를 추출하는 훈련을 했다. 아래는 요약 및 주제 찾기와 관련된 활동자료이다.

[표5: WTL 활동 (1) : 요약 및 주제 찾기]

<p>활동(1) : 「거친 랩, 유치한 랩, 온순한 랩」(교재 인용글)을 읽고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 보자.</p> <p>활동(2) : 진중권, “진중권과 정재승의 크로스2 레이디 가가”, 《한겨레21》, 2011.04.22.(교재 인용글)을 읽고 어려운 표현을 메모해 보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p> <p>활동(4) : 교재에 수록된 전상진의 <세대 게임>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기록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흥미롭게 다가온 문장을 기록해 보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을 써 보자.</p> <p>활동(6) : 조별로 토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토의 주제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자.</p>
--

해당 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학습자들의 어휘 수준을 알 수 있고, 수강생들이 수업 전체적으로 이해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활동 (4)는 이러한 특징이 가장 풍요롭게 드러난 활동으로, 담당교수는 학습자들이 궁금해한 내용들을 모아 추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습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표6 : WTL 활동 (2) : 학생 결과물 예시]

<p>7. 오늘 다루었던 내용이나, 시론 읽기에서 흥미로웠던 점,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p> <p>시론의 개념에 대해 <u>관찰의 양적 도량</u> <u>자세대, N포세대, 89만원의 세대 등 알려 볼만한</u> <u>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다</u></p>
<p>7. 오늘 다루었던 내용이나, 시론 읽기에서 흥미로웠던 점,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p> <p>시론은 <u>주장극여란 똑같은 것일까요?</u> <u>(설명할)</u>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주장은 아니라면 시론으로 가능!</p>
<p>3. '함께 생각해 보기' 부분을 읽고 이야기해 보자.</p> <p>1) 이 글에서 재미있게 읽은 문장을 서로 나누어 보자. 2000년 컨대 이후 ~ P세대로 분류되었다.</p> <p>2) 최근 청년들을 세대로 명칭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이 글에서 쓰고 있는가? 활동, 경제적인 상황, 상품 세대, N포 세대</p> <p>3) 이 글에서는 세대론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복명호, 강등 2상</p> <p>4) 이 글의 어떤 부분에 나는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가? 강지니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능력이 있고 독립적인 제해야 한다는</p> <p>5)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써 보자. <u>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u> ↓ 이유 설명</p>
<p>시대론의 이론적, 동일성과 차별화</p> <p>3. '함께 생각해 보기' 부분을 읽고 이야기해 보자.</p> <p>1) 이 글에서 재미있게 읽은 문장을 서로 나누어 보자. 변 6년 뒤인 ~ 20대 xx끼리의 특징이다/ 세대론은 6성형의 ~ 까지 있지 <u>제약이다.</u></p> <p>2) 최근 청년들을 세대로 명칭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이 글에서 쓰고 있는가? 청년들의 취직률과 불안정한 자부 노동에 초점을 맞춤. ex) N포 세대, 맞판 세대.</p> <p>3) 이 글에서는 세대론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정확한 시대를 구분 수 x, 개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함.</p> <p>4) 이 글의 어떤 부분에 나는 동의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가? N포 세대가 <u>남성 위주</u>의 신이아래, 성별 격차의 문제는 <u>와연화한 것이 증명한다.</u></p> <p>5)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써 보자. 시대론의 <u>제한적 의미.</u></p> <p>4. '글 써 보기'의 글 (가)와 (나)를 읽고 이야기해 보자.</p> <p>1) 글 (가)에서는 세대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가? <u>슬론</u> 유리한 세대론의 아닌 세대론의. 세대론은 <u>슬론</u>한 관점에서 <u>정화되어야함</u>, <u>야생의 방황</u> 통해 <u>강령화</u>해야함</p> <p>2) 글 (나)에서 언급하는 '상호 인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세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 <p>3) 어려운 표현이 있다면 메모해 보자. 세대론의 <u>제한</u> 하는 <u>신뢰</u> 개념이 <u>또한 인정, 상호간의 <u>유대적</u> 의무.</u></p>

위의 활동을 거친 후 14주차 소논문 주제상담 및 연습을 거친 후 사후설문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 WTL 사후설문조사 결과]

<p>1. 이번 학기 글쓰기 수업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인가?</p> <p>1) 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1</p> <p>2)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 보았다. : 9</p> <p>3)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어 보았다. : 7</p> <p>4) 내가 이해한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 12</p> <p>5) 기타 (직접 기록) (무응답) 3</p> <p>2. 글을 읽고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1~10의 숫자로 표현할 때(숫자가 클수록 ভাল),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6.08(평균값, 사전설문 대비 증가)</p> <p>3. 글을 읽고 찾아낸 정보를 글쓰기에 활용하는 능력을 1~10의 숫자로 표현할 때(숫자가 클수록 ভাল),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5.61(평균값, 사전설문 대비 증가, 그러나 찾기 > 활용 능력차는 여전)</p> <p>4. 이 교과목은 내가 이해한 것을 확인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담당교수에게 피드백을 받는 WTL 교과목이다. 이 과정이 수업 이해와 지식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서술형)</p> <p>도움이 되었다 :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은 점검을 받을 수 있었다. /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 나중에라도 교수님이 피드백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모르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었다. / 다른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내용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편했다 /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교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 모르는 내용과 고칠 점, 잘한 점을 알 수 있어 좋았다. / 글 구조를 짜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글쓰기의 도움이 되었다.</p> <p>도움이 되지 않았다 : 주어진 시간 동안 메모하고 글을 쓰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p> <p>5. 이 교과목에서 수강생의 읽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실행한 다음 영역 중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가? (복수 응답 가능)</p> <p>1) 단어 설명 : 10</p> <p>2) 요약 연습 : 22</p> <p>3) 글쓴이의 의도 설명 : 17</p> <p>4) 관련 배경지식 설명 : 8</p> <p>5) 기타 (직접 기록)</p> <p>6. 이 교과목에서 수강생의 쓰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실행한 다음 영역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 (복수 응답 가능)</p> <p>1) 화제에서 주제 찾기 : 12</p> <p>2) 글의 구조와 형식 갖추기 : 15</p> <p>3)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갖추기 : 10</p> <p>4)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 연습 : 19</p> <p>5) 논리 점검 및 고쳐쓰기 : 15</p> <p>6) 기타 (직접 기록)</p>
--

사후설문 결과 어휘 이해 및 주제 찾기 훈련은 정보찾기, 활용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2, 3번). 부분적으로 평균값이 사전설문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설문지에 기록한 대로 찾기 능력 대비 활용 능력은 여전히 낮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수강생 상당수가 서술형 문항에서 수업 이해와 지식 상승에 WTL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피드백, 자신이 이해한 내용 확인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번 문항 결과도 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번 문항의 경우,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메타학습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5, 6번 문항은 읽기 및 쓰기 능력 보완에 도움이 된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요약 연습과 형식, 장르 연습 등을 제시하였다. 교수자가 기대했던 배경지식이나 지식 갖추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던 점은 추후 보완할 점이라 생각하였다.

2) 다양한 글쓰기 형식 학습 및 교수자 지도 방향 검토

활동 후반부는 글쓰기 형식을 학습하고 학습자들에게 실습 후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활동(5), (7)은 기말과제 작성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부담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감안해 배치하였다. 다양한 글쓰기 실습을 하였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나 기말과제에 두 번의 활동을 배치한 것은, 기말과제 배점이 30점으로 비중이 큰 편이고, 상대평가제인 이상 학습자들 스스로도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8: WTL 활동 (2) : 글쓰기 형식 학습 및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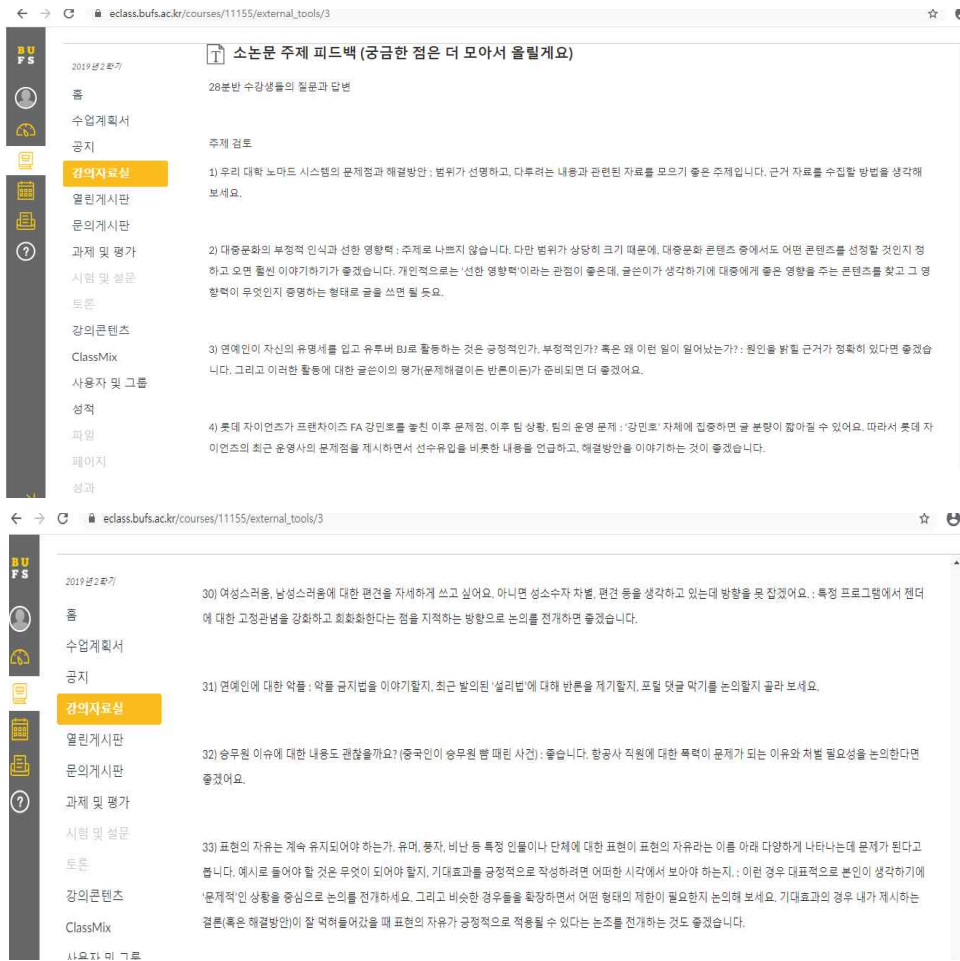
활동(3) : 아래의 교재에 수록된 대자보 양식을 활용하여 강의 시간에 다룬 이방인 차별에 문제제기를 한 대자보이다. 해당 양식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활동(5) : 기말과제 주제로 본인이 생각한 것을 기록하고, 기말과제 작성 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유롭게 질문해 보자.

활동(7) : 샘플로 본 서론 양식의 3단 구성을 참고하여 3문단 10문장의 서론 예시를 작성한 뒤, 서론 작성 시 어려운 점을 1가지 정도 메모해 교수자에게 검토를 받아 보자.

또한 1:1 소논문 면담 과정에서 주제 좁히기와 논지 전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형식 관련 유사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소모되는 것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활동 5와 7 모두 무기명으로 글쓰기 장르의 궁금한 내용을 메모하게 했고, 담당교수는 이를 수거하여 사이버 강의실에 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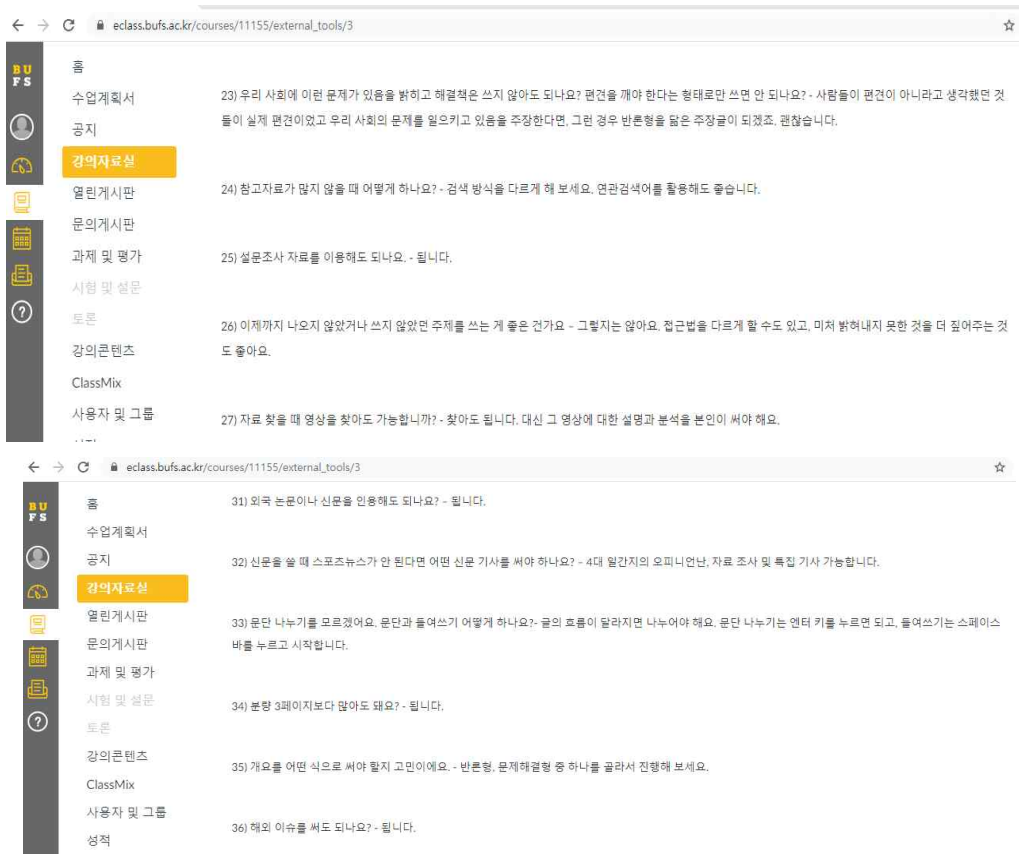
[그림1, 2: WTL 활동 5 화면]



제출한 주제를 검토한 후 사이버 강의실에 자료를 게시한 뒤,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이 선정한 주제를 확인하기도 했고, 교수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주제를 확인하여 어떤 형태로 주제를 추출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교수자는 강의실에서는 전체 주제들의 특성을 검토하고(예 : 주제보다 화제에 가까운 내용 설명), 주제 선정 시 유의할 점을 언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논문 예시 검토 후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내용, 교수자의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을 무기명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 4 : WTL 활동 7 화면]



해당 내용을 모아 역시 사이버 강의실에 제출하여 FAQ를 만들었고, 학습자들은 미리 이 자료를 숙지하고 담당교수와 소논문 면담을 함으로써 과제물 형식과 제출 방법, 기한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내용을 나눔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 또한 검토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학습의 효과는 선명한 표지로 남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부분적으로 추출한다면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첫째는 기말과제 제출 비율이었다. 2학기 교과목이고 두 번째 쓰는 소논문이라 탈락률이 높지는 않지만, 통상 2~3명 정도 미제출자가 있음에도 해당 분반은 전원 기말과제를 제출하였다. 둘째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과제 제출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활동을 통해 교수자의 지도에 도움이 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학술적 글쓰기의 인용 및 주석 자료를 전통적으로 논문과 서적 중심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학습자들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고 이를 학술적 글쓰기에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때 학술적 글쓰기의 성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인용하고 분석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제 양식을 미리 제시하고 글쓰기 과정과 방식을 수업으로 진행했을지라도,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어느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수 학생들이 '본문'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고, 표지와 목차, 본문과 참고문헌이라는 체계를 숙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료를 삽입한 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하는지, 글의 시작과 마무리는 어떤 형태로 갖추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고, FAQ로 작성한 내용이 타 분반이나 다음 학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료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고는 글쓰기 교과의 세부 글쓰기 활동을 학습과 연결하는 WTL 교수법의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의도에서 쓰였다. 부산외국어대학교 1학년 글쓰기 28분반을 선택하여 해당 교수법을 수행하였고, 사전 사후 설문조사 분석과 과제물 분석, 작업물 예시를 근거 자료로 삼았다. 글쓰기의 부담을 낮추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결론을 냈으나 한계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먼저 활동의 차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WTL만의 고유한 활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활동이 존재하므로, 활동 사이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채점 시 성적 반영 지침이 부재하다는 것도 고민점이다. WAC 센터에서는 해당 활동이 꼭 점수에 반영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지만, 성실성을 반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해당 활동의 통계, 데이터화하기 위한 저장 방법 또한 고민할 부분이다.

연구 자체의 한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근거 자료로 삼은 연구 자료가 빈한하여 몇 학기 누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할 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교수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남아 있다. 해당 한계는 설문조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 학습자 면담 등을 통해 보강하는 것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주석으로 대체합니다.

[별첨1] <세상을바꾸는글쓰기> 단원 내 활동 구성

단원 내 활동 구성		
명칭	활동	비고
1. 입장하기	<p>III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p> <p>1. 입장하기</p> <p>아래 단어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메모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제목을 기록해 보자.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신문기사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보류 중 어디에 가까운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인공지능 (AI), 사이버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일피고</p> </div> <p>주제와 관련된 워밍업 활동 아이스브레이킹 - 질문, 짧은 토의, 영상, 자료 찾기</p>	주제 안내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2. 깊이 들여다보기	주제와 관련된 자료 읽기 (칼럼) 지문과 관련된 짧은 문항 답변하기(요약, 답변)	배경지식 학습 20~30분 내 활동

	<p>2. 깊이 들여다보기</p> <p>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발전이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인가, 반대로 불행하게 할 것인가? 다음 글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둘러싸고 고민할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좀 더 행복해질까? 이것은 공장이 만들어지고 제품의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진 근대사회에 접어든 인간이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실제 기술은 우리를 편리하게 한다. 먼 곳에 있는 친구와 SNS로 텍스트 메시지뿐 아니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을 때, 산더미같이 쌓인 빨랫감을 세탁기와 건조기가 처리해 줄 때, 로봇 청소기가 집을 정리할 때, 온풍기와 냉풍기로 실내 온도조절을 할 수 있을 때,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할 때, 이쯤 되면 기술이 있어 편리해졌다는 말은 진리나 다름없이 느껴진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다.</p> </div>	
<p>3. 함께 생각하기</p>	<p>주제와 관련된 심화자료 읽거나 토의하기</p> <p>3. 함께 생각해 보기</p> <p>고통 없이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꾼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았다. 글 가)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탄생한 사이보그의 예를, 나)는 인간의 판단력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글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구분이 더 이상 선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나에게 있어 '인간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학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p>	<p>20분 내 활동</p>
<p>4. 글 써 보기</p>	<p>주제와 관련된 짧은 글이나 긴 글쓰기</p> <p>4. 글 써 보기</p> <p>아래의 카드뉴스 작성 팁과 예시를 참고하여 기술발전으로 생겨난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의 가치학습 방향을 제안하는 10매 내외의 카드뉴스를 구성해 보자.</p>	<p>짧은 글의 경우 20~30분 긴 글의 경우 50분(2교시)</p>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연구

진선영²⁶¹⁾

1. 들어가며

우리에게 1960년대는 어떠한 시대로 호명되는가. 문학사의 통상적인 기술방식에 따르면 1960년대 문학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겨안은 1950년대 문학의 단순성과 체험의 직접성에서 벗어나는 한편 1970년대 문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도기적 문학 형식으로 규정된다.²⁶²⁾ 하지만 문학사의 전통적인 시각이 아닌 ‘변화’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인훈과 김승옥에 가려진 새로운 작가들이 떠오른다.

전후 한국의 출판·독서문화는 일본, 미국 출판시장의 압도적인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1962년부터 일본의 번역본이 독서가를 휩쓸다시피 하였는데²⁶³⁾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여성작가들의 약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계형, 박계형, 전해린 등의 소설과 에세이는 문단의 외면 속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60년대 내내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두고 여러 번역물과 가장 치열하게 경합했던 한국문학들이다.²⁶⁴⁾

1960년대 베스트셀러의 지형을 논의할 때 그 제일 첫 자리에 놓이는 이가 박계형이다. 박계형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통해 독서계의 총인으로 떠오른다. 동양라디오 개국 기념 50만원 현상문에 방송소설 부문 당선작인 이 작품을 쓴 건 고려대 영문과 3학년 때였다. 이 작품은 소녀적 취향의 서정적인 대중소설로 문학소녀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40만부 판매를 기록하였다.²⁶⁵⁾ 당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책상 밑에 숨겨가며 읽었던 책으로 이 책을 안 본 여학생이 있었을까 할 정도였다. “계약금으로 보통 기와집 한 채 값을 받았고 주간 베스트셀러 다섯 권 중 세 권이 내 책일 때도 있었다.”²⁶⁶⁾ 당시 박계형의 인기를 가늠해볼 만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인기 요인을 텍스트 내부로 시선을 돌려 기존의 논의를 좀 더 다각화할 필요를 느끼며 이를 통해 박계형 소설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이 산출되길 기대한다.

261)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26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94-206쪽.

263)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경인문화사, 1998, 178-179쪽.

264) 이용희, 『한국현대 독서문화의 형성 : 1950-60년대 외국서적의 수용과 ‘베스트셀러’라는 장치』,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8, 9쪽.

265) TBC는 이 작품을 저녁에 낭독했으나 그때는 것처럼 인기를 끌지 않았다. 박 씨는 그 바람에 이 작품을 싸게 팔아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방송이 나가고 시일이 지나도 별로 거들떠보는 출판사들이 없자 박 씨 쪽에서 서둘러 신아출판사와 선이 닿자 혈값에 출판권을 넘겨줘 버렸다. 형식은 10년 간 출판권을 대여하는 것인데 사실상 매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설이 나오자 지금까지 무심한 듯했던 청취자들이 열광적인 독자로 바뀌었다.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42-142쪽.

266) 구희령, 「[사람 사람] 소설가 박계형 씨 20년 침묵 깨」, 『중앙일보』, 2001.8.4.

2. 베스트셀러의 적시성

이어령은 1960년대 말에 한국 문화시장의 판도가 “여성의 손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는데 이때의 여성문화란 “미국의 마미즘이 상징하듯 감각화, 비투쟁화, 순응화, 보수화의 문화적인 패턴”을 띠며 “사치하나 깊이도 알맹이도 없는 문화 형태”라고 보았다.²⁶⁷⁾ 이어령의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박계형의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던 당시 박계형 작품에 대한 학적 평가는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작품의 수준 여하를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소설은 언론과 영화계와 독서계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만 문단과 평단에서 냉혹하리만치 무시를 당한다.

한국일보 출판담당 기자였던 양평은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 “나이 어린 여성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단시일에 쓴” 작품으로 “소설의 사회적 책임이니 문학성이니 하는 거창한 용어는 알 바 없이 대중의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10여 년간 발표한 다작의 작품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식과 ‘이브의 상상력’ 만으로 인스턴트 제품을 찍어내듯 작품을” 썼다는 혹독한 비판을 가하였다.²⁶⁸⁾

1960년대 픽션류의 대표적 베스트셀러로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꼽은 이임자는, 이름 없는 처녀 작가 박계형의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로만 일관된 흥미 위주의 통속소설이라고 평가하였다.²⁶⁹⁾

박계형이 창작열을 높이던 당시 문단의 냉담과 베스트셀러 목록을 정리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된 정도를 제외하면 박계형 소설에 대한 언급은 마치 금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계형의 작품에 대한 양적, 질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가치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최미진은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을 연구하면서 박계형의 8개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폭넓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동시대의 다른 작가의 작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분석량인데 박계형의 소설이 그만큼 1960년대 대중소설의 지형도 내에서 차지하는 바가 높음을 반증한다. 『애정이 있는 양지』는 오해 전략을 통해 김문희의 순결성 강조와 유진의 인정, 사랑을 가치 있고 보다 낭만적으로 만들어주는 서사전략을,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는 지연 전략을 통해 여성의 순결 헤게모니에 대한 균열을 보여주지만 낭만적 사랑의 성취에 실패를, 『이대로 살다 죽으리』에서는 성의 통제나 규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책략으로 은폐 전략을,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해가 지지 않는 땅』에서는 결혼 전의 연애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성취하는 과정이며 결혼 후의 연애는 그것을 바탕으로 둔 결혼생활의 지속 과정임을 보여주지만, 결혼생활에서 맞부딪히는 가부장적인 현실과 문제항들을 슬쩍 숨겨두고 주인공들의 사랑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환상을 만끽시킨다. 『사랑과 이별이 흐르는 강』과 『목숨의 불꽃이 질 때까지』는 대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혼녀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처럼 박계형의 1960년대 연애소설은 다양한 서사전략을 구사하면서 연애와 사랑의 담론을 대중화, 근대적 사랑의 모델들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의 새로운 기대지평을 형성하였다고 파악하였다.²⁷⁰⁾

1960년대 연애소설을 대상으로 연애가 각 젠더 시선 속에서 어떻게 전유되는지의 양상을 살핀 김복순은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연애 키워드를 ‘순결’로 정의한다. 전

267) 이어령, 「대중문화 시대의 개막」, 『신동아』, 1967.1.

268) 양평, 앞의 책, 140-143쪽.

269) 이임자, 앞의 책, 180-181쪽.

270)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 2006, 25-27쪽.

반부에서 윤희와 성호는 마치 오누이 같은 관계로서 오빠처럼 좋아하다가 결혼으로 부부가 된 낭만적 사랑의 전형적 사례이며 후반부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 치안대원으로부터 겁탈당할 뻔한 핵심 사건을 통해 군사주의의 반공 계몽의 논리와 순결의 문제가 초점화 된다고 하였다. 즉 순결-순수-전통 개념이 군사주의의 논리와 상동성을 지니고, 근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비판한다.²⁷¹⁾

1950년대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 특징과 대중성을 최희숙과 박계형을 통해 해명한 조은정의 논문은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것이 독자 대중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는 의미를 해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작품을 해석한다. 조은정은 여대생 작가의 작품이 1950년대 후반 여대생 주체의 내면과 삶의 고민들을 살펴보게 해주었다고 특히 박계형의 소설은 여성들의 현재적 욕망을 적확하게 재현하였음을, 독자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통해 현재를 위로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받는다고 정리하였다.²⁷²⁾

본고 또한 대중연애서사가 갖는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이데올로기의 논리, 계몽의 논리와 가부장제, 순결의 문제로 초점화 하는 기존 연구와 거리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담론을 형성하고 외연을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서사의 내부와 인기의 요인을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박계형 소설의 문화사적 의미를 면밀히 분석한 이영미에 따르면 박계형의 작품은 1960년대 초반에는 성적인 자유분방함이 드러난 자유주의적 입장(『젊음이 밤을 지날 때』,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을 고수하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가부장제의 복원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이를 지탱하는 순결주의로 변화해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박계형 소설이 비록 극단적인 순결주의에 입각해 있지만 서사 전반에 걸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평가하였다.²⁷³⁾

허윤은 최희숙의 『슬픔은 강물처럼』, 신희수의 『아름다운 수의』,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등 세 여대생 작가의 데뷔작을 중심으로 여성작가와 감정의 절대화라는 공식을 질문한다. 이 중 박계형의 소설은 낭만적 사랑과 비애의 정조를 주로 하고 여기에 섹슈얼리티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여대생 소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내면 그 자체를 중심으로 내세우며 감정의 절대화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서사구조를 통해 여자다운 감상성을 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⁷⁴⁾

1960년대 베스트셀러를 외국서적의 수용을 통해 살피고 있는 이용희의 논문은 그간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박계형 소설의 인기를 파악하고 있다. 1960년대는 일본 번역소설이 왕성하게 소비되던 시기로 박계형의 등장은 일본 번역소설을 매개로 창출된 새로운 문학 수용의 감각이 한국소설에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보았다. 박계형 소설은 적당한 명량과 적당한 우울, 불타는 연애와 차가운 이별, 정조와 자살 등 멜로드라마의

271) 김복순, 「1960년대 소설의 연애전유 양상과 젠더」, 『대중서사연구』 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7-54쪽.

272)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7-118쪽.

273) 이영미, 「아프레겔과 현모양처, 그 허와 실-장덕조와 박계형」,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19쪽.

274) 허윤, 「‘여대생’ 소설에 나타난 감정의 절대화-최희숙, 박계형, 신희수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 167-196쪽.

다채로운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²⁷⁵⁾

박계형 소설의 핵심적 요소를 ‘낭만성’으로 포착한 진선영의 논문은 작가의 등단작부터 2000년대 이후 발표한 최근의 작품까지 연대기적으로 훑어보면서 박계형의 소설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학적 관심이 촉발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계형 소설의 낭만성은 서정성, 감상성, 정신성, 비현실성, 이상주의적 성질로서 취향으로 발견된 낭만주의적 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소설의 핵심 제재는 사랑이며, 사랑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즐거움, 환희, 기쁨의 측면보다는 이별, 아픔, 외로움의 측면에 집중하면서 슬픔의 감정을 주조한다고 보았다.²⁷⁶⁾ 이 논문은 낭만적 글쓰기의 변주를 살피는 작가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개별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박계형의 소설은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1960년대 여대생 소설로서 ‘한국의 사강’으로 그룹화 되어 연구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1950년대 대중문학과와 변별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더러 1960년대 문학 담론과의 연계성 속에서 독서시장을 변화를 파악하기에 유의미한 소속화이다. 여대생인 작가가 여대생의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쓴다는 점, 이들의 소설은 전통적인 등단 코스인 신춘문예나 추천제, 문예지를 통한 등단이 아니라 고액의 현상공모에 당선 되었다는 점, 신문연재 후 인기를 얻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소비되었다는 점²⁷⁷⁾ 등은 분명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희숙, 신희수, 박계형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최희숙, 신희수는 등단작이 인기작이자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을 중단하였다. 반면 박계형은 약 10여 년의 활동 기간 중 60여 편의 작품을 집필하였고, 이것이 60-70년대를 가로지르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베스트셀러 소설, 영화, 라디오 드라마 등 당대 대중문화 전반을 넘나드는 다작과 인기는 박계형의 소설을 좀 더 밀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본고는 1960년대 사회 및 문학장, 독서 인구의 변화 등을 텍스트의 수용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참조점으로 수용하고, 박계형 소설이 함유하는 당시 이데올로기의 부정적 강화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전부로 설명될 수 없는 은성(殷盛)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은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연애와 결혼, 부르주아 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낭만적 사랑의 이름으로 서사화한다. 이때 동시대의 여대생 작가와 다른 박계형의 낭만적 사랑이 갖는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구현하는 낭만적 사랑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그 본질의 실마리를 ‘머리글’을 통해 추론하고자 한다. 작가가 서문을 통해 풀어내는 창작의 동기는 연역적 방식으로 작품 전체를 주관한다. 더불어 내용의 낭만성을 증폭시키는 서사적 디테일에 주목함으로써 박계형 소설을 ‘소설답게’ 분석하고자 한다.

3. 멋지고 아름다운 공상 ‘나는 소설을 쓴다’

이 소설은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은 윤희가 남편 성호와 별장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275) 이용희, 앞의 논문.

276) 진선영, 「박계형론-낭만적 글쓰기의 변주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5호, 대중서사학회, 2019, 247-275쪽.

277) 조은정, 앞의 논문, 115쪽.

인생을 회고하는 이야기이다. 회상의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서술되어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서울로 이사와 성호를 만나고 그와의 약혼과 결혼, 신혼의 단꿈에 취해 있던 부산 시절과 아이를 갖고 나서의 대구 생활, 남편 성호가 교환교수로 2년 6개월간 미국 법조계 시찰을 하던 시간 윤희의 발병과 투병이 겹치면서, 윤희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마치 액자처럼 구성된 작품의 내부는 전형적인 낭만적 사랑 이야기를 따른다. 남편 성호와의 인연은 아버지 대에서부터 시작된 필연으로, 열한 살과 열세 살의 풋풋한 만남과 격정적 연애, 약속된 결혼, 행복을 보증하는 출산, 남편의 성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회상하는 이 소설은, 유년기, 청년 등 삶의 특정한 한때가 아니라 삶 전체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연쇄되는 유기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속내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이 아닌 사랑의 ‘영원’과 ‘무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불변하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는 섹슈얼리티-사랑-결혼-재생산이 하나의 관계 속에 수렴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회고의 형태로 기술되는 내부 서사는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서 향유되던 사랑의 부속물들(성, 사랑, 결혼)이 낭만적 사랑을 통해 하나의 가치로운 덕목으로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천진무후한 영혼으로 그저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던 용골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약수동 푸른 저택 속에서의 즐거운 시간들은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성장 서사와 맞물린다. 성호는 중학교에 갓 입학한 홍안의 미소년이었고 윤희도 풋풋한 소녀였다. 성호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여전히 오누이처럼 스스럼없이 대하는 사이였지만 “옆 방에 성호를 두고 자는 매일 저녁마다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히고 있었다.”²⁷⁸⁾ 미목이 수려한 열아홉 살의 법과 대학생 성호와 촌티도 가시고 다리에도 알맞게 살이 올라 예쁘장한 처녀가 된 윤희는 정원을 거닐다 첫 키스를 하게 된다.²⁷⁹⁾

첫사랑과 첫 키스를 한 후 결혼을 약속하는 장면과 “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다”는 성인 화자의 결의에 찬 어조는 운명적 사랑의 절대성을 보증한다. 물론 이들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도 연적인 경희와 민규라는 바람이 불면서 질투와 애증의 감정적 파고를 겪기도 하지만 이는 반대로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클리셰(cliché)를 따른다.

낭만적 사랑이 결혼으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열정적 사랑의 형태를 띠는데 이때에는 남녀간의 열정적 충동이 내러티브를 지배하게 된다. 붉게 충혈된 눈, 타는 듯한 입술, 흥분한 표정, 광포해지는 호흡, 전신으로 몸서리치는 흥분 등 제어할 수 없는 육체적 흥분이 포착되지만 사랑하는 두 연인들의 감정적 혼란과 섹슈얼리티는 ‘다치지 않고’ 결혼을 통해 가정 속에 정착된다. 첫날 밤 요 위에 얼룩진 진홍빛 무늬를 통해 확인된 ‘아름답고 싱싱한 처녀성’은 낭만적 사랑의 귀중한 선물처럼 받쳐진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하나의 미덕으로 끌어안은 섹슈얼리티까지, 열정과 이상의 여러 가지 덕목을 새롭게 배열시킨 관념의 복합체인 낭만적 사랑은 윤희와

278) 박계형,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대문출판사, 1966, 34쪽.

279) 잠시 후 그 청결한 숨결이 조용히 내 입술 위로 닦아왔다. 감기듯이 부드러운 살결이었다. 첫 키스였다. 나는 심연에 가라앉듯 낮이 빠져 버렸다. 가슴이 뛰고 머리는 몽롱했다. (중략) 그때 내 가슴에 흐르던 그 감미롭고 꿈결 같은 행복감. “윤희, 크면 내 귀여운 부인이 돼 주지?” 검고 선명한 눈으로 묻는 그에게 나는 진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잘 생기고 노래를 잘 하고 머리가 좋고 또 그냥 좋기만 한 청년과 일생을 같이 살게 된다는 데 무엇 때문에 생각하고 따져야 하는가. 그때 그 망설임 없는 결정을 나는 내 전 생애를 통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44-46쪽)

성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실체화된다. 내부 서사의 낭만적 사랑의 양상은 윤희와 성호의 경험을 매개하고 분절하는 문화적 표상일 뿐만 아니라 두 주인공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당시 독자들의 행동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루만에 따르면 당대 유행하는 서사 속 표현들과 사건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징표들은 문학 텍스트 내부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독자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당대만의 유행을 창조한다.²⁸⁰⁾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 낭만적 사랑이 일상의 현실로 실현됨으로써 여성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애 대상을 선택하고 그와 사랑하고 결혼함으로써 근대적 주체로서의 체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박계형이 그려내는 정감적 사랑 이야기는 이상주의적 낭만성, 영원한 사랑에 대한 과도한 신비화와 맞물려 반시대성, 반지성주의, 비현실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본고는 규격화된 현실의 형식을 무시하고, 무한하게 전개되는 이 상상력의 불명료성이야말로 박계형의 창작 동기라고 판단한다.

해명의 시작을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머리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작가의 소설 쓰는 의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표지이기 때문이다. 박계형은 다작을 하였음에도 글이나 말로 작품에 대한 언급이나 문학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집필 혹은 출간 당시의 감정적 어조나 작품 의도가 선명히 드러나 있는 머리글은 작품 해석과 작가 의도를 파악함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작품의 머리글은 그간 작품 해석의 의도적 오류에 대한 작가의 해명이자 답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호평에 대한 본고의 최종적 판단이기도 하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머리말은 세 개의 작품이 대조되며 시작된다. 작가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이전에 쓰인 『젊음이 밤을 지날 때』²⁸¹⁾와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²⁸²⁾를 같은 편에 놓고 그 대척점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을 위치시킨다. 전자의 작품들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연’이 담긴 ‘아름답지 않은 얘기’라면 후자는 ‘절절히 가슴에 사무치도록 진실한 사랑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아름답고 순수무후한 얘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작가가 진정 쓰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나의 모든 이상과 지향은 아름답고 순수무후한 것이 있었고 역시 사랑도 그런 종류의 것을 그려 왔었다.

그런 나의 모든 사랑에 대한 꿈과 낭만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안에 있다.

이제 스물 넷, 양띠다.

남들은 한창이라는데 내 주변엔 어찌 스산한 바람만 든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향그럽고 나는 젊은데 여기 아직 가을이 없구나.

실상은 주변머리 없고 수줍기만 한 나는 곧잘 남몰래 가슴을 태우는 일이 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공상한다. 이불 속에 누워 발을 조용히 모으고 눈을 감으면 그때서부터 나의 연애는 시작된다. 따뜻한 대화 한 번 나눈 적 없는 가슴 속의 그이는 드디어 내게 찾아오고 나는 그이를 맞아 분홍잠옷의 아름다운 몸매로 그를 맞는다.

물론 거긴 달빛이 흐르는 커다란 저택의 정원이며 그이의 눈빛이나 나의 뺨이나 모

280) 니클라스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2009.

281) 박계형, 『젊음이 밤을 지날 때』, 백영사, 1963.

282) 박계형,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백영사, 1964.

두 그림처럼 아름다우리라.

끝없는 공상의 세계 속에서 한동안 나는 감미롭지만 눈을 뜨면 나는 혼자다.

그래서 나는 소설을 쓴다.283)

작가는 현상문에 당선 당시 22살의 꽃다운 여대생이었다. 수줍음 많고 남몰래 가슴 태우는 일이 많은 나(작가)에게 낭만적 사랑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공상’하는 것이다. 이 연애는 환한 대낮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상상이다. 공상에서는 주인공도 배경도 완벽할 것이며 모든 것이 아름다우리라. 하지만 이 공상은 눈을 뜨면 깨어지는 허상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작가는 소설을 쓰는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할 수 없었던, 이불 속에서 꿈꾸었던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 ‘이야기’를.

이것이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창작 의도이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에 대한 꿈을 활자로 적는 것, 그것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작가의 꿈이자, 동시대를 작가와 같은 나이로 살았던 당시 여대생들의 내면과 삶의 고민들을 살펴보게 해주면서 이 작품을 소비했던 문학 소녀들의 꿈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소설 쓰고 있네”라는 관용구를 사용한다. 이때의 소설은 개연성이 아닌 허구성이며, 실제성이 아닌 가공의 의미이다. 박계형이 쓴 공상(소설)은 멋진 꿈이자 아름다운 상상으로 현실 불가능성의 총합이다. 작가 스스로가 낭만적 사랑, 영원한 사랑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머리글로 언표화하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 구축한 극명한 현실성인기에 소설의 개연성은 오히려 외부에서 시작되며 그것과 맞물려 이 소설이 주인공의 시한부 선고에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의 불가능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사실주의적 의미에서 견지되는’ 작가적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낭만적 사랑의 이상주의적 요소와 반현실적 요소는 소설적 내용을 구성하지만 “센티멘털하고 소녀다운 감수성은 이내 가부장제 규범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284)는 허윤의 지적이나 “당시 여대생들의 결혼과 관련된 판타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감과 위로의 글쓰기를 수행하였다”285)는 조은정의 지적은 수용미학적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의 리얼리티를 획득한다.

4. 시적 문체의 이미저리, 서정적 비극성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이 소설의 낭만성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본고 또한 3장에서 이야기의 측면에서 낭만성을 포착하였는데 4장에서는 이러한 낭만성을 증폭시키는 소설적 장치에 대해 고구하고자 한다. 이는 박계형 소설의 낭만성을 좀 더 소설‘답게’ 포착하고자 함이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에서는 소설의 낭만성을 강화시키는 수사학적 요소들로 서정적 문체, 이미지를 통한 감각의 형상화와 이로 인한 서정적 비극성이 주도되고 있다. 서사의 내부는 사랑이 갖는 열정적 충만과 환희의 발전 서사를 따라가지만 서사의 출발과 함께 인지되는 여주인공의 예정된 죽음은 비애의 정조를 미감케 하면서 비극성을 강화시킨다.

283) 박계형, 「머리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대문출판사, 1966, 3-4쪽.

284) 허윤, 앞의 논문, 6쪽.

285) 조은정, 앞의 논문, 88쪽.

시처럼 시작되는 에필로그는 짧은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부드럽게 연속되고 독자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명상의 시간을 주듯이 한 줄의 휴지가 끝난 다음 서사는 시작된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시선으로 포장된 회상적 자아의 강렬한 노스텔지어가 읽는 이로 하여금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고향의 기억을 자극한다. 서사 속 주인공은 성장하는 화자이며 이 화자가 선별된 과거의 아름다운 한 풍경을 묘사하다가 이야기의 말미에 언제나 성인 화자가 등장하여 앞의 과거를 해석, 현재적으로 재의미화한다.²⁸⁶⁾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객관적 세계의 내용이 서정적 자아의 내면에 용해되어 객관적 시공간이 화자 내면의 무시간성 속에서 드러난다.

작품의 외피(차레)는 철저히 시간의 흐름, 성장의 시간을 따르지만 이 작품이 서사적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시간성 때문이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아니라 화자의 자기인식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형상화의 대부분이 이미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란 객관적 대상의 주관화인 동시에 주관적 정서의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인식의 직접적 형상화는 서정적 경험의 주객합일과 무시간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이다.²⁸⁷⁾ 인식 주체가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세계의 자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과의 서사적 거리가 단축, 소멸되면서 순간적인 감각으로 대상을 자각하게 된다.

길쭉 잡초 속에 때때로 보이는데 빨간 산딸기가 저물어가는 회색 대기 속에 꺾어나고와 보인다.

어디선가 가늘게 이름 모를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그렇게 녹음이 무성한 산등성이를 넘고 나면 오곡이 무르익는 전답이 있고 전답 너머로 불빛이 비친 초가마을이 보였다.

늙은 호박의 배통처럼 불그레한 초가의 뒤창이 평화롭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으스스한 산길로 접어들고 성호는 앞서 걷고 있는 지게꾼 몰래 내 허리를 포근히 다가 안아서 입술을 맞춰 주곤 했다.

아름다운 밤길이였다.

어느새 밤은 어둡게 깊어 있었고 하늘엔 술한 잔 별이 강을 이루어 흐르고 있었다.

“윤희는 별을 닮았어. 말고 영롱해 보이는 작은 별이야.”

무한히 행복했다.

어두운 산 속 푸른 별이 떴던 밤.

그 호젓한 풀밭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다.

그게 설령 전화가 두려워 찾아가던 피난길이었지만 사랑하던 우리들에겐 너무도 짙은 서정과 낭만이 피어오르던 밤길이다.²⁸⁸⁾

286) 얇으막한 담 너머로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게 보였다. / 학교 앞 마당엔 코스모스가 겹겹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 앞 마당뿐만 아니라 교문 밖으로도 길 좌우로 쭉 코스모스밭이 나란했다. / 가을이면 그 연한 잎새들 위로 갖가지 빛깔로 꽃이 피었다. / 가을 오후의 뽕오얏 학교 마당에서 가냘프고 나른한 꽃송이들이 조용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던 모습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영원한 향수로 잊혀지지 않는다. /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지금도 하얀 햇발을 보고 있으면 문득 그 촌 학교 앞 마당에 피어있던 코스모스가 생각난다. / 그건 첫사랑의 애인을 잊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어떤 여인의 미련처럼 절절하고 가슴 아픈 추억이 아니라 감미롭고 아득한 그리움이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24-25쪽)

287)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179쪽.

이 장면은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에서 가장 큰 긴장과 시련이 유발되는 사건의 첫 출발점이다. 윤희와 성호는 1950년 6월 22일에 결혼을 하였다. 부산 신희여행 사흘째 되던 날 한국전쟁 발발하자 이들은 충남 은진 성호의 외조모댁에 피신을 가게 된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대수난이 이들에게 아프고 괴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임을 피난가는 길의 “너무도 짙은 서정과 낭만이 피어오르던 밤길”을 통해 유추케 한다.

‘오곡이 무르익은’ 한적한 초가마을의 서정적 배경과 함께 ‘굽다’, ‘평화롭다’, ‘아름답다’, ‘그립다’ 등의 감각 언어는 순간적인 감각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형용사나 부사어와 같은 감각 언어는 산문 문장의 연속성을 파괴하면서 시적 분위기를 유발한다. 위의 장면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움직이면서 독자에게 그림을 제시해 주듯이, 독자들은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시킬 수 있으며 언어가 표출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지로써 나타내 장면이 풍기는 분위기가 작품의 주제를 대신할 수도 있게 된다.

역사적 서사가 뒤로 물러나고 자아와 세계의 화합은 ‘어두운 밤 산속의 푸른 별’과 같이 시적 문체로 드러난다. 독립된 단어군의 병치, 이미지의 언어, 반복적인 의미의 단어나 어구의 사용 등은 대상과의 서사적 거리를 소멸하는 시적 문체의 특성인 것이다.

서사의 인과성이 약화되는 시적 문체는 문장의 길이가 짧고 또한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도 풍성하지 않다. 박계형은 단문으로 문단 나누기를 해가면 짧은 호흡을 유지한다. 한 문장이 한 줄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유의 리드미컬한 문장은 서사구조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대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질투와 분노 등의 감정이나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을 묘사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²⁸⁹⁾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한 단락을 이루지 않고 각각의 문장이 대등한 형태로 나열된 체제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세로줄로 된 오래된 장정에서 오히려 읽기의 새로운 미학성을 던져주는 맛이 있다. 특히 대등하게 나열된 문장은 적게는 다섯 줄, 많게는 30줄, 평균적으로 15줄 정도가 나열되다가 한 줄이 떨어지면서 서사의 흐름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동일한 챕터 안에서 한 줄이 떨어지는 경우 서사의 휴지(休止)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인과의 계속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짧은 문장이 주는 간결성과 문장과 문장을 걸쳐 수놓은 시적인 순간들은 이 작품의 낭만성을 배가시키는 수사학적 장치이며 우리가 이 작품을 읽게 하는 큰 힘이 아닐까 생각된다.

288) 박계형, 앞의 책, 185-186쪽.

289) 잠시 후 그 청결한 숨결이 조용히 내 입술 위로 다가섰다.

감기듯이 부드러운 살결이었다.

첫 키스였다.

나는 심연에 가라앉듯 낮이 빠져버렸다.

무어가 무언지 몰랐다.

가슴이 뛰고 머리는 몽롱했다.

그건 성숙해서 술하게 체험해 온 그런 키스와는 달랐다.

뜨거운 열정도 깊은 희열도 아닌 그저 감도이었다.

이성으로서의 살 한 구렁이의 부딪침이 아니고 순백의 영혼을 파고든 깊은 결합이었다.

그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눈앞에 선연하다.

푸르스름한 대기 속에 조용히 흔들리던 앵두 가지들.

그 위로 보이던 멀고 신비해 보이던 하늘.

보랏빛 잠옷은 달빛 속에 떨리듯이 하늘 했고 잠옷 밑으로 빠져 나온 내 두 발은 빨간 샌들 속에서 뽀얀 우유빛이었다.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44-45쪽)

5. 나오며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윤정(이화여대)

소설가 박계형은 196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에 비해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오늘 진선영 선생님의 이 논문이 얼마나 중대한 한 걸음인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선영 선생님 덕분에 저 역시도 부족하나마 박계형이라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은 논문으로 새로운 앞을 주신 진선영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논문을 읽은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연구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기존의 논의를 좀 더 다각화할 필요를 느끼며” 텍스트 내부로 연구를 집중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낭만성을 증폭시키는 서사적 디테일, 낭만적 사랑의 양상을 분석하여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술해주신 선행연구 중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에서 밝힌, ‘낭만적 사랑의 이상과 환상’의 극대화라는 연구결과와 달리 이 논문에서 새롭게 강조하시는 점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진선영 선생님의 이전 연구에서는 박계형의 낭만성이 “즐거움, 환희, 기쁨보다는 이별, 아픔, 외로움의 측면에 집중하면서 슬픔의 감정을 주도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3장의 서두에서 이 작품을 “전형적인 낭만적 사랑 이야기”라고 평가하신 부분, 또 삶 전체가 행복했던 시간들의 연쇄(=연속)이라고 하신 부분과 겹쳐보면, 선행연구 결과와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계형의 낭만성과 이 작품에서의 낭만성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이 “‘순간’이 아닌 사랑의 ‘영원’과 ‘무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목을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간‘들’이라고 사랑의 ‘시간’을 분절하는 명명의 의도를 ‘영원’이나 ‘무한’이라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시간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루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하시면서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의 두 주인공의 낭만적 사랑의 양상은 당시 독자들의 행동 모델이 된다는 점, 다시 말해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체험을 확보하게 되는 것”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박계형의 정감적 사랑 이야기는 “상상력의 불명료성”이라는 창작 동기에 기인하며, “낭만적 사랑의 불가능성과 비현실성”을 의미화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작품의 낭만적 사랑이 당대 독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낭만성에 대한 환상의 극대화인지, 낭만적 사랑의 불가능성과 비현실성의 재고(再考)인지 저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